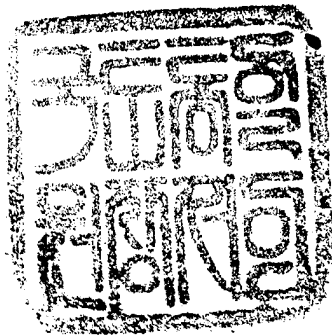


3861  
340.9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支援下에 延世大學校 東西問題研究  
院과 문헌大學校 東南유럽 經濟 및 社會研究所가 共同  
主管한 學術會議 ( '85. 10. 11 - 12. 롯데호텔 )에서 發  
表한 主題 論文임.

#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 政治經濟의 變動과 그 意義



752

사원리의적가변화  
소련개방정책  
중국 "  
북한 "  
동시외교  
북한-에외외교

國土統一院



# 目 次

開 會 辭 .....	金達中・Werner Gumpel	
致 辭 .....	朴 東 鎮	
<b>第1部 蘇聯의 變化와 政策 .....</b>		<b>1</b>
第1章 브레즈네프以後 蘇聯의 政治的 變化와 東歐에 미치는 影響 .....	Jens Hacker .....	3
I. 1982年以後 크레믈린 指導부의 세가지 變化 .....		3
II. 소비에트블럭內의 政治的 協力과 協議 .....		10
III. 最近의 事態 發展 .....		17
第2章 1980年代에 있어서 蘇聯의 東北亞政策과 韓半島...金學俊.....		25
I. 머 리 말 .....		25
II. 蘇聯 對外政策에 있어서 아시아와 東北아시아의 位置.....		27
III. 蘇聯의 東北아시아 政策에 있어서 韓半島의 位置 .....		34
IV. 蘇聯과 北韓 .....		36
V. 蘇聯과 韓國 .....		52
VI. 요약 및 결론 .....		55
<b>第2部 中共의 變化와 政策 .....</b>		<b>57</b>
第1章 中共의 對韓半島政策：繼續성과 調整 .....	金達中.....	59
I. 中共의 對韓半島 戰略的 關心 .....		59
II. 中・蘇紛爭의 脈絡에서 본 中共・北韓關係 .....		62

Ⅲ. 政策分裂의 脈絡에서 본 中共・北韓關係 .....	71	
Ⅳ. 中共의 對南韓關係의 調整 .....	75	
Ⅴ. 結 論 .....	84	
<b>第3部 北韓의 變化와 政策 .....</b>	<b>87</b>	
第1章 北韓의 權力承繼와 政策變化 .....	柳 錫 烈 .....	89
Ⅰ. 序 論 .....	89	
Ⅱ. 政治權力의 世襲承繼 .....	90	
Ⅲ. 政策變化：現在와 未來 .....	104	
Ⅳ. 結 論 .....	117	
第2章 北韓의 對外貿易 .....	李宗夏・朴振根 .....	120
Ⅰ. 序 論 .....	120	
Ⅱ. 北韓의 對外貿易 推移 .....	122	
Ⅲ. 北韓의 對外貿易의 主要特徵 .....	128	
Ⅳ. 北韓의 對外貿易 展望 .....	150	
Ⅴ. 結 論 .....	155	
第3章 北韓의 變化와 韓國에 미치는 影響 .....	安 秉 俊 .....	159
Ⅰ. 序 論 .....	159	
Ⅱ. 南・北韓關係의 本質 .....	160	
Ⅲ. 協商의 時代인가? .....	173	
Ⅳ. 問題와 展望 .....	184	



第4部 東歐 및 東南유럽 社會主義國家들의 經濟體制的 變化	191
第1章 經濟體制的 變化 原因과 改革的 政治的	
結果	Werner Gumpel 193
I. 經濟改革的 背景	193
II. 中央集權體制的 利益과 不利益	200
第2章 社會主義 經濟體制的 分化	Bruno Schönfelder 208
I. 序 論	208
II. 集權的 物資均衡化 및 配分	212
III. 產業構造	217
IV. 利潤의 役割	221
V. 集權的 및 分權的 投資 意思決定	224
VI. 價格體系	227
VII. 財政體系	229
VIII. 社會主義的 代案으로서의 協同組合	230
IX. 私企業의 殘滓와 “二次經濟”	234
X. 結 論	236
第5部 東西貿易	239
第1章 東西貿易의 두가지 法律的 基準	
.....	Friedrich-Christian Schroeder 241
I. 序 論	241
II. 公 法	242
III. 國際私法	254

第2章 CMEA 國家들의 對西歐 貿易 : EC를 中心으로 한 그의	
發展 .....	Peter Knirsch ..... 264
I. 論爭의 性格을 띤 東西貿易 .....	264
II. 東歐와 東南유럽 國家들의 對西歐 貿易에 對한 態度 .....	265
III. 東歐와의 貿易에 對한 西歐의 視角 .....	274
IV. 東西經濟關係의 現狀態 .....	281
V. 東西貿易의 重要性 .....	283
VI. 東西貿易에서의 EC의 位置 .....	287
第3章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經濟關係 : EC 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	Gert Leptin ..... 308
I. 序 論 .....	308
II.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的 經濟關係 .....	310
III. EC 와 연관한 獨逸內的 經濟關係의 政治的 問題 .....	314
IV. 法的 規定 條件 .....	317
V. 經濟的 結果 .....	320
VI. 實際的 經驗 .....	323
VII. 要 約 .....	326
第6部 東西經濟協力 .....	329
第1章 두가지 合作投資法 : 北韓과 中共의 事例 ... 尹 錫 範 .....	331
I. 序 論 .....	331
II. 두가지 合作投資法 .....	334

Ⅲ. 經濟에 關한 法律의 實現可能한 效果 .....	340
Ⅳ. 簡潔한 모형설정의 例解 .....	344
Ⅴ. 要約 및 結論 .....	348
第2章 社會主義國家와 非社會主義國家間的 國際分業과 國際經濟協力 의 最近趨勢와 條件 .....	Jenő Hámosi ..... 355
Ⅰ. 序 論 .....	355
Ⅱ. 東西 經濟關係의 最近 趨勢 .....	357
Ⅲ. 헝가리와 EC 의 連繫 .....	367
Ⅳ. 結 論 .....	371
著者略歷 .....	375



# 開 會 辭

金 達 中  
(延世大 東西問題研究院 副院長)

존경하는 朴東鎮長官님, 문헌大學校 ګ뮐펠 (Werner Gumpel) 教授님, 저명하신 同僚學者 그리고 神士淑女여러분! 第二次 韓·獨學術會議 組織委員會와 延世大學校 東西問題研究院을 代身하여 저는 이 學術會議에 參席해 주신 國內外 碩學여러분들을 眞心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수한 獨逸참가단을 조직하여 서울까지 모셔오신 ګ뮐펠교수님께 致賀하며, 그리고 제때에 會議를 위한 論文을 완성하여 보내주시고, 멀리 유럽 및 헝가리에서 오신 外國參加분들의 특별한 勞苦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참가하시기로 했던 두 분이 여기에 參席하시지 못하게 된것을 알려드리게 됨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東西問題研究院의 院長이신 李宗夏 教授님께서도 지금 스위스 로잔에서 거행되고 있는 88올림픽을 위한 南·北韓 스포츠會談에 한국측 代表團의 一員으로서 參加하시고 계시며, 우리가 學術會議를 하고 있는 동안 李教授님께서도 南·北對話의 外交를 수행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文獻大學校 킨더만 (Gottfried Kindermann) 教授님께서도 몇일전 오스트리아의 비엔에서 부친께서 91歲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會議에 參席하시지 못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저는 이번에 킨더만教授 가족들에게 깊은 哀悼의 뜻을 表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ګ뮐펠교수님께서 組織하신 第一次 韓·獨學術會議를 西獨의 文獻郊

외의 투징(Tutzing)에서 1983年 여름에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韓國에서는 여러분의 教授님들께서 參加하셨습니다. 그때부터 2年이 더 지난 이 때 우리는 社會主義國家의 政治 및 行態 뿐만 아니라 指導者 構成에 있어서도 重要的 變化를 목격했습니다. 저는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 政治·經濟的 變化와 그 意義에 對해서 조사하는 것이 時期的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 會議가 獨逸과 韓國같은 分斷國의 問題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國家에 對한 研究를 증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共同된 추구를 위하여 한국과 독일의 政治·經濟學者들을 모으기 위한 重要的 공개토론회로서 이바지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우리는 東歐에서 오신 學者님께서 공식적으로 논문을 제출하시고 참가해 주신 것도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헝가리 과학원의 世界經濟 研究所에서 오신 하모리(Jenő Háromi) 博士님을 모시게 됨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會議를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朴東鎭장관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또한 韓國國際文化協會, 韓國學術振興財團, 外務部, 그리고 三星物產株式會社의 財政支援에 對한 謝意를 표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會議가 탁월한 學術的 結果를 맺을 것이고 또한 이 會議가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저의 의지를 되풀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모든 외국참가자들께서 韓國에 머무시는 동안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開 會 辭

Werner Gumpel  
( 문헌 大學校 教授 )

우리는 東歐, 中共, 北韓 등 社會主義國家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번이 두번째 會議입니다. 첫번째 會議은 문헌 근처에 있는 투징 (Tutzing)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재미있고 유익한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會議가 社會主義國家에 對한 研究에 신선한 자극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平和共存을 위한 길을 摸索해야 합니다. 貿易關係의 發展이 平和共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貿易과 經濟協力이 社會主義國家에 있는 사람들과의 接觸을 가능하게 하고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貿易이 經濟 및 政治的인 側面 뿐만 아니라 人間的인 側面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社會主義國家와 貿易을 수행하고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國家들의 政治的인 상황뿐만 아니라 經濟的인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國家들의 強點과 弱點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 강점과 약점을 안다면 政治 및 經濟的인 결정을 하기가 더욱 쉬울 것입니다.

이 會議의 目的은 이 問題에 對하여 科學的으로 고찰하고 어떤 結論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 會議은 李宗夏 院長님과 金達中 副院長님을 필두로 한 延世大學校 東西問題研究院의 努力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4년전에 그들은 研究團體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延世大學校

의 東西問題研究院과 문헌大學校 東南유럽 經濟 및 社會研究所間的 최초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런 研究團體는 여러가지 이유로 重要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國家의 두개의 重要한 大學의 學者들間的 協力을 가능하  
게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共產主義者들에 의해서 國境이 分斷된 두국가  
간의 經驗을 상호 교환할 기회를 만들었으며, 그 經驗들을 과학적으로 재  
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까지 너무 적게 일어나고 있습니  
다. 아마도 우리의 업적이 다른 몇몇 학자들에게 자극을 줄 것입니다.

저는 한국친구들이 그들 나라에 초청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準備된 모든 活動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會議를 성공  
적으로 만드는데 정말 수고하신 金達中教授님께 특히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장래에 더 가깝게될 협력으로 한 걸음 더 進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우리의 會議가 성공적으로 끝나칠 수 있기를 빕니다.



## 致 辭

朴 東 鎮  
(國土統一院長官)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의 政治經濟의 變動과 그 意義」라는 重要한 主題에 關한 研究發表를 目的으로 하는 오늘의 韓獨學術會議에 參席하신 碩學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뵙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며,

本會議를 마련한 延世大學校 東西問題研究院과 문헌大學 東南유럽經濟 및 社會研究所의 勞苦를 먼저 높이 致賀드리는 바입니다.

韓國과 獨逸은 自由·平和·統一이라는 公同의 價値를 追求하는 友邦으로서 兩國民間의 交流와 相互協力關係는 이미 一世紀 以上 持續되어 왔습니다.

또한 韓國과 獨逸은 不幸히도 第2次大戰 以後 東西冷戰의 構造下에서 國土分斷과 民族分裂의 試鍊을 현재까지 다같이 體驗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兩國民은 民族과 國土의 分斷에 있어서 相異한 經驗을 가지고 있습니다.

韓半島에서는 南北韓間에 同族相殘의 悲劇인 6.25 戰爭의 體驗과 40年에 걸친 分斷의 障壁으로 말미암아 民族의 異質化가 深化된데 反하여 東西獨間에는 일찍부터 交流와 協力이 이루어져 信賴가 回復됨으로써 平和共存의 關係를 定着시키는데 成功하였습니다.

또한 東西獨은 각기 NATO 와 바르샤바條約機構에 加入되어 東西間의 對峙속에서도 獨逸과 유럽의 平和와 安定이 維持되고 있는데 反하여 韓半

島는 強大國間의 利害가 相馳된 가운데 平和裝置가 마련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南北韓은 軍事的으로 尖銳하게 對峙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最近 蘇聯의 極東軍事力 增強과 北韓과의 密着은 東北亞의 緊張을 高潮시키고 非正常的 事態가 發生할지도 모르는 憂慮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南北韓間에는 우리政府의 主導의 努力에 의하여 對話가 持續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月 以後 南北韓間에는 兩次的 赤十字會談, 四次的 經濟會談 兩次的 國會會談을 위한 豫備接觸등 多樣한 對話가 進行되고 있으며, 지난 9月에는 赤十字社 主管下에 故鄉訪問團과 藝術團의 交換訪問을 實現시킴으로써 最初의 交流를 實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南北間 對話의 樣相은 外觀上으로는 過去의 經驗에 比할 때 相當히 鼓舞的이기도 하나 세심히 檢討해 볼때는 北韓의 赤化統一 對南基本戰略 自體의 變動을 示唆하는 明白한 證據는 아직 發見되지 않고 있으며 1983年 10月의 량군事件이 造成한 國際社會에서의 北韓의 惡化된 Image를 脫皮하자는 目的과 北韓의 經濟難局의 克服을 위한 對西方接近 및 韓國의 對北安保態勢 弱化등을 노리는 戰術的 變動에 그치고 있다고 우리는 分析하고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北韓의 對南基本姿勢의 變動 卽 赤化統一戰略의 拋棄이며 이러한 政策變化는 北韓內部的 政治, 經濟, 社會的 與件의 推移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만큼 금번 韓·獨學術會議에서 舉論될 主題는 統一問題를 取扱하는 우리 立場에서도 많은 參考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韓國은 이미 누누히 또 公開的으로 說明되고 闡明된 바와 같이  
南北의 統一은

첫째로 平和的 方法과 國民의 總意를 忠實히 反映하는 民主原則을 바탕  
으로 成就되어야 한다는 政策을 견지하고 있으며,

둘째로 이미 40年の 分斷으로 理念과 制度의 差異가 齊來한 南北間의  
異質化를 留意하여 現存하는 諸般問題中 離散家族의 再會, 交易, 스포츠交  
流와 같은 解決이 比較的 容易한 問題부터 먼저 協商을 통해 合意를 摸  
索하고 적은 合意를 累積시키고 相互信賴感을 造成해 가면서 더 어렵고 큰  
問題의 解決을 試圖하는 段階的이고 實際的인 接近方法을 取하고 있으며,

세째로는 南北의 統一이 勿論 우리 6千萬民族의 熱望이며 必히 成就되  
어야 할 目標이기는 하나 當面한 急先務로서는 韓半島에 우선 平和를 確  
固히 定着시키고 戰爭의 再發을 完全히 封鎖하려는데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基本立場입니다.

換言하면 우리의 立場은 例컨대 相互不可侵協定을 締結하고 可能한 限  
周邊強大國의 支持까지 얻어 낼 수 있는 措置를 통해서 韓半島平和를 定  
着시키는 것이 統一問題 보다 先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東·西獨의 경  
우와 같이 南北韓關係에 平和共存狀態가 造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北韓은 理念과 制度의 差異가 일킨 40年の 斷絶狀態는 전  
혀 介意치 않고 急進的인 提議만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沙上樓閣式 統  
一을 主張하는데 不過할 뿐 아니라 韓半島에서의 戰爭抑止에 크게 寄與하

고 있는 韓·美軍事協力の 停止를 계속 主張하면서 自體의 軍備擴充에 GNP의 막대한 部分을 投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인 바 이러한 接近方法은 安定보다는 混亂을 招來한다는 것이 우리側의 見解이기도 합니다.

蘇聯外相이 最近 UN 總會에서 政策演說을 하는 中 오늘의 國際關係에서 가장 緊急한 課題는 戰爭의 危險을 防止하고 相互信賴를 回復하는 것이라고 強調한 事實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이러한 見解는 北韓에게 좋은 忠告가 될 수 있습니다.

韓半島情勢와 獨逸情勢를 比較한다면 獨逸國民은 分斷問題를 Korean 보다 훨씬 現實的이며 賢明하게 對處하고 있다고 보이며 보다 더 人道主義的 考慮가 濃厚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北韓의 共產指導層이 하루 빨리 幻想에서 벗어나 實際的인 接近을 擇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長期的인 戰略으로 對話에 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희망은 많은 忍耐를 要할 것이고 결국은 北韓 內部的 政治的 變化에 直結되고 있기 때문에 이 會議에 모이신 여러 碩學들의 高見은 매우 價値있다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여기서 本人은 最近 中共이 人民日報 社說을 통해서 Marx의 共產主義는 現在의 經濟 및 社會問題에 對處하기에는 陳腐한 理論이 되고 말았다고 論評한 事實을 想起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 學術會議가 韓・獨碩學들의 交流를 더욱 活潑하게 하며 이러한 努力을 통해서 韓・獨間의 理解와 協調가 增進됨은 勿論 韓國과 獨逸의 自由와 平和 그리고 繁榮의 土臺위에서 平和的인 統一을 이룩함에 있어 繼續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 第1部 蘇聯의 變化와 政策

第1章 브레즈네프以後 蘇聯의 政治的  
變化와 東歐에 미치는 影響

第2章 1980年代에 있어서 蘇聯의 東北亞  
政策과 韓半島





# 第1章 브레즈네프 以後의 蘇聯의 政治的 變化와 東歐에 미치는 影響

Jens Hacker

( 레게스버그大 法學教授 ) :

## I. 1982年 이후의 크레믈린 指導部の 세가지 變化

蘇聯의 연구가와 크레믈린 관찰자들은 계속하여 붐(boom)을 즐긴다. 이러한 것은 그들의 연구 분야의 本質에서 연유한 것이다. 全體主義的 政體와 완전히 지도되는 정보 政策을 보유한 國家들은 西方의 관찰자들이 그 지도 體制와 政策 결정을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黨 지도자, 또는 국가 지도자가(동일인일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거나 탈락(drop out)할 것으로 보일 때에, 외부의 분석가들은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하여 왔던 것이다. 그 이전에 필요하였거나 적어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지도부 최고층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브레즈네프後 세번째 지도자 교체때까지 소련의 黨 및 國家의 指導部는 항상 西方의 저명한 共產主義 연구가들 조차도 속여왔다.

그것이 全體主義的인 政府를 가진 國家들의 特徵 中の 하나로서, 다시 말해 누군가를, 그 스스로 좀처럼 사임하는 일이 없는(즉, 그가 사임하도록 강요받아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그 권좌에 앉히는 특별한 방법인 것이다. 1964年 10月 14日의 니키타 후르시초프의 몰락은 강요된 사임의 일례이나, 소련의 歷史上, 이것은 아직도 예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히 政治的 동기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크레믈린 지도자의 건강상태로는 이러한 극적인 절차에 대한 이렇다할 명분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全體主義 體制의 분석가들은 全體主義體制의 지도자와 그 國

민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國家 및 黨의 지도자들이 항상 그들의 病이나 질환을 숨기는 이유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共產主義 國家의 自我 認識 ( self - concept ) 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 社會主義의 民主主義 ” 에 의할 때, 人民이 그 스스로를 지배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지배계급과 國民 사이의 괴리는 이러한 共產主義下 이외의 世界에서는 그 어디에도 存在하지 않는다. 蘇聯에서도 동구 불력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도부가 가능한 스스로를 國民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은 과거의 王과 황제들이 행사하였거나 시도하려 하였던 것과 여러 면에서 매우 흡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 지도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가는 國民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최후의 마지막 운명만이 숨겨질 수 없으므로 인정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죽음에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든, 병이든, 졸중풍이든 또는 점차적인 쇠약이든간에 그것은 금기 ( 禁忌 ) 이다. 지도부의 일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감사받지 못한다. 그러한 것은 오로지, 불가사이한 기구인 黨의 관심사일 뿐인 것이다.<sup>1)</sup>

브레즈네프의 후계자인 유리 안드로포프에게, 서기로서 共產黨과 소련을 15개월동안 이끌어갈 특권이 주어졌었던 후에, 안드로포프의 후계자인 콘스탄틴 체르넨코의 지도 역시 짧은 막간이 되어 버렸다. 그의 건강상태가 계속 나빠졌기 때문에, 그는 13개월 밖에 지도자 위치를 고수할 수 없

---

1. Cf. Wolfgang Wagner: Die Geheimnisse des kreml, in: Hannoversche Allgemeiner Zeitung of Febr. 9/10, 1985.

있던 것이다. 브레즈네프와 안드로포프는, 병자가 된 후에 거의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도, 모스크바의 권력구조가 制度化된 구제방법 (relief mechanism) 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고위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매년 있는 장로정치인들의 황혼 (götterdämmerung): 마치 基督教 Schmidt-Häuer 가 1985年 2月 15日 자 Die Zeit 紙에 실린 그의 에세이 “Platz freifür die Junge Generation?” 에서 말하였듯이, 모두 똑같이 번덕스런 운명으로 단 39개월안에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크레믈린 指導者의 교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모든 것이 정말 다르다. 크레믈린은 계시적 霧圍氣에 있지 않다. 混亂이 한번 外部的으로 나타난 데에서, 暫在的 계승자의 傳統的인 陰謀가 아니라 增加된 開放性을 볼 수 있다. 蘇聯共產黨의 歷史에 있어서, 指導者 交替의 準備가 이번처럼 政治的 와해와 마비적 결과를 수반하지 않고 잘 이루어졌던 적은 없었다.

사실, 크레믈린 觀察者들이 브레즈네프 이후 이번의 세번째 指導者의 교체와 蘇聯 指導部의 세대 교체를 예견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이 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가 충분히 이른 시기인 1984年 10月 중순 경에 체르넨코 다음으로 (序列上) 미카엘 고르바초프를 “제 2서기장”으로 불렀던 이후로 (第 2書記長이라는 權座는 前에 사용되었던 적이 없다) 상상력을 크게 發揮할 必要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소비에트 블럭과 소비에트 外交政策을 研究해온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상력 發揮같은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었다. 1957년부터 계속 外務長官職에 있는 안드라이 그로미코는 指導部의 어떤 교체에도 해를 받지 않았다. 그는 특히 소련 政府가 약화된 때에는, 蘇聯의 外交와 共產블럭에서의 政治的 연속성에 그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

下的 짧은 期間에서와 마찬가지로 브레즈네프가 병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職務가 어려웠던 몇년 間에도 그러하였다. 1973年 이래 政治局員인 그로미코는 國家委員會(The Council of State) 第1 副議長으로 選出되면서, 안드로포프下에서 國家指導部에 세력 범위를 넓혀갈 수 있었다. 蘇聯의 外務長官으로서 그로미코는 수차의 演說을 통해 蘇聯의 外交 및 블럭政策에 관해 구속력 있는 聲明을 發表하였다.

체르넨코 死亡 이후의 역할 配分을 豫測한 蘇聯 研究家들은 극히 적은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蘇聯 觀察者들은 그로미코가 크리믈린에서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었다. 黨과 국가지도부의 두 개의 최고 지위가 더이상 동일인의 차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1977年 이래의 蘇聯의 特徵적인 政治現實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黨 指導者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1958年 3月 27日 당시 국가 수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었던 國家委員會(The Council of state)의 의장이 되기까지는, 4年半이 소모되었다. 1964年 10月 14日에 共產黨 中央委員會 제 1비서로 선출된 레오니드 브레즈네프는 1977年 6月 16日 니콜라이 포드고르니(Nicolae Podgorny)에게서, 蘇聯 最高 소비에트議長(The Chairman of the Supreme Soviet)의 자리를 넘겨받기까지 거의 13년을 기다려야 했다. 브레즈네프의 후계자인 안드로포프는 불과 7개월 만에 그 일을 해치웠으며(1982年 12月 12日: 共產黨 書記長, 1983年 6月 16日: 국가수반) 체르넨코는 단 2개월이 걸렸을 뿐이다(1948年 2月 13日: 서기장, 1984年 4月 11日; 국가수반)

1985年 3月 10日 체르넨코 死亡以後 그 놀랍도록 신속한 指導部 개편은 모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였지만, 고르바초프가 오랫동안 내정된 후계

자 있었으므로 그것은 당연히 예견되었어야 했다. 고르바초프는 1985年 3月 11日에 共產黨 中央委員會의 書記長으로 선출되었다. 그가 케르넬코下에서 부서기장으로 있었을 당시 蘇聯 政策 형성에 미친 그의 影響은, 안드로포프下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컸다. 그가 불과 54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와 그의 전임자 사이의 年齡差異는 거의 20年인 것이다.

그는 서기장직으로 승진된 가장 연소한 政治局員일 뿐만 아니라 이념가들의 유산을 물려 받은 행동가이기도 한 것이다. 2)

西方에서는 고르바초프 역시 그의, 새 전임자들과 꼭 같이 국가원수지위인 최고연방 소비에트회의장직에 취임하여, 두 직위를 兼任하려고 할 것인지에 관한 추측이 분분하였었다. 1985年 6月 2日에 蘇聯의 지도부는, 黨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1985年 3月에 취임한 후 人事에 있어서 가장 격심한 變化를 직면하게 되었다. 세대교체가 시작되자마자 그로미코 外務長官이 - 근 30년에 가까운 國際舞臺에서의 政治的 經驗後에 - 주로 대표자적 임무수행의 지위인 동방세력의 대통령 (President of the Eastern Power)에 임명되었다. 前 그루지아 공화국 당서기 로마노프가 中央委員會 서기자리를 차지하기 단 하루 전에 政治局政委員으로 받아들여진 셰바르드나제 (Shevardnaze)가, 그로미코가 1957年 이래 확고하게 그리고 충분한 影響力으로 指揮해 온, 外務部를 넘겨 받았다. 고르바초프는, 국가원수의 자리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蘇聯 歷史를 돌이켜볼 때 미증유라고 할만한

2. Cf. 더욱 세세하게, Boris Meissner: Der dritte Führungswechsel nach Breshnew, in: Osteuropa, Vol. 35/1985, pp. 381-395; Archie Brown: Gorbachev: New Man in the knemlin, in: Problems of Communism, Vol. 34/1985 (May-June), pp. 1-23.

방법으로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켰다. 3)

고르바초프가, 현재, 80세의 高齡이며, 더 이상 건강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티초노프(Tichonov)가 맡고 있는, 수상의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티초노프는 “高齡의 브레즈네프와 그가 신임한 체르넨코에 가깝고, 안드로포프와 그의 政策에 덜 호의적이었던” 蘇聯指導者 집단에 속하여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그의 政策을 推進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고르바초프가 수상의 자리를 맡게 되면, 그는 당 지도부의 지도와 監督下에서, 통치가 아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蘇聯政府에 대해 확고하고 직접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손쉽고도 效率的인 方法을 통하여, 그는 국가관료주의와 특히 答答한 行政部署가 자신의 의지를 吸收하도록 할 수 있다.”<sup>4)</sup> 고르바초프가 최고의 軍事機關인 國防委員會 議長으로서 軍事指揮權을 쥐고 있다는 것을 관과해서는 안된다.

고르바초프가 蘇聯 經濟의 效率性을 증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속되는 東西紛爭(특히 對美關係에서)에 몰두하여 왔다고 하여서, 蘇聯의 앞마당인 중부 유럽과 동남 유럽의 형제국들이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정반대인 것이다: 數次의 演說과 事件들을 통해, 이 새로운 蘇聯指導者는 東歐블럭의 단결과 블럭內 小

---

3. Cf. Werner Adam: Gornyko Sowjetisches Staatsoberhaupt der Georger Schewardnadse. neuer Außenminister,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of July 3, 1985; Festigung der Positionen in Moskau, in: Neue Zürcher Zeitung im Fernausgabe No. 154 of July 7/8, 1985.

4. Cf. Johann Georgy Beimüller: Gorbatschow wird mächtiger,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of July 3, 1985.

國들의 規律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月 하순 바르샤바에서 바르샤바조약을 연장할 때, 바르샤바 條約의 諸黨과 諸國家의 指導的 代表자들의 회합을 실현시킨 것은 블럭內 規律이 그의 생각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 다른 예가 티초노프 수상이 相互經濟援助會議 (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id) 제 40 차 회의를 이용하여 會員國들에게 강제적인 協力を 요청한 것이다. 브레즈네프死亡 後 소비에트블럭內의 몇몇 注目할만한 사건들의 대체적인 概要를 把握하기 전에 東歐블럭의 協력과 協議의 형태에 關係 간략히 설명하겠다. 이 會議의 다른 강연자들이 주로 經濟的 問題들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본인은 인접한 “社會主義 共同體”의 政治的 協力を 특별히 강조하려 한다.

## II. 소비에트블럭소비에트 블럭內의 政治的 協力과 協議

바르샤바條約國, 즉 隣接 “社會主義 共同體”間的 관계에서는,여러가지 方法的 協議가 중점적 역할을 한다. 우리는 政府水準의 協議와 黨 水準의 協議를 구별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協議가 制度內 또는 制度外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소비에트 블럭의 가장 중요한 두 多邊的 機構는 바르샤바 條約과 相互經濟援助會議 (COMECON)이다. 1949年 1월에 成立된 위원회는 현재 10개의 會員國(불가리아, 東獨, 폴란드, 루마니아, 蘇聯,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몽고, 베트남, 쿠바)으로 이루어져 있다. 友好, 協力, 相互協助에 관한 條約과 함께 1955년 5월 14일에 성립된 有效期間 20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3년동안 8個國만이 그 會員國이었다. (알바니아, 불가리아, 東獨, 폴란드, 루마니아, 蘇聯, 체코, 헝가리). 그리고 1968年 9月 13日 이래 이 東歐 軍事條約은 단 7個 會員國을 가진 조약일뿐이다.: 알바니아는 체코에 대한 5개 바르샤바 조약국들의 군사적 간섭에 대하여 항의하여 바로 그날로 조약 가입을 취소하였다. - 루마니아는 그 행동에 참가하지 않았었다. 어떤 會員國도 20年 기한이 끝나기 1년전에 그 회원자격을 취소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하여 바르샤바 조약은 또다시 10年동안 즉 1985年까지 有效하게 存續하였다.

### 1. 바르샤바 條約의 發展

바르샤바 條約의 발전을 되돌아보면, 현재 存在하고 있는 견해의 차는 黨



지도자 브레즈네프와 首相 코시킨下의 蘇聯 지도부가 同盟의 책임 영역을 넓히려고 할 때인, 1960年代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同盟內의 군사적 協力を 強化하고 바르샤바 條約의 機能構造를 強化하려는 크레믈린의 노력은 주로 루마니아의 저항으로 인해 1966, 67년에 失敗로 돌아갔다. 그러나 소련 지도부가 바르샤바 條約에 얼마나 큰 군사적 및 政治的 機能을 부여하였는지는, 부카레스트가 대표를 보내지 않은 1967年4月 하순의 공산주의자 및 노동자의 諸黨의 칼스바드(Karlsbad)회의 사건에서, 브레즈네프에 의해 입증된다. 브레즈네프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일부 社會主義 國家들의 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政治的인 同盟을 부여할 것, 즉 바르샤바 條約 會員國들의 協力を 다변적으로 안정화할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後 몇달동안 모스크바와 부카레스트 사이의 견해 차는, 外交政策과 군사적 問題에 대한 그들의 評價속에 계속 存在하고 있었다.

蘇聯이 1948년에 成立한 相互 同盟條約을, 불가리아와는 1967年5月12日, 헝가리와는 同年 9月7日에 更新하였지만, 루마니아와는 更新하지 않았다. 1970年 7月 7日까지 새로운 同盟條約이 두나라 사이에 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해 두지만, 1964年 6月12日에 체결된 同盟條約에 의해 소련하고만 同盟關係에 있었던 東獨이, 1967년에 처음으로 - 그리고 성공적으로 -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불가리아와 同盟條約을 체결하였으나 루마니아는 여기에서 빠졌던 것과 1972년에 이르러서야 條約締結이 가능하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蘇聯과 체코슬로바키아 사이에 1943년에 체결된 相互同

盟條約은 1963 年에 更新되었으며 1945 年에 맺어진 蘇聯-폴란드 同盟條約은 1965 年에 更新되었다<sup>5)</sup> 成立된지 13 年이 지난후, 바르샤바條約은 “社會主義 共同體”의 “블럭” 구조에 지금까지에 있어 가장 날카로운 影響을 미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 1968 年 8 月 20 日과 21 日 사이의 야간에 감행된 蘇聯, 불가리아, 東獨, 폴란드, 헝가리의 체코슬로바키에 대한 군사적 介入. 루마니아에겐 “블럭” 단결과 外交政策上的 獨立 사이의에서의 選擇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었다. 外交政策의 獨立은 다섯 “형제국”들과 다른 介入 國家들이 처음부터 루마니아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蘇聯이 저어하면서도 용인하였던 것이다.

크레믈린은 체코슬로바키아 介入을 정당화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蘇聯이 政治的 論爭뿐만 아니라 法的 論爭조차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서구의 분석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1967 年의 헝가리 介入을 정당화(다른 말로는 변명)하려는 소련의 시도와 1968 年 8 月 21 日에 있었던 다섯개 바르샤바 조약국의 체코슬로바키아 侵入을 정당화하려는 소련의 시도 사이의 차이를 法律的 觀點에서 비교하려는 시도는 隣接 “社會主義 共同體”의 法的, 政治的 體制에 관한 문제에서 끝나고마는 정보제공적 차원의 결과를 낳는다. 무산계급적이고 社會主義的인 世界主義의 原則들을 니키타 후르시초프의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으나, 1968 年 7 月 15 日의 “바르샤바 서신”(Warsaw Letter)과 1968 年 8 月 3 日의 브레스버그(Pressburg)(Bratislave) 선언에서 定式化 되었던 정도는 아니었다.

---

5. For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Eastern Pact System cf. J. Hacker: Der Ostblock-Entstehung, Entwi Entwicklung und Struktur 1939-1980, Baden-Baden 1983.

後에 “브레즈네프 독트린” 또는 “모스크바 독트린”이라고 서방에서 이  
름 붙여진 주장 : 즉 社會主義 國家들의 제한된 主權에 대한 論文<sup>6)</sup> 이  
1968年 6月 21日 字 프라우다지에 게재된 이후에는 크레믈린이 체코슬로바키  
아에 대한 不法的 行動을 합리화하기에 “사회주의 공동체의 수호” 라는  
공식은 분명히 불충분하게 보였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군사적 介入이 지금까지 어떤 效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 1968年 8月 21日까지 바르샤  
바조약의 각 國家들은 - 알바니아는 예외 - 크레믈린이 同盟에서 脫退  
하려는 어떤 시도도 強力히 저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프라  
그의 봄 (Prague Spring)”이 끝날때 까지 이 점에 있어서 아무 것도 변  
화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루마니아는 소련의 이러한 政策을 잘 알고 있  
었으며, 따라서 가능한 한 同盟에서의 군사적 協力을 감소시켜가면서도 크  
레믈린이 용납할 수 없는 한계는 넘지 않았다.

무엇이 社會主義的, 歷史的 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크레믈린이므로, 國內政策에 관한 바르샤바 條約國들의  
指導力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사태가 무척 惡  
化된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 업적의 保護 (Protection of Socialist Achie-  
vement)” 라는 공식이 각각 1970年 5月 6日과 1975年 10月 7日에 소련이 체코  
슬로바키아 및 東獨과 함께 체결한 새로운 同盟條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와는 달리, 루마니아는 1970年 7月에 更新된 소련과  
의 同盟條約안에 이 공식 (社會主義 업적의 보호)이 확립되지 않도록 막

---

6. 介入에 관한 정당화 및 기타 cf. J. Hacker, *ibid*, pp. 773-805,  
919-926.

을 수 있었다. 그러나 自國의 지위를 회복시키려는 루마니아의 政策의 逆 (“社會主義 업적”의 嚴格한 유지에 表現되어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루마니아는, 또다시 1970年代 後半과 그 이후에 소련의 지도부가 바르샤바 條約을 政治的 調整기구로 개조하려는 소련의 始圖를 좌절시켰다. 제 25차 당대회 동안인 1976年 2月 24日 브레즈네프는 “바르샤바 조약의 정치자문위원회 (The Political Advisory Board)는 諸黨과 國家의 지도적 대표자들 사이의 協力を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에 속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몇달 후, 정치자문위원회의 15차 회의중이었던 1976年 11月 25, 26日 브레즈네프는 “조정된 정책 (Cordinated Policy)”의 공식에 여타 바르샤바동맹회원국들을 끌어들이려고 몹시 노력하였다. “바르샤바 조약內의 政治的 協議의 메카니즘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 장관들과 총비서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政治協議委員會의 새로운 기구로서 創設될 것이, 부카레스트 會議에서 결정되었다.

이 회의 직전에, 브레즈네프는 부카레스트에서 루마니아 政府와 협상을 전개하였다. “外交政策 행위의 조정”이라는 브레즈네프의 공식이 아니라 “效果的인 協力”에 대한 言及만이 공동성명서 안에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는, 루마니아側은 同盟의 政治協議委員會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sup>7)</sup>

## 2. 바르샤바 條約의 協議條項(第3條)과 相互同盟條約

바르샤바條約國의 關係內에서 다른 협의방법을 검토해 볼 때에, 쌍무적 水準과 多邊的 水準을 또한 구별해야 한다. 隣接 “社會主義 共同體”의

---

7. 증거 cf. J. Hacker, *ibid*, 806-815.

多邊的 화합을 위한 法的 기초는 바르샤바 條約 3條 1節에 명기되어 있다.:

“條約의 諸 締結 當事者들은 그들의 공동관심사에 影響을 미친 모든 重要한 國際問題에 關係 協議할 것이며, 世界平和와 安保의 強化에 대한 關心에 의해 인도될 것이다.”

이 조항은, 서명 當事者들을 반드시 共同行動이 아니더라도 協商으로 끌어들이는 소위 간단한 協議條項이지만 “모든 중요한 國際問題”라는 공식은 軍事的 問題뿐만 아니라 共同的 外交政策에 關係한 問題도 역시 바르샤바條約 內에서 협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3條 1節이 바르샤바 條約이 確實히 條約 當事國의 外交政策을 共同으로 조정할 討論場으로서 봉사함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르샤바條約의 協議條項(3條 1節)이 外交政策을 조정할 義務를 명백하게 言及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카레스트당국은 政治的, 法的으로 안전한 지위에서 主張을 펴왔다. “조정(Coordination)”이란 것은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概念으로서, 바르샤바條約 3條 1節에 言及되어 있는 간단한 協議와 구별되어야 한다. 간단한 協議는 결국 정보교환인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 간단한 協議는 반드시 후속적인 어떤 중요한 行動을 촉발하거나 義務化하는 것은 아닌 반면에, 조정은 各國의 政策들이 어떤 目標을 위해 協力되어야 하고 그 目標의 達成을 위해 필요한 수단인 이용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共同調整은 개개의 조치의 단순한 합계가 아니라 고도의 단결, 그것이다.” (A. Uschakow)

다시 요약하여 말하면, 바르샤바 條約 3條 1節에 명시된 간단한 協議條

項이, 전체 外交政策의 조정 또는 조정의 의무를 자명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는 않다. 바르샤바 條約의 일개 規則이 同盟의 특정분야에서의 協力을 言及한다는 사실은, 어떤 同盟에서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바르샤바條約의 간단한 協議條項과 대비하여, 蘇聯과,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東獨 等과의 同盟條約에서는, 적당히 조건부적으로 변형된 협의조항이, 同盟國들이 國際問題에 관해 協議할 뿐만 아니라 동의된 지위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다섯 “형제국”들은 同盟條約에서 獨立的인 外交政策을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東獨과 불가리아는 社會主義國家 共同體의 外交政策을 조정함에 관한 한 “大兄 (Big Brother)” 에게 최우선의 결정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두 國家가 모두 이것을 獨立的인 外交政策의 완전한 포기으로써 해석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변형된 協議條項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外交政策을 조정할 의무를 주장하면서 蘇聯에 對한 자신들의 충성심을 표현하는 東獨의 저술가들에 의해서는 찬성되지 않고 있다. 덧붙이건대 : 바르샤바 條約國家들의 지도부가 소련과 소련共産黨의 지도적 역할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만큼 —그리고 이것은 특히 東獨과 불가리아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認定은 相互同盟條約의 協議條項에 관해 言及하는 것은 아니다.<sup>8)</sup>

---

8. 보다 세밀한 증거로 cf. Dietrich Frenzke: Die Rechtsnatur des Sowjetblocks. Eine Juristische Entschleierung, Berlin 1981.

### Ⅲ. 最近의 事態 發展

東歐블럭은 항상 하나의 고도로 분화된 구조이어 왔다. 소련의 “붉은 군대 (Red Army)”의 강력한 지원하에 형성된 “不平等한 파트너들”의 同盟인 이 國家同盟에는 아직도 統一성과 同質성이 심하게 결여되어 있다. 이 同盟은, 지도세력인 소련이 單獨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恒존하는 위협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결코 1984年 스탈린과 티토키가 결별함으로써 1950年代 後半에 대두한 다중심주의 (Poly-Centrism)를 통하여 그 통합력을 상실한, 共產主義·理念에 의해 결합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브레즈네프의 死亡 이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同盟內의 몇 國家들은 크레믈린 指導者가 브레즈네프에서 안드로포프로 그리고 또 다시 체르네펬으로 바뀌는 기회를 틈타, 그들의 外交政策 및 블럭정책에 있어서의 活動範圍를 넓히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작년, 즉 체르네펬의 조정하에서는 눈에 떠만큼의 차이가 있었다. 브레즈네프 時代에는 소련 지도부는 루마니아와 알바니아를 除外한 同盟國家들의 外交政策에 있어서의 단결에 依存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는,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다섯 바르샤바條約國들의 軍事的 介入이 있던 직후인 1968年 9월에, 알바니아가 바르샤바條約을 脫退하는 사실에 부딪친다. 다른 한편 루마니아의 黨 및 國家 指導部는 시간을 갖고, 그 國家利益에 충실한 政策을 추구하여 크레믈린을 몹시 괴롭혔다.

소련은 다른 형제국들이, 최소한 그들의 外交政策의 몇 부분에서의 活動範圍를 넓히고 따라서 브레즈네프 후계자들의 “블럭”감수성 (“Bloc”-sensitivity)을 試驗하려는 기회로, 브레즈네프 사후의 약한 지도부체제를 이용한 새로운 狀況에 직면

하게 된다. 특히 그때까지는 불가리아와 함께 가장 충성스러운 兄弟國들 중의 하나이던 獨逸民主共和國 ( G.D.R )이, 자신의 獨逸政策과 관련하여 活動範圍를 넓히려고 한 사실은 많은 西歐 觀察者들에게 큰 놀라움이었다. 1983年 6月 초에 동베를린에 장기간 주재하고 있는 “지배 대사 ( Ruling Ambassador )”, Project Abrassimov 의 소환에 동베를린의 국가 및 당 지도부가 반응한 방식은, 獨逸 사회주의 통일당 지도자들의 자신감을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련의 “ 監督者 ( Supervisor ) ” 가 필요하지 않았다.

크레믈린의 권력이양이 끝이 난 1985年 첫 몇달까지 루마니아, 헝가리, 東獨은 서로 전혀 다른 동기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블록의 강경파들 -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 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對西方 政策에 자리를 잡았다.<sup>9)</sup> 東獨의 주요한 目標은 獨逸 聯盟 共和國과의 대화와 협상의 政策을 계속하는 것이다. 西獨이 東獨指導部에 말을 걸자, 蘇聯指導部가 西獨에 대해 심한 비난을 퍼부어야 한다고 느낀 1984年 여름에, 東歐블록 內의 對西方政策에 관한 차이가 임시적으로 극에 달하였다. 東베를린이, 모스크바, 바르샤바, 프라하로부터의 論爭적이고 非客觀적인 言及들을 유포하고 - 보류하였다는 편이 옳거나 -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東베를린의 對西方 政策에 관한 부다페스트의 찬성 發言을 발표한 方式은 前例없는 일이었다.

---

9. Cf. the instructive study of Charles Bati: Soviet Empire Alive but not well, in: Problems of Communism, Vol. 34/ 1985 (March-April), pp. 73-86; Differenzen im Ostblock uber die Westpolitik, in: Deutschland-Archiv 1984, pp. 991-1003.



소비에트 블럭內의 개개 國家들의 對西方 政策 뿐만 아니라, 바르샤바 條約이 更新되어야 하는 형식에 관한 問題에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다. 1955년 6월 4일에 비준된 바르샤바 條約의 유효기간은 30年이었고, 따라서 1985年 6月 3日에 失效되었다. 일반적인 國際契約法에 따르면, 계약의 失效日로부터 當事者들이 더 이상 條約을 만족시킬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일정 기간동안 有效하도록 備準된 條約은 만기에 앞서 更新되지 않는 한, 동의된 有效期間이 끝날 때 자동적으로 失效된다.

따라서 소련과 그 同盟 상대국들에게는 두가지의 방도가 있었다: 즉 그들은 바르샤바 條約을 변동없이 更新하든지, 또는 그 동안 진전된 새로운 政治的, 軍事的 事實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계약에 동의하든지 할 수 있었다. 소련 지도부는 그들의 의도를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sup>10)</sup>

1984年 11月 중순에 Nicolae Ceauscu는 당시에 크레틀린이 의도를 發表하지 않았는데도, 최초로 第13回 黨大會를 바르샤바 條約의 미래라는 미묘한 問題를 단호하게 다루는 機會로 利用한 최초의 同盟國 國家 및 黨 指導者 였다. 東獨 國民들은 위에 言及한 Ceauscu의 演說의 구절이 東獨 報道媒體에 公표됨으로써, 처음으로 30年의 有效期間 後에 바르샤바 條約 更新의 必要性을 깨달았다.

더 말하자면: 부카레스트는 용기를 갖고 契約의 更新을 可能한 限 짧은 期間에 걸쳐도록 契約을 更新하려는 希望을 發表하였음에 반하여, 蘇 聯은 다시 20年과 30年 사이의 期間을 생각 하였었다. 동베를린은 그

---

10. Cf. J. Hacker: Was wird aus dem Warschauer Pakt?,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of Dec. 7, 1984.

자신의 입장을 전혀 發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東獨 市民들은 또다시 부카레스트가 아닌 부다페스트로부터의 발표를 통해 바르샤바 條約 地域內에서 이 問題에 대한 論爭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黨 서기 코르바초프下에서의 蘇聯 지도부가 바르샤바에서 向後 20 年을 위한 바르샤바 條約 更新과 그 以後의 10 年의 후속적인 延長에 관한 協定書가 모든 當事者들에 의해 締結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을 때인 4 月 26 日,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希望은 -東獨의 見解는 분명히 確認되지 않았다. - 비참하게 깨어졌다. 1985 年 4 月 26 日에 있었던 바르샤바 회합의 共同 聲明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會員國家들은 바르샤바 同盟과 北大西洋 條約의 同時 폐기를-그리고 그 첫 段階로서의 各 軍事 機構의 同時 폐기 -支持한다 ” 11)

이 구절은 상당히 짧은 期間을 支持해 온 同盟 內의 모든 政治 勢力에게 있어서는 반갑지 않은 위로였다.

미카엘 코르바초프가 인접 “社會主義 共同體”의 지도적 대표자들의 첫 번째 共同多者會議에 참가하여 축하한 방식은, 소비에트 블록에 새로운 協力 時代가 시작 되려하던 모든 예상을 깨버렸다. 한편 코르바초프 역시 기꺼이 블록內 規律을 강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바르샤바조약의 일곱 國家가 어차피 相互同盟 조약의 완전한 망상조직에 의해 同盟 관계에 있다는 사실 덕분에, 소련이 다변적인 同盟을 필요

---

11. A. Korab: Osteuropa und die A-nderungen im kreml, in: Neue zurcher zeitung, Fernausgabe No. 154 of July 7/8, 1985.

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說(가끔 西方쪽에서 이러한 말이 나온다)에는 항상 아무런 근거도 없다. 相互條約은 다변적인 軍事同盟의 軍事的 기능뿐만 아니라 政治的 기능조차 수행할 수가 없다. 동구의 政治, 軍事的 條約體制(즉, 바르샤바條約)의 세번째 차원이 역시 기억될 수 있다.: 소련의 계약상의 權利인 폴란드, 동독, 헝가리內的 소련군 주둔. 西方의 분석가들이 6月 21日字 소련의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에 실린 기사가 새로운 서기장의 路線을 表現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 豫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는 스스로 “블럭” 政策에 대해 비슷한(그만큼 분명하지는 않지만) 發言을 강조하여 말했다. 다음 구절은 “프라우다”紙의 일부분이다.:

“現 狀況의 복잡성과 共產主義의 결의에 대한 책임은, 同盟의 단결을 위한 더욱 엄정한 기준과 계급의 적에 대한 조치들의 조정에 관한 問題들을 대두시킨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모스크바와 워싱턴 兩者에 의해 選定되는 갈등 영역내에서 최소한의 활동 범위를 유지하려는 동구의 조심스런 기도들이, 이 에세이에서 무뚝뚝하게 비난되고 있다. 초강대국間的 協商을 추구함에 있어서 小國들의 특별한 役割에 관한 논제(thesis)에 대해 불평을 늘어 놓는다. 이 불평은 소련의 同盟國들에게 그렇게 할 權利의 요구를 거절하는 의문문의 形式으로 행해졌다.: “소련의 外政策과 世界 社會主義의 맑스-레닌主義的 핵심의 하나가 주요한 國際問題에서 完全히 일치한다면, 소련과 미국사이의 의견不一致를 극복함에 있어, 어떤 社會主義國家들의 어떤 중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더우기 위의 “프라우다”紙 기사는, 계속하여 계급의 적을 西方이나 자신의 세력권에 양자택일적으로 위치 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世界觀(Weltanschauung)과 政策에 모두 다원주의(poly-centrism)를 선전”하여 社會主義 國家들에 “유사 愛國的인 民族

主義的 분위기를 강요”하려고 한다. 그것은 더우기 社會內에서의 黨의 指導的 役割을 “단순한 理念的 機能”의 수행으로 縮小 시키려고 한다.

또한 “프라우다”紙의 同 記事는 “성숙된 問題들에 대한 창조적이고 정교한 해결과 社會主義의 相互利益” 그리고 “社會主義의 自産의 強化”를 言及한다. 同 記事는 “民族主義의 배타성의 주장”을 “다른나라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본뜨거나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 하다”고 간주한다.<sup>12)</sup>

기본적으로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고 동독의 어떠한 政治的 아이디어에도 상치되는 이 計劃的인 기고는 고르바초프가 1985年 6月 16日 Dnepro-  
petrovsk에서 철강 노동자들에게 행한 연설의 단 몇구절만큼 밖에 동조를 얻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소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유복하면 유복할 수록 社會主義國家 共同體는 더욱 강력하여질 것이다”라고 고르바초프는 지적하였었다.

고르바초프가 취임한 후로 첫번째 회의로 6월말에 개최된 상호경제원조회의 第40次 회의과정에서, 소련 지도부가 Comecon의 더욱 확고한 단결과 더욱 密接한 統合을 達成하기 위해 努力을 경주하고

---

12. Cf. Bernhard Kupperts: Sowjetunion verlagte mehr Blockdisziplin, in: Suddeutsche Zeitung of July 1, 1985; Moskau und die "Sozialistische Gemeinschaft" in: Neue zurcher zeitung, Fernausgabe No. 153 of July 6, 1985; Festigung der Positionen in Moskau, ibid, Fernausgabe No. 154 of July 7/8, 1985; osteuropa und die Anderungen in krenl, ibid, Fernausgabe No. 154 of July 7/8, 1985; W. Adam: Maskau warnt vor einem 'nationalen kommunismus' in Osteuropa,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of July 1/1985.

있다는 것이 예증되었다. 바르샤바 회의는 브레즈네프 時代 동안에는 주로 Comecon 에 영향을 준 경기침체의 극복에 관련하여 개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의 目的에 입각해서, 크레믈린은 명백히 동구 國家들의 소련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군비적 공약을 중요시 했다.<sup>13)</sup>

西區 觀察者들은 마지막 두, 세 주 동안 모스크바에 세워진 정통적인 경제말뚝들은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1956年의 후르시초프에 있어서의 헝가리와 1968年 브레즈네프에 있어서의 프라하처럼, 폴란드 위기가 시작될 때와 끝난 후에, “고르바초프의 計劃에 있어 가장 불편한” 것은 다른 동구의 골치덩어리였다. 고르바초프는, 權力의 獨占을 박탈하는 經濟改革이나 國內 및 동구 政策의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sup>14)</sup>

모스크바의 새로운 黨指導者가 동구 블록의 어느 정도의 국가적 자율과 재이념화를 완전히 거부하기 보다는 “社會主義 共同體”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제안해 줄 것이 요망되고 있다. 당분간 고르바초프가 루마니아, 헝가리, 동독으로 부터의 특별한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징후가 약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속적으로 죄어진 블록해제라는 政策이 自國의 國家利益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원하는 同盟內 各國지도부의 의도와 충돌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있을 것이다: “경제개혁으로서 약화된 경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증가할 것이며, 또 이러한 맥락에서 西方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제약의 완

---

13. Cf. Alexander Korab: Commecon-Jahrestagung im Geiste Gorbatschows, in: Neue Zurcher Zeitung, Fernausgabe No. 147 of June 29, 1985.

14. Cf. B. Kuppers: Gorbatschow haut vor, in: suddeutsche zeitung of July 1, 1985.

화를 위한 노력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증가뒤에 있는 추진력은, 그들의 政治的 정통성을 모스크바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歷史에 관련시켜 설명하려는 지도부들의 욕구증가인 것이다.<sup>15)</sup>

당분간은 미카엘 고르바초프의 “블록” 개념에 대해서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sup>16)</sup>

---

15. Cf. J.G. ReiBmuller: Der vorhob macht verdrub,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of July 2, 1985; W. Adam: Moskau gibt sich dynamisch, ibid, issue of July 13, 1985.

16. Charles Gatis의 낙관주의가 정당화되는지에 관하여 볼 수 있다. 그의 예측 (loc.cit., fin 9, p.86) : 미카엘 고르바초프가 지도권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GDR,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등이 독자적으로, 또는 함께, 크레믈린으로부터 西方으로 향하여 조금씩 조금씩 “el bow room”을 더욱더 얻으려고 할 것이 매우 분명하다. 이러한 예견은 두가지의 가정에 기초한다. 그 한가지는 고르바초프는 가자는 미래에 도전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 1957年과 64年 사이의 후르시초프 또는 1969年과 1979年 사이의 브레즈네프에 비교될 만한 권위는 가지고 - 이며 그는 크레믈린의 동유럽정책을 적당히 고려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가정은, 더욱더 “elbow room”을 확보하려고 추구하는 동유럽의 지도자들은 충분한 권위, 경험, 그리고 그들 자신의 국가의 변화과정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훌륭함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소련의 아량의 제한점을 넘도록 그들의 감정을 지나치게 울려놓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가정들과, 그들에 기초한 점차적인 “유럽화”의 예견을 좀더 정확하게 하자면 동유럽에서의 소련왕국의 “붕괴”를 기대하는 희망적 사고를 하게 된다. 다양함은 의존적인 것이 아니다; 아량은 자유가 아니다. 소련 - 동유럽의 관계가 거의 확실하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반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작은 연합들은 모스크바의 블럭 “결합력파” “왕국”에 관한 개념에 매우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다. 그것은 기분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 第 2 章 1980 年代에 있어서 蘇聯의 東北亞 政策과 韓半島

金 學 俊  
(國會議員)

### I. 머리말

이 논문은 蘇聯이 1980 년대에 자신의 東北아시아政策의 틀 속에서 韓半島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를 설명하려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 이 논문의 主題

蘇聯이 1970 년대 말 이후 東北아시아에서 軍事力을 증강하고 1984 년을 고비로 北韓과의 軍事協力을 강화해 나간 이후, 이 지역에 대한 蘇聯의 정책적 목표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보아 세 學派로 나뉘어 왔다. 첫째는 蘇聯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방어적이라고 풀이하는 이른바 防禦學派이다. 이들에 따르면, 蘇聯은 일차적으로 이 지역이 자신에 대한 軍事攻擊의 基地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정력을 쏟고 있다. 北韓에 대한 蘇聯의 軍事支援에 대해서도 이들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으로 파악한다. 蘇聯은 北韓의 對南 軍事 冒險主義를 견제하면서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지지한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둘째는 蘇聯이 기본적으로 공격적이라고 풀이하는 이른바 攻擊學派이다. 이들에 따르면, 蘇聯은 東北아시아에서 美國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궁극적

으로는 제거시키려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sup>1)</sup> 이들은 이어 이 지역에서 형성된 美·中·日 3각 “동맹” 또는 “협력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蘇聯이 北韓을 교사하여 韓半島에서 “제 2의 6.25 동란”을 일으킬 가능성마저 있다고 주장한다.

이 防禦學派와 攻擊學派의 사이에 제 3의 折衷學派가 있다. 이 학파는 蘇聯의 의도가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美·蘇 데탕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를 중시한다. 美·蘇 데탕트가 악화되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의 위기가 조성될 때 蘇聯은 東北아시아에서 北韓을 교사하여 “제 2의 6.25 동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美·蘇 데탕트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제 3의 입장에서 있다. 이 논문을 통해 필자는 이 지역에 있어서의 蘇聯의 정책은 “창조적이고 일관된 것이라기보다는 [美國의 정책에 대해] 반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것”<sup>2)</sup>이라는 배

- 
1. 예컨대, 서울의 국제문제조사연구소가 발행하는 계간지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 No. 2 (Fall-Winter 1982), pp. 234-259 에 실려 있는 Peter Duignan, "The World-Wide Threat of Soviet Communism" 을 지적할 수 있다. 이 論文은 東北아시아의 美國 군사력이 蘇聯 군사력보다 ‘열등’하다고 전제한 다음, 蘇聯의 軍事教理는 방어가 아니라 ‘지속적이며 무자비한 공격’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蘇聯의 軍事力은 제 3세계 전체를 통해 革命 세력을 강화해 준다”고 쓰고 있다.( P.234).
  2. Sidney Bearman, "Soviet Power and Policies in the Third World: East Asia," in Christoph Bertram (ed.), *Prospects of Soviet Power in the 1980's* (London: Archon Books, 1980), p. 111.



어만 (Sidney Bearman) 교수의 입장을 취한다. 蘇聯이 北韓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美國과의 테탕트가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蘇聯이 韓半島의 現狀을 변경시키려는 군사적 조치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본다.

이 논문의 자료

이 논문의 중요한 자료는 그 대부분이 2차 자료이다. 필자가 러시아어로 된 1차 자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영어로 쓰여진 1차 자료를 다룰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거의 전적으로 이 방면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이나 책에 의존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독창적인 해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며, 이미 발표되어 있는 분석들의 요약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이 논문이 그나마 기존 논문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는데 성공했다면 큰 다행이라고 하겠다.

## II. 蘇聯 對外政策에 있어서 아시아와 東北아시아의 위치

디브 (Paul Dibb) 교수에 따르면, 蘇聯의 전략적 優先順位에서 첫째는 美國이다. 蘇聯은 美國과의 核對決을 자신의 안전을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두번째는 東유럽의 확보이다. 蘇聯은 東유럽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 주는 완충지대라고 보며,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統制權의 확보를 중시한다. 세번째는 西유럽이다. 蘇聯은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볼 때 蘇聯의 생존에 대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미쳐 왔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과의 정치적 및 경제적 관계를 중

시한다.<sup>3)</sup>

네번째가 바로 아시아이다. 그러나 아시아는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 蘇聯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아시아 전체 면적에 3분의 1 정도가 蘇聯 영토 안에 있으며, 蘇聯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약 8천만 명이 바로 그 蘇聯領內의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고, 蘇聯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5천만명의 蘇聯 시민이 아시아系이다.<sup>4)</sup> 이러한 지리적 및 인종적 복합은 아시아에 대한 蘇聯의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쳐 왔으며 따라서 아시아는 蘇聯에 접경해 있지 않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大洋洲와는 무척 다르게 중시된다. 蘇聯의 영토와 해양로 및 선박 기항의 안전이라는 각도에서 蘇聯은 아시아에 대해 사활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sup>5)</sup>

197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美·蘇사이의 긴장은 높아왔다. 우리가 곧 자세히 살펴 보게 되겠지만, 美·中·日 3각 협조체제의 등장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美國이 주도하는 反蘇同盟이라고 규정하는 蘇聯과 美國과 “새로운 冷戰”을 전개시켰다. 1979년에 자행된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蘇聯軍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역시 美·蘇사이의 긴장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 
3. Paul Dibb, "The Soviet Union's Security Outlook," in Donald H. McMillen (ed.), *Asian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Securit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4), p. 205.
  4. John J. Stephan, "Asia in the Soviet Conception," in Donald S. Zagoria (ed.), *Soviet Policy in 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p. 31.
  5. Dibb. 앞의 論文, p. 205.

이러한 배경에서, 스티픈(John J. Stephan) 교수가 지적했듯이, 蘇聯이 여전히 유럽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아시아는 蘇聯의 세계적 우선순위 가운데 지난 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6)</sup> 그러므로 蘇聯이 자신이 유럽국가이면서 동시에 아시아국가임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도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면 蘇聯의 對아시아정책에 있어서 東北아시아는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단정적인 대답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東北아시아가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南아시아와 東南아시아 및 아라비아半島에서는 전략적 여건이 자신에게 유리한 반면에 東北아시아에서는 美國과 中共 및 日本으로부터의 “위협”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蘇聯은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蘇聯은 東北아시아에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충동을 느낀다고 지적한 자고리아(Donald S. Zagoria) 교수는 東北아시아 情勢,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東아시아情勢에 대한 蘇聯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sup>7)</sup>

첫째, 美國은 東아시아에서 자신의 동맹 자들과 우방들을 포함하는 강력한 연합을 이룩하고 있다. 따라서 蘇聯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국가들로서 하나의 反美연합을 형성해 美國의 힘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현재의 中共은 그렇게 두렵지 않다. 그러나 中共이 美國과의

---

6. Stephan, 앞의 論文, p. 32.

7. Donald S. Zagoria, "The Strategic Environment in East Asia," in Zagoria, 앞의 책, pp. 2-3.

협력을 통해 現代化에 성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강대국이 되는 경우, 그 中共은 蘇聯에게 가장 위험한 敵國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은 中共을 고립시켜서 약하고 가난한 나라로 묶어 놓아야 한다.

세계, 日本은 세계 제 2위의 工業國家이던 蘇聯을 앞질렀다. 이러한 日本이 軍事力을 증강시켜 가면서 美國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시키고 있고 中共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蘇聯으로서는 무척 불안스럽다. 따라서 蘇聯은 日本의 軍事大國化를 억제시켜야 하고 美·日 군사유대 및 美·中共 협력관계를 약화시켜야 한다.

네째, 東아시아와 西아시아를 연결하는 관건적 海路, 즉 西太平洋과 南中國海 및 印度洋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蘇聯은 이 세 곳에서 해군력 및 해운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실제로 蘇聯은 지난 몇해 동안 태평양 함대의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 교수도 자고리아 교수와 본질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에 따르면, 蘇聯은 美國과 中共이 西유럽의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의 동반자격인 새로운 강력한 東北아시아軍事同盟體를 만들어 가고 있고 이것으로써 “제 2 전선”을 형성해 蘇聯에 대항하려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同盟體에 日本과 韓國이 포함될 것이고 이러한 구상 아래 美國이 日本의 “침략적 군국주의” 경향을 북돋아줌으로써 日本에는 “군국주의”가 되살아났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시 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인식은 蘇聯의 지도층을 “큰 경계심” 속에 빠뜨렸고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反蘇的 군사동맹”의 형성을 막기 위해 이 지역에서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군사작전을 확대

해 나가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 8)

蘇聯의 이러한 東아시아 情勢觀에 대해 美國과 中共 및 日本 그리고 韓國은 異議를 제기한다. 이들은 자신들사이의 協力體制 강화가 蘇聯의 군사력 증강을 가져 온 것이 아니라 蘇聯의 군사력 증강이 자신들 사이의 協力體制 강화를 가져 왔다고 주장한다. 즉 이 지역에 있어서의 蘇聯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와 함께 “경계심”마저 안겨 주었으며,<sup>9)</sup> 그러므로 蘇聯의 “공격적” 군사력 증강에 대한 “방어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한다.

어떻든 蘇聯은 자신이 東北아시아에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軍事同盟 체제에 의해 포위되고 있으며 이 포위망을 완화 내지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蘇聯의 아시아 군사력이 일차적으로 東北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sup>10)</sup>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東北아시아에 있어서 蘇聯 군사력의 규모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보를 종합해 보건대, 蘇聯은 자신의 地上軍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52개 사단과 1개 해군 보병사단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 병력을 지원하는 약 1천 7백개의 前線항공기를 배치하고 있다. 蘇聯은 또 자신의 해군력의 약 3분의 1을 이 지역에 배

---

8. Robert A. Scalapino,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USSR in Asia," in Zagoria 바로 위의 책, p. 78.

9. Paul F. Langer, "Soviet Military Power in Asia," in Zagoria, 위와 같음, pp. 255-256.

10. Dibb, 앞의 論文, p. 207.

치하고 있고, 3개의 SS-11 미사일기지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 1백 20개의 대륙간탄도유도탄이 배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약 1백대의 SS-20 전투폭격기를 배치하고 있다. 11)

그러나, 이처럼 東北아시아에서 蘇聯의 군사력이 증강된사실에 대해, 특히 그 사실을 강조하는 美國 정부쪽으로부터의 보도에 대해, 이 지역의 여론 지도층은 한때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었다. 美國의 레이건 (Ronald) 행정부가 자신의 反對政策을 합리화시키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심리적 操作의 하나로 蘇聯의 군사력 증강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기도 했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日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日本人들은 蘇聯의 군사력 증강이 中共을 겨냥한 것이고, 또 설령 蘇聯의 군사력 증강이 日本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도 蘇聯은 불리한 지리적 및 전략적 위치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12) 그러나 1983년 동안 이러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크게 바뀌었다.

첫째, 蘇聯이 유럽에 배치한 SS-20 전폭기 가운데 상당수를 東아시아로 이동시킬 예정이라는 1983년 1월의 보도들이다. 둘째,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차이나의 蘇聯軍 주둔이 아프가니스탄과 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공약 때문에도 아니고 中·蘇對決 때문에도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대한 蘇

- 
11. 위와 같음. 또 Joseph A. Yager,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80s," *Asian Perspective*, Vol. 8, No. 1 (Spring-Summer 1984), p. 88.
  12. Chalmers Johnson, "East Asia: Another Year of Living Dangerously," *Foreign Affairs*, Vol. 62, No. 3 (1984), P. 723.

聯의 장기적인 전략적 계산 때문이라는 증거들이 나타난 사실이다. 세째, 蘇聯이 사할린 반대 쪽 해안에 Tu-22 백파이어 중거리 초음속 전폭기들을 배치하고 日本 영공을 빈번히 침입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北海島의 東端으로부터 4.5 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하보마이 群島들 가운데 한 섬에 군사기지를 세운 것을 포함해 千島列島의 남쪽을 재무장 한 행위이다.<sup>13)</sup> 蘇聯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蘇聯의 東北아시아에서 자신의 군사력을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폴란드軍 대령 출신의 사디키비츠(Michael Sadykiewicz)는 蘇聯이 1979년 초 소비에트極東最高司令部(Soviet Far East High Command: SFEHC)를 다시 가동시켰다고 공개했다. 西方으로 망명하여 현재 英國과 美國의 군사전략연구기관을 거점 삼아 군사평론가로 활동 중인 그에 따르면, 蘇聯은 東北아시아 지역에서 급격히 증강되고 있는 蘇聯군사력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1953년 韓國休戰의 성립 직후 폐지했던 極東最高司令部를 “재수립” 또는 “재활성화”한 것이다. 이로써 이 지역의 蘇聯軍은 그 이전에는 결코 갖지 못했던 대단히 폭넓은 自律權을 획득했으며 이것은 그들의 개전 능력을 상당히 증가시켰다고까지 그는 주장했다.<sup>14)</sup>

---

13. 위와 같음. p. 724.

14. Michael Sadykiewicz, "Soviet Far East High Command: A New Developmental Factor in the USSR Military Strategy Toward East Asia," in Jae Kyu Park and Joseph M. Ha (eds.), *The Soviet Union and East Asia in the 1980s*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1983), p. 164.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그 경위야 어떻든 蘇聯이 東北아시아에서 자신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음은 의문의 여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력 증강에 비례하여 蘇聯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솔로몬(Richard H. Solomon) 교수의 표현을 빌다면, “아시아에 있어서 모스크바 영향력은 극소하다.”<sup>15)</sup> 왜냐하면, 자고리아 교수의 분석이 제시하고 있듯이 1970년대 이후 蘇聯이 이 지역에 대해 취한 일련의 정책들은 “심각한 실패”를 맛 보았기 때문이다.<sup>16)</sup>

### Ⅲ. 蘇聯의 東北아시아政策에 있어서 韓半島의 위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蘇聯의 東北아시아정책의 틀 속에서 蘇聯의 韓半島정책은 세워진다. 여기서 새삼 강조되어야 할 점은 蘇聯의 韓半島정책은 결코 독립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바꿔 말해, 蘇聯의 韓半島정책은 우선적으로 美·蘇관계에 의해, 그리고 中·蘇관계 및 日·蘇관계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sup>17)</sup>

이처럼 蘇聯의 韓半島政策이 蘇聯의 강대국 관계의 부산물인 것은 확실하나, 東北아시아에 있어서 韓半島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韓

15. Richard H. Solomon, "The Soviet Asian Presence and American Policy Choices," in Sungjoo Han (ed.), *Soviet Policy in Asia: Expansion or Accomodation?* (Seoul: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1980), p. 126.

16. Zagoria, 앞의 論文, p. 13.

17. 이 점을 강조한 대목이 다음에 보인다. Ralph N. Clough, "The Soviet Union and the Two Koreas," in Zagoria, 앞의 책, p. 176.



半島가 蘇聯에 접경해 있다는 사실이 蘇聯의 韓半島政策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클러프(Ralph Clough)는 “코리아에 있어서 蘇聯의 근본적 이해관계는 蘇聯의 국경에 접해 있는 半島의 위치에서 파생하는 전략적인 성격의 것이다”라고 표현한다.<sup>18)</sup>

그러면 蘇聯의 東北아시아정책 속에서 韓半島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러시아사 전공의 드미트리신(Basil Dmytryshyn) 교수는 다음의 다섯가지 의미를 지적한다. 첫째, 蘇聯이 韓半島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경우 蘇聯은 滿洲 方面으로부터 中共을 “협박”하거나 “중화”시킬 수 있다. 둘째, 蘇聯은 자신의 韓半島 “지배”를 통해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美軍을 效果的으로 제거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日本이 東北아시아에서 蘇聯의 의도에 맞춰 행동하게끔 日本을 강압하는 강력한 군사적·경제적·외교적·심리적 지렛대를 蘇聯에게 제공한다. 넷째, 韓半島가 蘇聯에 장악되는 경우, 韓半島는 蘇聯 함대에게 “많은 뛰어난 부동항들”을 제공할 것이며, 이에 힘입어 蘇聯은 北太平洋에서 거의 완전한 制海權을 장악하게 된다. 다섯째, 蘇聯의 韓半島 장악은 韓半島를 포함한 蘇聯의 東北아시아 지역에 산재한 풍부한 인적 및 자연적 자원들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sup>19)</sup>

---

18. 위와 같음. p. 175.

19. Basil Dmytryshyn, "Soviet Perceptions of South Korea," in Park and Ha, 앞의 책, p. 4.

#### IV. 蘇聯과 北韓

蘇聯의 韓半島政策에 있어서 北韓은 특수한 의미를 갖는다. 北韓은 中共 및 蘇聯과 동시에 접경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中·蘇대결을 언제나 의식해야 하는 蘇聯의 정책입안자들에게 北韓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역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蘇聯이나 中共 어느 쪽도 北韓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없었고 北韓 역시 그 어느 한 쪽과만 제휴하지 않았다.<sup>20)</sup> 그러나 만일 蘇聯이 北韓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게 되고 따라서 中共이 北韓에 대한 “統制”를 잃게 될 때, 蘇聯은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음은 물론이다. 崔昌潤 교수는 그 이익을 다섯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sup>21)</sup> 첫째는 蘇聯이 北韓과 外蒙古 및 沿海州의 세방면에서 滿洲를 포위하고 더 나아가 위협할 수 있는 이익이다. 둘째는 蘇聯이 黃海에 대한 制海權을 확보하고, 따라서 中國의 연안과 中國이 北洋함대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이익이다. 그 봉쇄를 통해, 蘇聯이 요동반도와 더 나아가 中國의 정치적 및 산업적 중심지들을 “위협”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 셋째, 蘇聯이 東海의 制

---

20. Suck-Ho Lee, "Major Determinants of Soviet Support for North Korea," *Korea & World Affairs*, Vol. 9, No. 1 (Spring 1985), p. 110.

21. Ch'ang-Yoon Ch'oi, "Interests and Policies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s Viewed from the Sino-Soviet Conflict," in Tae-Hwan Kwak *et al* (eds.), *The Two Koreas in World Politics*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83), pp. 234-235.

海權을 쉽게 장악하게 됨으로써 東海와 黃海 및 南中國海를 연결하는 海上交通路를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이다. 네째, 蘇聯은 北韓으로부터 中共軍의 배후를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沿海州에 가해질 中共軍의 침공을 억지시킬 수 있다. 다섯째, 蘇聯은 中·蘇전쟁이 일어났을 때 美國이 駐韓美軍으로써 中共을 도와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바꿔 말해, 蘇聯의 北韓 장악은 中共과 美國이 발전시킬 군사적 유대를 봉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蘇聯의 東北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北韓이 차지하는 위치가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까지 蘇聯이 北韓에 취한 行態를 보면 “대단히 애매모호”했다. 蘇聯은 南韓이 美國의 “위협스런 괴뢰”이며 東北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기적으로 비난하면서도, 北韓의 對南 군사도발을 결코 고무하지 않았다. 蘇聯은 자신의 資源을 불가피하게 상당히 투입해야 할 韓半島에 있어서의 “제 2의 6.25 동란”을 지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22)

둘째, 蘇聯은 北韓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韓國시민의 蘇聯방문을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허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82년 가을에는 타스타통신사의 직원들과 中央政府 문화성의 관리들을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파견하여, 韓國 시민의 訪蘇를 허용하되 蘇聯 시민의 韓國 여행은 허용하지 않던 종래의 관행을 깨뜨리기조차 하였다. 23)

---

22. Manwoo Lee, "Is North Korea Changing Course," *Asian Perspective*, Vol. 9, No. 1 (Spring-Summer 1985), p. 11.

23. Young C. Kim, "North Korean Foreign Policy," *Problems of Communism*, Vol. 35, No. 1 (January-February 1985), p. 3.

이러한 변화에 거슬러 1983년 9월 1일 蘇聯 공군기가 韓國의 민항기 大韓航空(KAL) 007기를 격추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 비극은 서울과 모스크바 사이에 조심스럽게 조성된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한꺼번에 무산시켰으며, 蘇聯과 北韓의 관계를 접근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蘇聯은 이 사건 발생 5주뒤인 10월 4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IPU) 제 70차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으며, 北韓은 그 대가로 그 사이의 침묵을 깨뜨리고 大韓航空機 사건에 대한 蘇聯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만일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蘇聯은 다른 東유럽국가들과 함께 서울 총회에 대표단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蘇聯의 답례가 뒤따라, 1983년 10월 10일 발생한 랑군사건에 관해 蘇聯은 北韓의 공식해명 그대로 따라가 주었다. 즉 버마 랑군을 방문한 韓國정부의 요인들을 살해한 폭탄테러사건이 北韓의 공작원들에 의해 저질러졌음이 명백해졌으며 국제여론이 北韓의 테러리즘을 비난하는 데도 불구하고, 蘇聯의 관영매체들은 그것이 美國과 日本의 도움 속에 韓國 스스로의 “정치적 음모”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北韓의 허위선전만을 되풀이한 것이다. 24)

大韓航空機 피격사건을 고비로 蘇聯과 韓國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분위기 아래 蘇聯은 韓國 政府가 제시한 “環太平洋共同體” 구상을 “反蘇的”으로 단정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蘇聯과 韓國 관계 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韓國이 美國 및 日本과 함께 東北아시아에서 “反蘇的인 군사동맹”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세찬 공격의 빈

---

24. 위와 같음.

도도 늘어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4년 5월 蘇聯은 마침내 北韓 金日成의 蘇聯국가방문을 받아들였다.

金日成의 訪蘇에 대해서는 필자가 다른 논문을 통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25) 여기서는 金日成의 訪蘇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은 회피하고 이번 논문의 주제에 한정해서 재론하기로 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우선 지적돼야 할 점은 金日成의 訪蘇가 결정된 시점에서는 모스크바와 平壤의 東北아시아 정세관이 일치했다는 사실이다. 양자는 모두 東北아시아에서 美·日·中共의 “反蘇的” 3각 협력관계가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韓國이 이 3각 협력관계에 연결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결심을 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공동대처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양자의 대답에는 차이가 있었다. 蘇聯으로서는 北韓이 中共으로 기울어지고 또 美國 및 日本과 관계를 개선해 나갈 가능성을 예방하는 일이 중요했다. 蘇聯은 北韓이 韓半島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고 있으며 中共이 지지하는 南北韓과 美國의 3자회담안이 성사되는 경우 北韓의 美國 접근은 활발해질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北韓을 脫蘇化시키고 “제 2의 中共化” 시켜 궁극적으로 西方圈에 접근시키려는 美國의 정책적 의도가 그 목적을 달성할 위험성마저 있다고 내다 본 것이다. 여기서 蘇聯은 北韓과 韓半島문제 전반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결심하고 그

---

25. 필자의 출처인 『남북한관계의 갈등과 발전』(서울:평민사, 1985), PP. 139-186에 수록된 “최근(1983-1984년) 북한의 국내정치와 대외관계” 가운데 특히 PP.164-173.

것을 위해 金日成이 요청하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배풀기로 결정했다. 26) 한편 金日成은 蘇聯과 韓國의 관계개선 또는 접근을 막고, 美國과 韓國사이의 군사유대에 맞설만한 軍事支援을 蘇聯으로부터 받아 내는 일이 중요했다. 蘇聯이 앞에서 방금 지적한 이유 때문에 金日成의 요청에 부응한 것은 물론이다. 27)

金日成의 訪蘇의 결과로, 蘇聯 외무성 제 1 차관이면서 1급의 아시아 전문가인 카피차(Mikhail Kapitsa)가 이끈 사절단이 1984년 11월 12일 平壤을 방문했다. 공식으로 발표된 北韓 방문의 목적은 양자 사이의 “國境에 관한 회담”에 있었는데, 이 때 北韓은 양자 사이에 최초의 國境條約이 체결된 1957년 이후 처음으로 양자 사이에 국경 분쟁이 있음을 시인했다. 蘇聯 사절단은 2주일 동안 체류하면서 광범위한 쟁점들을 놓고 협의했으며, 11월 27일에는 새로운 국경조약이 체결됐다. 28)

26. Young C. Kim, 앞의 論文, p.5.

27. 바로 위의 論文. 그러나 자고리아 교수는 金日成에 대한 蘇聯의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그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양자 사이에 공동성명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金日成의 訪蘇 직후 모스크바를 방문한 美國 학자들에게 蘇聯의 한 고위 관리가 北韓은 中共과 蘇聯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을 뿐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한 北韓에게 보다 더 현대적인 무기를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이다. 자고리아 교수는 이 관리의 말에 비추어 蘇聯과 北韓관계에 ‘劇적인 돌파구’가 열린 것 같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Donald S. Zagoria, "The USSR and Asia in 1984," *Asian Survey*, Vol. XXV, No. 1 (January 1985), pp. 25-26.

28. *Korea Herald*, November 15, 1984. Young Whan Kihl, "North Korea in 1984: "The Hermit Kingdom Turns Outward!," *Asian Survey*, Vol. XXV, No. 1 (January 1985), p. 73.

그러나 국경조약의 체결만이 양자 회담의 목적은 아니었다. 이 회담의 핵심적 주제는 역시 金日成의 모스크바 방문 당시 합의된 군사원조의 구체적 실천 방안이었다. 서방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蘇聯은 미그-23 전폭기와 T-23 탱크 및 전투용 헬리콥터를 포함한 고성능 무기체계를 北韓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sup>29)</sup> 그 대가로 蘇聯은 豆滿江上의 蘇聯 국경으로부터 羅津항 사이의 철로를 더욱 빈번히 사용하고 羅津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羅津항의 사용으로, 蘇聯은 이것을 통해 日本의 현행 “해협 및 해로” 방위정책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30)</sup>

1985년에 들어 서서, 蘇聯과 北韓 사이의 정치적 및 군사적 유대가 강화되 가는 듯한 징후들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蘇聯의 최고권력자가 바뀌었다. 3월 10일 蘇聯共產黨 서기장 체르넨코(Konstantin Chernenko)가 사망하고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그 후임으로 선출된 것이다. 50대 장년층인 고르바초프의 서기장 취임과 더불어, 蘇聯의 대외정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에 따라 蘇聯의 東北아시아정책과 韓半島정책 역시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왔다. 실제로 그는 蘇聯이 1969년에 제의했던 “아시아 집단

---

29. 日本의 군사소식통을 인용한 *Korea Herald*, December 5, 1984. 그리고 Young Whan Kihl, 바로 앞의 論文, P.73.

30. James Cotton, "Asymmetry on the Korean Peninsula: P'yongyang and North-South Dialogue of 1984,"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Vol. I, No. 2 (1985), p. 51.

안전보장 기구”의 창설을 들고 나왔다. 그는 1975년 여름 헬싱키에서 열렸던 유럽안전보장회의를 모방한 아시아지역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이 지역에서 모든 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기를 철거시키며 그 바탕위에서 평화지대를 설정하자고 제의한 것이다.<sup>31)</sup> 이어 그는 1985년 10월 파리를 방문하여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과 정상회담을 갖고 세계 정세전반에 관해 협의하는 가운데 東아시아 지역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종의 “온건 제스처”를 취했다. 즉 유럽 러시아에 배치됐다가 철거된 SS-20 미사일을 東아시아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건의를 자신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한 것이다.<sup>32)</sup> 이러한 맥락에서 日本의 방위문제 전문가이며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연구원인 니시하라 마사시(西原正之)는 “고르바초프는 그 이전의 蘇聯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自己主張的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으며, 東아시아에서 [美國으로부터 제기되는] 도전들에 대응하는 데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다”고 논평하기도 하였다.<sup>33)</sup>

필자는 고르바초프체제가 출범한지 한 해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고르바초프가 自己流의 새로운 대외정책 및 東아시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그는 앞으로도

---

31. *Korea Herald*, September 27, 1985. 蘇聯共産黨 기관지 『프라우다』는 9월 26日字 신문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이 회의의 소집에 동의함으로써 核戰爭을 방지하는 데 일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2. *Korea Herald*, October 5, 1985.

33. Richard Nations, "Love Boat to Wonsan" Cruiser Visit Hardens Gorbachev's Assertive Asia Stanc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29, 1985, p. 22 에 인용되어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전임자들의 외교노선을 대체로 그대로 따라 갈 것이다.<sup>34)</sup> 그러므로 그의 취임 이후 蘇聯과 北韓 사이에 정치적 및 군사적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 이전부터 흐름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다음에서 양자 사이의 유대 강화 경향을 말해 주는 징후들 또한 구체적인 외교적 움직임들을 살피기로 한다.

그것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지적돼야 할 것은 고르바초프의 서기장 취임 1개월 뒤에 있었던 北韓 부수상 겸 외상인 金永南의 모스크바 방문이다. 4월 16일부터 8일 동안 고르바초프 서기장 그리고 그로미코(Andrei Gromyko) 제 1 부수상 겸 외상을 비롯한 蘇聯 고위층이 그와 회담했는데, 그로미코와 金永南은 4월 24일에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美國이 東北아시아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日本의 “군국주의로의 복귀”와 “핵무기의 日本 배치”를 강력히 공격했다. 그들은 이어 美國이 이 지역에서 日本과 南韓을 포함시키는 나토형의 군사동맹을 창설하고 있다는 종래의 비난을 되풀이하면서 駐韓 미군의 철수를 거듭

---

34.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가 줄서 『남북한 관계의 갈등과 발전』에 수록한 論文 “蘇聯 정치사에 있어서 고르바초프체제의 의미”, pp.362 - 364.

요구했다. 35)

이 공동성명에 나타난 내용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논의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 그러자 양자 사이의 군사협력에 관한 실천 방안들이 논의되었을 것이다. 36) 왜냐하면 그의 訪蘇 직후인 蘇聯의 對나찌 승전 40주년 기념일(5월 9일)을 계기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마침내 北韓이 것처럼 오랫동안 원해왔던 미그-23기를 1985년 말까지 약 “40대” 규모로 제공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37)

이 무렵 日本의 신문들은 蘇聯이 北韓으로부터 “영공통항권”을 얻었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은 4월 16일 東京의 “국제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배저스(Badgers)라는 암호명의 蘇聯 전폭기 두 대가 1984년 12월 이후 세 차

---

35. 金永南의 訪蘇가 끝나면서 그는 蘇聯외상과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공동성명은, 그의 전임자인 許鎔 외상이 1972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발표됐던 蘇聯·北韓 외상 공동성명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던 北韓 외상의 訪蘇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동성명은 발표된 일이 없었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Quarterly Economic Review of China, North Korea* (1985), No. 3, pp. 30-31.

공동성명의 내용은 *Korea Times*, April 26, 1985, 모스크바발 AP통신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韓半島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北韓의 ‘연방제’안을 지지했을 뿐 ‘3자회담’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36. *Korea Herald*, April 17, 1985.

37. EIU, *Quarterly Economic Review of China, North Korea* (1985), No. 3, p. 30. 또 *Nations*, 앞의 기사.

례에 걸쳐 北韓 영공을 통과하면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것은 蘇聯 극동군 소속 공군기들이 베트남의 캄란만 蘇聯 공군기지로 향하던 지금까지의 대한해협 항로를 바꾸어 北韓의 영공을 직접 횡단하는 새로운 비행로를 개설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sup>38)</sup> 蘇聯과 北韓의 외상회담에 이어 1985년 8월 13일 蘇聯 제1부수상이며 黨 정치국원인 알리에프 (Geydar Aliyev)가 平壤을 공식방문했다. 그의 北韓방문의 표면적 명분은 “朝鮮의 해방 4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절단의 규모가 대형이었다는 점 (23개의 개별적인 정부 사절단과 고위 군장성들 및 수백명의 방문객들로 구성되었다), 蘇聯 태평양함대 제1부사령관 야사코프(Nikolay Yasakov) 중장이 승선한 9천 5백톤급 카라급 순항함 탈린(Tallinn)호를 비롯한 세척의 전함이 동시에 元山항을

---

38. 『산케이』의 보도는 *Korea Herald*, April 17, 1985에 전재되어 있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讀賣新聞』은 9월 11日 워싱턴發로 보도했는데 이 내용을 『중앙일보』는 9월 12日 字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蘇聯 극동군이 베트남의 캄란만 蘇聯 공군기지로 향하던 지금까지의 대한해협 항로를 바꾸어 北韓의 영공을 직접 橫斷하는 새로운 비행 루트를 개설한 사실을 美 정부 소식통이 확인했다. 蘇聯 극동군 소속 공군기들은 지금까지 東海를 남하, 대한해협 상공을 거쳐 東지나해~캄란만 기지를 왕복하는 항로와 오키나와 동쪽 근해에서 북귀하는 항로, 그리고 太平洋을 남하해 東京 근해에서 회항하는 항로, 北海道의 도오또(道東) 근해에서 북귀하는 항로 등의 작전 形態를 취해 왔으나 최근에는 대한해협 상공~캄란만 왕복 남하 비행 코스를 대한해협 대신 北韓을 가로 질러 西海로 남하하는 새로운 작전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美 정부소식통은 蘇聯이 금년 상반기에 미그-23 戰鬥機를 北韓에 제공한 점을 지적하면서 “北韓이 미그기를 공여받는 대신 蘇聯機의 영공 통과를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방문한 점, (蘇聯의 전함이 北韓항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1970년대 초 이래 蘇聯이 北韓에 파견한 군부 인사로서 가장 높은 급인 제1 국방차관이며 원수인 페트로프프(Vasiliy Petrov)를 동행시켜 北韓 인민무력부장이며 次帥인 吳振宇와 회담하게 한 점 등등은 北韓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군사협력을 증대시켜 美國의 東北아시아정책에 北韓과 공동으로 맞서겠다는 蘇聯 의지의 상징적 표시였다.<sup>39)</sup>

蘇聯의 이러한 의지는 알리에프의 연설에서도 두드러졌다. 두 시간에 걸쳐 많은 문제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언급한 연설에서 알리에프는 우선 美國의 東北아시아정책을 거세게 공격했다. 美國이 “워싱턴-東京-서울 군사동맹의 형성을 획책하고 있으며, 그 “反蘇的이며 反사회주의적인 東部前線”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日本의 “재무장”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蘇聯의 입장을 그는 되풀이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中共의 이름을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中共이 美國의 전략 구상에 말려 들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反蘇的 東部前線에 맞서기 위한 蘇聯과 北韓의 협력”을 강조했다.<sup>40)</sup>

알리에프의 平壤방문 당시 무엇이 蘇聯과 北韓 사이에 합의됐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온 서방측 언론매체들의 보도들은 양자 사이의 군사협력이 상당히 깊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보기를 들어 본다.

-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8월 24일) - 東京의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1985년 4월 이후 蘇聯의 “작은 전함들”이 여러 차례 平壤을 방문한 점, (蘇聯의 전함이 北韓항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1970년대 초 이래 蘇聯이 北韓에 파견한 군부 인사로서 가장 높은 급인 제1 국방차관이며 원수인 페트로프프(Vasiliy Petrov)를 동행시켜 北韓 인민무력부장이며 次帥인 吳振宇와 회담하게 한 점 등등은 北韓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군사협력을 증대시켜 美國의 東北아시아정책에 北韓과 공동으로 맞서겠다는 蘇聯 의지의 상징적 표시였다.<sup>39)</sup>

39. Nations, 앞의 기사.

40. 위와 같음.

壤의 외항인 南浦를 방문했다고 보도. “蘇聯軍船에 의한 北韓 항구의 반복된 기항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한 이 소식통은 “南浦가 앞으로 蘇聯 해군을 위한 군수기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 41)

- 『극동경제평론』( 8월 29일 ) - 미국방성 소식통을 인용하여, 北韓은 이 시점에서 蘇聯이 공약한 미그-23기 “약 40대” 가운데 18대를 받았으며 연내로 나머지를 모두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 다음, 蘇聯은 北韓이 오랫동안 원해 온 地對空 미사일(SAM)의 제공도 결심한 것 같다고 보도. 이어 美 국방성 소위 관리를 인용하여, 蘇聯의 군사 원조에 대한 보상으로 “蘇聯 함대가 北韓 서해안 항구에 대한 기항권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蘇聯에게 부동항을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蘇聯 태평양 함대를 東海에 봉쇄해 놓는 美 7함대의 점증하는 능력에 대한 蘇聯 태평양 함대의 약점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 42)
- 美 국방장관 와인버거(Casper Weinberger)의 담화( 9월 19일 ) - 蘇聯의 對北韓 미그-23기 공급은 北韓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43)
- 『산케이신문』( 10월 7일 ) - 서방의 정보소식통을 인용하여 “蘇聯은 최근 北韓에 그들 공군의 주력 전투기 미그-23기 10대를 추가 제공, 北韓은 26대의 미그-23기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도.

---

41. 이 기사는 *Korea Herald*, August 25, 1985에 전재되어 있다.

42. *Nations*, 앞의 기사.

43. *Korea Herald*, September 21, 1985.

“서방 정보소식통들은 이같은 추세로 미그-23기가 北韓에 제공될 경우 당초 예상된 “50대 정도의 미그-23기 제공은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蘇聯과 北韓이 蘇聯 전투기의 北韓 상공통과 허용을 조건으로 北韓에 신형 蘇聯 전투기를 대량 제공한다는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게 틀림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 “蘇聯으로부터 미그-23이 北韓에 최초로 인도된 것은 지난 4월말께로 연해주 蘇聯 공군기지에서 생산된 新品 6대가 平壤 동북쪽 北倉 공군기지에 도착하면서부터이다. 그 뒤 7월 중순에 10대가 같은 北倉 기지에 추가 도입되었으며 北韓 파일럿에 의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 것 같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그-23기가 北韓에 제공되기 직전-직후 北韓 공군 파일럿과 정비원 다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연해주의 蘇聯 기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점이며, 이에 훨씬 앞서 미그-23이 배치된 北倉을 비롯, 平壤 남방 黃州 등 몇몇 北韓 공군기지의 활주로 확장 및 수리시설 공사가 진행된 바 있다.”<sup>44)</sup>

-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즈 디펜스 위클리 (Jane's Defense Weekly)』 (10월 22일) - “蘇聯은 최근 北韓에 10대의 미그-23기 3차 공급분을 인도했으며, 이로써 北韓이 보유한 미그-23기는 모두 26대로 늘어났다. 蘇聯이 北韓에 인도할 50대의 미그-23기가 올해 안으로 모두 北韓에 도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 <sup>45)</sup>

---

44. 『朝鮮日報』, 1985年 10月 8日.

45. *Korea Herald*, October 23, 1985.

이러한 보도 속에 9월 초순 北韓 외상 金永南은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蘇聯의 외상 세바르드나드제 (Eduard Shevardnadze)와 회담했다. 9월 12일 平壤의 『조선중앙통신』은 金永南이 세바르드나드제를 공식 초청했으며 세바르드나드제는 그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46)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蘇聯과 北韓 사이의 점증하는 우호 및 협력의 징후들은 서울과 워싱턴 및 東京에서 많은 추측을, 그리고 더 나아가 경계심마저 불러 일으켰다. 양자가 군사협력을 증대시켜 나가 南北韓사이의 군사균형을 北韓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유도한 다음, 중국적으로는 韓半島에서 “제 2의 6.25 동란”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蘇聯과 北韓의 군사협력 증강경향을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즉 北韓에 대한 蘇聯의 군사지원이 “韓半島에서 ‘安定者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신의 오랫동안의 정책을 蘇聯 스스로가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에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본다. 예컨대, 앞에서 인용했던 니시하라 연구원은 “새로운 蘇聯·北韓 군사협력에 대한 광범한 公表는 새로운 군사력의 작전적 과시라기보다는 보다 잘 계산된 정치적 경고인 것 같다”고 보았다. 47) 또 몇몇 전문가들은 ① 蘇聯이 北韓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地對空 미사일은 “순전히 방위적인 것”이고, ② 金日成은 北韓의 남침 능력을 재고시킬 탱크 부대의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蘇聯은 응하지 않고 있으며, ③ 美

---

46. *Korea Times*, September 14, 1985.

47. *Nations*, 앞의 기사.

國이 F-15 전폭기를 韓國에 판매한 데 이어 F-16 전폭기들을 韓國에 배치한 만큼 北韓이 미그-23기 획득에도 불구하고 南北韓의 군사균형은 유지되고 있고, ④ 蘇聯 전함의 北韓 방문은 “東北아시아의 海軍力 균형을 변경시키려는 蘇聯의 결정적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海軍외교의 공격적 행위인 것 같으며,” ⑤ 北韓이 蘇聯 海軍의 정기적 기항을 허용했다는 증거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8)

이 방면의 권위자인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시카고 소재) 高秉喆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신중론을 전개한다. 그는 蘇聯이 北韓에게 미그-23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양자의 관계가 개선됐다는 명백한 징후”라고 전제하면서도, 문제의 비행기가 蘇聯이 이미 1970년대 초에 이라크와 리비아 및 시리아에 제공한 것이었으며, 그 뒤 蘇聯은 미그-25 미그-27 미그-29까지 개발했고 그 가운데 미그-25를 앞의 세 나라에 이미 제공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49)

종합해 볼 때 다시 高秉喆 교수의 표현을 빌리건대, “모스크바와 平壤의 관계가 진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해도 그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50) 오늘날의 양자 관계는 감정적 친근성과 상호 이익에 의한 “뿌리 깊은 유대위에 서 있다기 보다는 단기적 편의라는 얇은 계산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51)

확실히 蘇聯과 北韓의 본질적 접근과 제휴를 제약하는 몇 가지 중요

---

48. 위와 같음.

49. B.C. Koh, "P'yongyang-Moscow Ties," *Korea Herald*, September 25, 1985.

50. 위와 같음.

51. 위와 같음.



한 요인들이 있다. 첫째, 北韓의 뿌리 깊은 對蘇 불신감이다. 北韓은 蘇聯의 北韓 점령기에 蘇聯이 北韓을 “蘇聯의 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획책한 사실, 그리고 韓國戰爭 당시에도 蘇聯이 美國과의 직접적 대결을 두려워하여 특별한 원조를 베풀지 않았던 사실을 믿지않고 있다. 지난 10여년 이상 北韓은 蘇聯의 “지배주의”를 반복해 경고하면서 “자주 노선”을 걷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형태는 北韓의 對蘇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52)

둘째, 蘇聯 역시 金日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蘇聯은 金日成이 蘇聯이 베풀어 준 “은공”을 자주 잊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蘇聯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 53) 蘇聯은 또 金日成의 對南 군사모험주의를 두려워 하며, 따라서 가장 현대화된 무기의 공급을 허용해 본 일이 없다.

셋째, 北韓은 中共과의 관계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 中共을 소외시키지 않는것이 北韓의 이익인 것이며, 따라서 北韓의 蘇聯 접근과 제휴는 中共을 결정적으로 소외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알리에프의 平壤 방문 당시에 있었던 일련의 행사들에서 金日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 일에 지나치게 앞장 섬으로써 中共을 자극하게 될 행동들을 피한 것이다. 54) 영국의 한 연구소도 “蘇聯에 대한 北韓의

---

52. Zagoria, "The USSR and Asia in 1984," p. 26.

53. 이와 관련하여, 蘇聯이 최근 몇 해 사이 자신이 北韓에게 제공한 경제 및 기술원조의 내용을 공개해 온 점이 주목된다. Cotton, 앞의 論文, p.50.

54. 이 점에 대한 지적은 Nations, 앞의 기사, p. 23.

두드러지게 증가된 따뜻함이, 北韓이 아주 소중하게 여겨 온 中立의 포기로 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sup>55)</sup> 北韓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파악했기에 아마도 中共 외교부의 한 성명(9월 11일)은 최근의 蘇聯·北韓 유대 강화를 환영한다고 진제한 다음 中共은 北韓의 「자주 외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sup>56)</sup>

## V. 蘇聯과 韓國

앞에서 필자는 蘇聯이 美國과 日本 및 韓國 3자의 “反蘇的 군사동맹 형성”을 비난하면서 그것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北韓과의 협력 관계를 두텁게 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은 이미 蘇聯과 韓國의 비우호적 또는 적대적 관계를 암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여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 보기로 한다.

1980 년대에 있어서 蘇聯의 韓國觀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비우호적이었다. 蘇聯의 관영 매체들은 駐韓美軍이 끼치고 있는 “악영향”을 비롯해서 韓國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날카롭게 비난해 왔다. 특히 韓·美 군사협력 관계를 신랄히 비난하면서, 이 양자 사이의 군사협력은 사실상 韓國을 美國이 東北아시아 “침략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고 韓國을 美國의 핵기지로 전략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北韓의 안전과 東北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蘇聯의 이러한 비난은 1983년

---

55. EIU, *Quarterly Economic Review of China, North Korea* (1985), No. 3, p. 44.

56. *Korea Herald*, September 14, 1985. 이 신문은 1985년 9월 13일자 『워싱턴 포스트』의 북경발 기사를 실었다.

에 있었던 술츠(George Shultz) 美 국무장관과 와인버거 美 국방장관의 訪韓 때 더욱 거세어졌고, 그 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있었던 레이건 美 대통령의 訪韓 때 정점에 이르렀다. 57)

韓國에 대한 蘇聯의 비난은 1982년 여름 韓國 정부가 “태평양 연안 국가 정상회담개최”를 제의했을 때도 되풀이됐다. 58) 원래 蘇聯은 환태평양공동체 구상에 대해 부정적이며 적대적이다. 蘇聯은 그것을 ①日本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려는 제국주의 정책의 하나로 창의를 한 것으로 보거나, ②美國의 競爭國인 日本의 입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反蘇 정치·군사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주도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③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군사동맹을 겨냥하는 美國과 경제이익이 확대를 도모하는 日本이 공모해서 제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59) 이처럼 기본적으로 反蘇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환태평양공동체 구상에 韓國 정부가 적극성을 보이자 蘇聯의 비난은 가중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3년 9월 1일 발생한 蘇聯공군에 의한 大韓

---

57. Thomas Perry Thornton, "The USSR and Asia in 1983: Staying the Brezhnev Course," *Asian Survey*, Vol. XXIV, No. 1 (January 1984), p. 7.

58. 스톨랴로프(Y. Stolyarov)와 쉬무료프(A. Shmyrov)가 함께 쓴 “태평양 공동체: 경제통합인가 군사-정치블럭인가?”라는 論文. 이 論文은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에서 계간으로 간행되는 『극동문제(Far Eastern Affairs)』 영문판 1983년 3호에 실렸는데,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가 발행하는 계간지 『中蘇研究』 제8권 제1호(1984년봄), pp.283-297에 번역되어 있다. 한국 제안에 대한 언급은 pp.294-295에 있다.

59. 金國振, “환태평양공동체 구상에 대한 蘇聯의 태도,” 『中蘇研究』, 제9권, 제2호(1985년 여름), pp.153-182.

航空機 격추사건은,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韓·蘇 관계를 더욱 냉각시켰으며 서로 사이의 적대감을 높였다.<sup>60)</sup> 두 나라 사이에 그나마 대단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간헐적으로 있었던 인적 교류도 끊겼다.

그러나 大韓航空機피격 사건의 상처가 조금씩 가시면서 두 나라는 다시 조심스럽게 적어도 비정치적 차원에서의 제한된 접촉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88년 여름 서울에서 열릴예정인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 韓國은 蘇聯과 東유럽 국가들의 참가를 유도해야 하며, 이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도 蘇聯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韓國은 蘇聯에 대한 “문화개방정책”을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sup>61)</sup> 한편 蘇聯도 서울 올림픽을 거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서울 올림픽을 거부하는 경우 로스앤젤리스 올림픽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東유럽 국가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sup>62)</sup> 이러한 이해관계의 일치 위에서 1984년 여름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비정치적 접촉이 재개됐다. 예컨대, 1984년 8월에는 두명의 韓國 대표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

60. 이 당시 양자 사이에 교환된 주장과 반론은 다음 論文에 정리되어 있다.

Chane-Jin Lee, "South Korea in 1983: Crisis Manage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sian Survey*, Vol. 24, No. 1 (January 1984), p. 115.

61. Chae-Jin Lee, "South Korea in 1984: Seeking Peace and Prosperity," *Asian Survey*, Vol. XXV, No. 1 (January 1985), p. 85.

62. Nations, 위의 기사, p. 23.

지질학회 모임에 참가했으며, <sup>63)</sup> 1985년 9월에는 蘇聯 유도선수들이 서울에서 열린 제 14차 세계남자유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보그다노프 (Peter Bogdanov)가 이끈 蘇聯 유도선수단은 공산국가로부터 韓國을 방문한 최초의 공식 스포츠팀이다. <sup>64)</sup>

그러나 이러한 韓·蘇間의 새 접촉이 韓國에 대한 蘇聯의 정책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로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고리아 교수가 분석하고 있듯이, 韓國은 서방 진영에 강력히 연결되어 있으며 蘇聯은 그 연결을 쉽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蘇聯은 韓國에 대해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up>65)</sup>

## Ⅵ. 요약과 결론

이상에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蘇聯이 東北 아시아에서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일차적으로 美國과 中共이 제휴하여 강력한 反蘇同盟을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있다. 그리고 日本이 재무장을 통해 군사대국화하여 이 美·中共 反蘇同盟에 가담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이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蘇聯은 이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美國의 힘과 영향력을 자신의 그것으로 대

---

63. Chae-Jin Lee, "South Korea in 1984," p. 85.

64. *Korea Herald*, September 21, 1985.

65. Donald S. Zagoria, "The USSR and the Issue of Korean Reunification," in Tae-Hwan Kwak *et al.* (eds.), *Korean Reunification: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84), p. 195.

치시키고자 할 것이다. 66)

둘째, 蘇聯은 韓半島의 現狀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蘇聯이 韓半島에서 신중과 자제의 정책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임을 의미한다. 蘇聯은 자신을 韓半島에서의 원하지 않는 전쟁 속으로 불가피하게 끌어 들일 北韓의 어떠한 모험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이다.

셋째, 蘇聯은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초까지도 韓國을 승인하거나 공식관계를 세우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韓國이 강력한 친서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蘇聯은 자신의 우호적 태도가 무가치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자신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北韓이 中共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66. R.J. Rummel, "Soviet Strategy and Northeast Asia," *Korea & World Affairs*, Vol. 2, No. 1 (Spring 1978), p. 3.

## 第2部 中共의 變化와 政策

### 第1章 中共의 對韓半島政策： 繼續성과 調整





# 第 1 章 中共의 對韓半島政策

## — 繼續性 과 調整 —

金 達 中  
(延世大政外科 教授)

### I. 中共의 對韓半島 戰略的 關心

韓半島에 있어서 中共이 갖는 關心事는 무엇일까? 韓半島에서 中共이 갖는 根本的 關心事는 韓半島가 中國의 故事成語로 '唇亡齒寒'이라고 자주 表現되듯이 中國의 安保에 緊要하다는 事實에 基礎하고 있다. 韓半島의 戰略的 位置는 東北아시아에서의 列強角逐에 決定的인 要素로 作用하는데, 中共은 東北亞가운데서도 韓半島에 대해서 가장 戰略的으로 重大하고도 直接的인 關心을 갖고 있다. 1,300킬로미터의 國境線가운데에서, 韓半島는 中共과 1,283.5킬로미터, 즉 98.8%를 接하고 있으며 나머지 部分은 蘇聯과 맞대고 있으며 日本과도 역시 隣接하고 있다.

歷史的 觀點에서 본다면 中國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韓國은 中國으로의 領土的 膨脹이라는 야망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일단 隣接한 強大國과 軍事同盟關係를 樹立하게 된다면 中國에 潛在的으로 危險스런 存在가 될 수 있다는 事實을 잘 認識하고 있다. 歷史적으로 볼 때 많은 時期에 競爭하는 隣接國사이에서 韓半島가 侵略通路나 侵略을 爲한 前進基地로 作用했다는 事實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中國의 最優先 目標는 韓國에 影響을 미쳐 中國에 友好的으로 남아있게 하여 緩衝國家의 役割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가끔 韓國에 이러한 役割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中國의 努力은 中國으로 하여금 對 韓軍事征服의 길을 걷게끔 하였다. BC 108년에 漢武帝가 高句麗에 遠征

隊를 派遣하였으며 607年 隋煬帝가 漢武帝의 先例를 따랐다. 唐太宗과 元世祖도 類似한 政策을 취하였다. 朝鮮時代に 中國은 二次에 걸쳐 日本과 戰爭을 수행하였다. 1590年代에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朝鮮을 戰略했을 때 中國은 軍隊를 派遣하여 朝鮮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中國은 日本帝國이 韓半島를 支配하려고 試圖한 때인 1894-95年 사이에 다시 한번 日本과 戰爭을 한 바 있다. 日本帝國과의 合併이후에 韓國은 日本의 中國大陸侵略期인 1930年代, 1940年代에 兵站基地 役割을 하였다.

近來에 들어 中共은 1950-53年 韓國戰爭이 勃發하자 義勇軍을 派遣하였다. 中共은 단순히 北韓을 돕고 美國을 阻止하기 爲해서 韓國戰에 介入한 것이 아니라 中共 自身の 安全保障과 領土保全을 爲해 介入했던 것이다.<sup>1)</sup> 中共은 軍事的으로 介入함으로써 많은 生命을 犧牲하고 資源을 消費하는 값비싼 댓가를 치루었다. 게다가 中共은 領土的 再統一을 이룩할 機會를 놓쳤으며 繼續해서 美國 및 日本과의 關係惡化를 맛보아야만 했다. 中共은 그 어느 때보다도 韓半島가 非友好的 또는 敵對的 強大國의 排他的 勢力圈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決意가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韓國戰爭後, 北韓은 韓半島에서 中共과 關係를 맺은 唯一한 國家였다. 中共과 韓國間에는 어떠한 關係도 存在하지 않았다. 그리고 中共의 對北韓 關係는 中·蘇關係에 있어서 函數로 作用해 왔다. 中共과 蘇聯이 1950年代 初 密接한 同盟關係를 維持할 때에는 兩國은 金日成의 韓半島 統一을 爲

---

1. Byung Chul Ko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Korea & World Affairs*, Vol. 9, No. 2 (Summer 1985), p. 255.

한 試圖를 支持하였고 後, 韓國戰爭에서의 勝氣가 北韓에서 멀어지자 北韓 政府의 沒落을 막는데 共同的 利害를 같이 하였다. 中共과 蘇聯이 友好的인 同盟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한 兩國은 韓半島에 對해 다소 누그러진 態度를 취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北韓이 中·蘇兩國과 友好的인 關係를 維持하는 것도 容易하였다.

그러나 中·蘇紛爭이 1956 年の 論爭으로부터 1960 年代의 武裝國境衝突로 擴大됨에 따라 韓半島에 있어서 中共과 蘇聯의 利益間에는 差異가 생기기 始作하였다. 北韓에의 影響力 行事를 爲한 競爭은 中共의 對北韓政策을 支配하게 되었다. 中共이 認知하기로는 韓半島의 地政學的·戰術學的 重要性에 비추어 볼때 蘇聯이 韓半島에서 優位를 確保한다는 事實은 確實히 蘇聯의 對中共 戰略的 優位를 초래할 것이라는 點에서 새로운 意味를 띠고 할 수 있다. 戰略적으로 重要的 하나의 樣相은 北韓이 經濟的·軍事的 理由로 親蘇政策을 취할 수도 있다는 事實이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中共은 實地적으로 非友好國 또는 敵對國들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즉 北쪽과 東쪽으로는 蘇聯, 몽고 그리고 北韓에 의해, 南쪽과 西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印度에 의해, 그리고 南쪽으로는 베트남에 의해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단지 中共·파키스탄國境과 中共·버어마國境이 例外가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戰略的 樣相은 韓半島에서 軍事紛爭이 勃發한다면 이것은 北韓으로 하여금 決定的으로 親蘇쪽으로 기울게 할 것이라는 事實이다. 蘇聯은 北韓이 韓國에 對해 軍事的 壓力을 가하도록 軍事的 援助와 더불어 北韓의 立場을 支持하는 態度를 取할 것이다. 그의 에도 韓半島에서 戰爭이 勃發할 경우, 確實히 中共의 對美·對日關係를 緊張시키게 될 것이다. 中共은 經濟現代化를 追求하기 위해 美國과 日本으

로부터 積極的인 支援을 確保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韓半島에서 軍事紛爭이 勃發한다면 그것은 中共에 있어 不利益을 招來할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戰略的 側面을 考慮한다면 中共外交政策에 있어 最優先視되는 것은 아마도 北韓이 蘇聯의 影響力下에 들어가는 것을 防止하고 北韓으로 하여금 非武裝地帶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敵對行爲를 斷念토록 影響力 行事を 하는 것이 될 것이다.

## II. 中·蘇紛爭의 脈絡에서 본 中共·北韓關係

蘇聯이 北韓에서 支配的 位置를 占하지 못하겠음 하는데 中共은 어느 程度까지 成功해 왔었는가? 中共과 北韓間的 關係는 1956年 中·蘇紛爭이 始發한 以來 뚜렷히 4개의 段階를 거쳤다. 第一期(1956 - 1961)는 北韓이 中立을 지키는 時期였으며 第二期(1962 - 1964)에는 中共과 北韓間에는 두드러질 程度의 結束을 보였다. 第三期(1965 - 1969)는 兩國間에 緊張感이 高潮되는 時期였으며 1970年代에 始作된 第四期에 있어서의 北韓의 對中·蘇關係는 均衡을 이루어 오고 있다.<sup>2)</sup>

- 
2. 中共·北韓關係에 관한 자세한 內容은 다음 文獻들을 참고하기 바람.  
Byung Chul Koh, "North Korea and the Sino-Soviet Schism,"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22, No. 4 (December 1969), pp. 940-962;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p. 204-210; Chin W. Chung, *Pyongyang Between Peking and Moscow: North Korea's Involvement in the Sino-Soviet Dispute, 1958-1975* (University, Al.: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78).

北韓이 中·蘇 兩國과 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한 것은 第一期의 일이다. 1961年 7월에 締結된 두개의 條約은 실제에 있어 內容上 거의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個의 條約은 모두 어떤 國家나 國家群이 條約締結國 가운데 한 國家를 攻擊할 경우, 모든 手段을 다해 軍事的으로 뿐만 아니라 餘他の 援助를 提供하도록 各各의 條約締結國에 要求하고 있다.<sup>3)</sup>

第二期에 北韓은 中共과 同盟關係를 樹立하였다. 北韓의 勞動黨은 蘇聯이 經濟的으로 北韓을 搾取하였으며 또한 強大國 國粹主義를 취한다고 공공연히 비난하였다. 北韓은 후르시초프의 쿠바 미사일危機事件의 處理와 中 共·印度間에 발생한 國境衝突에 대한 蘇聯의 態度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第三期에는 中 共·北韓關係가 中 共에서의 文化革命 탓으로 그때까지의 最低水準에 머물렀다. 中 共에서 文化革命이 幕을 내리자 中 共과 北韓은 關係를 다시 改善할 수 있게 되었다.

第四期에는 中 共·北韓間의 經濟·技術·文化的 交流가 擴大됨에 따라 兩國間의 關係는 友好的으로 進展하기 始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蘇聯과 北韓의 關係는 눈에 떨 程度로는 冷却되지는 않았다.<sup>4)</sup> 1970年代에 걸쳐 1980年代 初半에 이르는 이러한 第四期에 北韓은 中 共과 蘇聯에 대해 等距離政策을 追求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意味에서 볼 때 北韓이 等距離政策을 堅持하기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中 共과 北韓의 關係는 友

---

3. Se-Jin Kim ed., *Korea Unification: Source Materials with an Introduction*, Vol. 1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76), pp. 272-274.

4. Ko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 259.

好에서 緊張으로, 다시 緊張에서 友好關係로 되돌아 오면서 展開되어 나왔다. 中共·北韓關係가 1970年代 後半의 中共·베트남關係의 互解에 견줄 수 있을 만큼 軍事·政治·經濟的 紐帶에 있어 破局點에 이를 程度로 惡化되지는 않았다는 事實은 注目할 만하다. 그러나 거꾸로 어떤 時期에 있어서도 中共·北韓關係는 北韓이 中共과의 確實한 同盟關係를 維持하기 爲해 蘇聯의 關係를 단호히 끊을 수 있는 線까지는 進展되지는 않았다.

이렇듯 지난 15年間에 걸친 中共·蘇聯·北韓이라는 三角關係의 展開過程은 根本的인 再結合過程이었다가 보다는 오히려 慎重하고도 漸進的으로 政策을 調整해 나온 過程이었다.<sup>5)</sup>

中共·北韓關係의 變化는 東北亞에서의 他國家間的 關係變化와도 밀접한 相關關係가 있다. 첫째 北韓과 蘇聯間的 關係改善, 둘째 中共·美國, 中共·日本關係改善, 셋째 中共과 韓國間的 非公式的 接觸의 增大가 그것이다.

1970年代初에서 1978年에 걸친 첫번째 局面은 中共·北韓이 꽤 友好的인 關係를 維持한 時期였다. 北韓의 對中共傾斜化 現象은 주로 蘇聯과의 關係가 冷却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이 時期에 있어서 蘇聯·北韓關係가 惡化된 것은 蘇聯이 韓半島의 不安定을 招來할 수도 있는 北韓의 對南好戰行爲에 대해 不滿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1968年 靑瓦臺奇襲事件, 美國의 푸에블로(Pueblo)號 拉致事件, 1969年 美國EC-121機 擊墜事件 등은 蘇聯이 보기에 北韓의 明白한 好戰行爲였다. 1975年 美國의 베트남撤收와 더

---

5. 여기서의 論議는 1983年 11月 서울에서 外交安保研究院과 the Pacific Forum의 후원으로 열린 Conference on Northeast Asia in the 1980's: Issues and Opportunities 에 제출된 Harry Harding의 論文, "North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p. 2-3을 참고한 것이다.

불어 金日成이 이 機會를 利用하려고 하자, 蘇聯의 不滿은 더욱 커졌다. 金日成은 캄보디아가 共產化된 다음 날 北京에 到着하였다. 公式聲明에서 보인 金日成의 好戰的 語調로 보나 3名의 軍將星을 포함한 隨行員의 構成面으로 보나 金日成이 中共을 訪問한 主된 目的은 韓半島에서 軍事的 行動을 취하는데 있어 中共의 支援을 얻으려는 것이었으리라는 推測은 確實한 것으로 보인다.<sup>6)</sup> 1976年 판문점에서 發生한 北韓의 美軍兵士殺害事件으로 蘇聯의 對北韓 不信感은 더욱 深化되어 갔다. 蘇聯의 不滿은 결국 미그 23機 T-72 탱크等 最新銳武器의 北韓供給을 保留하는 結果를 낳았다.<sup>7)</sup> 이와같은 첫번째 局面에서는 蘇聯의 對北韓 貿易은 減少한 반면 中共의 對北韓 貿易은 增加하였다. 1975年 金日成이 모스크바를 訪問하고자 하는 意思表示를 했으나 拒絕당하였다.

두번째 局面이 始作되는 해인 1978年 中共의 對北韓關係에 緊張의 조짐이 보였다. 北韓은 中共에서의 毛澤東格下運動으로 北韓內部에서의 金日成의 正統性이 弱化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리고 中共이 對西方 開放政策을 採擇함으로써 인해 北韓의 自立經濟 및 集散主義政策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이렇게 해서 北韓 1978年부터 中共과 疎遠해지기 始作하였다. 北韓의 입장에서 볼 때 1970年代 中共의 對美, 對日和解政策은 北韓과의 決定的인 關係清算이라는 意味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카터 行政府에 의해 發表되었던 駐韓美軍撤收計劃은 無期限 延期되었다. 美國

- 
6. *Pyongyang Times*, April 26, 1975; *Peking Review*, Vol. 18, No. 17 (April 25, 1975) and Vol. 18, No. 18 (May 2, 1975).
  7. Harold C. Hinton, "China and the Korean Ques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1, No. 1 (March 1982), pp. 89-101.

은 北韓에 對處하는데에 있어서 어떠한 政策上의 變化도 보이지 않았으며 韓國이 參加하여야만 北韓과 協商을 하겠다는 既存의 政策을 堅持하였다.<sup>8)</sup> 中共과 北韓間의 關係를 緊張시킨 또 다른 하나의 要因은 中共이 韓國과 非公式的 關係를 發展시켜 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北韓은 1978年부터 中共과 疎遠해지기 始作한 것이다. 1979年末 蘇聯이 아프가니스탄을 侵攻하였을 때 中共은 이를 비난하고 나온 반면, 北韓은 아프가니스탄의 親蘇政府인 카르말 바브락(Karmal Babrak) 政府를 承認하였다.

1981年初 中共과 北韓 兩國은 緊張緩和를 希望하면서 相互關係를 再評價하였다.<sup>9)</sup> 中共의 觀點에서 보면, 北韓이 蘇聯側으로 傾斜化될 경우 中共은 모두가 親蘇이거나 蘇聯의 同盟國인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몽고, 北韓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蘇聯·北韓關係의 改善은 蘇聯의 對北韓武器移讓의 增大 및 武力衝突로 擴大될 수 있는 非武裝地帶에서의 일련의 事件으로 인해 韓半島內에서의 緊張을 高潮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中共으로 하여금 對北韓政策을 再評價토록 한 또 다른 要因은 美國大統領選舉 前後에 레이건이 그의 在任時에 美國과 臺灣과의 關係를 改善시키려는 計劃을 했다는 사실이다.<sup>10)</sup>

이러한 評價에 基礎하여 中共은 1981年 中半부터 美國과의 關係를 再評價하기 시작하였다. 中共은 美國으로부터 自主性を 擴大하고 蘇聯과 外交

---

8. Harding, *op. cit.*, pp. 7-8.

9. Robert G. Sutter, "U.S.-Soviet-PRC Rel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Korea & World Affairs*, Vol. 7, No. 1 (Spring 1983), pp. 5-20.

10. Harding, *op. cit.*, p. 12.



的 對話를 再開하기로 決定하였다. 게다가 中共은 北韓과의 關係增進에 努力을 기울이기 始作하였다. 첫째로 中共은 많은 高位官吏들을 北韓에 派遣하기 시작하였다. 1980年 9月 華國鋒의 뒤를 이어 承繼한 鄧小平의 側近인 趙紫陽이 1981年 12月 平壤을 5日間 訪問하였다. 1982年 4月 26日에서 30日사이 鄧小平과 中國共產黨 中央委 總書記인 胡耀邦이 비밀리에 北韓을 訪問했는데 이는 하나의 重要的 意味를 갖는 것이었다. 그들이 訪問한 目的은 金日成의 70回 生日에 個人的으로 祝賀의 뜻을 傳하러 온 것으로 보였다. 이 訪問으로 또한 鄧小平과 胡耀邦은 金日成의 後繼者로 指名된 아들 金正日을 만날 수 있었다.<sup>11)</sup> 그들의 訪問中에 鄧小平과 胡耀邦은 北韓에 中共產 石油의 輸出을 增大시킬 것을 約束하였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重要的 事實은 MIG - 21機의 中共型 改造機인 A - 5 戰鬥機 20 내지 40 臺를 北韓에 提供하기로 合意했다는 사실이다.<sup>12)</sup> 鄧小平과 胡耀邦의 秘密訪問에 이어 中共 國防部部長 耿飜(Geng Biao)와 中共 外交部部長 吳學謙이 1982年 6月과 1983年 5월에 各各 北韓을 訪問하였다. 1982年 8월에 열린 第12期 全國代表大會에 提出된 胡耀邦의 政治報告書에는 北韓이 中共과 友好關係를 맺고 있는 社會主義國家 가운데 첫번째가는 國家로 記錄되어 있을 뿐 아니라 北韓의 韓半島統一鬭爭을 Cambodia나 아프가니스탄人民들의 獨立鬭爭보다 優位에 두었다.<sup>13)</sup>

1982年 9月 金日成은 答訪形式으로 中共을 訪問했는데 이 訪問은 中共 北韓關係에 있어서 重要的 里程碑를 마련한 것이었다. 金日成의 訪問期間

11. Ko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p. 265.

12. *Korea Herald*, September 18 and 19, 1983.

13. *Beijing Review*, September 13, 1982, pp. 30-31.

中 中共 指導者들이 金日成에게 보인 配慮는 格別한 것이었다. 鄧小平은 4 日間に 걸친 金日成의 四川省 旅行길에 同行하였으며 胡耀邦은 金日成을 成都서 西安까지 護衛하여 北京에 함께 돌아 왔다.<sup>14)</sup> 金日成의 訪問期間 동안 다음과 같은 2 가지 사실에 관한 理解와 合意가 이루어졌을 可能性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첫째가 北韓에서의 權力繼承問題에 관한 雙方間의 理解와 合意가 이루어졌고, 둘째가 追加軍事支援이 約束되었다는 事實이다. 報道에 의하면 中共은 '82 年에 A-5 戰鬥機 40 臺를 北韓에 提供하였다고 한다.

北韓의 權力繼承問題에 대한 中共의 受諾은 1983 年 6 月 金正日이 中共을 訪問함으로써 더욱 確固하게 되었다. 胡耀邦은 金正日の 成都·南京 旅行길에 同行하였다. 黨中央委員會 書記處 書記인 胡啓立(Hu Qili)이 上海와 杭州까지 金正日과 同行하였다. 金正日是 大部分의 黨中央委員會 指導級 幹部와 黨 政治局 및 書記處의 常任委員會 委員들과 만났다.<sup>15)</sup>

中共은 또 다시 1983 年 9 月 北韓政權樹立 第 35 周年 紀念式을 맞이하여 平壤에 使節團을 派遣하였다. 黨政治局 委員인 彭眞을 團長으로 하는 使節團에는 胡啓立도 포함되어 있었다. 金正日是 平壤과 元山에서 베풀어진 파티를 主催하였다. 2 年後인 1984 年 5 月 胡耀邦은 北韓을 두번째로 訪問하였다. 金日成이 베푼 한 宴會에서 胡耀邦은 演說을 통해 “中共人民의 운명은 영원히 朝鮮人民의 운명과 같이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sup>16)</sup> 胡耀邦은 特히 金正日을 가리켜 北韓에 있어서 그의 2 名의 主要 討論者

---

14. *Ibid.*, Vol. 25, No. 39 (September 27, 1982), pp. 5-6.

15. Ko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 266.

16. *Pyongyang Times*, May 9, 1984.

中의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胡耀邦이 中共으로 떠난 4日後, 金日成은 蘇聯으로 떠났다. 5月 23日에서 25日에 걸친 그의 蘇聯訪問은 23년만에 처음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金日成과 체르넨코(Constantin Chernenko)간의 3회에 걸친 會談은 이렇다할 共同聲明書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하고 끝을 맺었다. 蘇聯은 北韓의 三者會談 提議를 支持할 어떠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金日成의 蘇聯訪問에 이어 1984年末에서 1985年中葉 사이에 4名の 北韓 高位指導者들이 蘇聯을 訪問하였다. 1984年 11月 人民武力相 吳振宇가 蘇聯을 訪問했고 1985年 3月 總理 姜成山이, 1985年 4月 外相 金永南이, 1985年 5月 副主席 朴成哲이, 그리고 1985年 5月 朝鮮人民軍 大將 吳克烈이 각각 蘇聯을 訪問하였다.

近來 몇년간 北韓을 訪問한 蘇聯의 最高位級 官更는 外務省 次官 미하일 카피차(Mikhail Kapitsa)였다. 그는 1984年 11月 2週에 걸쳐 北韓을 訪問하였다. 最近에 蘇聯은 MIG-23機와 같은 精良한 武器를 北韓에 提供하였다고 한다.<sup>17)</sup> 蘇聯은 이미 1985年 5월에 部分적으로 提供하였으며 아직도 40~45臺의 MIG-23機가 北韓에 더 提供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MIG-23機의 提供은 金日成이 1984年 5月 蘇聯을 訪問하는 中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1984年 11月 카피차의 平壤訪問期間中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하는 바에 따르면 1985年 5月初에 北韓과 蘇聯은 戰鬥機의 交換訪問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의 MIG-21飛行中隊가 먼저 蘇聯의 블라디

---

17. *Korea Herald*, May 5, 1985.

보스톡 空軍基地를 訪問했고 그 基地로부터 蘇聯의 MIG-23 飛行中隊가 答訪을 하였다.<sup>18)</sup> 北韓과 蘇聯이 兩國間的 軍事協力增大를 나타내는 그와같은 相互訪問을 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胡耀邦은 1985年 5月 또 다시 北韓을 非公式적으로 訪問하여 신의주에서 3日間 金日成을 만났다. 北京에 돌아온 후에 胡耀邦은 北韓과 美國間的 直接的 接觸을 추진할 意思가 있음을 밝혔다.<sup>19)</sup>

北韓과 蘇聯間的 軍事協力增進은 1985年 5월에 현재해지기 시작했는데 8월에 그 頂點에 달하는 듯 하였다. 蘇聯은 北韓에 高位級 官吏와 海軍艦隊를 派遣하였다. 蘇聯 政治局員 게이다르 알리에프(Geidar Aliyev)가 이끄는 蘇聯 使節團이 朝鮮解放 40周年 紀念式에 參席하기 위해 1985年 8月 北韓을 訪問하였다.<sup>20)</sup> 1985年 8月 13日 유도탄이 적재된 8,200톤급 탈린(Tallinn) 號를 포함한 세 척의 蘇聯戰艦이 元山항을 訪問하였다.<sup>21)</sup> 蘇聯의 太平洋艦隊 一等副司令官 海軍 中將 야사코프(N.Y. Yasakov)가 이 海軍部隊를 이끌고 訪問하였다. 中共은 北韓에 使節團을 派遣하는 것을 삼가하고 대신 人民日報에 祝賀電文만을 실었다.<sup>22)</sup>

報道에 의하면 1985年 4月이래 蘇聯海軍戰艦이 平壤 西쪽에 位置한 남포항을 계속해서 訪問해 왔다고 한다.<sup>23)</sup> 추측하건대, 蘇聯은 남포항을 蘇

---

18. *Ibid.*, July 11, 1985.

19. *Ibid.*, May 10, 1985.

20. *Ibid.*, August 1, 1985.

21. *Ibid.*, August 15, 1985.

22. *Ibid.*, August 17, 1985.

23. *Ibid.*, August 25, 1985.

聯海軍兵站基地로 만들려고 意圖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最近에 蘇聯은 大韓海峽을 통과하는 기존의 航路外에 北韓의 領空과 黃海를 거쳐 베트남의 坎란灣에 있는 蘇聯海軍 및 空軍基地에 이르는 새 航路를 開設하였다.<sup>24)</sup> 추측하건대 北韓은 蘇聯戰鬪機가 北韓領空을 使用토록 許可하는 대신 그 댓가로 蘇聯의 MIG-23 機의 提供을 받은 것 같다.

1985年 봄까지 高位級 官吏의 訪問 頻度數로 추측해 보건대 中共·北韓關係는 北韓·蘇聯關係보다 더 確固한 것 같다. 그러나 蘇聯과 北韓間의 軍事的인 交換 및 協力에 관한 最近의 움직임, 즉 蘇聯 MIG-23 機의 北韓提供, 兩國戰鬪機의 相互訪問, 蘇聯艦隊의 元山·남포항 訪問, 蘇聯 國防省 次官의 訪問, 蘇聯의 北韓領空의 使用등은 北韓이 中共에서 蘇聯쪽으로 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時點에서 中共은 장래 적절한 時期에 最高位級 政治·軍事 指導者를 北韓에 派遣하여 蘇聯과 競爭할 可能性이 크다. 10月 25日 韓國戰 參戰 35周年 紀念式에 中共이 參席하는 것이 아마도 가까운 시일내에 中共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의 태도가 될 것이다.

### Ⅲ. 政策分裂의 脈絡에서 본 中共·北韓關係

東北아시아 國際關係는 1970年代에서 1980年代 前半을 거치면서 政治·經濟·戰略上 本質的으로 상당한 變化를 겪었다. 美國·中共關係의 改善, 이 地域에서의 蘇聯 軍事力의 成長, 日本·中共間의 協力增大, 中·蘇關係의 漸進的인 改善, 日本·蘇聯關係의 惡化, 이 지역에서 점차 중요한 行

---

24. *Ibid.*, September 12, 1985.

爲者. 韓國이 登場했다는 사실등 이 모든 國際環境의 變化가 韓半島에 대한 中共의 認識에 중대한 影響을 미쳐 왔다.

中共은 또한 1980 年代初 두번에 걸친 重要 指導者 交替를 경험했다. 첫번째 交替는 1980 年 8 月에서 9 月에 걸친 第 5 期全國人民代表大會 3 次 會議에서 이루어졌다. 이 會議에서 華國鋒이 國務院總理職을 辭任하고 대신 趙紫陽이 國務院總理에 選出되었다. 두번째 交替는 1981 年 6 月 中國共產黨 第 11 期 全國代表大會 6 次中央委員會 全體會議에서 이루어 졌다. 이 會議에서 華國鋒이 中共 黨主席, 中央軍事委 主席을 辭任하고 黨副主席으로 降等되었고 中共 黨主席은 胡耀邦이, 中央軍事委 主席을 鄧小平이 各各 擔當하게 되었으며 또한 趙紫陽이 黨副主席으로 昇進하게 되었다.

새로 登場한 鄧小平 - 趙紫陽 - 胡耀邦 指導體制는 中共이 四大現代化計劃을 위한 實用主義 및 開放主義 路線을 걸으리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現代化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中共은 東北亞 地域의 다른 國家들과 友好的 協力關係를 維持 發展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中共은 韓半島에서 緊張緩和를 支持하고 현재 協力的인 美·中共關係와 中·日關係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새로운 軍事的 對決을 원하지 않고 있다. 趙紫陽 國務院總理는 1984 年 1 月 美國訪問에 앞서 사전에 이러한 立場을 表明하였다.

그는 “中國人民은 現代化計劃에 專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國際 環境에 있어서 持續的인 平和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趙紫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결국 中國外交政策의 一般的 原則은 모든 나라와 好的 關係를 確立, 發展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sup>25)</sup>

---

25. *Beijing Review*, Vol. 27, No. 2 (January 9, 1984), p. 17.

變化해 가는 國際環境에 適應해 나가는 過程에서 中共과 北韓間에는 重要 政策上의 不一致를 겪어 오고 있다. 兩國間的 政策上 龜裂의 한 原因은 韓半島에서의 統一 및 平和問題에 관한 것이었다. 金日成은 韓半島의 領土的 再統一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 金日成은 南韓 內部的 混亂과 革命的 變革을 통해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려고 한다. 그러나 中共은 韓半島에서 또 다시 軍事紛爭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北韓·中共間의 條約上의 義務에 묶여 中共이 直接的 또는 間接적으로 北韓을 支援해야 함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그와 같은 介入은 中共의 經濟的 現代化 計劃을 심각할 정도로 沮害할 뿐만 아니라 中共의 協力的 對美國 및 日本關係를 惡化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韓國에 있어서의 中共의 當面目標는 緊張緩和이다.

中共 指導者들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를 위한 그들의 希望을 여러 번에 걸쳐 밝혀 왔다. 中共은 1983年 10月 9日 4名의 政府閣僚를 포함한 17名의 버어마訪問 韓國人이 死亡한 랭군(Rangoon)事件에 否定的 反應을 나타냈다. 人民日報는 1983年 11月 6日 랭군發 新華社通信의 報道를 그 內面에 실었는데 여기서 버어마當局이 랭군駐在 北韓大使館을 閉鎖 托擧 명령했다는 內容 뿐만 아니라 버어마의 調查委員會가 爆破事件에서의 北韓의 役割을 폭로했다는 內容의 報道를 실었다.<sup>26)</sup> 이러한 사실은, 蘇聯의 官營新聞이, 北韓當局이 北韓의 爆破事件 關聯을 否認했다는 內容報道를 한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심지어 私적으로도 랭군에 있는 蘇聯의

---

26. Jong-Hwan Song, "Chinese Policies Toward the Two Koreas: Recent Trends and Prospects,"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 13, No. 2 (Fall-Winter 1984), pp. 127-128.

外交官들은 버어마政府의 事件處理에 대해 비난하였다.<sup>27)</sup>

1983年 11月末 胡耀邦이 日本을 訪問하는 동안 胡耀邦은 日本 首相 나카소네를 만난 자리에서 中共은 모든 種類의 테러리즘에 反對하며 진정 韓半島의 緊張緩和에 關心이 있음을 밝혔다.<sup>28)</sup> 또한 報道에 의하면 胡耀邦은 韓半島에 있어서 統一보다도 平和가 더 重要하다고 주장하는 日本 民社黨 黨首 사사키 료사쿠(Sasaki Ryosaku)와 意見을 같이 하였다.<sup>29)</sup> 胡耀邦은 中共이 진정으로 그리고 確固히 韓半島에서의 持續的인 安定을 원하고 있으며 韓半島에서 緊張을 高潮시킬 수 있는 行動은 어디서 발생되든지 막론하고 피해야만 한다고 主張했다.<sup>30)</sup> 中共 外交部長 吳學謙은 日本外上 아베 신파로를 만난 자리에서 中共과 日本은 韓半島 平和維持에 서로 協力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胡耀邦의 主張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31)</sup> 끝으로 胡耀邦과 나카소네는 韓半島에서의 安定維持와 平和增進에 共同協力할 것을 合意하였다.<sup>32)</sup>

趙紫陽 역시 中共이 韓半島에서의 安定과 平和에 關心이 있음을 밝혔다. 趙紫陽은 1984年 3月과 1984年 4월에 各各 中共을 訪問한 日本 首相 나카소네와 美國 大統領 로널드 레이건에게 中共은 “이 地域에서 安定과 緊張緩和를 추구한다는 基本立場을 堅持하고 있으며 어느 진영에 의해서든

- 
27.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uary 5, 1984, p. 21.
  28. *Nihon Keizai Shimbun*, November 25, 1983;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ember 15, 1983, p. 1.
  29. *Tokyo Shimbun*, November 26, 1983.
  30. *Beijing Review*, Vol. 26, No. 49 (December 5, 1983), p. 3.
  3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ember 15, 1983, p. 17.
  32. *Ibid.*, p. 15.



간에 韓半島에서 緊張을 高潮시키는 모든 行爲에 反對한다”고 말했다.<sup>33)</sup> 中共인들이 밝힌 이러한 發言을 分析해 보면 中共이 慎重하게 北韓에 대해 自制하도록 상당한 影響力을 行使해 왔음이 分明하다고 할 수 있다.

韓國에서의 美軍駐屯이 韓半島統一의 主된 障礙物이라고 비난하고 韓國에서의 美軍撤收를 주장하는 北韓의 立場을 中共은 또한 支持해 주고 있다.

中共은 1983年 1月 南·北韓 政黨會議 및 韓國에서의 美軍撤收問題를 討議할 南·北韓 쌍방간의 大衆機構를 組織할 것을 提議한 北韓의 立場을 支持하였다.<sup>34)</sup> 그렇다고 해서 中共이 말로써 支持의 뜻을 표시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中共이 北韓의 主要 立場에 대해 贊成의 뜻을 표하는 것은 아직 부분적이고도 조심스런 것이다. 사실상 中共은 韓國에서의 즉각적으로 美軍을 撤收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마지 못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中共은 平和的 過程을 통한 統一을 선호하고 있다. 中共은 韓國이 國際舞臺에서 活動을 넓혀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北韓의 반대에 直面하면서도 韓國과 經濟的·外交的 關係를 發展시키고자 하는 韓國에서의 長期的인 關心을 가지고 있다.

#### IV. 中共의 對韓國關係의 調整

毛澤東의 執權時에 中共은 韓國과 어떠한 形態의 接觸도 하지 않았으며, 계속적으로 韓國에 대한 敵對的 政策을 堅持해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

33. *Beijing Review*, Vol. 27, No. 14 (April 2, 1984). p. 11.

34.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January 25, 1983, p. D1; January 26, 1983, p. D2.

韓國을 封鎖·孤立·崩壞시킨다는 北韓의 基本外交政策目標와 보조를 맞춰 나갔다. 1970年代初 데탕트가 進展됨에 따라 韓國은 中共과의 和解政策을 개시하였다. 1970年 8月 韓國政府는 非敵性 共產國家와 非公式的 接觸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積極的 關心을 표명하였으며 蘇聯 中共과 外交的 關係를 열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하였다.<sup>35)</sup> 1973年中半 韓國은 또 하나의 重要的 發意를 하였다. 6月 23日에 朴正熙 大統領은 世界 모든 國家에 門戶를 開放할 것이라고 宣言하고 共產國家들도 마찬가지로 韓國에 대해 門戶를 開放할 것을 촉구하는 이른바 6.23 宣言하였다. 이와같은 政策을 創案한 것은 주로 國際的인 代表性이라는 方法을 통하여 南北間의 緊張緩和를 위해 努力함으로써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려는 韓國의 意圖에 의해 動機賦與 받은 것이다.<sup>36)</sup> 同時에 韓國政府는 韓國國民이 共產國家와 接觸하는 것을 막는 法的 障礙物을 廢止하고 많은 措置를 일방적으로 취하였다. 이러한 提案들에 대해 蘇聯과 中共은 北韓을 競爭의으로 自國의 支持勢力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慎重한 反應을 보였다. 蘇聯과 中共 兩國은 北韓의 反感을 살만큼 모험을 걸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中共과 韓國間에는 蘇聯과 韓國間의 關係와 比較해 볼 때 눈에 띄만한 接觸은 거의 없었다. 1983年 9月 KAL機擊墜事件이 일어나기까지 蘇聯은 中共보다 韓國에 對해 좀 더 유연한 態度를 보였다. 1974年 9月 中共으로부터 韓國과의 制限되어 있으나 非政治的 關係

35. *The New York Times*, August 8, 1971.

36. Dalchoong Kim, "Two Koreas and Four Major Powers: Mutually Balanced Contact for Peace and Reunification,"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 13, No. 1 (Spring-Summer 1984), p. 42.

를 增進시키려는 첫번째 조짐이 보였다. 中共은 韓國과의 郵政關係의 樹立을 許容하였다.<sup>37)</sup> 1975年 7月 中共은 韓國과의 電信關係樹立에 合意하였다.<sup>38)</sup> 1979年 以來 惡天候, 修理, 또는 供給等 여러가지 이유로 韓國의 港口에 避難·停泊한 中共漁船의 數가 增加해 왔다.

多角的인 基礎위에서 中共은 韓國에서 열리는 國際會議에 參加하는 國際機構의 任員인 華僑에게 參加를 許可하기 시작하였다. 1981年 여름 서울에서 열린 海洋法에 關한 國際會議에 UN事務局 任員인 中共人 한 명이 參加하였으며 또한 美國에서 研究中인 또 한 명의 中共人 海洋法 專門家가 中共旅券을 가지고 會議에 參加하였다. 그리고 잇달아 世界保健機構의 任員인 두 명의 中共人이 世界保健機構 地域會議에 參席차 서울을 訪問하였다. 1982年 10月, 前年度에 서울서 열린 海洋法 會議에 參加했던 UN事務局 中共人 任員이 또 다시 UN訓練 및 調查研究所(UN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의 後援으로 열린 國際法 세미나에 參席하기 위해 서울을 訪問했다.<sup>39)</sup>

쌍방간의 기초위에서 中共政府는 그들의 華僑에게 韓國旅行을 許諾하지 않았다. 그러나 中共政府는 家族이나 親戚을 訪問하거나 韓國에 永久歸還을 원하는 在中共 韓國人들이 제출한 비자申請書を 承認해 왔다. 1982年末 中共은 47家族 65名の 韓國永久歸還과 17家族 23名の 일시 訪問을 許諾하였다.<sup>40)</sup>

---

37. *Korea Newsreview*, October 12, 1974.

38. *Ibid.*, July 12, 1975.

39. Dalchoong Kim, *op. cit.*

40. *Ibid.*

中共政府는 根本적으로 韓國旅券을 가진 韓國僑胞들에게 入國비자를 發給하지 않았다. 그러나 中共政府는 商業的 目的이나 中共에 있는 親戚을 訪問할 目的을 가진 第3國의 旅券을 가진 第3國居住 韓國人에 대한 비자를 許可하였다. 中共은 또한 國際機構의 任員인 韓國僑胞에 대한 비자를 許可하였다. 中共을 가장 빈번히 訪問한 사람은 國際保健機構(WHO) 韓國任員이었다.<sup>41)</sup> 蘇聯과는 달리 1983年 8月까지 中共에서 열린 國際會議에 參加하려는 韓國人의 비자申請은 거절당하였다. 원래 1982年 11月 15日에서 12月 4日에 걸쳐 廣東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UN環境計劃(UN Environmental Plan)의 워크-샵이 中共이 韓國의 公式代表의 入國許可를 거부했기 때문에 延期된 것으로 알려져졌다.

中共은 中共에서 열리는 國際競技大會에 韓國體育人의 參加를 거부하였고 서울에서 열린 國際競技大會에 어떠한 中共選手團도 派遣하지 않았다. 1978年 4月 韓國은 中共에서 열린 아시아 배드민턴 選手權大會에 參加하지 못하였다. 1978年 10月 上海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아시아 靑少年蹴球大會가 中共이 韓國選手團의 招請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취소되었다. 똑같은 理由로 원래 1979年 3月 北京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世界아이스하키 選手權大會가 바르셀로나(Barcelona)로 場所를 옮기게 되었다. 또한 1979年 10月 中共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第21回 아시아 주니어 蹴球選手權大會가 中共의 韓國選手團의 入國拒絶로 取消되는 結果를 낳았다.<sup>42)</sup>

1983年 5月 拉致당한 中共飛行機의 強制着陸事件으로 韓國은 中共當局과

---

41. *Ibid.*

42. *Ibid.*

直接的 接觸을 꾀할 수 있는 期待치도 않던 좋은 機會를 맞았다. 5月 7日 中共은 飛行機, 貨物, 乘客의 送還을 위한 韓國當局과 協商을 벌이기 위해 中共民航局 總局長 沈圖가 이끄는 33名의 官吏 및 보잉 707 乘務員을 신속히 派遣하였다. 中共官吏들은 72時間 유효한 入國許可를 받았다. 最初로 兩國의 公式名稱을 사용한 5月 9日에 조인된 覺書에서 장래에 이와 유사한 緊急事態의 發生時 兩國은 協力을 增進하기로 合意했는데 이는 進一步한 接觸을 위한 可能性을 연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에 沈圖는 韓國當局의 歡待와 人道主義的 關心에 感謝의 뜻을 표시하였다.<sup>43)</sup>

1983年 6月 韓國·日本·中共은 1984年 8月 4日로부터 中共, 日本 및 餘他 3個國의 飛行機가 韓國飛行情報區域을 通過하여 飛行할 수 있도록 上海와 日本의 후쿠에를 연결하는 새로운 航路開設에 관해 1983年 1月 이미 合意했음이 밝혀졌다.<sup>44)</sup>

그러나 旅客機拉致事件이 中共·韓國關係에 있어 즉각적인 突破口를 마련해 주지는 못하였다. 韓國의 期待와는 반대로 旅客機 拉致事件 以後에 中共이 취한 즉각적인 行動은 中共·韓國間의 和解可能性에 대한 金日成의 疑懼心を 무마시키기 위해 外交部部長 吳學謙을 北韓에 派遣하였다. 吳學謙은 公式적으로 中共이 ‘두개의 韓國’이라는 方式에는 反對한다는 既存의 立場을 再確認하였다.<sup>45)</sup> 中共은 계속해서 中共에서 열리는 國際會議에 韓國 官吏의 入國을 許可치 않는 政策을 고수하였다. 中共은 1983年 5月 20日

---

43. *Beijing Review*, Vol. 26, No. 23 (June 6, 1983), p. 6.

44. *Korea Herald*, June 11, 1983

45. 로동신문, 1983, 5月 21日 - 25日

에서 6月9日 사이 아시아 太平洋地域 UNESCO의 後援으로 山東地方에서 열린 地質學研修 프로그램에 參席하고자 했던 韓國動力資源研究所 所屬의 한 公務員의 入國申請을 거절하였다.<sup>46)</sup> 또한 中共은 1983年 5月 22日에서 6月 18日에 걸쳐 UN 工業開發機構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의 後援을 받아 坑州에서 열리는 水力電氣에 관한 워크샵에 參加하려는 韓國電力公社 職員에게 入國許可를 거부했다.<sup>47)</sup> 中共은 또 다시 農水産部 傘下團體인 國立水産振興院 所屬의 李鍾演의 入國許可를 거부했다.<sup>48)</sup> 李鍾演은 UN開發計劃의 도움으로 食糧農業機構의 後援을 받아 필리핀에서 열린 水耕式農業練修 프로그램에 參加했었다. 이 計劃의 一部가 中共에서 열린 한달간의 세미나였다. 1983年 8月 7日 中共空軍操縱士가 MIG-21機를 몰고 韓國에 亡命하였다. 中共은 5月 旅客機 拉致事件의 경우와는 달리 韓國當局과 機體送還에 관한 直接的 協商을 要求하지 않았다. 대신에 中共 外交部 代辯人이 外國記者들에게 中共은 操縱士뿐만 아니라 機體의 送還도 바란다고 말하였다.<sup>49)</sup>

最終적으로, 重要的 突破口가 中共側에서 열렸다. 中共 戰鬥機 操縱士의 亡命 1週域 後인 1983年 8月 14日 中共은 두달전에 入國許可를 한번 拒否한 바 있는 韓國公務員 李鍾演에게 入國비자를 發給하였다.<sup>50)</sup> 李鍾演은 大韓民國旅券 別紙에 中共의 入國許可를 香港에서 받아 香港을 經유하여 中

46.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28, 1983, p. 32.

47. *Ibid.*

48. *Ibid.*

49. *Ibid.*, August 25, 1983, p. 32.

50. *Ibid.*, September 8, 1983, pp. 44-45.

共에 入國했다. 이것은 1949年 中共政府가 樹立된 이래 처음으로 中共이 大韓民國 政府官吏에게 公式的으로 入國을 許可한 경우이다. 이것은 韓國과 中共間의 關係發展에 있어 새로운 段階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 이후 中共은 自國에서 열리는 國際會議나 運動競技에 參加하려는 韓國人에게 入國을 許可한다는 政策을 樹立해 나온 것이다.

韓國과 中共의 運動選手團은 國際競技 參加를 위해 相互 訪問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8名의 韓國테니스選手團이 8月 2日에서 4日 사이에 昆明에서 열린 데이비스 컵(Davis Cup) 東部地域 2次豫選에서 中共選手團과 겨루기 위해 1984年 2月 25日 中共에 入國하였다. 4名의 韓國任員이 4月 8日에서 10日 사이에 廣東에서 열린 아시아 蹴球聯盟 1984年 總會에 參席하였다. 아시아蹴球聯盟 執行委員會는 1984年 7月 서울에서 國際蹴球聯盟(FIFA)의 指導者 講習會(Coaching Clinic)를 開催하려는 委員會의 決定을 承認하였다.<sup>51)</sup> 3名의 韓國記者가 3日間の 아시아蹴球聯盟會議를 取材하려고 中共入國許可를 받았는데 이들은 1949年以來 中共에 入國한 最初의 韓國言論人이다.

또한 中共은 1984年 4月 서울에서 열린 第8回 아시아 靑少年籠球選手權大會에 34名의 籠球選手團을 派遣하였다.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 第2回 아시아 水泳選手權大會에 29名의 水泳選手團을 派遣하였다. 1984年 9月 한 명의 國際올림픽委員會(IOC) 委員과 北京 副市長을 包含한 12名의 中共代表團이 아시아올림픽評議會(the Olympic Council of Asia) 總會에 參席하기 위해 서울을 訪問했다. 이들은 1990年 아시안 게임 誘

---

51. *Korea Herald*, April 12, 1984.

致權 獲得을 위한 成功的인 交渉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아시아올림픽評議會 代表를 위해 全斗煥大統領이 靑瓦臺에서 배푼 리썰션에도 參加하였다.<sup>52)</sup> 그 이후로 스포츠交流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장래에도 交流가 增大될 것으로 期待된다.

中共 全國人民代表大會 副委員長 耿飜가 1984年9月 東京에서 열린 第71次 國際議員聯盟會議 期間中 日本代表團이 배푼 파티에서 中共이 서울올림픽에 選手團을 派遣할 意向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事實이 밝혀졌다.<sup>53)</sup> 한 日本 外務省 高位官吏에 따르면 中共 外交部部長 吳學謙이 日本 外相 아베 신파로를 만난 자리에서 中共이 1988年 서울夏季 올림픽에 參加할 意向이 있음을 밝혔다고 한다.<sup>54)</sup> 이미 1990年 아시안게임을 北京에서 열기로 決定되어 있기 때문에 中共이 1986年 서울아시안게임에 參加할 것은 거의 確實하다고 할 수 있다.

1985年 3月 韓國이 中共과의 새로운 關係를 摸索할 機會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事件이 發生하였다. 船上亂動後 黃海를 漂流하고 있던 中共 海軍 所屬의 魚雷艇 한 척이 韓國漁船에 救助되어 群山港에 曳引되었다. 19名의 船員中 6名이 2名의 船上亂動者들에 의해 殺害되고 다른 두名은 負傷을 입었다. 事態를 더욱 複雜하게 만든 것은 中共軍艦들이 魚雷艇을 搜索하다 韓國의 領海를 侵犯한 사실이다. 香港駐在韓國總領事와 新華社通信 香港支社長과의 協商이 시작되었다. 中共은 中共이 韓國의 領海를 侵犯한 사실에 대해 公式적으로 謝過하라는 韓國의 要求에 受諾하였다. 魚雷艇과 生存·死亡한 船員 모두 中共으로 送還되었다.

---

52. *Ibid.*, September 27-29, 1984.

53. *Ibid.*, April 8, 1984.

54. *Ibid.*, March 8, 1984.



魚雷艇事件이 있은지 한 달후, 中共은 UN의 後援을 받아 北京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 問題에 관한 세미나’에 參席하려는 두명의 韓國外交官에게 비자를 發給하여 줌으로써 會議參席을 가능케 하였다. 이것은 中共이 1949年 以來 中共을 訪問하려는 韓國外交官에게 入國許可를 해 준 最初의 경우였다.

經濟적으로 中共은 香港, 日本, 美國 等地的 第3者를 통해 韓國과 間接 貿易을 하기 시작하였다. 1981年 2月 Asian Wall Street Journal의 報告에 따르면 中共이 第3國을 통하여 韓國과 間接的 貿易關係를 樹立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sup>55)</sup> 이코노미스트紙(the Economist)도 비슷한 內容의 記事를 실었다.<sup>56)</sup> 1981年 9月 人民外交研究所(People's Institute for Foreign Affairs) 所長이 中共이 上海를 통해 韓國과 貿易을 行하고 있는 現實이라고 말했음이 報道되었다.<sup>57)</sup> 中共의 高位級 官吏가 그와 같은 貿易事實을 認定한 것은 이것이 처음있는 일이었다. 韓國은 中共으로부터 석탄과 織物을 輸入하고 中共에 黑白 및 칼라 텔레비전, 電子製品, 石油化學製品, 肥料等を 輸出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日本資料에 따르면 中共과 韓國間 貿易의 全體價値는 1979年 2千萬달러 정도로 밖에 推算되지 않았으나 1980년에는 6億달러로, 1981년에는 12億달러로 增加하였다.<sup>58)</sup> 臺灣에 있는 國際關係研究所에서 나온 또 다른 資料에 의하면 全體貿易價値는 1979년에 1億 2千萬달러, 1980년에 3億 3千

---

55. *Asian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12, 1981.

56. *The Economist*, February 28 and March 6, 1981.

57. *Tokyo Shimbun*, September 14, 1981.

58. *Nihon Keizai Shimbun*, July 20, 1980.

萬달러, 1981년에는 12億달러로 增加하였다고 한다.<sup>59)</sup> 또한 報道에 따르면 1984年 中共과 韓國間의 全體貿易價値는 8億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報道에 따르면 1984年末, 1985年初에 中共政府는 中共港口에 韓國 船舶의 直接入港을 許容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적어도 韓國에서 主導的 位置에 있는 大企業中의 하나가 中共의 特殊經濟地域의 한 地域에 合作投資를 하여 텔레비전 部品工場을 設立하였다는 報道도 있다.<sup>60)</sup>

이러한 趨勢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中共과 韓國間에는 經濟的, 文化的 相互交流가 增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 V. 結 論

지금까지의 分析으로 미루어 볼때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은 根本的으로 安保利益을 最優先視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을 繼續性的 側面에서 본다면 中共은 中·蘇間 競爭의 脈絡속에서 安保的 目的을 위해 北韓을 자기편으로 두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을 目的으로 中共은 軍事的·經濟的·外交的 支援을 통해 北韓과 協力的 同盟關係를 維持·發展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와같이 함으로써 蘇聯이 意圖하는 戰略的 包圍政策에 北韓이 統合되는 것을 防止하려고 한다. 同時에 中共은 韓半島에서의 軍事紛爭을 抑制하기 위하여 韓半島에서의 軍事的 均衡을 維持하려고 진지하게 努力하고 있다. 中共이 말로는 韓國에서 駐韓美軍이 撤收해야 된다고 主張하고 있지만 事實상 韓國에서 美國이 信賴할 만한 軍事的 均

---

59.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26, 1982.

60. *Korea Herald*, May 10, 1985.

衡勢力으로 肯定的인 役割을 遂行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認識하고 있으며 결국 全面的인 美軍의 撤收로 인한 不均衡으로 不安定을 招來하기보다는 美軍이 漸進的으로 減少되어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

調整性의 側面에서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을 본다면 中共은 變化해 가는 中共의 國內經濟政策, 列強間의 關係, 南北韓關係의 發展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外交政策을 調整해 나가고 있다. 鄧小平 - 趙紫陽 胡耀邦 體制下的 中共指導部가 國內的으로 實用的인 經濟現代化政策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中共은 이데올로기가 차지하고 있는 役割의 重要性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리고 南韓을 包畵한 理念이 다른 國家들과도 友好的・協力的 關係를 增進시킴으로써 外交政策上 實用主義的 現實主義的 路線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980年代 後半의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의 두드러진 特徵은 역시 政策과 行爲에 있어서 調整性을 追求하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繼續的인 調整性은 中共의 韓半島 平和와 安定에 대한 關心과 韓國과의 接觸에 대한 關心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中共이 實用主義的 外交政策을 취하고 韓國과 機能的 接觸을 계속 할지라도 中共은 北韓이 反對하는 한 UN 同時加入이라든지 交叉承認등과 같은 '2個의 韓國'이라는 公式을 認定하지는 않을 것이다.



## 第3部 北韓의 變化와 政策

第1章 北韓의 權力承繼와 政策變化

第2章 北韓의 對外貿易

第3章 北韓의 變化와 韓國에 미치는 影響



# 第 1 章 北韓의 權力承繼와 政策變化

柳 錫 烈  
(外交安保研究院教授)

## I. 序 論

이 研究의 目的은 北韓의 權力承繼와 政策變化에 特別한 關心을 가지고 北韓體制의 本質을 규명하는데 있다.

共產國家에 있어서 權力承繼는 모든 獨裁者들에게 가장 골치아픈 問題가 되어왔다. 獨裁者는 그의 獨點的 權威에 도전하려고 하는 第二의 權力을 가진 어떤 인물도 용납하기를 원치 않는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므로 不信과 疑心은 그들의 동료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獨裁者의 信條이다. 獨裁者가 生存해 있는동안 承繼問題는 討論조차도 할 수 없는 不文律로 되어왔다.

自然히 獨裁者 死後에 무모한 權力鬭爭이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판국에 共產國家에 있어서 王朝繼承은 이론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 全體主義的 本質 때문에 생각할 수조차도 없다.

만일 金日成이 그의 일생동안 王朝繼承의 目標를 達成하게 된다면, 이 나이 많은 獨裁者는 마르크스 교리(Marxist doctrine)을 완전히 뒤집어 엮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어떤 다른 共產指導者가 전에 하지못했거나 시도조차 하지못한것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王朝繼承計劃은 金日成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이미 잘 진행되어 왔다. 만일 現在와 같은 北韓政治狀況이 앞으로 몇년간 계속된다면, 北韓은 世襲統治를 하게되는 最初의 共產國家가 될 것이다.

그러나 王朝繼承過程에는 많은 불확실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王朝繼承의 未來를 예견하기가 쉽지않다.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새로운 정책노선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理由로 北韓에서 權力承繼問題와 政策變化는 가장 重要한 연구주제의 하나가 되어왔다.

## II. 政治權力的 世襲承繼

北韓에서 政治安定에 對한 중대한 위협은 後繼者 결정을 하지 않고 金日成이 죽는 일이다. 金日成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北韓에서는 權力承繼에 관계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金日成은 그의 死後 다음 지도자가 그의 “빛나는 革命的 傳統”의 모범 특히 共產統治下에서 분단된 韓國을 재통일 하는 그의 一生의 目標로부터 벗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sup>1)</sup> 金日成은 확실히 그의 명성과 政策의지는 그가 믿을수 있는 사람손에서 계속 지켜지고 퍼쳐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어한다.

權力承繼問題를 다루는 동안, 金日成은 확실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금언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金日成은 그의 아들 金正日을 元老 黨동지들과 의논하여 그의 後繼者로 지명하려고 하는것 같다. 그는 “아버지가 완수하지 못한 革命的 위대한 임무를 아들이 達成할수 있다”<sup>2)</sup>

---

1) 蘇聯의 흐루시초프 - 브레즈네프 時期와 毛死後 中共의 華國峰 - 鄧小平 統治時期는 그의 변질의 완전한 실예를 제공해 주고있다. 그래서 金日成은 결국 북한에서 蘇聯이나 中共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2) 1976年末에 노동당은 “위대한 지도자 金日成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관한 당동지들을 위한 교과서”라는 제목으로된 교본을 당위원들에게 배포했다. 노동당 창립 30주년때 金正日是 “그의 아버지의 절대적인 承繼者”로 분명히 언급되었다.



고 말함으로써 革命任務繼承의 必要性을 強調해왔다. 이것이 金日成 權力承繼理論의 基礎인 것이다.

## 1. 金正日 權力承繼의 問題點

### 1) 理念的 禁忌

世襲承繼의 概念은 共產主義體制에서는 理念的인 禁忌이다. 1970年 平壤에서 출판된 「정치용어사전」에는 世襲承繼라는 用語를 어떤 지위나 富가 法的으로 상속되는 착취하는 社會의 反動的 관습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 사전에 의하면 원래 노예제 社會의 生産物은 獨재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영주에 의해서 착취되었다는 것이다.<sup>3)</sup> 비록 世襲承繼라는 用語가 1973年版에는 빠졌지만,<sup>4)</sup> 世襲承繼의 원래 개념은 北韓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다. 특히 北韓의 黨空論家集團은 權力的 世襲的 이양을 理念的 禁忌으로 여전히 간주하고 있다.<sup>5)</sup> 北韓은 王朝世襲에 對한 論爭過程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共產國家들이 그런 王朝世襲方式을 理念的 禁忌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世襲承繼를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간주해 왔다. 사실상 1948年 共產黨 宣言(Communist Manifesto) 이래 지금까지 共產世界에서 어떤 權力的 世襲承繼도 행해질 일이 없었다.

원칙적으로 어떤 共產主義國家에서도 金正日이 權力承繼者로 浮刻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權力承繼者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알려지지 않았다. 文化革命期間동안 中共의 경험을 끌어내어 北京政府는 前北京 駐在

---

3) 「정치용어사전」(평양:사회과학원, 1970), p.414.

4) 「정치학사전」(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3).

5) Dong-bok Lee, "North Korea after Sixth KWP Congress," *Korea & World Affairs*, Vol.5, No.3(Fall 1981), p.432.

北韓大使 玄峻極을 초청하여 中共이 저지른 것과같은 똑같은 실수를 北韓이 되풀이 하지 말도록 암암리에 충고를 했다.<sup>6)</sup> 그로부터 五個月後, 그러나 아직은 第六次 黨大會以前이었는데, 中共은 또다시 平壤에게 後繼者는 人民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 시켰다. 世襲承繼는 봉건사회의 殘存效果(after-effert)였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음 北京側은 北韓의 王朝承繼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sup>7)</sup> 「中國共產黨 公式 機關紙인 「紅旗」는 한 個人에게로의 權力集中은 건전한 共產黨과 兩立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설을 통해 언급했다.<sup>8)</sup>

過去 경험에 비추어 東歐와 蘇聯 知識人들은 北韓의 世襲承繼를 위한 시도에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다. 왜냐하면 世襲承繼는 봉건주의, 부르조아적 개인주의, 그리고 正統 마르크스主義에 對한 禁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한 外交 消息通은 역시 모스크바가 평양에서 王朝承繼의 창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신을 표명해왔고,<sup>9)</sup>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북한의 뻔뻔스러운 王朝世襲과정을 면밀히 관찰해 왔으나 중공과는 달리 蘇聯은 의도적으로 北韓內部の 事情에 對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다고 보도했다.

北韓의 王朝世襲에 對한 共產國家들의 근본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는것 같다. 그들은 金正日이 그의 아버지의 權力을 成功的으로 양도받은 후에도 그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外交的 修

6) 「人民日報」, 1980.3.10.

7) *FBIS, People's Republic of China*, November 14, 1980, p. U-1.

8) *Beijing Review*, November 30, 1980, pp.15-17.

9)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14, 1980, p.45.

辭는 어느정도 변경해 오고 있다. 共產國家들 中에 北韓과 다소 미묘한 立場에 있는 蘇聯과 中共은 의도적으로 外交的으로 제스처를 쓰고 있다. 두 巨大 共產國家는 最近 北韓의 權力承繼問題에 對해서 우호적인 외교적 제스처를 쓰고 있다.<sup>10)</sup>

## 2) 리더십의 부족

첫째, 金正日은 民族的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必要한 위세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 金正日은 最高指導者들의 단결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그의 아버지와같은 무적의 위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抗日獨立運動에도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1945年 解放以後조차도 祖國에 對한 특별한 공헌을 하지 못했다. 그는 軍經驗도 없고 그의 위세가 軍部에 높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그는 軍部の 후원을 얻으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다.<sup>11)</sup> 그는 金日成이 오랜동안 權力을 확고하게 지켜온 政治的 對抗意識과 같은 기술도 부족하다.<sup>12)</sup> 그는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주도된 빨치산 활동에 다시 가담할 수도 없고 韓國戰爭에서 다시 어떤

---

10) 胡耀邦은 1945年 5月 6日 그의 평양방문 환영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金日成同志와 金正日同志와의 회담에서 양상곤과 나는 國際環境에 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 만족한 합의점에 도달했다.”

「北韓資料」, Vol.3(서울:國土統一院, 1984年 6月), p.63.

蘇聯外務次官 카피짜(Kapitsa)는 모스크바에서 日本記者의 질문에 답하면서, 소련은 金正日이 후계자로 되는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讀賣新聞」, (夕刊), 1984.12.7.

11) *The Korea Herald*, April 14, 1985.

12) Ralph N.Clough, “North Korea after Kim Il-Sung” Prepared for a conference on “Northeast Asia in the 1980’s:Challenge and Opportunity” Co-sponsored by the IFANS and CSIS, July 28-29, 1982, p.11.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다.

金正日은 또한 北韓에서 확고한 權力基盤을 확립하는데 주로 必要한 후원자인 蘇聯과 中共을 포함하여 다른 共產國家들을 다룬만한 경험과 기술도 부족하다. 第六次 黨大會以前에 中·蘇 두나라는 北韓의 世襲承繼의 가능성에 대하여 強力한 비판을 했다. 金正日은 金日成 死後 北韓의 獨自性을 지킬수 없을지도 모른다.<sup>13)</sup> 이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金正日은 金日成과 金日成의 빨치산 同志들의 강력한 후광을 받아 金日成의 後繼者로 지명되었던 것이다. 그는 그의 能力때문이 아니라 단지 金日成의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後繼者로 지명되었던 것이다.<sup>14)</sup>

둘째, 金正日은 그의 아버지가 권위적 지배 (authoritarian rule)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지만 그와같은 카리스마(Charisma)를 갖고 있지 않다. 金日成의 카리스마는 비록 그의 조작된 개인역사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그의 政敵을 제거하는데 最大限 이용되어 왔다. 金日成은 과거 경험을 가지고 우상화 과정을 통하여 金正日을 위한 조작된 카리스마를 창조하려고 하고 있다. 우상화를 위한 추진은 주로 世襲承繼에 對한 있을수 없는 저항을 무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sup>15)</sup> 그러나 金日成의 카리스마가 自動的으

---

13) Donald S.Zagoria, "North Korea: another Afghanistan?" pp.1-2, 28.

이 論文은 1981年 2月 23~28日에 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와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분교)가 공동 주최한 회의에 제출된 것이다.

14) 더 상세한 것은 柳錫烈, "北韓의 最近 對內動向," 韓國言論研究院, 1981, pp.34-44 參照.

15) 第6次 黨大會以後 「로동신문」은 위대한 지도자 및 黨中央에게 忠誠을 다할것을 되풀이 했다. 「로동신문」, 1982.10.15.

로 金正日에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sup>16)</sup> 만일 金日成이 모든 그의 절대적인 權力을 가지고 수호천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金正日의 政治權力뿐만 아니라 金正日의 우상화 및 個人숭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세째, 金正日은 부동의 대중적 지지가 부족하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지금과 같은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金正日이 우상화나 개인숭배와 같은 수단으로 大衆的 支持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金正日은 대다수의 北韓주민들이 對內的 安定에 최우선권을 준다는 점에서 權力을 유지하기 위한 한가지 잇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對內的 不安定이 도전할 수 없는 북한 독재자의 사후에 不可避하게 따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sup>17)</sup> 自然的으로 對內的인 혼란이 金正日 勢力과 그 反對勢力間的 무모한 權力鬭爭으로부터 야기될 것이다.

네째, 金正日은 金日成을 종교적 숭배자로 생각하는 “金日成主義”(Kim Il - Sungism) 과 같은 獨自的으로 발전시킨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부족하다.<sup>18)</sup> “主體” 사상을 포함하여 “金日成主義”를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소와 연구단체들이 海外에 조직되어 있다. 그 단체들을 통하여 金日成은

---

16) 李庭植教授와 東亞日報記者와의 인터뷰에서, 「東亞日報」, 1981.11.4 日字 參照.

17) 스킨라피노(Robert Scalapino)教授는 北韓內部的 分裂은 金正日이 權力承繼者로서 완전한 권력을 양도받을때 더 격렬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東亞日報」, 1981.10.30.

18) UPI의 크랩(Robert Crabbe)記者는 1979年 평양을 다녀온후 “北韓은 金日成을 숭배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UPI, May 7, 1979.

親北韓團體들과 北韓支持者들을 끄는 데에 상당히 成功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를 대신한 金正日이 이와같은 團體들로부터 같은 수준의 支持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在日朝鮮人聯盟(朝總聯)이 조작된 偶像화 와 함께 金正日의 절대적인 지도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생각해 볼 問題로 남아있다.

### 3) 反對와 抵抗

아마도 北韓의 世襲承繼의 가장 큰 問題는 對內的인 反對와 抵抗일 것이다. 對內的인 주요 抵抗勢力으로는 統治集團으로부터 소외된 勢力, 技術官僚들과 엘리트, 金日成家族 및 一般大衆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모든 抵抗勢力들이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方法으로 뭉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첫째, 統治엘리트內에 있는 사람은 소외된 두 勢力으로 區分한 수가 있다. 즉, 노동당內에 있는 사람과 軍部內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것은 黨幹部들間에 王朝世襲을 인정하기를 대대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건 反對의 強渡를 측정할 방도는 없다. 주로 소외된 共產黨 이념집단은 權力的 世襲양도를 理念的 破門으로서 간주하려고 하는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다. 世襲承繼를 反對하는 많은 元老 노동당지도자들은 1975年부터 제거되거나 강등되어 왔다. 權力中心으로부터 제거된 元老黨革命家들은 金正日 支持勢力的 주원천인 少壯黨急進派들에게 強力한

抵抗을 나타냈다는 것은 역시 주목할 만하다.<sup>19)</sup>

軍部 역시 金正日의 浮上에 反對하는 中心集團으로 거론되고 있다. 人民軍總政治局長인 李勇式같은 少壯將校들이 정치무대에서 떠날때 노골적인 저항이 표면화되었다는것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吳克烈이 人民軍總參謀長이 되자 軍部에 의한 노골적인 抵抗은 상당히 줄어진것 같다.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등의 軍指揮官들이 少壯의 金正日 동창생인 萬景臺革命學院出身들에 의해서 계속 대체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正日이 軍을 統制하는데 있어서 問題點이 계속 생기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sup>20)</sup>

둘째, 世襲承繼에 對한 주요 內部的 不滿勢力들은 工業化의 부산물로서 형성된 기술관료들과 엘리트集團들이다. 이런 集團들은 北韓이 “革命路線”의 不可能한 實行을 爲한 열광적인 몰두로부터 다소 벗어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金日成이 몇 가지 政策目標을 再定義하는 것을 보고싶어

---

19) 第五次 黨大會 委員들로서 第六次 黨大會 委員으로 선출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金英柱(6位), 金東奎(8位), 白南雲(26位), 柳章植(28位), 任哲(38位), 오동욱(42位), 金益鉉(51位), 李勇式(53位), 盧炳禹(56位), 吳泰鳳(60位), 오숙희(68位), 이순화(69位), 柳順熙(70位), 崔允洙(71位), 皮昌麟(74位), 玄哲奎(76位), 최용학(78位), 양만철(84位), 유승남(86位), 배승혁(87位), 최창권(88位), 金二勳(98位), 金守得(101位), 梁君玉(104位), 李民洙(106位), 金桂賢(108位), 이건일(114位), 崔용희(115位), 朴海權(117位), *The Vantage Point*, Vol. IV, No. 7, July 1981.

20) *Vantage Point*, Vol. IV, No.8, August 1981, pp.13-14.

「로동신문」은 黨과 指導者에 對한 軍의 확고부동한 충성을 강조하는 長文의 사설을 게재했다. 「로동신문」, 1981.6.13. 또한 崔賢將軍이 王朝承繼에 대한 완고한 저항때문에 독살당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東亞日報」, 1982.4.22.

하고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資源과 목표의 우선순위를 재배정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合理主義 政策에 의한 그들의 우선순위와 現在技術에 對한 그들의 접근은 金正日의 모험주의적 정책과 충돌하여 점점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들은 金日成의 世襲承繼에 對한 기도에 反對해 왔다. 第六次 黨大會에서, 金日成은 黨組職은 경제각료들中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명백화된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기중심화된 경향이 그들 사이에 분명해졌으며, 상당한 정도로 社會主義建設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up>21)</sup> 金日成은 역시 共產主義 理論을 구실로 王朝承繼에 反對하는 엘리트들을 意識하고 있다.<sup>22)</sup>

세제, 世襲承繼에 對한 問題點은 金日成 一家內의 主導權을 爲한 鬭爭에 주로 있다. 金日成의 동생이며 1970年 第五次 黨大會에서 權力序列 6位로 부상했던 金英柱는 1933年 그의 조카 金正日에 의해서 대체되었으며 나중에는 숙청되었다. 金英柱와 個人的으로 사귀었던 당거물들도 자동적으로 강등되거나 사라졌다.

한편으로는 金正日 형제들간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金正日의 계모와 아버지와의 權力鬭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sup>23)</sup> 金日成의 現妻인 金聖愛와 金正日사이에 불화가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金聖愛는 타고난 강한 政治的 個性을 가지고 있고 그녀 남편의 政策에 확고한 信念을 가지고

21) 「로동신문」, 1980.10.12.

22) Ralph N. Clough, "Internal Trends in the Two Koreas," Prepared for Seminar on Korea,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pril 6, 1978, p.9.

23) 金英柱系의 한사람이 1981년에 金正日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고 보도되었다. 「內外通信」, 第271號(1983.2.4).



있는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金日成은 1950年에 그의 現妻인 金聖愛와 두번째 결혼을 해서 5남매 (아들들, 딸셋)의 자녀들을 두고 있다.<sup>24)</sup> 金聖愛의 장남 김평일(32歲)은 지금 權力鬭爭에 참가할 수 있을 만큼 장성했다. 그는 金正日보다 성격이 더 좋고, 두뇌가 명석하고 더 능력있고 야망있는 사람으로 보도되었으며, 일정기간동안 東獨의 어느 大學에 보내졌다가 지금은 군에서 그의 權力기반을 양성하면서 軍服務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sup>25)</sup> 그와 金正日과의 관계는 팽팽하고 격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사이에 무모한 權力鬭爭의 可能性이 잠재하고 있다.

네째, 또 하나의 世襲承繼에 對한 內的 反撥勢力은 일반주민들이다. 北韓 주민들은 크게 이념적 핵심계층(전체인구의 28%), 동요계층(45%), 적대계층(27%)으로 3등분으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적대계층은 또다시 51개 그룹으로 세분하여 區分되어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적대계층은 反革命分子들에서부터 월남인사가족들과 북송교포들을 망라하는 “길들일 수 없는 이단자들”로 구성되어 있다.<sup>27)</sup>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北韓의 革命政策에 反

---

24) 金日成의 前妻 金貞淑은 1949年 49歲의 나이로 병사했는데 슬하에 3남매를 두었다. 첫째아들은 金正日이고, 둘째 러시아이름으로 유라(Yura)였는데 1948년 일곱살의 나이로 죽었고, 셋째는 딸로서 이름이 경희다. 또한 金聖愛는 5남매를 두고 있는데, 경일(34歲, 딸), 평일(32歲, 아들), 용일(30歲, 아들), 청일(? , 딸), 정일(23歲, 아들)이다. *NSPB Daily Information*, December 27, 1983.

25) *Peaceful Unification Weekly*, No.16, February 27, 1982, p.8.

26) *Th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ruary 6, 1982.

27) *The Korea Times*, April 13, 1982.

對하는 “위험스러운 분자” 들로서 간주되고 있고, 또한 이들은 법정추정 상속인으로서 金正日의 지명에 불만을 품고 있다. 약 15 만명의 북한주민이 북한에있는 완전 격리된 12 개의 강제수용소에 “사상범” 으로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다.<sup>28)</sup> 1983 年 「國際赦免年鑑」에 의하면 1983 年 1 月부터 4 月까지 1096 명의 북한주민들이 金正日의 權力承繼에 反對한다는 이유로 숙청되었다는 것이다.<sup>29)</sup>

노동당이 1985 年 1 月に 모든 불순분자들에 對해서 냉혹한 투쟁을 부르짖는 슬로건을 채택한 사실로 비추어 볼때, 북한에서는 여전히 金正日의 權力承繼에 對한 상당한 抵抗이 存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sup>30)</sup> 그러므로 金日成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한 權力의 世襲移讓에 對한 反對를 주목하기 위하여 강경정책을 고수할 것이 불가피하다. 북한에서 적대계층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서민들도 權力承繼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하는 「三大革命小組」의 오만한 行爲에 불만을 품고 있다.

## 2. 展 望

北韓의 對內事情의 未來는 많은 不確實한 매개변수들 때문에 예측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러나 權力承繼를 수행하려고하는 金日成의 확고한 결심을 고려해 볼때, 金日成의 死亡이 金正日 權力承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論文은 유일한 統制變數로서 金日成의 庇護時期를 다룰 것이다.

---

28) 「內外通信」, No. 440 ( June 21, 1985 ).

29) 「統一日報」, 1983.6.4.

30) *The Korea Herald*, April 4, 1985.

1) 三年以內동안의 庇護<sup>31)</sup>

만일 金日成이 三年以內 死亡한다면, 金正日은 그의 指導力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論爭을 爲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상황에 있다.

첫째, 金正日은 北韓社會의 變化로 생겨난 불확실한 상황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에 대항하는 적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 金正日이 軍部를 완전히 통제하고, 거기에 그의 지도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年以上이 必要하다.

둘째, 最近 北韓은 對中·蘇關係에서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다. 金日成 없는 金正日은 北韓이 最近 당면한 미묘한 問題들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三年이라는 期間은 北韓이 西方에 經濟開放政策을 成功的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넷째, 南·北間의 여러 형태의 경쟁이 88서울올림픽이 열릴때까지 계속적으로 고조될 것이다.

다섯째, 金正日이 변화된 상황에 따라 南韓에 접근하는 그의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는데는 여러해가 必要할 것이다.

비록 金正日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의 빨치산 동지들의 강력한 후광아래 北韓에서 제 2 인자가 되었다하더라도, 그의 權力基盤은 現存하는

---

31) 金日成이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건강해 보인다. 북한을 방문한 日本社會黨 委員長 이시바시 마사시 (石橋政嗣)는 金日成이 14年前보다 1984年9월에 더 건강하게 보였고, 또한 金日成은 매일 만보씩 걷고 있다고 했다.

지도자들의 일부에 극히 제한되어있다. 三年以內 金日成이 死亡할 경우 즉각적인 여파로 나타날 수 있는것은 金正日을 선두로한 소규모의 集團指導體制가 출현될 가능성이 있다.<sup>32)</sup> 그러나 最高 指導者는 政治的 對抗技術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할 것이다. 그런 集團指導體制의 형태와 내용에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金正日과 그러한 集團指導體制를 構成하는 黨理論家들이 現代化를 추구하는 技術官僚들과 급격한 변화를 원하는 一部 軍部勢力들의 연합세력들과 불가피하게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격렬한 권력투쟁의 두가지 궁극적인 결과는 예견될수 있다. 만일 金正日의 勢力이 反對勢力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우, <sup>33)</sup> 金正日은 吳振宇와 吳克列등의 軍部の 강력한 지지를 받아 차제에 反金正日勢力을 완전히 소탕하려는 강경노선을 취할것이며, 北韓주민들을 단단히 통제하기 爲하여 강경한 軍事路線을 취할 공산이 크다. 吳振宇와 吳克列이 黨과 軍部를 統制하는 한편 金正日은 全國을 統制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林着秋가 黨元老로서 理念과 統一問題를 맡게될것 같다. 부총리인 金煥이 다른 金正日 勢力들과 함께 政府를 統制할 것같다.

---

32) 理論上 現在 集團指導者로 있는 金正日과 吳振宇가 金正日의 열렬한 추종자인 吳克列과 朴春秋를 集團指導者로 끌어들일 것이다.

33) 金正日이 權力鬭爭에서 勝利하는데 必要한 能力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專門家도 있다. Tai-Sung An, "Dynastic Succesion in the Communist State : A Profile of north Korea," *Korea & World Affairs*(Summer 1979), p.258 參照.

만일 軍部の 연합세력과<sup>34)</sup> 元老 技術官僚<sup>35)</sup>들이 權力鬭爭에서 이긴다면, 金正日과 더불어 金日成을 격하시키게 될 것이고 새로운集團指導體制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權力鬭爭동안 혹은 權力鬭爭에서 이긴 직후까지도 軍部の 聯合勢力들은 간판인물로 김용일과 金聖愛를 이용할 可能性이 있다. 그들은 過去와 完全히 담을 쌓고 金日成의 神話を 점차적으로 벗길 것이다.<sup>36)</sup> 그들은 中共의 現代化를 위한 實用主義 모델을 바탕으로한 온건노선을 취함으로 一般大衆의 지지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 2) 三年以上의 庇護

權力承繼問題에 있어서 時間이라는 要素는 그 결과에 너무나 重要함으로 金日成이 三年以內에 죽지않는다면, 金正日是 확실히 그의 아버지의 權力을 承繼할 것이다. 이 기간은 金正日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배울수 있는 시간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1人統治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강화할 것이다. 그는 점차적으로 元老들을 포함하여 모든 反對派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젊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그는 또한 최고 지도체제에 새로운 세대들을 영입시킬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의 理念과 政策은 金正日의 主導下에 계속 유지되어 나갈

34) 지금 노동당 軍事委員會에 서열 2位로 올라있는 金正日의 대수롭지 않은 軍경력이 문제를 일으킬것 같다. 43세인 金正日是 金日成과 人民武力相인 吳振宇가 죽었을때 그보다 연상인 軍將校들을 통제할 수 없을것 같다. 金正日이 그의 權力基盤을 확립하는 동안 10만명의 장군을 숙청했다고 보도되었다. 「統一日報」, 1982.6.30.

35) 元老 技術官僚들은 金正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新進官僚들과 구별된다. 그들은 스스로 統治할수 없지만 새로 출현한 군사단체의 협력자로서 기능을 하고 고도의 정치적 지위를 누린다.

36) Ralph N. Clough, *op. cit.*, p.20.

것이다. 그러나 金正日은 그의 政策스타일과 內容을 점점 변경시켜 나갈것이 예상된다.

### Ⅲ. 政策變化 : 現在와 未來

最近 北韓은 모든 方面에서 획기적인 變化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政策변화가 적어도 3가지 주요분야에서 보이고 있다. 즉, 輕工業에 對한 強調, 經濟開放, 그리고 南·北對話가 그것이다. 對內的으로 北韓은 重工業 중시정책을 전환하여 輕工業中心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重工業의 發展이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對外的으로 北韓은 西方技術의 도입과 資本投資를 특히 강조하는 동시에 새로이 合營法을 제정하여 外部世界에 經濟開放을 결정하고 있다. 對南關係에 있어서 北韓은 水災救護物資를 제공했으며 南·北對話를再開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變化가 韓半島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變化를 긍정적인 方向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는 이 政策變化的 最近動向과 北韓의 戰略目標를 철저히 分析함으로써 北韓의 의도를 주의깊게 검토해야할 것이다.

#### 1. 最近의 事情

##### 1) 輕工業에 對한 強調

北韓의 經濟는 1970年代에 相對的으로 成長이 침체했었다. 그 침체의 원인은 中共의 계획당국이 질보다 양을 강조했고 生産을 爲한 物資獎勵制度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軍需物資 生産能力을 증가시키는데 박차를 가하라는 명령에 의한 重工業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서 소비재 생산

이 제한되어 왔었다. 그것은 낮은 노동생산성을 가져오고 그들 정치지도자들에 對한 人民의 불만을 자아냈다.

1980年代初에 金日成은 소비재와 서비스부문을 강조함으로써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 소비재 생산에 대한 강조가 점점 증가되어 와서, 북한창건 35주년 기념식때에 金日成 주석은 맨먼저 “먹는 문제와 입는문제”에 대해 선차적 해결을 강조했다.<sup>37)</sup> 그때 金日成은 즉각적으로 평남 순천에 계획대로 완공된다면 연간 10만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비날론(Vinalon)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sup>38)</sup>

金日成은 1984年 신년사에서 경공업을 강조했다. 그는 잡화와 식료품을 포함하여 고급소비제품과 생필품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모든 경공업 공장을 완전 가동하도록 지시했다.<sup>39)</sup>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도 역시 인민의 生活水準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40)</sup> 이론적인 잡지인 「근로자」의 1984年 12月호에 실린 한 중요논문도 역시 “질 좋은 다양한 소비재 상품의 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sup>41)</sup> 最近 北韓의 一般的인 경향은 경제조건의 악화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소비재 상품의 부족을 겪고있다. 일용품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생산향상을 위하여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획은 절대성의 원칙에 따라 당정책을 이행하기

---

37) 「로동신문」, 1983.9.9.

38) *The Vantage Point*, Vol. VII, No.12, Special Edition (December 1984), p.16.

39) *The Vantage Point*, Vol. VIII, No.1 (January 1985), p.13 ; *Pyongyang Times*, January 2, 1984.

40) 「로동신문」, 1984.8.13.

41) 이동호, “경공업 혁명과 생산의 전문화,” 「근로자」(1984.12), pp. 37-40.

위하여 경제지침의 기반에 짜맞춰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 2) 經濟開放

韓國戰爭以後 北韓은 經濟再建을 위하여 蘇聯과 中共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왔으나 그 다음해부터는 북한에서 必要한 量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1970年代에는 북한공장에 있는 기계들이 노쇠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화하고 최신식 모델로 바꾸기 위해서는 西方國家들에 접근해야만 했다. 社會主義 國家들 中에서 蘇聯이 북한에게 사실상의 경제 및 기술원조를 제공해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많다. 그러나 북한에 소련이 공급하는 양과 질이 북한이 기대하는 것 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7個年 경제계획(1978-84)의 성공율이 목표의 약 45-50%밖에 되지 못했다.<sup>42)</sup>

1984年에 北韓에서는 對內經濟부분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총리 姜成山은 1月 26日 최고인민회의 제 7기 3차회의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제·기술교류를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그는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에는 “北韓이 이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가 없는 자본주의 국가들도 포함된다”고 했다.<sup>43)</sup>

姜의 政策發表에 잇따라 9月 8日에는 合營法이 제정되었다. 이 法은 分明히 1979年 8月에 제정된 中共의 合營法을 모방한 것이었다. 北韓은 北韓 經濟에다가 中共모델을 적용하려고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姜成山에 의하면 “社會主義 國家들”과 기술협력 및 合資經濟計劃을 증진하고, 그들로부터 기계 뿐만 아니라 원료와 연료등을 수입하여 5,6年후에는 總貿易高를 10배

---

42) *The Vantage Point*, Vol. VII, No.2 (December 1984), p.18.

43) 「북한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서울: 內外通新, 1984), p.56.



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外貨를 벌기위하여 시멘트와 철강생산 및 비금속의 생산을 늘릴것이라고 했다.<sup>44)</sup>

그러나 이 政策은 반드시 평양이 對外的으로 문호를 개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아직 외부세계에 북한주민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있지않고 중공과 같이 경제를 자유화 함으로써 전체주의 체제를 위태롭게하는 모험을 감수할 것같지 않다.<sup>45)</sup> 평양은 또한 北韓이 결국 中共쪽으로 기울여 中共모델을 채택하기 이전에 蘇聯의 태도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 3) 南·北對話

1984年1월에 평양은 워싱턴과 단독으로 맨먼저 회담을 해야한다는 그들의 종래입장을 수정하며 워싱턴을 비롯하여 서울과 “三者會談”을 제의했다. 이 제의는 명백히 평화제스츄어로서 한국에 대한 랭군 폭파사건으로부터 세계의 이목을 돌려보자는 목적이었다.<sup>46)</sup>

그런 선전을 하면서 평양은 3月에는 LA올림픽에 南北韓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4月9일에 對話를 시작했지만 평양이 南·北對話를 政治的目的에 利用하려고 했기때문에 3번 主會談을 하고 결렬되었다. 1984年

---

44) 이 政策은 10월에 北韓中央通信이 프랑스 회사인 Campenon-Bernard가 평양에 46층짜리 호텔건설계약서에 원칙적으로 서명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Vantage Point*, Vol. VII, No.10 (October 1984), p.20.

45) *The Korea Herald*, April 16, 1985.

46) *The Vantage Point*, Vol, VII, No.12, Special Edition (December 1984), p.20.

8月 20日에는 南韓 閣僚들이 北韓에 경제 및 기술원조를 확대할것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4주후에 北韓은 南·北關係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 南韓에 水災救護物資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자 南韓은 이를 받아들였다. 위대한 광파르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여 평양은 725트럭분의 구호물자를 전달했다.<sup>47)</sup> 이것이 우호의 제1라운드가 되어 11月에는 南·北經濟 및 赤十字會談을 가질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얼마가지 않았다. 잇따라 11月 23日에 판문점에서 총격전이 있었다.<sup>48)</sup> 국경사건이 있은후에 평양은 12月에 1985年 1月에 열기로 했던 南·北會談을 연기한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서울에 통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1985年 1月 9日 평양은 또다시 南韓과 美國이 1976년부터 南韓에서 행해진 南·美合同軍事訓練으로 韓半島에 긴장을 고조시켜왔다고 주장하면서 南·北對話를 연기한다고 一方的으로 결정했다.<sup>49)</sup>

第2, 3次 南·北經濟會談이 판문점에서 열렸지만 제1차 회담동안 양측이 합의해왔던 실질적인 문제에 관한 호의를 평양이 회피했기때문에 복잡

---

47) Young C. Kim, "North Korean Foreign Policy," *Problems of Communism* (January-February 1985), p.2.

48) 주목할만한 것은 총격전의 원인은 소련인 탈주자였고 그 탈주는 蘇聯外務次官 카피자(Mikhail Kapitsa)가 평양을 방문하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22세의 한국말을하는 소련학생이 남한 領內에 있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10分동안 兩國境軍들 사이에 격렬한 총격전을 유발했던 것이다. 30分後에 정전이 되었을때는 군인들이 4명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던 것이다.

49) *The Vantage Point*, Vol. VIII, No.1 (January 1985), pp.16-17.

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평양측은 지금의 차관수준의 회의보다 고위회담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열린 제 8 차 南北赤十字本會議는 離散家族의 祖國訪問 뿐만아니라 “故鄉訪問團”과 “民俗藝術團” 상호교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어떤 다른 공고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sup>50)</sup>

4月9日에 평양은 經濟會談이나 赤十字會談은 韓半島의 긴장을 완화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이 南北國會會談을 열자고 제의했다. 1985年初부터 평양은 南韓에서 미군철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三者會談”을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계속 강조해 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평양은 南北會談을 三者會談과 병행하여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sup>51)</sup>

## 2. 戰略目標

### 1) 經濟難局의 打開

北韓의 經濟는 外部世界와 門戶를 차단시켜서 北韓을 계속 유지해 온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政策으로 인하여 北韓經濟는 資本과 現代的 技術의 不足때문에 침체되었다. 北韓은 武器生産을 目的으로 重工業을 가장 우선하는 工業政策 때문에 상당한 무역적자로 外國에 32億달러의 빚을지고 있다.<sup>52)</sup> 원료를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해야하는 북한의 저개발국 무역구조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1984年에 끝

---

50) *The Korea Herald*, May 30, 1985.

51) *The Korea Herald*, June 21, 1985.

52) *The Vantage Point*, Vol. VII, No.10 (October 1984), p.13.

난 7個年 經濟計劃도 역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3)</sup>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볼때 평양의 최근 動向은 外貨, 에너지, 원료 그리고 現代的 技術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난국을 타개하려고 하는것 같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北韓은 3가지 특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것 같다. 즉, 輕工業에 對한 強調, 經濟開放, 南·北對話의 再開가 그것이다.

첫째, 北韓의 工業은 지금까지 重工業에 集中해온 蘇聯의 원조에 대부분 의지해 왔다. 最近 北韓은 經濟分野에 中共모델을 적용했다. 北韓은 만일 輕工業을 육성하려고 한다면 蘇聯보다 中共이 무역파트너로서 더 나올것 같다고 믿는것 같다. 北韓 總理 姜成山이 1984年 8月 5일부터 10일까지 中共을 방문한 것은 특히 경공업분야에 북경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sup>54)</sup>

둘째, 1984年 9月 8日 평양의 合營法에 對한 發表는 西方과 무역을 착수하려고 하는 공식적인 표현이었다. 이런 움직임은 분명히 종래의 폐쇄정책에 대한 변화였다. 그러나 북한은 한편으로는 獨自的인 經濟體制를 고수하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으로 外國의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려고 하고있는 것이다. 1985年 1月 26日에 姜成山 總理는 “평양은 資本主義國家들과 經濟 및 技術교류를 확대하고” 그리고 그런 교류가 “우리나라의

---

53) 1차 7개년계획(61-70)은 目標의 85%를 달성했고, 6개년계획(71-76)은 계획목표의 80%를 달성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7개년계획(78-84)은 목표의 60%수준에 미달했다. *The Vantage Point*, Vol. VIII, No.1 (January 1985), pp.10-11.

54) 姜成山 총리는 경공업분야의 여러공장과 또다른 직물, 세탁기, 여행 가방, 식료품과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방문했던 것이다. *The Vantage Point*, Vol. VII, No.8 (August 1984), p.20.

경제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북한은 資本主義國家들로부터 外貨를 벌기 위해서는 비금속, 시멘트, 철강제품의 생산을 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sup>55)</sup>

세째, 평양은 서울측이 南北經濟會談 및 赤十字會談을 계속 유지하자는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南·北接觸에 대한 평양의 적극적인 태도는 1984년에 발표된 合營法과 관계되는 새로운 經濟政策에 世界的인 주목을 끌기 위한 일환으로 보여진다. 中共이 南北對話에 진지한 충고를 보내는것은 북한에 대한 주의깊은 태도로 해석되어진다. 南北對話를 이용하여 평양은 北韓社會主義體制가 우월하다는 신념을 북한주민들에게 심어줄려고 하는 것이다. 南韓에 수재물자를 모아서 수송전달 하는데 있어서도 평양은 北韓住民들이 “위대한 지도자”의 보살핌하에 남한 주민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북한주민들이 상기하도록하여 “金日成의 깊은 동정”을 선전하는데 집중했다는 것이 분명하다.<sup>56)</sup>

## 2) “革命力量” 強化

最近 北韓의 政策變化 動向은 南韓에서 “革命力量”을 強化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 같다. 北韓의 “三者會談”을 위한 안건은 서울과 평양간에 불침락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 現在의 停戰協約을 대체함에 따라 평화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양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高麗聯邦國家”를 설립할 목적으로 “大民族會議”를 소집하려고

---

55) 「북한에 관한 몇가지 사실들」(서울: 內外通信, 1984), pp.56-57.

56) *The Vantage Point*, Vol. VII, No.12 (December 1984), pp.16-22.

하고 있다.<sup>57)</sup> 이 제의는 잘 정비된 군대로 강력한 후원을 하면서, (1)이 지역내에 무장도발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거하고, (2) 남한에 불안과 혼란을 조성시키는 조건을 강화하고, (3) “聯合戰線” 전술<sup>58)</sup>을 수행하는 北韓의 統一戰略을 잘 증명하고 있다.

南韓에서 革命力量을 強化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양은 南韓에 美軍이 주둔하고 있는것이 北韓의 再統一努力에 가장 큰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 1985年 4月 9日 平壤에 의해서 제의된 南北國會會談에서 불가침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그 선언의 결과로 美國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남한에서 미군의 철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평양은 최근 서울과 친선회담을 하면서 남한학생들과 노동자들에게 반정부활동을 선동하는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sup>59)</sup> 평양은 남한에서 야기된 불안한 상태가 “연합전선전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믿고 있다.

셋째, 평양은 남한 주민들사이에 친북한 감정을 증진시키고 南韓의 反共政府를 고립시킴으로써 “聯合前線”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

57) 1980年 10월에 열린 노동당 第6次會議에서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설립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柳錫烈, 「北韓의 남북연방제 分析考察」(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80).

58) 이 전술은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보편적인 반대세력을 붕괴시키는 수단이다.

59) *The Korea Herald*, April 16, 1985.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양은 남북대화를 요구하면서 南韓政府當局을 부정하는 그들의 기본입장을 재단언했다.<sup>60)</sup> 북한은 南北韓 兩側으로부터 여러 정당과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南北國會會談을 “國家政治協議會”라는 이름으로 會議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남한주민들과 “聯合前線”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 3) 순탄한 權力承繼

金日成은 그의 權力의 당연한 상속자로서 그의 아들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몇년동안 분투적인 노력을 해왔다. 金日成은 北韓社會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金正日에게 사상주입계획의 90%를 할당하고, 반면에 자기에게는 10% 정도를 남겨두도록 재정리했다.<sup>61)</sup> 지금 북한 주민은 金正日에게 “최고사령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그리고 모든 세계인민들에게 존경받는 현명한 지도자”라는 칭호를 부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sup>62)</sup>

비록 이런 상황하에서도 북한에서는 즉벌지배 계획에 대한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1985年1월에 노동당은 “모든 불건전한 요소에 대항하여 냉혹하게 싸우자”라는 슬로건을 채택한 사실로 비추어 볼때 북한에서 세습승

---

60) 1984年 3月 7日에 평양은 남한당국이 한반도 긴장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만으로 美·北韓間 政治에 서울당국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무원총리 강성산도 역시 “南韓政府단독으로 그런 회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은 미군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당했고, 미군사령관이 남한군대에 완전 통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The Vantage Point*, Vol. VII, No.3 (March 1984), p.12.

61) *The Vantage Point*, Vol. VII, No. 8 (August 1984), p.17.

62) “金正日 승배의 의미,” 「북한에 관한 몇가지 사실들」(서울: 内外通信, 1984), pp.28-31.

계계획에 대한 상당한 저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북한 선전기관은 北韓의 모든 정책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金正日이 최근 정책변화의 전진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해 왔다. 이것은 金正日이 최근 政策變化를 주도하면서 체제의 정통성과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64)</sup> 사실상 북한주민들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인 金正日이 경공업을 강조하고 경제개방을 통하여 그들의 경제적이익을 증가시키는 모든 책임과 남북대화를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책임을 떠맡고 있다고 믿는것 같다.

평양에 있는 아사히신문(朝日新聞) 특파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北韓 政治局 委員인 許鎔이 “北韓 주민들은 金正日이 金日成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오랜동안 이룩해 놓은 업적때문에 金正日의 權力承繼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sup>65)</sup> 金日成은 北韓에서 權力承繼를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 최근 정책변화에 대하여 신념을 갖도록 하는데 주저하지않고 있는것 같다.

### 3. 金日成 死後 政策選擇

北韓의 權力世襲承繼는 북한이 對內外政策에 對한 성공과 그 함수와 관련시켜 볼때 많은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金日成 死後에 여러정책 선택권을 가질수 있을지라도 선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는 金正日이 그의 아버지를 계승하느냐 못하느냐일 것이다.

---

64) 최근에 평양을 다녀온 패리스 장(Parris Chang)교수는 “북한주민들은 金正日이 경제개방과 남북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국일보」, 1985.7.5

65) *The Korea Herald*, April 26,1985.



1) 金正日이 權力을 계승하는 경우

王朝承繼에 대한 金日成의 선택권은 金正日이 그의 아버지의 “路線”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다.<sup>66)</sup> 그러므로 金正日是 南韓과 美國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여 北韓의 對內外問題를 다루는데 있어 金日成의 革命지향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의 權力을 공고화하기 이전이나 이후의 그의 정책은 같지않을 것이다.

金正日이 그의 權力을 공고화하기 이전의 정책은 대단히 호전적이고 모험적이 될 것이다. 그것은 金正日이 그의 반대자를 무모하게 숙청함으로써 그의 새로운 체제를 공고화하는데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북한에서 내부혼란의 위험스런 시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북한정책변화의 진전은 늦어질 것이다.<sup>67)</sup>

外交政策에 있어서 金正日是 강력한 반미감정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소련·중공과의 군사동맹을 계속 고수할 것이다. 北韓이 그들의 경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美國과 日本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들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을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새로운 체제를 공고히

---

66) 高秉喆교수는 金正日이 그의 아버지의 완전한 미덕과 지도력을 모두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C.Koh, “The Cult of Personality and the Succession Issue,” in C.I. Eugene Kim and B.C.Koh, eds., *Tourney to North Korea : Personal Perceptions* (Berkeley :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3), pp.36-37.

67) 1백만의 한국인과 3만3천명의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간 1950-53년 전쟁의 전율을 경험하지 못한 金正日是 평양에서 그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승리를 모색할지도 모른다. *The Korea Herald*, May 30, 1985.

한후의 金正日의 정책은 더욱 현상유지경향을 띠며 덜 모험적일 것이다. 몇년후에 金正日은 그의 權力基盤을 좀더 다질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강한 남한의 軍事・經濟的 能力때문에 南韓에 對한 모험정책은 버려할 것이다.<sup>68)</sup>

權力を 잡은 金正日은 그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필수적인 政治的 正統性을 유지해야할 것이다. 正統性은 合理的인 설득과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통일완수라는 理想에 대한 끊임없는 공약을 통한 지지기층을 강화하는 수단에 의해서 보강되어질 것이다. 이와같은 목적을 위하여 金正日은 최근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는 아마 전쟁을 그의 새로운 경제목표와 지배의 正統性을 손상하는 것으로 보는것 같다.<sup>69)</sup> 金正日은 平和的인 攻勢로써 南韓을 統一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안전을 제안하는 한편 美國과는 한국통일을 위한 평화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北韓은 또한 西方과 外交關係強化를 열망할 것이다. 西方의 기술과 신용대부를 얻기 위하여 북한의 제일의 目標로 지리적인 근접성 때문에 대체로 일본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 새로운 反金正日 集團指導體制가 등장할 경우

軍部와 技術官僚들의 聯合體인 새로운 集團指導體制는 革命指向路線과는 완전히 달리 北韓의 對內外政策에 있어서 實用主義와 現代化路線을

---

68) 統一院은 南北間의 국력의 차이가 1980年代에 더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The Korea Times*, April 4, 1983.

69) Young C. Kim, "North Korea Foreign Policy," *Problems of Communism* (January - February 1985), pp.1-17.

추구할 것 같다.<sup>70)</sup> 어떤 지도자가 出現하든지 北韓의 政策은 현저하게 기술지향적으로 될것이 명백하다.

이런 상황하에서 북한은 金正日體制下에서보다 더 빨리 외부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고 北韓의 經濟를 再建하기 위하여 美國·日本등 다른 西方國家들에 對해 접근전략을 강화할것 같다.<sup>71)</sup> 軍事力에 의한 통일의 비현실성을 인정한 지도자들은 “平和共存”의 기반위에 勢力均衡을 안정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진지한 태도로 남북대화에 임할 지도 모른다.<sup>72)</sup>

#### Ⅳ. 結 論

지금까지 논의해온 바와같이 최근까지 북한에서는 적극적인 정책변화의 징후가 있어왔다. 즉, 경공업에 대한 強調, 合營法, 南·北對話가 그것이

---

70) Byung Chul Koh, "North Korean Policy in the 1990s," Prepared for the Purpose of Discussion at the Ni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on the Theme "East Asia in the 1990s," Seoul, Korea, July 5-6, 1979, p.8.

71) 북한은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가장 성공적으로 근대화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노선을 따를지도 모른다. 서방국가들로부터 정보와 기술의 대량 유입때문에 통제를 완화하고 물자를 장려하고 시장의 힘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문호를 개방할지도 모른다. Ralph N. Clough, "North Korea after Kim Il-sung," Presented in the Conference on Northeast Asia in the 1990s: Challenge and Opportunity" Sponsored by IFANS and CSIS on July 28-29, 1982. pp. 20-21.

72) 통일원 장관은 김일성 죽음으로 북한체제의 이완이 반드시 일어나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의 밝은 전망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말했다. *The Korea Times*, April 5, 1982.

다. 그러나 이런 징후에 軍事部門뿐만아니라 政治的인 面에서 호전성과 경직성을 표명하는 이해의 대립이 있어왔다.

美8軍 사령관 리브세이(William J. Livsey)는 최근 몇달동안 北韓은 그들의 軍隊의 機械化를 강화해왔고 1백만의 1급예비병을 승격시켜 재조직하고, 비무장지대(DMZ) 바로북쪽으로 그들의 기동타격대를 이동시켰다고 했다.

美軍事情報消息通들은 北韓에서 “渡江裝備”의 배치, 주공격부대의 주전분대를 숨길수 있는 지하비밀터널을 비무장지대(DMZ)가까이에 건설, 그리고 10만명의 특공대에 對한 훈련강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sup>73)</sup> 게다가 南韓의 國防部長官은 최근 북한도 蘇聯으로부터 MIG-23을 6대나 사들였고 금년 말까지 MIG-23을 35대나 45대를 추가로 사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sup>74)</sup> 이러한 맥락에서 극동경제평론(Far Eastern Economic Review)誌는 北韓이 一週內에 승리를 쟁취할 목적으로 언제든지 대량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sup>75)</sup>

北韓으로부터오는 2개의 대립되는 신호는 우리가 韓半島의 진정한 상황을 평가하는데 가끔 혼란을 야기시킨다.<sup>76)</sup> 그러나 증거가 무엇이든 남한에 대한 북한의 근본혁명이나 침략정책을 위한 변화의 어떤 명백한 징후는

---

73) *The Korea Herald*, May 30, 1985.

74) *The Korea Herald*, July 2, 1985.

75) *Th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13, 1985.

76) 키신저(Henry Kissinger)는 “북한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쟁과 평화라는 두개의 대립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남침가능성을 지금보다 1987년 혹은 1988년에 더욱 클 것이다”라고 했다. *The Korea Herald*, July 9, 1985.

아직 없다. 게다가 權力承繼者는 그의 정책을 모험적 정책으로 완전히 변경할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새로운 後繼者가 그의 政治的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對內外的인 必要에 부응해야하는 심한 압력하에서 정책을 변경해야할 여지가 있다는 것도 가정해 볼 수 있다.

## 第 2 章 北韓의 對外貿易 - 主要特徵과 展望 -

李宗夏 · 朴振根  
(延世大 經營學教授)

### I. 序 論

이 論文의 主目的은 1950 年以來 北韓의 對外貿易의 全般的인 추세와 貿易構造上的 特徵을 파악하고, 向後 對外貿易을 전망해 보는데 있다.

北韓의 對外貿易은 「對蘇聯依存期間」( 1945 ~ 55 ), 「中立期間」( 1956 ~ 61 ), 「對中共依存期間」( 1962 ~ 66 ), 및 「확대기간」( 1967 ~ ) 등으로 구분되고 있기도 하다.<sup>1)</sup> 그러나 우리는 이에 추가하여 70 年代 후반부터 현재까지를 「停滯期」로 분류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와같은 분류에 입각할때 우리는 북한의 경제와 그를 반영하는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이 1960 年代 후반부터 중요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 年代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은 경제적 자급자족체제( autarky 體制)에 입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對外經濟政策을 活用하였다.<sup>2)</sup> 특히 1960 年代 蘇聯 및 東歐諸國이 COMECON을 설립하고 社會主義諸國間的 分業촉진과 對西方貿易擴大를 꾀했으나 북한은 COMECON에 가입하지 않고 계속 강력한 자급자족 체제를 指向한 경제정책을 추진했었다.

이와같은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의 기본방향이 1960 年代 후반부터인 무역확대기간에 들어서면서 근본적인 변화( fundamental changes )를 겪은 것으로는 단언할 수 없으나 北韓의 國際貿易( 즉,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

1) 北韓研究所, 「北韓經濟論」, 1979, pp.406 ~ 414.

2) *Ibid.*, pp.390 ~ 392.

의 必要性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음은 분명한 것이다.

더구나 北韓은 1970年代 初 以來 東西間의 緊張緩和 추세, 특히 美·中共間의 급속한 접근하에서 對西方貿易을 확대시키려 노력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美國과의 經濟交流를 갈망하는 여러가지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北韓社會가 內部的으로 상당한 변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對外貿易 全般에 관한 파악과 向後의 전망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本論文의 內容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北韓의 對外經濟關係資料가 부족하여 좀더 포괄적인 分析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자료상의 문제점은 오늘날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經濟·社會的 問題點의 반영이라고도 해석 될수 있을 것이며,<sup>3)</sup> 中共의 경우와 같이 北韓社會의 개방정도에 비례하여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예를 들면, 北韓의 對外貿易依存度를 측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北韓의 공식실명과 GNP에 根據해서 볼때, 北韓經濟의 對外貿易 依存度는 1979年에는 단지 5%에 불과했다. 統一院, 「北韓經濟統計」, 1980, p.138. 그러나 독자적인 연구중의 하나는 1979年의 北韓經濟의 對外依存도가 18.4%임을 보여주고 있다. 北韓研究所, 「北韓」 (April 1984). 1982年에 北韓의 總輸出入高가 각각 7億2千5百萬달러와 10億3百萬달러였다. 1980年 以後 毎年 北韓의 GNP가 3% 증가를 가져왔다고 가정하면 北韓經濟의 對外貿易 依存度는 1982年에 약 12.5%로 추산되어진다. 外務部, 「北韓의 對外貿易」, 1984.6.

## II. 北韓의 對外貿易 推移

### 1. 1950年代 및 1960年代의 貿易: 社會主義圈 中心의 貿易

1950年代와 1960年代는 東西間의 냉전이 격화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北韓의 貿易相對國은 蘇聯과 中共을 中心으로 한 社會主義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1950年代는 北韓貿易의 90% 이상이, 1960年代에는 北韓貿易의 약 80%가 社會主義圈과의 무역이었다. 특히 이 기간중 北韓의 貿易은 주로 蘇聯 및 中共과의 貿易이었는데 1950年代 末부터 對中共貿易 規模는 크게 증대되는 反面 對蘇聯貿易 規模는 급격히 감소된 바 있다. <表1> 및 <表2>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北韓의 對蘇聯 貿易 規模는 1957年의 5億4千4百6拾萬달러로부터 1959年의 1億2千5百7拾萬달러로 급속히 감소된 반면 同期間中 北韓의 對中共貿易 規模는 5千6百萬달러로부터 1億1千5百8拾萬달러로 2배나 증대되었다.

北韓의 2大貿易對相國家인 蘇聯 및 中共과의 貿易 規模가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갖게 된 주된 이유는 이 기간중 中·蘇對立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공쪽으로 크게 경사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北韓은 1954~56年의 期間中에 소위 「戰後復舊 三個年計劃」을 시행한 바 있고 1957~61年의 기간중에는 5개년 經濟開發計劃을 實施하였다. 따라서 3個年計劃이 주로 對蘇貿易을 통해 支援된데 비해 5個年計劃은 주로 對中共貿易을 통해 支援된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對蘇貿易을 對中共貿易으로 代替함으로써 지불한 대가는 상당한 것이었다. 즉, 북한이 對中共貿易을 크게 증대시키고 對蘇貿易을 격감 시킴에 따라 蘇聯은 북한에 대한 일부 경제원조를 中止하고 나머지 經濟



〈表1〉 北韓의 對蘇聯貿易 ( 1955 ~ 83 )

( 單位：百萬\$ )

year	export	import	balance
1955	181.1	196.2	-15.1
1956	227.6	239.2	-11.6
1957	278.0	266.6	-11.4
1958	209.1	258.0	-48.9
1959	51.6	74.1	-22.5
1960	74.7	39.4	35.3
1961	79.1	77.0	2.1
1962	88.2	80.7	7.5
1963	88.1	82.1	6.0
1964	80.7	82.9	-2.2
1965	88.3	89.8	-1.5
1966	92.3	85.6	-6.7
1967	108.3	110.3	-2.3
1968	120.9	172.2	-51.3
1969	126.6	201.6	-75.0
1970	143.2	230.0	-86.8
1971	135.8	366.8	-231.0
1972	154.9	303.5	-148.6
1973	179.3	301.3	-122.0
1974	200.3	261.3	-61.0
1975	209.7	258.8	-49.1
1976	157.4	218.4	-61.0
1977	222.5	223.5	-1.0
1978	294.6	257.9	36.7
1979	390.9	358.9	32.0
1980	437.3	443.1	5.8
1981	352.5	392.8	-40.3
1982	496.2	435.3	60.9
1983	448.5	362.1	86.4

資料：Soviet Union's Yearbook of Trade Statistics

〈表2〉 北韓의 對中共貿易 ( 1950 ~ 83 )

( 單位 : 百萬 \$ )

year	export	import	balance
1950	2.8	3.8	- 1.0
1951	0.9	17.2	- 16.3
1952	2.0	21.4	- 19.4
1953	1.3	45.1	- 43.8
1954	2.6	79.7	- 77.1
1955	3.5	72.6	- 69.1
1956	6.7	61.8	- 55.1
1957	19.5	36.5	- 17.0
1958	42.8	47.7	- 4.9
1959	45.0	70.9	- 25.9
1960	53.0	67.4	- 14.4
1961	53.1	63.8	- 10.7
1962	54.1	80.4	- 26.3
1963	64.3	87.1	- 22.8
1964	65.0	90.3	- 25.3
1965	82.3	97.0	- 13.7
1966	88.5	114.8	- 26.3
1967	83.0	93.6	- 10.6
1968	45.9	67.2	- 21.3
1969	44.9	47.2	- 2.3
1970	54.2	60.9	- 6.7
1971	72.4	94.3	- 21.9
1972	118.6	16.4	- 45.8
1973	118.4	217.6	- 99.2
1974	146.3	243.3	- 97.0
1975	197.8	284.1	- 86.3
1976	145.0	250.0	- 105.0
1977	14.72	227.2	- 80.0
1978	223.6	230.7	- 7.1
1979	330.2	317.0	13.2
1980	303.3	374.2	- 70.9
1981			
(1982)	(220.8)	(207.6)	(13.2)
(1983)	(178.0)	(209.1)	(-31.3)

\* 1982 and 1983 : January - September

\* 資料 : *China's Yearbook of Economic Statistics*.

援助는 그 規模를 감소시키는 반응을 보였는데 中共의 對北韓 經濟援助 規模는 蘇聯의 經濟援助減少額을 補充하는데 불과하였고 추가적인 支援은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그 결과 北韓의 5個年計劃은 크게 좌절되어 4年後인 1961년에 終了될 수밖에 없었다.

北韓經濟의 이와 같은 어려움은 1960年代에 실시된 7個年 經濟開發計劃 (1961~67) 期間중에도 繼續되어 이 計劃의 目標는 3年後인 1970년에 達成될 수 있었다.<sup>4)</sup>

## 2. 1970年代의 貿易: 西方側과의 貿易增大

1970年代에 와서 北韓의 對外貿易은 特記할만한 變化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1971年の 美·中共 接近은 北韓으로 하여금 對西方 政策을 좀 더 伸縮性 있는 方向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972년에 있었던 南北赤十字會談을 통한 相互接觸에서 北韓側은 그들의 豫想을 凌駕한 南韓의 經濟成長을 목격하였다.

이들 두 要因은 北韓으로 하여금 그들의 工業部門成長을 촉진시키기 위한 對西方 기계류 및 原材料 및 第6次 經濟開發計劃(1971~76) 期間中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作用하였고, 그 結果 1970年代 中盤 對西方貿易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에는 北韓의 對外貿易 總額의 約50%가 對西方貿易이었다.

---

4) 예를 들면 北韓에 對한 蘇聯의 기계 및 農業機構 등의 輸出은 1961~66年 期間동안 全無하였다. 그리고 北韓은 1962年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로부터 트랙터를 수입했다. 北韓問題研究所, 「北韓의 經濟」, 1979.10, p.410.

그러나 이와 같은 北韓의 對西方貿易擴大政策은 西方貿易慣行에 對한 經驗不足과 1973~74年 期間中の 第1次 國際石油波動(oil shock)과 時期的으로 重複됨으로써 北韓의 對外貿易과 6個年計劃은 큰 시련에 直面하였다. 즉, 석유파동으로 因하여 기계류 및 원재료의 輸入價格이 크게 增大되는 反面 北韓의 主要 輸出品目인 鉛 및 亞鉛 등 非鐵金屬(nonferrous metal)의 輸出價格은 西方經濟의 不況으로 因해 폭락함으로써 北韓은 貿易수지악화, 支拂遲延 및 對外債務의 果積에 直面하게 되었다. 그결과 1970年代 後半에서는 <表3>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北韓의 對西方貿易規模는 격감되지 않을 수 없었고 1970年代 末에 와서 北韓의 貿易은 蘇聯(30% 약간 凌駕), 中共(30% 약간 未達) 및 日本(約20%) 등을 中心으로 하게 되었다.

### 3. 1980年代의 貿易: 貿易의 不振

北韓의 貿易은 80年代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年 9月에는 10年만에 黨大會가 개최되었다. 이를 위해 北韓은 80年의 經濟成長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前例없는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기계, 설비등을 중심으로 한 輸入이 증대되었다. 또한 金과 銀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는데 힘입어 金, 銀의 수출이 호조를 띠었고, 시멘트와 纖維製品의 輸出도 순조로웠다.

그러나 81년에는 80년도의 무리한 經濟成長政策에 따른 副作用으로 經濟成長率이 둔화되었고, 이에 대하여 그때까지는 比較的 순조로웠던 農業生産도 不振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주요무역상대국들과의 貿易은 감소 내지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西方國家들 중 최대의 무역상대국인 日本과의 貿易規

〈表3〉 北韓의 對西方貿易

(單位：百萬\$)

		1970	1972	1974	1976	1979	1982	1983
France	export(X)	10.30	18.56	29.21	12.90	26.39	2.6	3.3
	import(M)	5.00	13.53	106.60	20.85	8.68		
West Germany	X	11.47	8.50	20.75	42.04	65.17	128.5	121.1
	M	8.14	8.58	89.13	46.09	37.09		
England	X	1.26	0.45	4.30	2.34	1.86	0.1	0.1
	M	0.44	0.99	33.37	1.82	1.89		
Austria	X	0.26	0.10	0.80	0.62	1.12	0.4	0.3
	M	4.26	2.69	27.24	15.40	6.96		
Belgium	X	1.62	3.19	6.48	2.85	3.45	0.2	0.1
	M	0.08	0.31	19.93	8.11	1.62		
Denmark	X	-	0.04	0.34	0.20	0.11	n.a	n.a
	M	-	0.08	1.60	2.06	0.68		
Italy	X	0.30	4.52	3.87	1.09	7.98	1.2	2.1
	M	1.70	1.10	5.64	8.17	10.43		
Netherland	X	10.00	2.09	3.19	4.76	0.79	n.a	n.a
	M	0.10	0.22	10.82	1.68	4.91		
Switzerland	X	0.49	0.99	0.23	0.28	14.34	0.02	0.03
	M	0.20	0.64	3.45	11.55	11.87		
Sweden	X	0.02	0.01	0.22	1.29	0.74	0.3	0.4
	M	0.11	0.04	11.15	26.08	2.18		
Finland	X	-	-	3.06	0.52	0.18	n.a	n.a
	M	-	-	34.79	0.01	0.31		
Japan	X	34.4	38.3	108.8	71.6	152.0	144.4	119.8
	M	23.3	93.4	251.9	96.1	283.8	328.8	343.4

( based on several sources )

模(輸出+輸入)는 81년에 와서 22%나 減少되었고 社會主義圈中 최대무역상대국인 對蘇貿易(輸出+輸入)은 15.3%나 減少되었다. 또한 1977년以來 높은 增加率을 보여온 對 홍콩貿易은 3.5%가 減少되었다. 또한 1978~79년의 期間中 2~8億달러의 貿易黑字를 記錄한 바 있는 中東諸國과의 무역은 北韓이 이란-이라크 戰爭에서 이라크를 支援하게 됨에 따라 크게 減少되었다. 특히 北韓의 81年 對 사우디아라비아 輸出은 前年度보다 36.5%나 減少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같은 北韓의 貿易不振은 82年과 83年에도 繼續되었고, 84년에는 第2次 7個年計劃(1978~84)의 計劃目標達成을 위한 機械·機器의 輸入이 약간 증대되었다.

北韓은 1980年 9月の 黨大會에서 1980年代 末에 가서는 輸出을 1980年 水準의 4.2倍로 확대시킨다는 目標를 세웠다. 그러나 과연 北韓의 이 目標가 1980年代의 後半에 가서 達成된 것인가는 現在의 狀況에서 볼 때 극히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向後 北韓의 貿易規模는 北韓의 對西方貿易規模에 크게 依存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北韓의 對西方貿易은 다시 北韓의 對外支拂能力을 어느 정도로 回復하는가, 즉, 對西方負債의 청산속도에 크게 依存할 것으로 볼 수 있다.

### Ⅲ. 北韓의 對外貿易의 主要特徵

#### 1. 對社會主義圈(Solialist Bloc)과의 貿易

##### 1) 蘇聯과의 貿易

앞에서 이미 指摘된 바와 같이 北韓의 對蘇貿易은 中·蘇關係가 악화되고 北韓이 中共에 가까워지기 시작한 1959년부터 中共의 文化革命

에 따라 中共・北韓關係가 악화되기 시작한 1966年 까지의 期間中 北韓의 對蘇貿易은 크게 減縮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期間을 제외하면 蘇聯은 北韓의 최대무역 相對國이며 오늘날 對蘇 貿易依存度는 30%를 약간 凌駕하고 있다.

1967~83 期間中 北韓의 對蘇貿易(輸出+輸入)은 <表1>에서와 같이 年平均 23%로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1959年 以前의 경우와는 달리 1967年 以後에는 蘇聯의 對北韓 경제원조적 성격을 띤 對北韓輸出은 점차 감소되어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5)</sup> 貿易의 상품구조면에서 볼때 北韓의 對蘇貿易이 갖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i) 對蘇輸入: <表4>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北韓의 對蘇輸入에서 主要品目은 ① 기계, 설비 및 輸送用 機械, ② 原油 및 石油製品 및 ③ 小麥등으로서 1982年 이들의 輸入比重은 각기 23.5%, 31.8%, 12.1%이고 이들은 輸出總額의 67.4%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 및 설비(plants)의 輸入은 70年代 後半에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80年代에 들어와서는 동력설비의 輸入增加로 다시 1975年 水準을 回復하였다.

原油 및 石油製品의 輸入은 70年代初 以來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1975年~82年의 期間中에는 年平均 40%를 增加하여 82年 現在 對蘇 최대 수입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對蘇 原油 및 石油製品의 輸入增加는 에너지에 對한 국내수요의 增加뿐만 아니라 輸入價格의 上昇등을 반영하고

---

5) JETR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Japanese), 1983, p.39.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對蘇原油導入價格은 1975年の 屯當 24 루블에서 1976年の 41.2 루블로 70 %나 上昇하였는데 北韓은 COMECON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東歐諸國보다 훨씬 비싼 價格의 石油를 蘇聯으로부터 輸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6)</sup>

한편 小麥의 경우 그의 輸入은 76年の 경우 75年보다 約 50 %나 增大되었는데 이는 <表 4>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주로 輸入價格이 약 50 %나 상승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76年 以後에는 蘇聯의 貿易統計上の 數量이 記錄되어 있지 않으며 輸入額의 增加와 減少가 反復되고 있다는 點은 輸入價格의 上昇과 그에 따른 輸入數量의 減少가 年度別로 反復되어 온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sup>7)</sup>

ii) 對蘇輸出: 1950年代 北韓의 對蘇輸出 主要品目은 鉛, 亞鉛, 마그네시움, 鐵鋼등의 鑛產物과 農產物 등의 原料가 中心이었다. 그러나 1957年부터는 壓延鋼材, 化學製品등의 工業製品, 一部の 기계, 설비 및 纖維製品, 쌀 등이 輸出되기 시작하여 <表 5>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들 品目은 오늘날 北韓의 對蘇 主要輸出品目으로 나타나 있다. 北韓의 主要輸出品目인 鉛 및 亞鉛등은 1967年부터 蘇聯의 貿易統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點은 蘇聯이 이들 品目を 北韓으로부터 輸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蘇聯은 이들 品目を 채무변제적 수단으로 매우 싸게 輸入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統計에서 누락시켰을 것이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sup>8)</sup>

---

6) *Ibid.*, p.40.

7) *Ibid.*

8) *Ibid.*



쌀의 對蘇輸出과 관련하여서는 두가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는 韓國人들의 傳統的인 主食이 쌀이라는 점에서 볼때 北韓이 쌀을 蘇聯에 輸出하고 그대신 보리를 輸入하고 있다는 점은 쌀의 國內 超過 供給이 存在하기 때문이 아니라 쌀의 輸出이 北韓의 主要 外貨獲得 手段임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로, 北韓이 對蘇 쌀 輸出價格은 <表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1年의 경우 屯當 약 278 달러로 추정되는데<sup>9)</sup> 이는 1981年의 國際市場價格인 캘리포니아產 Short gram의 屯當 629 달러 및 타이產 long grain의 屯當 423 달러에 比하면 매우 낮다. 이러한 점은 北韓의 對蘇 1次產物 輸出이 鉛 및 亞鉛등의 非鐵金屬(nonferrous metals)의 경우와 같이 채무변제적 성격하에 매우 불리한 價格으로 輸出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北韓의 對蘇貿易은 商品交易條件(gross terms of trade)面에서 매우 不利하게 유지되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北韓의 對蘇貿易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1個年 協정이던 北韓·蘇聯 貿易協定이 81年부터는 5個年 協定으로 바뀌었고, 82年부터는 北韓의 對蘇輸出과 輸入이 모두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北韓의 對蘇貿易은 <表1>에서 보는바와 같이 1978~79年의 期間을 除外하면 1967年 以來 지속적인 무역수지의 黑字를 유지해 왔고 이는 80年代에 들어와서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

9) 1 rouble = 1.348 US dollar.

〈表 4〉 北韓의 對蘇 主要輸入 品目

	unit	1975	
		quantity	value
total import	million rouble	-	186.8
machinery, plant and transport equipment	-	-	75,602
( power plant )	-	-	3,226
( mining plant )	-	-	1,314
( steel mill plant )	-	-	14,647
( oil refining plant )	-	-	1,412
( measuring and experiment equipment )	-	-	3,692
( flight equipment )	-	-	7,280
solid fuel	1,000 ton	335	7,327
crude oil and oil products	1,000 ton	1,110	26,618
automobile tires	pieces	30,352	2,064
cotton	ton	6,110	4,100
wheat	1,000 ton	212.2	14,785
tools and apparatus for domestic uses	-	-	4,205
( tools )	-	-	3,265
( watches )	1,000 pieces	234.2	1,556
( T.V. set )	pieces	10,000	988

資料：Soviet Union's Yearbook of Trade Statistics ( \* 1.34 rouble = US \$ 1 )

( 單位：1,000 rouble )

1977		1979		1981		1982	
quantity	value	quantity	value	quantity	value	quantity	value
-	164.7	-	235.4	-	278.9	-	318.5
-	33,969	-	49,804	-	84,503	-	74,728
-	705	-	9,915	-	33,711	-	37,630
-	83	-	341	-	1,030	-	2,079
-	2,346	-	2,772	-	5,717	-	2,200
-	1,223	-	316	-	210	-	400
-	1,712	-	1,467	-	2,092	-	1,476
-	6,961	-	9,738	-	11,796	-	3,260
-	12,407	-	15,313	-	19,093	-	22,545
-	47,257	-	71,581	-	67,708	-	101,437
-	-	-	-	-	-	-	-
4,049	3,526	4,295	4,441	5,108	5,573	9,993	11,708
-	29,706	-	44,628	-	42,378	-	38,584
-	3,154	-	4,669	-	5,430	-	7,643
-	2,890	-	4,345	-	4,910	-	7,104
208.2	1,375	362.0	2,565	294	2,335	428	3,970
12,964	1,281	12,167	1,192	15,992	2,052	21,225	2,514

〈表 5〉 北韓의 對蘇 主要 輸出品目

	unit	1975	
		quantity	value
total export	million rouble	-	151.4
machinery, plant and transport equipment	-	-	12,276
tungsten	1,000 ton	94.9	2,455
talc	//	60.0	1,651
iron and steel	//	41.3	2,628
( rolled steel )	//	119.7	41,207
non-ferrous metals	ton	15,325	3,775
( zinc )	//	6,338	1,335
( lead )	//	8,925	2,204
( rolled zinc )	//	9,476	4,016
chemicals	//	-	2,496
cement	-	500	6,515
magnesia	1,000 ton	370.7	19,014
gasoline and perfume	ton	77	1,397
tobacco	ton	2,963	2,548
rice	1,000 ton	123.9	15,384
fish and fruit	1,000 ton	29.8	3,964
clothing	-	-	10,871
towls	1,000 pieces	6,088	1,446
sporting shoes	//	2,446	2,336
ceramics	-	-	2,329

資料：〈表 4〉와 同一

( 單位：1,000 rouble )

1977		1979		1981		1982	
quantity	value	quantity	value	quantity	value	quantity	value
-	164.0	-	256.4	-	250.3	-	362.5
-	4,010	-	14,049	-	6,219	-	26,345
-	7,869	-	10,869	-	9,249	-	9,022
-	-	-	-	-	-	-	-
-	1,565	-	2,221	-	2,716	-	2,464
-	32,186	-	55,286	-	43,263	-	81,7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11	-	2,123	-	2,192	-	4,111
231	4,800	190	4,358	155	3,733	195	5,024
405.5	41,051	4,980	62,502	477.9	65,699	491.7	71,945
258	4,557	209	4,661	255	6,052	235	5,529
1,672	1,675	527	576	5,362	5,571	7,655	8,707
164.2	33,648	169.2	35,141	217.5	44,842	200.8	41,435
8.3	1,891	12.7	3,255	19.3	5,789	20.0	6,405
-	7,050	-	11,587	-	19,252	-	48,148
5,438	1,486	4,264	1,565	5,639	2,048	5,303	2,204
1,866	2,083	2,212	2,953	2,150	3,566	2,464	4,269
-	709	-	983	-	284	-	1,916

## 2) 對中共 貿易

對蘇貿易과는 달리 北韓의 對中共貿易은 무역수지면에서 상당한 赤字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中共側의 對北韓 수출중 일부가 원료적 성격의 수출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미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北韓의 對中共 貿易은 中·蘇關係가 악화된 1957年부터 크게 증대되었다. 그러나 1967年부터는 中國의 문화혁명이 시작되고 金日成 수상의 개인숭배 사상에 대한 비판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中·北韓間의 경제 관계는 악화되고 북한은 소련쪽으로 기울게 됨에 따라 中·北韓貿易은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72年부터는 中共과의 무역규모가 다시 증대되었고 특히 75年 金日成의 중공방문으로 兩國關係가 회복되어 中·北韓間의 우호송유관이 설치되고 中共으로부터의 原油輸入이 증가되었다. 또한 그때까지 약 25億 달러에 달했던 北韓의 對中共負債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北韓經濟의 成長不振을 반영하여 對蘇貿易과 같이 對中共貿易도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982年 10月 中共과 5個年 貿易協定을 체결하여, 北韓은 蘇聯과의 경우와 같이 中共과도 장기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表 6〉은 北韓의 對中共輸出의 主要品目を 나타내고 있다. 〈表 6〉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1982年의 경우 北韓의 對中共輸出의 주요 품목은 6가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즉, 비금속적 광물(수출비율 31.3%), 석탄(20.1%), 금속광석 및 금속조각(14.2%), 철과 강철(13.6%), 비금속(8.0%) 그리고 어류(6.3%) 등으로서 이들은 輸出總額의 93.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對中共輸出은 주로 農產物이 중심으로

〈表 6〉 北韓의 對中共貿易의 主要品目

(單位: 10,000 ¥)

SITC		1982		1983(1-6)	
		export	import	export	import
	total	57,768	53,488	23,590	27,010
03	fish and fish preparation	3,620	-	2,858	-
04	cereals and cereals preparation	-	-	1	-
05	fruit and vegetables	-	-	60	-
07	coffee, tea, cocoa, spices	-	-	3	-
08	feeding-stuff for animals	-	-	-	31
09	miscellaneous food preparation	-	-	-	105
12	tobacco	-	-	105	-
21	hides, skin and furskin	-	-	234	-
27	crude fertilizer and crude minerals	-	-	-	385
28	metalliferous ore and metalscrap	8,189	-	1,568	45
29	crude animal and vegetable(n.e.s)	-	-	705	11
32	coal, coke and briquettes	11,601	15,802	5,755	8,406
33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	30,738	12	15,039
42	vegetable oils	-	-	-	82
51	chemical elements and compounds	-	-	-	63
52	mineral tar and crude chemicals	-	-	-	6
53	dyeing, tanning and colouring materials	-	-	-	15

(單位：10,000 ¥)

SITC		1982		1983(1-6)	
		export	import	export	import
54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	-	-	3
55	essential oil and perfume material	-	-	-	68
56	fertilizers, manufactured	1,613	-	515	-
57	explosives	-	-	-	138
59	chemical materials, products (n.e.s)	-	-	-	31
62	rubber manufactures, n.e.s	-	-	-	200
65	textile yarn, fabrics	-	-	227	176
66	non-metallic mineral manufactures	18,087	-	6,606	124
67	iron and steel	7,822	-	3,510	48
68	non-ferrous metals	4,650	-	1,414	24
69	manufactures, n.e.s	-	-	-	12
71	machinery, other than electric	-	-	-	2
72	machinery for specific industry	-	3,914	-	1,894
74	general machinery	-	-	-	77
75	office machinery, data processor	-	-	-	5
87	optical goods, medical equipment	-	-	-	10
88	photographic good, watches	-	-	-	1
89	other miscellaneous manufactures	-	-	-	7

資料：JETRO, *North Korea's Trade in 83 and Prospect*, 1984, pp.90-91.

( \* 1 ¥ = US \$ 2.96 )



되어있고 對蘇聯輸出의 경우와는 달리 광산물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對中共輸入은 <表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석유 및 석유제품(수입비율 57.5%), 석탄(29.5%), 전기기계(7.3%) 등 3개의 상품 그룹이 중심으로서 이들의 북한의 對中共 수입총액의 94.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對中共輸入의 대부분(87%)이 에너지 輸入이며, 이러한 점은 북한의 對蘇 및 對中共 에너지 依存度가 매우 높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對中共貿易과 관련하여 特記할만한 사실은 북한이 홍콩을 경유하여 中共과 이룩한 무역은 상당한 規模에 이르고 있고, 80年代에 들어와서 그 規模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表 7> 및 <表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북한의 홍콩경유 對中共 再輸出은 1980年 HK\$ 8.75백만(US\$107.4백만)에 달하여 1979年의 HK\$1.9백만보다 356.2%나 증대되었고 북한의 홍콩경유 對中共再輸入은 1980年 HK\$57.97백만(US\$11.6백만)에 달함으로써 1979年의 HK\$15.05백만(US\$3.01백만)을 285.3%나 증가하였다. 또한 1981년의 경우는 홍콩경유 對中共 再輸出보다 再輸入이, 1980年의 水準보다 각기 110.9% 및 33.9% 증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0)</sup>

<表 7> 및 <表 8>에서 얻을 수 있는 바와같이 북한 홍콩경유 對中共貿易은 위에서 考察된 북한과 중공간의 직접교역의 類型과 거의 同一하다.

---

10) JETR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in Japanese), 1983, p.39.

〈表 7〉 北韓의 홍콩경유 對中共 再輸出

(單位：HK\$ 1000 )

commodity	1979	1980	rate of increase(%)
fish and fish preparation	77.5	1,226.0	+ 1,481.3
fruit and vegetable	46.0	4,547.3	+ 9,785.4
feeding stuff for animals	18.0	-	- 100.0
hides and skin	351.0	110.0	- 68.7
crude animal and vegetable materials ( n.e.s )	610.4	1,309.3	+ 114.5
leather and leather products	336.5	-	- 100.0
wood and cork products	-	2.0	n.a.
textile yarn and fabrics	10.9	1,455.4	+ 13,262.9
non-metallic minerals	-	98.1	n.a.
iron and steel	382.6	-	- 100.0
non-ferrous metals	70.0	3.4	- 95.0
clothing	-	1.3	- n.a.
total ( including others )	1,918.6	8,753.9	+ 356.2

資料：Trade Statistic of Hong Kong.

〈表 8〉 北韓의 홍콩경유 對中共 再輸入

(單位：HK\$ 1,000 )

commodity	1979	1980	rate of increase (%)
meat and meat preparation	25.7	-	100.0
cereals	148.0	157.9	6.7
fruit and vegetable	336.6	288.3	14.4
sugar and sugar preparation	463.0	14,448.4	+ 3,020.0
oil-seeds, oil-nuts and oil-kernels	1,466.8	2,184.0	+ 48.9
crude animal and vegetable materials	16.9	1,690.1	9,895.8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	22,528.1	n.a.
animal and vegetable oil	3,544.2	824.9	- 76.7
chemical elemnts and compounds	677.6	386.4	- 43.0
mineral tar and crude chemicals from coal, petroleum and gas	-	448.2	n.a.
dyeing, tanning and colouring materials	93,903	355.0	+ 278.1
chemical materials ( n.e.s )	3,659.0	3,178.7	- 13.1
leather and leather products	408.2	-	- 100.0
textile yarn and fabrics	1,412.9	7,561.8	+ 435.2
non-ferrous metals	1,417.7	3,246.8	+ 129.0
essential oil and perfume materials	46.4	196.3	+ 322.6
total ( including others )	15,046.1	57,967.4	+ 285.3

資料：〈表 7〉과 同一.

### 3) 다른 社會主義圈 國家들과의 貿易

北韓은 蘇聯 및 中共을 포함한 全社會主義圈과 貿易議定書 (Trade Agreement) 를 체결하고 그에 의해 무역하고 있다. 북한의 연간 國別 輸出과 輸入이 무역협정에 따르며 만일 當年度의 협정무역이 10%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次年度의 「무역의무액」은 협정액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表 9>는 북한의 1983年度 對社會主義圈 수출협정액과 수출의무액을 나타내고 있다. <表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1983年度の 수출협정총액은 732.8백만루블(약 US\$ 1.01 billion)이나 수출의무총액은 前年度의 未輸出分 97백만루블이 추가되어 829.0백만루블(약 US\$ 1.14 billion)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1983年 6月末 현재의 수출총액은 293.9백만루블(약 US\$ 405.6 million)에 불과하여 협정이행율과 의무총액 이행율은 오직 각기 40.1% 및 35.4%이다. 의무 이행율이 가장 높은것은 對蘇輸出(39.5%)이며 가장 낮은것은 對불가리아 수출(25.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北韓의 對社會主義圈 貿易의 不振은 북한경제가 기대 이하로 不振한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 對西方先進圈과의 貿易

### (1) 對西歐 貿易

1960년대까지 북한의 對西歐貿易은 미미하였으나 <表 10>에서 볼 수 있 있는 바와같이 1973~75年の 기간중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1970年代 중반의 북한의 對西歐 貿易增大는 西歐로부터의 플랜트수

입증대에 기인하며, 북한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作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1970年代 초의 북한의 對西歐貿易은 비록 규모는 적지만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73~75年의 期間중에는 대규모 赤字를 기록하였다.

더구나 이미 앞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이 시기는 석유파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의 플랜트수입 가격은 크게 상승한데 비해 북한의 주요수출품인 鉛 및 亞鉛등 非鐵金屬(non-ferrous metal)의 수출가격은 西歐經濟不況으로 인해 外貨의 수집이 부진하였다. 이때문에 북한의 輸入代金支拂은 지연되어 對外債務가 누적되었고 1977年에는 프랑스, 영국 및 西獨등과 부채상환 일정에 의한 다음과 같은 合意에 도달하였다.<sup>11)</sup>

1977年에 행해진 채무상환절차를 위한 협상에서 북한은 1978~84年 期間동안 4개의 유럽銀行에 약 1億5千400萬달러의 負債를 21회에 걸쳐 상환하며 3億2千880萬달러에 달하는 수출신용도 21회에 걸쳐 상환하도록 되었다. 이들 미불부채에 대한 利子支拂에 관하여 上記 채권은행들과 북한은 모든 이자를 3회에 걸쳐 분할 지불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재정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은 78年 7月로 예정되었던 1회지불이 9月로 연기되었고 그나마도 예정이자지불액의 10%에 불과하였으며 그후에는 전혀 이자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수출신용에 대한 이자는 그동안 2회에 걸쳐 일부가 지불되었을 뿐이며 특히 2회분은 예정액의 2分の 1에

---

11) 美國會議의 合同經濟委員會(Joint Economic Committee)의 보고서에 의하면 日本을 包含한 西方側에 대한 北韓의 負債總額은 1980年末 약 5億8千1百萬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Joint Economic Committee of the U.S. Congress, *East-West Trade: Prospects to 1985*. August 12, 1982.

불과하였다. 따라서 그후 채권은행단은 북한과 이자지불에 대한 3회에 걸친 회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表 9〉 北韓의 社會主義圈 國家들과 쌍무무역협정 ( 1983 )

( 單位 : million rouble )

country	1983 agreement (A)	1983 obligation (B)	shipment during the first half of 1983 (c)	C - (%) A	B - (%) A
Hungry	11.5	14.0	4.4	38.3	31.4
Bulgaria	18.1	24.3	6.22	34.4	25.6
East Germany	16.1	23.4	7.3	45.3	31.2
Cuba	9.3	11.1	4.3	46.2	38.7
Mongoria	2.2	2.2	0.7	31.8	31.8
Poland	43.9	50.2	12.7	28.9	25.3
Romania	16	33	11	68.7	33.3
Czechoslovakia	18.2	25.6	8.5	46.8	33.2
Soviet Union	392.5	392.5	155.2	39.5	39.5
China	205	252.7	83.6	41.2	33.1
Total	732.8	829.0	293.6	40.1	35.4

資料 : *North Korea's Trade in 1983 and Prospects*, 1984, p.97.

## 2) 對日本 貿易

1950年代에는 東西間の 冷戰으로 日本의 對北韓貿易이 사실상 금지되었으므로 북한의 對日本貿易은 中國을 경유하는 간접무역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1950年代末에는 中·日貿易이 중단되면서 日本의 對北韓貿易은 香港을 경유한 간접무역으로 바뀌었다.

日本政府가 北韓과의 직접무역을 승인한 것은 1961年이며 그후 북한과의 定期貨物선이 취항하고(1962), 북한의 무역은행과의 통신계약(1963), 등이 이루어졌으며 1965년에는 「평양·日本 商品展示會」가 開催되고 기술교류 등도 행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年代 후반 북한의 對日貿易은 정체상태에 있었고 북한의 대일 무역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年代 초부터이다. 즉, 1971年 北韓의 새로운 6個年計劃 始作, 1972年 美·中共關係 改善 및 72年 7月の 南北韓 共同聲明發表 등 한반도의 긴장완화노력등은 북한과 일본간의 무역증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일무역은 71년까지는 黑字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對日 기계류 및 플랜트의 수입증대로 1972년부터 북한의 對日輸入은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對日 수출은 그렇지 못하여 북한의 對日本 무역수지는 대폭적인 적자로 전환되었고 이때문에 74년末부터는 북한의 對日 輸入代金の 지불지연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6年末 北韓의 對日債務總額은 약 800億¥(2億6千9百77萬달러)에 달했고 77년부터는 채무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이 지연되어 1979년에 日本은 북한의 對日 부채상환계획 재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9~83年 期間中 北韓의 對日輸入은 전반적으로 증대되는 경향을 보

으로 인도된다면 당연히 승인이 되어져야 한다. 16)

東獨으로 인도되지 않는 재화는, 獨逸聯邦共和國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輸出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17)

c. 최근 輸出禁止의 발전

서방 국가들은 어떤 商品이 1차적으로 戰略的 重要性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美國은 주로 소련이 軍需産業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目錄을 주로 확대하는데 관심이 있었으며 또한 여전히 있는데 반해 유럽의 국가들은 外換의 不足으로 인하여 가능한 그 목록을 축소시키기를 바란다. 다른 이유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輸出禁止가 소련이 원자폭탄을 제조하고 미국보다 먼저 지구궤도에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못하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극히 최근에도 美國은 계속적으로 輸出禁止를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1980年 3월에 아프가니스탄 위기에 뒤이어 미국은 COCOM목록 ILI을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 1981年 12月 29日 NATO는 특수한 직경을 가진 파이프의 인도를 중단할 것을 (소위 가스-파이프 輸出禁止라 불림) 권고하였다. 獨逸聯邦共和國은 이 수출금지 권고에 동의하고 그 권고의 중요 부분을 수행했다. 폴란드 事態를 관찰한, 1982年 가을 COCOM의 회의에서 美國은 國營貿易國家에 대한 技術輸出에 대한 더 많은 제한을 강

---

16) Order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Aug. 4th, 1983, on the Continuation of the Military Government Law No. 53.

17) Cf. enclosure No. 1 concerning the General Permission No. 2(L).



조하였다. 1982年 6月 22日부터 시작되는 제재규약에 의해 미국은 外國에 있는 미국의 子會社와 미국과 外國사이의 인가된 協定에 까지 석유와 가스 장비의 輸出禁止를 확대하였다.

일반적으로 美國의 조치는 시베리아의 가스관 건설을 못하게 하는 데 집중되었으나, 특별히 몇몇 유럽국가들이 면허협정 (licensing agreement) 의 범위내에서 터어빈을 건설할 수 있게끔, 혹은 AEG-Kanis 처럼, 터어빈의 인도된 부분의 유지에 책임이 있게끔 하였다. 그동안, 제재규약에 집착한 몇몇 유럽국가들은, 美國 商務省의 국제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미국의 법정에서 제재규약을 법률적으로 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주로 제시한 논쟁점은, 미국의 제재규약령은 미국의 법률 영역 밖에 있는 합법적 실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금지조치의 타당성 여부의 결정이 통과되어지기 전에 미국이 소련에 부과한 제재규약은 실패임이 판정되었다.

1982年 11月 14日 미국에 의하여 제시된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레이건 대통령은 이 조치가 발효한지 반년도 못되어 가스관 규제를 즉시 폐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 2. 政府의 輸出信用保險

輸出制限의 중요성은 데탕드政策으로 감소하였으나 80年代 초반에 다시 증가 하였다.<sup>18)</sup> 그러나 獨逸聯邦共和國의 정부수출신용보험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社會主義國家와의 무역에 있어서 필요함이 일

---

18) Pfeffer, p. 57, Beck p. 91 and the following pages.

〈表 11〉 北韓의 對日 輸入

(單位: million US\$ and %)

	1980		1983		1985(1-6)		
	value	ratio	value	ratio	value	ratio	ratio
mineral products	18.0	4.8	10.61	3.2	2.72	2.5	(-) 43.7
chemical products	32.20	8.6	27.30	8.3	9.60	8.7	2.3
platic, rubber and their products	19.58	5.2	21.60	6.6	8.94	8.1	8.8
paper and its products	19.70	5.3	9.91	3.0	4.47	4.1	(-) 1.7
textile yarn, fabrics and their products	28.61	7.6	16.26	5.0	6.57	6.0	25.2
non-metallic mineral manufac- tures	60.36	16.1	51.41	15.7	17.15	15.6	15.0
machinery, other than electric and transport equipment	83.11	22.2	70.07	21.4	26.37	24.0	6.5
electric machinery, apparatus and appliances	31.64	8.5	31.90	9.8	8.60	7.9	(-) 23.8
transport equipment	46.99	12.6	42.42	13.0	7.28	6.6	(-) 46.2
professional, scientific and controlling instruments	15.90	4.2	16.71	5.1	3.29	3.0	(-) 58.3
others	20.58	5.5	24.64	7.5	14.85	13.5	34.8
total	374.31	100.0	327.08	100.0	109.90	100.0	(-) 5.0

資料: 〈表 10〉과 同一.

### 3) 第3世界와의 貿易

非同盟國家를 자처하고 있는 북한의 立場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諸國은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다.

北韓의 기계공업은 社會主義圈中 비교적 발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부의 기계들은 소련과 中共에서도 수출되고 있으나 소위 第3世界에 대한 수출에서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시멘트와 석유류가 第3世界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一部 國家에는 원조적 성격을 띤 穀物輸出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에는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一部 農産物이 輸出되고 있다.

북한은 西歐諸國과 채무상환문제가 제기된 1970年代 후반부터 홍콩과 싱가포르에 대한 무역을 급격히 증대시켜 왔다. 이들 국가에 대하여는 주로 채소, 어물, 비철금속이 수출되고 기계류와 석유제품이 주로 수입되고 있다.

또한 70年代 후반부터의 中東諸國들은 北韓의 중요한 수출시장이 되었는데, 특히 197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역에서는 2億4千3百萬달러의 赤字를 기록했다. 즉, 그해의 수출과 輸入總額이 각각 2億4千2百萬달러와 72萬달러를 기록했다.<sup>13)</sup> 따라서 70年代 後半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남한과의 관계로 북한에 오일을 수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에게는 사우디가 일본과 버금가는 무역상대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81년에는 이란-이라크 戰爭에서 北韓이 이란을 지지했기 때문에 北韓의 對사우디輸出은 1億2千8百萬달러로 격감된 바 있다. 北韓은 1974年

---

13) JETR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1983, p.49.

이란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1976年 以來 貿易協定額은 約 2億8千萬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의 무역이행율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對이란 무역에서 상당한 貿易黑字 기록하고 있어 이란은 北韓의 중요한 수출시장이 되고 있다. 특히 1980年의 협정에 의해 북한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sup>15)</sup> 이러한 사실은 원유수입을 주로 蘇聯과 中共에만 의존하고 있는 北韓으로서는 이란으로부터 원유공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IV. 北韓의 對外貿易 展望

##### 1. 對社會主義圈 貿易展望

1984年 1월에 開催된 北韓의 최고인민회의는 社會主義諸國과의 무역을 확대시켜 向後 5~6年間 무역고를 현재의 10位 이상 증대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의심스럽다. 특히 北韓의 第1貿易相對國인 소련과의 무역이 앞으로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83年末 現在 소련의 對共產圈 경제원조는 年間 總 68億 달러에 달하며 그중 92%가 쿠바, 베트남 및 몽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비록 나머지 8%중 北韓에 얼마가 提供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소련의 北韓에 대한 經濟援助가 극히 적을 것이

---

14) *Ibid.*

15) *Ibid.*

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16)</sup>

최근 北韓과 中共과의 관계는 政治·經濟적으로 매우 緊密해지고 있는데, 特히 經濟部分에서는 中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對中共貿易이 앞으로 급격히 증대된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이의 주 근거는 北韓을 包含한 第3世界와의 경제관계 증진을 중요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中共의 수출시장으로서의 第3世界를 중요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輸入能力이 부족한 北韓과의 무역은 우선순위 면에서 매우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中共의 對非共產圈 開發途上國貿易은 1980年 以來 輸出面에서 約 50%를 유지하고 있고 輸入面에서는 매년 23%의 증가를 가져 왔다.<sup>17)</sup> 이 貿易으로부터 中共은 상당한 貿易黑字를 기록해 왔다.

이러한 大規模 貿易黑字를 기록하게 된 것은 中共이 西歐先進國들과의 貿易에서 赤字를 기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80年 以來 초과무역수지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中共은 社會主義諸國들과 貿易均衡을 追求해 왔다. 따라서 中共의 立場에서는 輸入能力이 있는 資本主義圈의 開發途上國과의 貿易增進이 資本財 및 技術의 輸入依存도가 큰 對西方 先進國貿易에서의 赤字를 보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中共의 현무역은 주로 비공산권과의 무역이다. IMF 통계에 의하면 1984年의 경우 中共의 貿易은 輸出의 約 95%가 非共產圈과의 貿易이며

---

16) JETRO, *North Korea's Trade in 1983 and Prospects* (in Japanese), 1984, p.118.

17) JETRO,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Japanese), 1982, pp.72-75.

그중 42%가 西方先進國과의 貿易으로 되어 있다.<sup>18)</sup>

이러한 狀況下에서 北韓의 對中共貿易의 급격한 증대의 가능성은 극히 적고, 더 나아가서는 北韓經濟에 對한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정도의 경제원 조가 中共으로부터 提供된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 2. 對西方 先進國과의 貿易展望

北韓은 1984年 1月の 최고인민회의( Supreme People's Council )에서 自國의 自主性を 尊重하는 資本主義國家 특히 北韓과 外交關係가 있는 西歐의 資本主義國家의 經濟交流과 經濟合作( joint venture )을 발전시키고<sup>19)</sup> 나아가서는 外交關係가 없는 資本主義國家와의 經濟關係도 또한 發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해 왔다.

또한 <表 12>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美議會의 경제합자위원회의 報告는 北韓의 對西歐貿易(對日本貿易 包含)은 1980~85年の 期間中 輸出은 年平均 18%, 輸入은 年平均 20%씩 각기 能可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對西歐貿易增進을 위한 北韓의 새로운 努力이나 北韓貿易에 관한 美議會의 展望이 그대로 實現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1970年代에 발생한 채무문제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北韓經濟가 오늘날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은 北韓의 對西歐貿易展望을 어렵게 하는

---

18)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May 1985.

19) 지금 北韓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는 西歐國家는 Iceland, Austria, Switzerland, Sweden, Denmark, Norway, Finland, Portugal 그리고 Malta 등 9個國이며 이들은 韓國과도 外交關係를 맺고 있다.

主要因들인 것이다.<sup>20)</sup>

日本은 蘇聯(30%) 및 中共(20%) 다음가는 北韓의 第3의 貿易相對國이며 北韓貿易中の 20%를 점하고 있으며 西方側 國家들등 第1의 貿易相對國이다.

日·北韓間的 比較的 密接한 경제관계에 공헌한 주요 비경제적인 요소들은 소위 말하는 일본의 등거리 외교(equidistance diplomacy)와 두국가간의 지리적 및 사회문화적 근접성이다.

北韓의 立場에서는 日本과의 貿易關係 증진이 새로운 자본 및 기술을 導入하는 전략적 窓口로서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에 特別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점은 北韓이 對日債務償還問題에 特別히 關心을 가지고 있다는 事實과 日本과의 經濟的 關係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中共의 外交的 支援을 요구하고 있는 事實들에 의해서 분명히 밝혀졌다.<sup>21)</sup>

北韓의 이와같은 努力이 日本內 對北韓 貿易增進을 요구하는 일부세력의 협력과 특히 日本政府의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등거리 外交政策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성공될 可能性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北韓의 對日輸入이 對日輸出의 2位에 달하고 있고 상호간 국교가 없으며 社會經濟體制가 근본적으로 다른 北韓과 日本間的 貿易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와같은 점은 北韓의 對日貿易이 금년들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충분히 立證되고 있는 것이다.

---

20) 과도한 군사비지출, 8年間 長期 義務服務로 인한 産業일군들의 不足, 에너지 供給不足, 새로운 機械技術의 導入供給의 不足, 西歐貿易制度에 대한 知識不足 등이 主要因들이다.

21) JETRO, *North Korea's Trade in 1983 and Prospects*, 1984, p.33.

〈表12〉 北韓의 對西歐 先進國과의 貿易展望 (1985)  
(單位: US\$ million)

	1980 (actual)		1985 (forecast)		rate of increase per year (80-85)
	value	ratio(%)	value	ratio(%)	
total imports	543.3	100.0	1,238.0	100.0	18.0
food, beverages, animal and vegetable oils	47.7	8.8	68.5	5.5	7.5
crude material	29.0	5.3	72.2	5.8	20.0
mineral fuels and lubricants	22.7	4.2	169.3	5.6	25.0
chemicals	66.1	12.2	133.0	10.7	15.0
manufactured goods classified by materials	135.8	25.0	337.9	27.3	20.0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207.0	38.1	515.1	41.6	20.0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23.2	4.3	26.9	2.2	3.0
special transaction	11.8	2.2	15.1	1.2	5.0
total export	436.8	100.0	1,074.2	100.0	20.0
food, beverages, animal and vegetable oils	73.2	16.8	93.4	8.7	5.0
crude materials	77.8	17.8	214.6	20.9	22.5
mineral fuels and lubricants	9.9	2.3	19.9	1.9	15.0
chemicals	5.7	1.3	8.2	0.8	7.5
manufactured goods classified by materials	262.7	60.1	724.7	67.5	22.5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2.5	0.6	5.7	0.5	18.0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4.4	1.0	7.1	0.7	10.0
special transaction	0.6	0.1	0.6	0.1	0.0
balance of trade	(-)106.5		(-)163.8		

資料: Joint Committee of the U. S. Congress, *East-West Trade: Prospects to 1985*, August 1982.



### 3. 對開發途上國 貿易展望

84年 1월에 열린 북한최고인민회의는 南·南協力과 對外經濟活動의 강화 및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이것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북한의 第3世界에 對한 貿易均衡이 1978年 以來 정체되어 왔다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1978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開發途上國들과의 貿易에서 2億2千2百萬달러의 黑字를 올렸으나 1981년에는 1千4百萬달러의 黑字로 줄어들었고 1982년에는 5千5百萬달러의 赤字를 보았다.<sup>22)</sup>

1983年 랑군사태 (Rangoon Assassination) 이후 北韓에 대한 第3世界諸國과의 태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과 韓國과 第3世界諸國과의 經濟協力이 크게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아시아 開發途上國과의 經濟交流擴大 努力이 어느정도 실현될 것인가는 하나의 미지수인 것이다.

### IV. 結 論

北韓의 經濟開發을 위한 적극적 무역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對西方 무역확대를 추구해온 것은 1970年代 初부터이다.

이와같은 北韓의 貿易政策은 1950年代와 1960年代를 통해 社會主義圈과의 貿易만으로는 그들의 의욕적인 경제개발 목표를 성공적으로 達成할수 없다는 경험에 입각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北韓의 새로운 貿易政策은 北韓經濟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 그중에서도 특히 輸出能力의 한계성에 의해 좌절되었다고 보는

---

22) 外務部, 「北韓의 貿易」, 1984.6, pp.34 ~ 35.

것이 타당한 것이다.

오늘날 北韓의 對外貿易增進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저해요인인 對西方 負債償還問題는 北韓經濟의 輸出能力의 限界性 정도를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한계성을 다시 가장 폐쇄적으로 운영된 北韓의 社會主義 體制가 낳은 副產物인 것이다.

1990年代에 와서 北韓의 對西方貿易擴大 努力은 北韓經濟 침체와 세계경제의 침체라는 外部與件의 악화로 1970年代와 비교해 거의 유사한 곤경에 빠져 있다. 이와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北韓은 1984年 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第3世界와의 貿易 및 經濟交流 增大와 北韓의 自主성을 존중하는 資本主義國家들과의 貿易 및 經濟協力增大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 會議에서는 합자경영과 技術協力の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같은 北韓의 積極的인 貿易擴大努力은 소위 10大 經濟開發目標등과 같은 經濟開發을 위해서는 西方先進國의 資本財와 技術의 공급이 꼭 필요하다는 그들 경제의 긴박한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3)</sup>

이와같은 北韓의 對外貿易政策은 분명히 적어도 경제면에서 좀더 개방화

---

23) 10대 경제개발목표에서는 전기, 석탄, 강철, 비금속, 시멘트, 화학비료, 섬유, 어류, 곡물, 개간 등이 있다. 北韓은 1975년에 공식적으로 이런 산업들의 生産이 1980年代 末까지 200~500% 증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특히 北韓은 1970年代初 以來 推進되어온 中共의 성공적인 對西方 개방정책의 경험으로부터 많은것을 배웠다고 보아야 하며, 게다가 韓國과의 經濟的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서 큰 자극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對西方 및 對第3世界 무역확대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와같은 점은 北韓 스스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은 판단의 근거로서 우리는 1984年 1月 北韓의 최고 인민회의가 무역확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소위 韓·美·北韓間의 三者會談을 제의한 점과 최근에 와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南北經濟會談등을 들 수 있다.

北韓의 韓·美·北韓의 3者會談提議의 眞意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美國의 傀儡政權」( puppet government of U.S )으로 지칭하였던 韓國을 會談의 當事者로서 認定한 것은 北韓이 美國과의 교섭테이블에 앉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24) 이런 새로운 움직임의 두드러진 예는 1984年 9월에 발표된 「合營法」(Joint Management Law)의 제정일지도 모른다. 이 새로운 법은 外國人이 特別한 分野에 직접 投資하는 것을 許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法의 制定이 北韓經濟의 공공연한 개방의 시작을 의미하는지는 의심스럽다. In Duck Kang, "Provision against the Era of Kim, Jung Il," *Asia Public Opinion* (in Japanese), 1985.6, p.36. 또한 北韓의 경제적 현대화 과정에 수많은 대내적 마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종종 지적되고 있다. Eung Youl Chun, "The Economy of North Korea Suffering from the Adaptation for the Economic Moderation," *Soong Jun University Essays and Papers*, Vol.13, 1983.

北韓이 美國과의 교섭테이블에 앉기를 원하는 것은 마치 베트남政府가 美國과의 交流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나 동일한 동기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北韓은 美國과의 經濟交流를 통해 先進技術, 資本財 및 資本의 供給을 꾀하고 방대한 美國市場에 對한 輸出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北韓의 對美經濟交流가 실현될 때 그것은 北韓의 對西方國家와의 경제交流는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이 최근 南韓과 經濟交流會談을 계속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南韓과의 經濟交流에서 얻는 직접적인 이득보다는 南韓과의 經濟交流가 北韓의 對美國 및 對여타 西方先進國들과의 經濟交流擴大에 미칠 간접적인 利益獲得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25)</sup>

과연 이와같은 北韓의 努力이 성공할 것인가는 당장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北韓의 立場에서 볼 때 對美經濟交流는 그의 經濟發展을 위한 유일한 나머지 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事項인 것이다.

---

25) 南北間의 잠재적인 무역의 실질량이 存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Chong Ha Lee and Chin Keum Park, "The Potential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aper Presented of the Korean-German Symposium on Trade With Socialist Countries (Tutzing, West Germany, July 1983 and Published in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Spring - Summer, 1984.

### 第 3 章 北韓의 變化와 韓國과의 關係

安 秉 俊  
(延世大 政治學教授)

#### I. 序 論

제 2 차 世界大戰이 끝난 지 40 年이 지났지만 韓半島는 여전히 分斷된 상태에 처해있다. 그리하여 南北韓은 서로 대치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對話를 再開하였다. 이러한 때에 南北韓關係의 本質을 照明하고 그동안 있었던 對話의 經驗들을 檢討하며 그것들의 問題와 展望 그리고 對話에 있어서 美國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暫定的인 判斷을 내리는 것은 時期適切한 일일 것이다.

本人은 이 論文에서, 北南韓關係가 1984 年과 1985 年에 再開된 對話를 協商의 局面으로 이끌어 가게 할 것인가 하는 轉換點에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南韓과 美國에 공통적으로 부과된 도전은 戰爭抑止力을 弱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이 對話를 통해 北韓과 緊張緩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重點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오로지 남한과 美國이 緊密한 關係를 통하여 北韓에 대한 持續적이고 效率적인 共同戰略을 수행할 때 이러한 도전에 成功的으로 對處해 나갈 수 있다.

이제 全體的인 주제를 具體적으로 부연하면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南北韓關係는 本質적으로 軍事的이고 政治적인 갈등을 결합하고 있다. 사실 양측은 安保, 承認, 繁榮 그리고 正統性を 추구한다. 그 결과 양자 사이에는 軍事的, 外交的, 經濟的, 政治的 對立이 있어왔다. 그러나 外交적이고 經濟적인 競爭은 南韓側이 決定的으로 유리한 立場에 놓이게 되어

對立樣相은 軍事的이고 政治的인 갈등에 보다 많은 比重을 두게 되었다.

둘째, 이제까지 있어왔던 對話의 經驗들로 미루어 볼 때 對話들은 국제 환경과 北韓의 國內狀況과 南韓의 國內狀況의 變化에 의해 야기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對話樣相은 이러한 모든 要素들의 結合에 의해 促進되어 가는 것 같다. 그리고 北韓은 對話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姿勢와 對話를 계속하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南北韓關係의 歷史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希望을 고취시키고 있다.

세째, 이번 대화에서 南韓에게 안겨진 課題는 어떻게 전쟁억지력을 보유 하는 同時에 緊張緩和를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가장 可能性있는 展望은 兩側이 오랜 期間동안 漸進的으로 相互交流를 기함으로써 그것에 의해 南北韓 關係를 戰爭抑止에서 緊張緩和, 그리고 親和協商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展望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美國은 戰爭抑止力을 보증하고 韓國을 世界的 차원의 戰略競爭의 場에서 벗어나게 하며 남북한 사이의 直接的인 對話를 격려하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 II. 南北韓關係의 本質

같은 歷史와 言語를 가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南北韓과 같이 相互間에 적대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 볼 수 없다. 東獨과 西獨, 中共과 臺灣 등의 關係와는 달리 南北韓關係의 本質은 너무나도 競爭的이기 때문에 양자는 安保, 承認, 繁榮 및 正統性을 얻기 위한 相互間的 鬭爭을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鬭爭은 1950년에 있었던 韓國戰爭의 유산으

로서 強化되어진 軍事的, 外交的, 經濟的, 政治的 대결양상을 招來한다.<sup>1)</sup>

그러나 1980년대 初半에 들어서면서 外交的, 經濟的 大결에서는 南韓이 優위를 점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의 대결은 軍事와 政治의 측면에 보다 많은 着점을 맞추게 된다.

### 1. 安保의 追求 : 軍事的 對決

安保는 모든 국가에게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國家利益이다. 南北韓도 相對方을 自身の 安保에 위협을 주는 要素로서 把握하고 있기 때문에 이 法則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北韓이 1950년에 南韓에 대하여 基幹적인 侵略을 감행했으며 그것에 대한 責任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事實은 韓半島의 安保狀況을 그 어떤 分斷國家보다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1950年の 戰爭과 1953年の 휴전협정의 遺産으로서 생겨난 美國 地上軍의 駐屯은 南韓에 있어서 가장 効果的인 戰爭抑止力으로 作用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은 軍事的 統一에 제일 커다란 妨害가 되고 있는 美國地上軍의 撤收를 繼續적으로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1950年 이후 北韓은 繼續해서 공격적인 戰略을 취해왔다는 事實이 重要하다. 그것은 軍事的인 理念, 戰略, 그리고 展開過程에 있어서 잘 反映되고 있다. 김일성에 의해 規定되는 公산주의 이데올로기는 革命戰爭을 正當化시키며 革命戰爭을 결정하는 要素는 軍隊와 人民의 革命的인 헌신이라

---

1. See, for example, Byung-joon Ahn, "Prospects for North South Korean Relation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2, No. 2 (June 1983), pp. 67-79.

고 한다. 이러한 人民戰爭의 原理에 立脚하여 北韓政治體制는 軍隊뿐만 아니라 全國土를 要塞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김일성에게 있어서 革命과 統一은 같은 것이며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것이 없이는 達成될 수 없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根據에 입각해 볼 때 美國은 世界反動勢力의 根本이 되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다.<sup>2)</sup>

그러므로 南韓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要求함으로써, 北韓은 美國의 危脅을 없애는 軍事的 目標과 또한 이를 통해서 美國에 全적으로 依存해 있다고 생각되는 南韓政府를 弱화시키는 政治的 目標을 實現하고자 한다.

또한 北韓은 그의 이데올로기적인 教理와 보조를 맞추어 軍事에 있어서도 공격적인 戰略을 취하고 있다. 北韓은 國民總生産에서 國防費에 所要되는 比率를 점차로 늘여 그것을 25%까지 擴充하려는 야심찬 計劃을 1960년대 初부터 施行하고 있었다. 그 結果 北韓은 南韓에 비하여 보병, 대포, 장갑차, 전투기의 두배, 탱크와 군함의 세배를 보유하고 있다.<sup>3)</sup> 1970年代에 北韓에 대한 中共과 蘇聯의 關係가 根本적으로 防禦指向的인 것이었기 때문에 北韓은 장갑차와 탱크의 國內生産을 開始하였다. 이러한 수치상의 比較는 精確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北韓이 防禦的인 目的 이상의 軍事力을 保有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더욱이 北韓은 非武裝地帶 일대에 기갑부대와 10萬의 특공대를 배치하였다.

---

2. 「로동신문」, 1981.3.10, p.1.

3. For details, see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84-1985*, pp. 102-104.



1975년에는 非武裝地帶에서 3개의 땅굴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1984년에는 機械化된·4개사단을 再配置하였고 非武裝地帶 일원에 170개가 넘는 지하방커를 設置하였다.<sup>4)</sup> 이러한 兵力과 裝備의 前進配置로 인해 경계시간은 24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더구나 北韓은 저공침입을 遂行하고 게릴라활동을 支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미제 헬리콥터를 87대나 購入하였다. 이로서 北韓은 南韓을 早期侵攻할 수 있고 中共이나 蘇聯의 支援없이도 3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게 되었다.

軍事的 狀況을 더욱 惡化시키는 것은 서울에서 非武裝地帶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이다. 런던에 있는 國際戰略問題研究所에서는 蘇聯이 北韓에 대해 미그-23 비행기나 T-72 탱크와 같은 高性能 武器를 공급하겠다는 提案을 했다고 報告하였다. 또한 蘇聯은 이미 14대의 미그-23 비행기를 北韓에 讓渡했다는 報告가 있다.<sup>5)</sup> 그 보답으로서 北韓은 蘇聯이 北韓領土內에서 미사일발사실험을 하는 것과 領空內에서 戰鬥機가 飛行하는 것을 許諾하였다. 北韓의 立場에서 볼 때 이러한 새로운 關係發展은 美國, 日本, 그리고 南韓 사이에 形成되는 軍事同盟에 對抗하기 위하여 그들의 安保協力을 強化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南韓의 立場에서 볼 때 그것은 南韓 自體의 安保에 있어서 불길한 징조로 보인다.

남한은 韓國戰爭의 終結 以後부터 北韓에 대해 防禦的인 姿勢를 취하고 있다. 南韓은 韓·美防衛條約에 따라 또다른 戰爭을 防止하기 위해 필요한

---

4. *Korea Herald*, September 25, 1984, p. 1.

5.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Strategic Survey 1984-1985*, p. 98; *Korea Herald*, July 31, 1985, p. 1.

原理, 戰略, 力量 등을 美國과 보조를 같이하여 發展시켜 나가고 있다.

1950 年에 戰爭抑止力의 실패를 經驗했던 남한은 戰爭抑止와 아울러 戰爭抑止가 실패할 경우에 필요한 自主國防을 위하여 效率的인 手段을 講究하였다. 美國의 地上兵力은 이러한 南韓과 北韓 사이의 격차를 補充하고 있다.

특히 카터 대통령이 1977 年에 美國地上軍의 段階的인 撤收를 시도하려 하자 남한은 미국에서의 軍事的 원조로부터 自主國防에로의 戰略을 재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레이건 行政府는 南韓의 安保가 東北亞地域의 平和와 安全에 絶對적으로 重要하며 따라서 美國安保에도 絶실하다고 認定했기 때문에 美軍의 撤收計劃은 없으며 南韓이 自主國防의 能力을 갖추 때까지 남한을 충실히 도울것이라고 確認하였다. 그리하여 1986 年부터 南韓은 처음으로 F-16 비행기 36대를 美國으로부터 讓渡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蘇聯의 미그-23 飛行機와 高性能 미사일의 讓渡에 따라 美國과 南韓 사이에 더욱 긴밀한 軍事協力이 필요되어 진다.

北韓이 軍事的인 우위를 계속 차지하고 1988 年의 올림픽을 妨害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새로운 전쟁도발의 危脅으로부터 南韓의 安保를 保證할 수 있는 努力이 더 한층 이루어져야 한다. 순전히 양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남한은 지금의 軍備增強計劃이 예상대로 순조롭게 進行된다 할찌라도 1990 년에는 北韓軍事力의 70%밖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초월하여 南韓은 經濟的인 우위를 통해 부단한 努力을 경주함으로써 軍事的인 우위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 부터 1988 年 이후의 時期는 두개의 적대세력이 安保를 위한 鬪爭을 展開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볼 때 4만명에 달하는 美軍의

南韓 주둔은 공격을 防止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戰爭抑止力이다.

## 2. 承認의 追求 : 外交의 對決

南北韓은 國際的인 承認을 위하여 外交的으로 경쟁해 왔는데 특히 냉전 體制가 1970年代에 들어와 緩和됨에 따라 더욱 그러하였다. 1975年에 키신저가 提議한 強大國에 의한 南北韓 교차승인을 北韓이 거절하자, 外交的인 競爭은 北韓이 非同盟運動을 통해 指導力을 行使하려 했던 第3世界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南韓이 經濟的 支援을 통해 第3世界 안으로 潛入하려 하자, 北韓은 1983年 10월의 랑구운 暗殺事件과 같은 暴力을 行使함으로써 이를 저지하려고 했다. 그 이후로 北韓은 美國, 日本, 中共, 그리고 蘇聯 등의 4強들과 그의 利害關係를 刷新해 왔다. 北韓은 南韓이 中共이나 蘇聯과 非公式的으로 接觸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同時에, 美國에 대해서는 南韓이 참관인으로서만 參與하는 3者會談을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妨害에도 不拘하고 南北韓과 4強 사이의 交叉接觸範圍는 넓어졌다. 結果的으로 外交的 競爭은 南韓이 123個國으로부터, 北韓이 103個國으로부터 승인을 얻음으로써 南韓이 勝利를 거두었다.

1974年 以後로 北韓은 美國에게 휴전대신 平和協定을 提議해 왔으나 成果가 없었다. 최근에는 이것을 변형시켜 3者協定을 主張했으나 美國과 南韓이 冷談한 反應을 보임으로써 아무런 結果도 얻지 못했다. 中共은 公式的으로 이 提案을 支持했으나 非公式的으로는 이것이 非現實的이라고 이야기했다. 蘇聯은 아직까지 이를 承認하고 있지 않다.

3者協定의 提議가 아무런 肯定的인 反應을 얻지 못하자 1985年 初부터 北韓은 美國의 記者들을 招請하고 판문점에 있는 共同警備區域을 非武裝化

시키자는 計劃을 提案함으로써 美國에 대해 微笑外交(Smile Diplomacy)를 展開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이 재개된 南韓과의 會談에서 유연한 態度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의 배후에는 非武裝地域 일대에 있어서 軍事的 再配置가 여전히 進行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南韓의 美國·日本에 대한 外交的 關係는 1981년부터 1985년 사이에 있었던 國家元首들 간의 빈번한 交換訪問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긴밀하게 擴大되었다. 全大統領의 1981년 2월과 1985년 4월의 美國訪問, 레이건의 1983년 11월의 韓國訪問, 나가소네 首相의 1983년 1월의 韓國訪問, 全大統領의 1984년 9월의 日本訪問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交流를 통해서 南韓은 美國, 그리고 日本과 함께 安保, 經濟, 政治의 關係를 꾸준히 發展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訪問보다 더 중요한 것은 美國과 日本이 南北韓의 直接會談努力을 支援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中共도 이 政策에 대해 대체로 支持를 보내고 있다.

北韓의 中共과 蘇聯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도 本質的인 進前이 있어왔다. 예를 들면, 北韓과 中共 사이에 指導者들이 빈번한 訪問을 하였다. 1982년 2월 鄧小平과 胡耀邦의 평양비밀방문, 1982년 9월 김일성의 非公式的인 베이징방문, 1983년 김정일의 非公式的인 베이징방문, 1984년 5월 胡耀邦의 평양방문, 1984년 11월 김일성의 비공식적인 베이징방문, 그리고 1985년 5월 胡耀邦의 신의주방문 등이 있었다. 이것 외에도 100내지 200명의 대표단들이 매년 양국을 방문하는데 이는 중공과 北韓의 관계가 親密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蘇聯의 指導者들이 23년전 김일성의 모스크바방문 이후 한 번도 평양을 訪問한 적이 없었지만 北韓과 蘇聯 사이에 相互 訪問하는 代表團

의 수는 增加해 왔다. 그리고 그리신이 1980년에 평양을 訪問한 이후 그레미코나 다른 政治局員이 처음으로 평양을 가까운 장래에 訪問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外務部 次官인 카피차가 1984年 11월 2주에 걸친 긴 期間동안 평양을 訪問하였는데 이후 兩國의 經濟的, 軍事的 協力은 더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北韓은 약 10億弗에 달하는 負債에도 不拘하고 1980年 이후 모스크바로부터 플랜트와 기계의 輸入을 大規模로 增大시켰다. 또한 미그-23 飛行機와 미사일의 讓渡는 蘇聯이 北韓에 대해 그동안 취해 왔던 抑制政策으로부터의 訣別을 意味한다.<sup>6)</sup>

1973年 6월 23일 南韓이 中共과 蘇聯과도 關係改善의 용의가 있음을 宣言한 이후로 南韓은 이들과 몇몇의 非公式的 關係를 發展시켰다. 특히 최근에 南韓은 中共과 體育, 間接貿易, 人事交流등을 擴大시켜 나갈 수 있었다. 예를들면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는 양국사이의 貿易은 약 8億弗에 이르는데 이것은 北韓과 中共사이의 그것을 능가한다.<sup>7)</sup> 1983년에 있었던 中共民航機 납치사건은 양국의 協商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1985年 3월에는 中共警備艇 1척이 황해로 표류하여 군산항에 인양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中共의 軍艦이 南韓領海를 侵犯한 理由로 中共으로부터 公式的인 사과를 必要하게 했으며 아울러 홍콩주재 韓國總領事와 홍콩주재 新華社 通信局長사이에 즉각적인 협상이 必要하였다. 그리고 中共의 企業人들이 Shenzhen에

---

6. Harry Gelman and Norman D. Levin, *The Future of Soviet-North Korean Relations* (Santa Monica: Rand, 1985); also see Byung-joon Ahn, "The Soviet Union and the Korean Peninsula," *Asian Affairs*, Vol. 11, No. 5 (Winter 1985), pp. 1-20.

7.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4-5, 1985, p. 13.

서 韓國의 投資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報道가 있다. 더우기 中共은 美國, 日本 등과 쌍무적인 對話를 통해 南北韓 사이에 새로이 再開된 會談을 긴장완화의 目的으로서 支援하고 있다.

1988 年の 올림픽경기를 유치한 남한의 凱거는 北韓과의 外交的 對決에 있어서의 또 다른 승리로 기록된다. 현재 北韓은 올림픽의 共同開催를 主張하고 있는데 이는 IOC헌장에서도 認定하지 않고 있는 規定이다.

中共은 이미 참가의사를 밝혔고 蘇聯은 參加를 위해 積極的으로 準備하고 있다. 그러므로 美國, 日本, 中共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安定을 追求하려는 南韓의 戰略的 目標를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蘇聯조차도 군비제한협상과 레이건-고르바초프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이룰 수 있다면 이에 따를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南韓의 外交的 勝利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백해 질 것이다.

### 3. 繁榮의 追求 : 經濟的 對決

南北韓關係의 또 다른 局面은 繁榮의 追求를 위한 經濟的 對決로도 展開된다. 北韓에 대한 正確한 資料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南韓이 北韓을 經濟的으로 압도하고 있다는 점에는 理論의 여지가 없다. 南韓의 國民總生産은 北韓의 5배이며 또한 1人當 國民所得도 北韓의 2배이다. 이렇게 볼 때 남한의 생활수준은 “地上의 天國을 建設하자”라고 외쳤던 北韓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다.<sup>8)</sup>

---

8. John F. Burns, "North Korea: A Visitor Finds Baffling Societ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11, 1985, p. 1.

北韓의 經濟는 下部構造, 資本, 그리고 技術의 不足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1984년에 끝난 제 2次 7個年 計劃은 실패하였는데 원래 목표의 60%밖에 達成하지 못했으며 年平均 經濟成長率 또한 의도하였던 9.6%보다 훨씬 낮은 4.5%에 불과하였다.<sup>9)</sup> 1985年 新年연설에서 김일성은 이 計劃의 成果에 대해 言及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計劃의 目標도 정하지 않았다. 中共의 本을 따서 1984年 9월에 제정한 合作投資法은 日本에 거주하는 韓國人을 통해 백화점을 건설하고 불란서 자본으로 46層의 호텔을 建設하는 計劃을 除外하고는 거의 成果가 없다. 또한 北韓은 20億弗에 달하는 負債를 안고 있기 때문에 世界金融市場에서의 信用이 실추되었다.

北韓의 經濟的인 富는 蘇聯, 中共, 日本과 연결되어 있다. 北韓이 “주체”라는 표어에 내포되어 있는 자존의 原理를 고수하는 한 자기충족을 타개해 나가려는 努力은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를 開放하는데 所要되는 機會費用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政權은 더 이상 革命과 軍備支出 때문에 經濟成長과 福祉를 희생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이 確實하다. 北韓의 經濟가 南韓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管理와 貿易이 必要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經濟的 要素는 南北韓 關係에 있어서 새롭고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南韓의 經濟는 最近에 8%의 年平均 成長率을 記錄했다. 南韓이 당면한 문제중의 하나는 430億弗에 달하는 負債이다. 그러나 南韓의 信用은 아직도 높은

---

9.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20, 1985, p. 27.

편이다. 先進工業國家들의 불황 때문에 남한의 輸出은 1984 年에 下向勢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부가 재정과 수입의 自由化를 계속하는 가운데서도 인플레이션은 통제될 수 있었다. 신흥산업국가의 일원으로서 남한은 太平洋地域國家 중에서 自由貿易과 經濟的 協力을 推進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擔當하고 있다. 2000 年까지 남한은 세계 15 번째의 産業國家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남한은 比較優位를 통해 北韓과 경제협력의 영역을 擴充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南北韓交流의 障礙要因으로서 作用할 수도 있다.

#### 4. 正統性的의 追求 : 政治的 對決

南北韓간의 軍事的 均衡이 계속 維持된다면 양자의 대결은 점차로 正統性을 위한 政治的 鬭爭으로 轉換할 것이다. 外交的, 經濟的, 政治的 活動은 相對方的 正統성을 妨害하려는 시도로서 반영되어진다. 이것은 왕조적인 계승을 통하여 현존질서를 영속시키려는 체제와, 비록 권위적이기는 하지만 開放되고 헌정민주주의를 제도화하려는 체제 사이에 일어나는 政治的 競爭이다.

뉴욕타임즈 記者의 表現을 인용하자면 北韓의 政治體制는 다른 무엇보다도 指導者를 찬양하고 그의 權力을 계승하려는 하나의 原理에 귀결되고 있다. 그런데 公式的으로 言及되는 다른 하나의 유일한 話題는 南韓과의 통일인데 이것조차도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讚揚을 보좌하기 위한 手段에 지나지 않는다.<sup>10)</sup> 이러한 讚揚은 주체라는 이름으로 遂行되어지는데 주체

---

10. See note 8.



는 배타적인 民族主義와 김일성의 인격에 대한 讚揚을 結合한 것이다. 김정일은 이러한 理念과 權力을 繼承하게 되어있다.

北韓政治體制는 김일성이 政治에서 은퇴할 때 닥칠 커다란 繼承危機를 克服해야만 한다. 中共에서 모택동이 죽은 후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김일성이 죽은 후에도 분파적인 鬭爭이 일어날 것 같다. 北韓이 外部世界로 開放되어진 結果, 情報의 다른 根源을 찾을 수 있다면 김일성 個人을 우상화하는 것은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우기 北韓이 南韓과 계속되는 會談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革命을 進行시킴으로써 自體의 正統성을 構築한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은 正統성을 얻기 위한 다른 方法을 찾아야 한다. 김정일은 이번 會談에서 몇가지의 本質的인 利益을 保證하고 同時에 經濟的 發展을 통하여 生活水準을 向上시킴으로써 자신의 指導力에 대한 支持를 얻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北韓에서 계속되는 김일성의 統治와는 대조적으로 南韓에서는 커다란 變化가 있어왔다.<sup>11)</sup> 變化의 出現이란 국가가 社會와 政治集團에 대해 통제를 가하는 조합주의적 體制를 意味한다. 군부 혹은 權威的인 정당은 社會와 國家 사이의 연계역할을 해왔다. 全大統領의 第5共和國은 7년단임의 大統領制를 追求하고 있다. 이 體制에 대한 도전은 1988년 全大統領이 任期를 마친 후에 어떻게 繼承問題를 해결하며 政治에 있어서의 安定과 制度를 維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

11. Ahn Byung-joon, "Political Changes and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 10 (1983), pp. 41-65.

지금 南韓에서 출동하고 있는 가장 큰 問題는 民正黨과 野黨간의 憲法 改定與否에 관한 論議이다. 1985年 2월에 있었던 總選舉에서 새로이 결 成된 新民黨은 이제까지 南韓에 있었던 野黨 中에서 가장 強力한 野黨으 로서 出現하였다. 이 新黨은 276名의 國會議員 中 102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야당 全體는 國民으로부터 65%의 支持를 얻었다. 그들은 大統領 直選制를 위해 憲法을 改定하려고 한다. 그러나 與黨은 大統領 間接選舉를 내세우고 있는 現存憲法을 고수하려 한다. 그러므로 南韓國民들의 주된 관심은 앞으로 進行될 與野 間的 타협 여부에 集中되어 있다.

社會가 급속한 産業化의 變化過程을 겪어나감에 따라 많은 소외계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中에서 학생들의 과격화문제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남아있다. 적당한 規模의 중산층이 形成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政治엘리트와 연계되어지는데에는 失敗했다. 政治는 여전히 800에 달하는 재야인사를 包含하고 있다. 權力의 고삐를 쥔 사람은 일반적으로 合意된 절차를 통한 權力分配에 대해 矧려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政治體制와 社會 間的 間隔이 넓어져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아직도 全般적인 政治傾向은 開放적이고 다원주의적인 方向으로 進行되고 있다. 만일 政府가 憲法的인 節次에 따라 權力을 繼承한다는 約束이 지켜진다면 國民의 同意에 의한 연성적인 權威主義體制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體制라면 經濟的 成長, 經治的 參與, 그리고 北韓과의 生産的인 會談을 통해 正統性을 認定받을 수 있다. 즉 北韓을 建設的인 對話의 場으로 끌어들이려는 努力은 南韓政治體制의 正統性을 위한 여러 基盤 中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南北韓 사이에 存在하는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政治體制 下에서

正統성을 위한 鬭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軍事的 對立이 緩和되어진다면 어느 體制가 더 많은 支持와 同意를 얻어내느냐 하는 競爭樣相은 새로이 展開되는 協商의 領域에서 政治的인 대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985 年에도 南北韓 關係는 軍事的이고 政治的인 갈등 모두의 要素를 계속해서 包含하고 있다.

### Ⅲ. 協商의 時期인가?

1984 年 後半부터 새로이 재개된 일련의 회담을 통해 南北韓關係에 있어서 協商의 국면이 展開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北韓이 이전과는 달리, 對話의 前題條件을 要求함으로써 南韓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려는 자세를 지양했다는 점이다. 대신에 北韓은 이 會談을 좀더 부드럽고 유연한 姿勢로 이끌어 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남한이 적십자회담, 經濟會談, 그리고 국 회회담에서 北韓의 提案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양측은 비록 基本的인 立場은 다르더라도 共通되는 利益의 領域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대조는 지금의 會談을 이전것과 비교할 때 더욱 明確히 드러난다. 1972 年 부터 1973 年, 그리고 1979 年 부터 1980 年까지 두 가지의 會談이 있었다. 1972 年 부터 1973 年까지 있었던 첫째 會談은 美國과 中共의 갑작스런 關係改善에 의해 극적으로 外部環境이 變化되었기 때문에 促進된 것이었다. 北韓은 南韓의 提議에 肯定的인 반응을 보였다. 이때 양측은 赤十字會談에서 離散家族의 生死確認, 自由往來, 郵便物の 交換, 친지간의 결합, 그 밖의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토의 등을 內容으로 하는 5 個 項에 同意하였다. 그러나 北韓은 朴大統領이 1972 年 10 月에 유신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 會談을 중단시켰다.

두번째 會談은 朴大統領 시해사건에 의해 國內政治가 變化되자 北韓이 먼저 提議하여 이루어졌는데 1980年 8월에 全斗煥 將軍이 大統領에 당선되자 北韓은 이를 급작스럽게 중단시켰다. 같은해 10월 제 6차 朝鮮勞動黨會議에서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聯邦制를 實現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그는 美軍撤收와 南韓政府의 民主主義的 變化라는 두 가지를 提示하였다. 그는 美軍이 통일을 이룩하는데 가장 障礙가 되는 要因으로 보았으며 南韓政府를 美國의 꼭두각시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1981年 1월 全大統領의 국가원수 相互訪問 提議를 拒否했고 1982年 1월 全大統領의 統一憲法制定 要求에 대해 아무런 言及도 하지 않았다.<sup>12)</sup> 대신에 그의 측근들이 1983년에 량구운에서 全大統領을 殺害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배경과는 달리 平壤은 1984年 1월에 中共을 통하여 美國에게 3者會談을 提議하였다. 提議한 內容과 方式을 볼 때 北韓의 의도는 美國의 軍隊兵力을 撤收시키고 南韓을 2次的인 위치에 두게 하려는 것이 確實하다. 이것에 대해 南韓과 美國은 冷擔한 反應을 보였고 南北韓간의 直接會談을 재개하려고 했다. 이 밖의 다른 方法으로서는 戰爭抑止와 南韓政府의 正統性에 치명적인 損失을 주기 때문이다.

1984年 8月 이후로 事態에 肯定的인 成果가 있었다. 그것은 經濟, 赤十字, 그리고 國會의 세 가지 次元에서 交流가 시작된 것이었다. 北韓이

---

12. Byung-joon Ahn, "Unification of Korea: Reality and Policy,"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1, No. 1 (March 1982), pp. 71-88.

이들 會談에서 노리고 있는 目標은 分別하기에 어렵지 않다. 北韓의 첫째 관심은 美軍兵力의 撤收하게 하거나 적어도 美國의 安保遂行을 弱化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은 美國, 日本과의 接觸을 통해 다른 資本主義國家들과 貿易과 投資의 관계를 맺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侵略者와 暴力者는 인상을 씻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그러나 南韓은 戰爭抑止力을 保有하고 對話와 交流의 장을 열어 그리하여 마침내는 北韓과의 緊張緩和와 關係改善을 통하여 信賴를 얻고자 하는 지속적인 政策을 취하고 있다.

公式인 會談으로 이끈 움직임의 시작은 1984年 8월에 있었던 全大統領의 記者會見이었다. 全大統領은 北韓에 대해 무상의 經濟援助를 提議했다. 이어 9월에 남한의 거듭된 洪水로 많은 被害와 罹災民이 發生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罹災民을 도울 수 있는 大量의 쌀과 시멘트, 그리고 醫藥品을 주겠다고 提議했다. 남한은 이를 受諾하였고 兩側의 赤十字代表가 物資의 輸送에 必要한 節次를 協商할 수 있었다. 725대의 트럭과 830명의 北韓인이 南韓의 領域에 들어왔고 그들은 家電製品과 선물을 받고 돌아갔다. 南韓은 이 機會를 捕捉하여 經濟會談을 提議하였고 赤十字會談을 再開하였다. 11월에 북한은 이것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經濟會談이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에서 열렸고 第8次 赤十字會談은 12월에 再開될 豫定이었다. 그러나 北韓은 11월 23일 蘇聯民間人 한 명이 판문점에서 境界線을 넘어왔을때 北韓側 警備兵이 총격을 가했고 이때 네 명의 북한병사가 死殺되었던 事件이 發生하자 이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북한은 이 당시에 境界協定을 協商하려고 그곳에 왔던 카피차를 무마하기 위해 會談을 延期해야만 했다. 이후 12월에 북한은 自發적으로 1985년 1月の 會談에 대한 再開意思를 밝혔다. 그러나 南韓이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팀스피리

트 訓練에 北韓의 參觀人을 보내달라는 要請을 하자 北韓은 前번과 같이 訓練이 進行되었을 때라도 南韓과 會談했었던 것과는 달리 軍事訓練이 인위적인 障礙를 만든다는 理由로 대화를 연기하였다. 北韓은 韓國問題를 다루는데에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蘇聯의 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行동을 취했다. 마침내 1985年 5월에 두개의 會談이 再開되었다.

이들 會談에 임하는 데 있어서 北韓은 어떤 本質的인 成果를 얻는 것 보다는 國際社會에서 그들의 行위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예를 들면 經濟會談을 受諾하는데 있어서 北韓은 外國의 投資를 유인하기 위하여 肯定的인 環境을 만들려는 努力을 하는 것 같다. 특히 赤十字會談을 再開하는 北韓이 國內外에서 損傷된 인상을 回復하려는 최선의 手段으로서 이해되어지고 있다. 또한 經濟와 赤十字에 대한 會談이 再開되기도 전에 南韓의 國會議員 選舉가 끝났는데, 이때 北韓이 國會會談을 갑자기 提案했다는 것은 北韓이 南韓의 政治狀況에 대해 잇점을 가지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대체로 北韓은 이 國會會談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南韓과 함께 스포츠문제에 대해 直接的으로 대화하는 것을 꺼리면서도 北韓은 1988年의 올림픽경기를 서울에서 開催하지 못하게 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서 1985年 1월 로잔에서 있었던 IOC會談에서 南韓의 스포츠대표와 만나는 데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러한 北韓의 의도를 알아 차린 南韓은 會談의 進行과 相互理解의 基礎下에 좋은 結果를 얻어 낼 수 있다고 하는 낙관적이고도 편안한 姿勢를 보여주고 있다. 키신저가 말한 선제의 양보를 되풀이 함으로써 南韓은

經濟 및 赤十字會談에서 共同經濟委員會의 設立과 南北韓離散家族 및 藝術公演團의 相互訪問등에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國會와 스포츠에서의 接觸은 아직 本質的인 同意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 1. 經濟會談：貿易 對 協力

이 會談은 兩側의 副總理들이 주도하였고 양 體制 사이의 經濟的 交流를 實現하려는 첫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重要하다. 全體的으로 南韓은 貿易에 관심이 있는 反面, 北韓은 合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이한 관심은 1次 會談에서 兩側이 동의한 共同項目을 北韓이 2次 會談에서 拒絕하고 共同經濟協力委員會를 構成하자고 主張했을 때 드러났다.

3次會談에서 南韓은 會議의 進行을 위해 北韓의 要求를 받아들였다.

1984年 11월에 있었던 1次 모임에서 南韓은 貿易이 우선이며 그 다음에 經濟協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北韓은 이러한 두 개의 項目 以外에도 공동어로구역의 開設과 鑛山의 合作開發등을 강조하였다.

南韓은 自動車, 鐵鋼, 그리고 電子製品과 같은 品目の 交易을 提案하였다. 相互交易에 있어서 石炭, 鐵鑛石, 纖維 등의 品目에는 의견의 一致를 보았다. 양측은 天然資源의 합작채굴과 京義線의 復舊, 그리고 協力委員會의 發足 등을 認定하였다. 그러므로 첫번째 만남에서 經濟協力에 대한 希望과 기대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希望은 1985年 3월에 열린 두번째 모임에서 누그러지고 말았다. 그것은 北韓이 30萬톤의 石炭을 購入하겠다는 南韓의 提議를 拒絕하고 대신에 양측의 副總理를 代表로 하는 共同經濟協力委員會의 設立을 要求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北韓의 대담한 態度 때문에 2時間에 걸친

討論은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南北韓 記者들 사이에 있었던 非公式會合에서 북한은 國會會談이 開催될 수 있을지의 여부에 가장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南韓의 國會가 豫備接觸을 가질 의향이 있음을 알리는 편지를 북한최고인민회의에 보내고 第8次 赤十字會談이 서울에서 開催된 이후에 第3次 經濟會談이 6월에 속개되었다. 2次會談과는 달리 북한측은 會議를 마침에 있어서 이상할만큼 성실한 자세로 나왔다. 이 會談에서 남한은 北韓이 提議한 7개의 하부위원회 보다는 2개의 하부위원회를 좋아하였으나 態度를 바꾸어 協力委員會에 관한 북한측의 提案을 받아들였다. 양측이 9월에 있을 討議의 再開에 同意하였으므로 共同協力委員會는 經濟的 交流에 관하여 더 많은 討議를 하기 위해 成立될 것이다.

## 2. 赤十字 會談：離散家族 對 藝術公演團

第8次 赤十字會談이 12년의 공백을 깨고 마침내 5월 서울에서 열렸다. 84명의 북한측 代表團과 記者들이 스스로 서울에 왔다는 사실은 중요한 成果를 나타내는 것이다. 前題條件만 없다면 北韓側이 自由旅行의 의사를 과감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함으로써, 南韓은 北韓의 藝術公演團 交換要請을 承認하고 北韓도 어쩔 수 없이 남한에서 要請한 離散家族의 故鄉訪問을 承認하는 일련의 흥정을 낳는데 成功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 인도주의적인 주제가 取扱되는 가운데에서도 北韓의 왜곡된 政治的 관심때문에 상이한 認識이 持續되었다.

가령 1985年 5월 28일에 열린 첫 會合에서 남한은 離散家族의 相互訪問을 다루기 위해, 판문점에 共同計劃事務所 및 共同委員會를 構成하고



해방 40주년이 되는 8월 15일까지 離散家族으로 구성된 訪問客들의 交換을 갖자는 등의 以前 赤十字會談에서 제기되었던 5個項을 實現시킬 具體的 方案을 論議하고자 提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會議에서 自由旅行을 優先項目으로 處理하고, 會議의 우호적인 雰圍氣를 자아 낼 수 있는 藝術公演團을 양측 赤十字社 團長의 인솔하에 交換訪問케 하자는 5個項의 동시토의를 主張하였다.

5월 29일에 열린 第2次 會議에서는 어느 정도의 進展이 있었다. 南韓의 모든 事項을 동시에 討議하자는 提案을 原則적으로 認定하였으며 게다가 離散家族間의 自由로운 相互訪問 및 만남을 促進시키기 위한 의안의 一部로 自由旅行의 문제를 討議하자는 것까지 許諾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南韓側은 北韓側이 提議한 自由旅行이 어떠한 前題條件, 즉 그들이 70년 대 初盤에 對話의 테이블에서 계속 주장하였던 반공법의 廢止와 南韓의 政治的 狀況의 改善에 대한 要求등과 같은 前題條件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自由旅行이 이러한 條件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南韓 質問에 대해 北韓은 明確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그들은 우호적인 雰圍氣의 造成을 위해서 그러한 문제를 表出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정일로부터 承認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北韓의 藝術公演團 訪問要求를 남한이 받아들이면서 離散家族의 訪問을 受諾할 것을 要求하자 북한은 이를 受諾하였다. 이 問題에 대한 實務者會談이 비공개로 이루어진 후 兩側은 7월 중 판문점에서 具體的인 일정을 잡기 위한 일련의 接觸을 다시 갖기로 合意했다. 그리고 8월 중에 平壤에서 第9次 南北赤十字會談을 열기로 한 것은 가장 중요한 進陟事項

이었다. 이렇게 해서 양측은 상이한 立場을 견지하면서도 共同的 관심사를 檢討함으로써 對話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1985年 7월 판문점에서 開催된 實務者會談은 상이한 立場으로 인하여 節次問題에 대한 討議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赤十字代表들은 우선 離散家族 訪問團의 數를 300명으로 하여 서로 訪問케 한다는데 合意를 보았으나 그 訪問場所와 藝術公演團의 規模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北韓側은 訪問地를 서울과 平壤에만 국한할 것을 主張한 반면 南韓側은 기타 地域까지도 包含시키자고 主張한 것이다. 또한 藝術公演團의 規模에 있어서도 南韓은 100名 가량으로 할 것을 主張한 반면 北韓은 300名 선으로 할것을 주장하였다. 4일 후 再開된 會談에서 南韓측이 藝術공연단의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준 반면에 北韓측은 故鄉訪問團의 訪問地를 서울과 平壤으로만 할 것을 고집하면서, 기타 地域에 대한 訪問問題는 自由旅行에 대한 토의의 일부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견해를 좁히는데 실패하였다. 釜山팔구 이러한 節次上的 문제 및 자유여행에 대한 토의방법은 8월 중 제9차 赤十字會談과 기타 회합이 本格化되어질 때 타협에 이를 것이다.

북한측은 분명히 이 赤十字會談을 통해 더욱 교묘한 연합전선전술 및 선전의 方法을 구사하고 있다. 代表者들은 이례적으로 主權과 반공법에 대해 비난을 가하지 않았다. 이는 곧 그들의 態度가 사리에 맞는 것으로서 變化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代表團이 非武裝地帶를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심지어는 會談 中에도 北韓은 國會會談에 예민한 관심을 보였다.

### 3. 國會會談：憲法立案 對 不可侵 宣言

北韓最高人民委員會의 양형섭은 1985년 4월, 이재형 國會議長에게 보낸 書信에서, 不可侵宣言을 採擇하기 위하여 양측이 大規模의 國會會談을 갖자고 提議 하였다. 最高人民會議에서 있었던 그의 報告에서, 양은 그 會談이 當局으로 하여금 不可侵 宣言을 採擇하게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提案을 具體化했다. 그의 說明에 따르면 이것은 美國으로 하여금 3者會談을 받아들이는데 必要的인 積極的인 與件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일단 不可侵 宣言이 採擇되면 美國이 북한과의 對話를 拒絶할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양은 또한 그러한 國會會談이 高位 政治會談의 可能性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頂上會談의 可能性도 암시하였다.

6월에 있는 答辯에서, 南韓側은 國會會談을 소집하는 方法을 論議하기 위하여 6월에 판문점에서 豫備會談을 갖자고 提議하였다. 6월에 接觸이 이루어졌을때, 南韓은 統一을 위한 憲法을 基礎하는 統一委員會를 構成하자고 要求했다. 南韓은 北韓에게 最高指導者會談을 實現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案件과 現存하는 緊張을 緩和시키기 위한 임시협정을 提案하면서, 북한에게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不可侵에 관심이 있다면, 北韓 當局이 直接 南韓당국과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南韓은 不可侵宣言을 의제로 採擇하기를 拒否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國會會談의 의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등장하였다. 그 후 흥미롭게도, 북한은 不可侵과 憲法 모두를 討議할 수 있다고 提案하였다. 아마도 南韓의 執權黨과 野黨 사이장 일어나는 政治的 衝突을 利用하기 위하여 북한은 9월에 또 다른 豫備接觸을 갖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양측의 立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接觸은 議題의 合一에 쉽게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

#### 4. 體育會談：單一팀 對 올림픽 共同開催

體育會談은 1985年 10월에 再開 될 豫定이지만, 意味있는 會議가 될 展望은 現 시점에서 거의 희박하다. 1988年의 올림픽에 北한과 단일 팀을 구성하자는 것이 南한의 일관된 政策이지만, 最近에 北한은, 蘇聯이 서 울올림픽에 參加할 의향을 비춘 後에 共同開催를 要求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對話를 考慮해 볼때 平壤은 서울과 協商戰略을 바꾼 것이 틀림없다. 첫째로, 北한의 政策 입안자들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對話를 多樣化 시키며 새로이 시작된 會談에서 좀 더 부드러운 接近 姿勢를 계속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계속 그들의 目的을 위해 支持者들의 廣範圍한 聯合을 形成하기 위한 聯合戰線 戰略에 執着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戰術은 더욱 防禦的이고 세련되어졌다. 여기에서 어떤 要因들이 그들로 하여금 위와같은 行動 樣式을 취하게 하였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問題는 첫째, 北한의 國際的 環境 둘째, 국내사정 셋째, 南한의 國內事情의 세가지 基本 要素를 생각할 수 있다.

國際環境의 새로운 變化 즉 中共의 開放的이고 實用的인 政策은 北한의 政策에 影響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량구운 事件의 여파가 줄어들며 따라 南북한 간의 建設的인 對話를 권유하는 中共의 입김은 특히 3者會談案이 어떤 進展도 보이지 못하는 시점에서 北한의 政策 決定에 있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中共은 만약 北한이 먼저 南한과 진지한 對話를 시작한다면 미국 역시 北한에 대한 態度를 變化시킬 것이라고 제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最近의 蘇聯과 北한간의 關係 解氷은 南北對話의 轉換에 影響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狀況은 複雜해진다.

北韓의 國內事情에 있어서 김정일의 계승문제와 經濟的인 어려움은 對話의 새로운 장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당과 국사에 機能的인 통제를 擔當하여 왔기 때문에 南北對話 역시 그의 리더십에 正統성을 부여 받기 위한 手段으로서 그가 전담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견해가 옳다면, 南北對話에 있어서 북한의 형태는 김정일의 속성과 스타일을 잘 반영하게 될 것이다. 또한 平壤의 기술관료들은 그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海外貿易과 海外投資를 要請할 것이다. 이러한 目的들을 위해 南北對話는 國際舞臺에 開放性和 合理性의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內情不安은 항상 북한이 이용하여 왔던 것이다. 國會會談에서 提案했던 것처럼, 北韓은 南韓의 政治的 分열을 이용하여 하여왔다. 南韓의 학생 勢力과 勞動者 勢力이 과격성을 보임으로써 政治的 不安感이 지속되는 한 북한 指導者들은 그들 자신의 國內的 必要와 남한에 대한 正統性의 주장을 위해 分열을 조장하기 위한 蠢동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國際環境과 國內事情은 南北對話에 유리하게 作用하고 있으나 남한의 國內事情은 김정일로 하여금(반드시 결과를 낳지는 않는) 대남 선전과 조작을 遂行케 한다. 이러한 갈등적인 要求로 인해, 北韓은 점진적이고 임시적인 接近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3)</sup>

---

13. Clyde Haberman, "Koreas Cite Progress, Plan New Talk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31, 1985, p. 6.

그러므로 南北 관계에 있어 南北對話의 再開는 여러 측면에서 轉換點이 된다. 만일 북한이 남한에 대해 態度를 바꾸어 合議를 追求한다면 남한의 북한과의 관계를 改善하기 위해 성실과 信賴로서 會談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의 국면이 시작될 것이다.

#### IV. 問題點과 展望

우리가 이 論文에서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結論은 南北韓關係가 지금 交叉點에 있다는 事實이다. 南北韓關係에 놓여져 있는 가장 基本的인 問題는 어떻게 軍事的인 葛藤을 緩和시키고 現存의 對話들을 維持하며 兩者の 關係를 非暴力的인 政治的 協商으로 變形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努力을 위해 美國은 南韓을 支持함으로써 重要的 役割을 遂行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會談들에 관한 展望은 南北韓이 이것들을 어떻게 運用해 나가며 그리고 南韓과 美國이 北韓에 대해 相互補完的인 戰略을 어떻게 持續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展望은 樂觀的이지도 非觀的이지도 않은 다만 現實的인 것일 뿐이다. 未來의 南北韓關係에 對한 現實的인 展望은 두 國家間의 戰爭抑止와 緊張緩和, 그리고 親和協商을 向한 漸進的인 發展에 集中되어 진다.

韓國人の 對話들에 의해 提起된 問題中에 가장 重要的 點은 어떻게 韓半島의 戰爭抑止力을 維持하면서도 緊張緩和를 기하느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戰爭을 豫防하는 것보다 重要的 것은 없다. 協商은 不信의 克服과 緊張의 緩和에 필요하다. 그러나 北韓은 對話를 재개하는 中에도 그들의 軍事的力을 增進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對話들을 통해 南韓에서의

美軍撤收를 열심히 強要하고 있다. 만약 美國이 休戰條約을 平和協定으로 대처하려는 北韓의 提案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效果的으로 平和와 安定이 維持되는 戰爭抑止力을 破壞할 것이다. 이러한 理由 때문에 南韓이 北韓에게 直接的으로 軍事訓練을 통지하거나 參觀人을 交換하는 것과 같은 信賴 追求의 方法을 協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緊張緩和를 促進하고 同時에 戰爭抑止力을 保存하는 가장 效果的인 方法은 兩側의 責任있는 當局이 直接的인 協商을 통해서 具體的인 進歩를 이루는 일이다.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 政府와 野黨間의 一切感과 北韓問題에 관한 全國民的인 合意가 있어야 한다.

外部的으로도 直接的인 協商을 위한 美國, 日本, 심지어는 中共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후원이 必要하다. 最近에 蘇聯이 최신형 비행기와 미사일을 北韓에 讓渡했는데 이것은 韓半島 問題에 대해 蘇聯이 깊이 關여하고 있다는 근심을 불리일으켰다. 만일 蘇聯이 남포, 나진과 같은 항구를 사용하는 것 외에 領空使用權과 着陸權을 北韓으로부터 얻었다는 報道가 事實이라면 北韓의 領域은 蘇聯의 世界的 軍事戰略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다시 地域的인 戰爭抑止力에 影響을 미칠 것이고 韓半島는 다시금 美蘇 兩國의 世界的 競爭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競爭으로부터 한국문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美國과 蘇聯 뿐만 아니라 日本과 中共의 利益들이 交叉하고 있는 戰略的 緩衝地域의 平和와 安全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논거로서 서기 2000년까지의 南北韓關係에 대해 現實的인 展望을 과감히 내릴 수 있다. 거기에는 우선 戰爭抑止가 있으며 그리고 緊張緩和와 아울러 親和協商이 包含될 것이다.

## 1. 戰爭抑止

北韓이 軍事的인 優位를 차지하고 있는 한 모든 手段을 통하여 戰爭抑止力을 維持하고 그리하여 韓半島의 安全을 保證하는 것은 南韓과 美國에게 있어서 必然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南韓의 安保를 追求하는데 絶對的인 것이 될 뿐만 아니라 東北아시아에 있어서의 4強間의 勢力均衡을 위해서도 必須的이다.

美國이 韓國과 太平洋地域에 아시아 勢力으로서 남아있는 것 이상의 代案이 없다. 南韓이 그 스스로의 努力에 의해 戰爭抑止力과 自主國防을 이룰 때까지 美軍을 繼續 주둔해야 할 필요가 있고 美國은 軍事販賣와 合同訓練과 함께 韓國軍의 增強을 계속적으로 도와야 한다.

## 2. 緊張緩和

戰爭抑止力을 強化하는 同時에 北韓과의 緊張緩和를 制度化시키기 위하여 南韓과 그 友邦國들은 모든 努力을 傾注하여야 한다.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지금 벌이고 있는 經濟會談, 赤十字會談, 國會 및 스포츠問題에 대한 會談 등이 계속 獎勵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會談들이 緊張緩和와 相互 信賴回復에 第一步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會談들이 몇 가지의 結果를 算出하게 되면 美國과 日本兩國은 北韓과 公式的이거나 非公式的인 關係를 맺어야 한다는 壓力이 생겨날 것이다. 交叉接觸을 위한 試圖들은 그것들이 相互互惠의 基盤에서 이루어질 때 有用한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 換言하면 中共과 蘇聯이 南韓에 대해 美國과 日本에 필적하는 行爲를 보여줄 때 이러한 試圖들은 緊張緩和에 貢獻할 수 있다.



여기에서 兩側間的 共同利益의 領域을 發見하는 것이 相互間的 便宜를 위한 가장 좋은 方法이다. 血緣과 言語, 그리고 文化的 遺産에 있어서의 同質性을 回復하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거기에도 限界가 있다. 심지어 相互意思疎通 그 自體도 그것이 不平等하고 理念的으로 異質的인 狀況에서 이루어 진다면 統合理論에서와 같은 相互理解를 增進시켜 주지 않을 수도 있다.<sup>14)</sup> 오히려 緊張緩和를 達成하는 더 좋은 方法은 비록 南北韓이 政治的 葛藤關係에 있다고 해도 兩側에 도움이 되는 實際的 利益에도 焦點을 맞추는 일이다. 南韓과 北韓에 있는 挑戰은 軍事的 對決을 政治的 相互作用으로 轉換하여 그들이 平和公論狀態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共同利益의 領域에서 相互協調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3. 親和協商

親和協商이란 지금 우리가 東獨과 西獨의 關係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狀態를 意味한다. 이것은 南北韓이 단순히 相互間的 生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國際社會에 있어서 서로가 돕고 協力함으로써 共同繁榮의 길을 追求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戰爭抑止와 緊張緩和의 結果로서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緊張緩和의 段階가 相互調整을 통해 보다 굳건한 基盤 위에서 維持되어 진다면 兩側이 서울과 平壤에 連絡機關을 設置할 수 있는 協定을 이끌어

---

14. K.J. Holsti, "Restructuring Foreign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 in K.J. Holsti (ed.), *Why Nations Realign: Foreign Policy Restructuring in the Postwar World*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2), p. 202.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兩側의 最高指導者들은 相對方의 首都를 相互 訪問할 것이다. 이러한 조정의 과정으로 造成되는 信賴와 相互依存의 基盤 위에서 南北韓 兩側은 民族的 和合을 이룩할 수 있는 同時에 場所의 如何를 不問하고 同一한 民族이라는 民族的 一切感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狀態라면 劇的인 統一의 基盤이 될 수 있다. 單一國家의 形態이건 聯邦의 形態이건 간에 이러한 條件下에서는 兩側은 더 이상 相對方을 制壓하기 위해 安保, 國際的 承認, 經濟的 繁榮, 正統性의 問題 등을 역설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 때에도 兩側의 關係는 競爭的이기는 하겠지만, 兩側은 上述한 價値들을 共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相對方과의 協調 關係를 위하여 努力할 것이다.

上述한 狀況들은 하나의 自己滿足的 豫想이며 韓國人들은 現實的인 側面에서 이를 檢討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南北韓問題의 解決에 있어서 決定的으로 寄與할 수 있는 또 하나의 行爲者가 存在한다. 이 行爲者는 바로 南韓과 많은 다른 國家들의 安保를 떠맡고 있는 美國이다. 戰爭抑止, 緊張緩和, 親和協商 등의 諸問題는 美國과 南韓間의 緊密한 協議와 調整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最近에 再開된 會談들이 새로운 協商의 場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姿勢로 北韓問題를 解決하려고 하는 南韓과 美國의 合同戰略의 遂行은 兩側 모두의 利益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協商은 韓半島에서의 戰爭抑止力을 保證하려는 慎重한 努力이 기울여 졌을 때에만 成功이 可能하다. 이러한 理由 때문에 美國은 모든 手

段을 통하여 韓半島에서의 戰爭抑止力을 保障하려는 最近의 政策을 堅持하기 위하여 努力해야 하며 南北韓間의 直接協商을 도움으로써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를 拂돋우는 政策 또한 同時에 遂行해야 한다.



## 第4部 東歐및 東南유럽 社會主義國家들의 經濟體制的 變化

第1章 經濟體制的 變化原因과 改革的  
政治的 結果

第2章 社會主義 經濟體制的 分化



# 第 1 章 經濟體制的 變化原因과 改革의 政治的 結果

Werner Gumpel  
( 문헌大 經濟學教授 )

## I. 經濟改革의 背景

産業化의 進전으로 生産능력이 증대되고 경제구조가 多樣化함에 따라 社會주의경제를 단 하나의 中心部에서 지도하기에는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어려움의 또 하나의 이유는 生産품의 量的인 증대에도 있다. 최신의 컴퓨터 장비를 동원하더라도, 中央計劃( central planning )은 불가능해졌고, 嚴格한 中央集權制( centralism )와 경제체제의 탄력성 부족은 生産力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점점 더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사실상 經濟發展을 막고 있는 것이다. 1957年 소련은 5개년 계획을 취소했으며 1960년대 초반 경제성장의 침체에서 社會주의 국가들은 일련의 위기가 그 極에 달했었다.

1957年 소련은 社會주의 국가 중에서 經濟行政의 改革을 시도한 최초의 국가였다. 대부분의 中央産業局( central industrial ministry )이 해체됐고 管理部署로서 소위 경제소비에트의 經濟支局( economic regions with economic soviets - Sovnarchosy )이 생겨나서 경제행정인 支局으로 分權化( decentralization )됐다.<sup>1)</sup> 그러나 이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것은 다른 支局間에 자금자족의 경향을 발생시켰고, 따라서 소련 “시장”의 분열이라는

- 
1. Rolf Borchers, *Die Reform der Sowjetischen Wirtschaftsverwaltung: Ausgewählte Rechtsprobleme*, Hamburg, 1960 과 Dieter Heinzig, *Die Sownarchosen Materialsammlung*, Hamourg, 1959를 비교. 새로 생긴 경제 지국의 수는 100에서 112 사이이다. 1958년에는 Sovnarchosy가 公業生産의 최소한 70%를 통제했다.

위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비슷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았다. 어떤 국가는 기업에게 더 많은 권리를 약속했고, 上部機關의 權限을 제한했으며, 트러스트 ( trust )를 해체시켰다. 따라서 기업경영자의 활동영역은 더욱 증대되었다. 경영자는 物品의 選擇과 供給契約의 作成, 資金과 給料의 凍結 등에 대해서 더 많은 自律權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실제에 있어서 별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高位當局은 經營者를 계속 감시했으며, 사실상 經營人의 權限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결국 經濟問題는 해결될 수 없었고 오히려 더욱 심각해짐으로써 다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만 했다.

經濟沈滯의 原因 중의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의 經濟政策을 인도할 理論이 없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經濟學者들은 現況問題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Marx, Engels, Lenin, Stalin을 인용하기를 꺼려했다.

이런 점은 1950年代末 1960年代初 소련에서 그 論議가 활발히 진행됐으며, 實際로 유용한 이론과 더욱 的確한 방법론의 도입을 요구하게 됐다. 또한 數理經濟學이 中央計劃經濟體制의 問題點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인식되었다. 다른 국가에서는 最適計劃과 수학적 게임이론, 業務와 財政의 개선된 방법론 등에 관한 훌륭한 著書들이 나온 반면, 소련의 과학은 그런 면에서 낙후되어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우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련보다 더욱 개발되어 있기도 했다. 한 예로, 폴란드에서는 1958年 Oskar Lange가 計量經濟學原論을 출판했는데 이는 東歐圈 전체의 耳目을 집중시켰으며, 또한 東獨의 학자들에 의해 신랄하게 비평받았다. 東獨에서는 소련과 마찬가지로 수학적 방법과 모델을 사용하는 思考方式이 오랫동안 엄격하게 거부되고 있었다. 黨과 지도적인 경제 학자



들은 Marx 經濟思想에 브르조아 사상이 침투할 것을 두려워 했다. 이처럼 새로운 思考方式의 유입에 대해 적극 저항한 사람들은 保守的 世代의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특히 소련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 economic institute of the Soviet academy of sciences )의 연구원 들이었다. 사실상 소련에서도 대학동료들의 심한 論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이미 시작했던 바 있다. 그런 개척차중의 한 사람인 S.G.Strumilin은 주목할 만한 數字모델을 만들어 낸 일도 있다.

결국 소련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계획수립의 어려움이 증대됨에 따라 공산당 중앙위원회 ( central committee of the CP )의 경제학자들도 경제학에 있어서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제서야 經濟發展의 問題에 대해 理論的으로 論議하며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단계의 소련 경제학에서 뛰어난 인물로는 Strumilin, Nemchinov, Kantorovich, Judin, Gol'shtein이 있다.

이처럼 소련에서 論議가 시작된 이후 妨害要因은 除去되었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발전이 나타났다. 앞서 말한 Oskar Lange 외에도 경제학자인 Michael Kalecki와 Wlodzimierz Brus가 뛰어난 역할을 했다.

이제는 中央集權的 經濟體制의 決定을 비판하고 어떤 변화를 제안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명백했다. 그 대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찾아내야 했다.

소련공산당의 中央機關紙인 프라우다가 改革論議를 시작한 것은 물론 우연한 일이 아니다. 차코프의 경제학자 J.Liberman이 論文을 썼는데, 그는 이미 1956년 生産費用을 제외한 모든 社會主義 企業의 計劃指數 (planning

indicator)의 廢止를 주장함으로써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그의 유명한 論文은 1962년 9월 9일 프라우다에 실렸다. 그는 中央計劃指數를 削減함으로써 企業에 상당한 自律性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中央의 주도적 역할은 문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企業利潤보다는 국가의 利益을 강조해야 된다고 했다. 즉, 그는 “國家와 社會에 대한 利得은 企業과 一個 雇傭人에게도 마찬가지로 利得이 된다”고 했다. 同時에 그는 이미 어느정도 存在하던 物質誘引(material incentive)制度를 擁護했고, 利潤과 貸借指數에 대해서 재차 강조했다. 計劃은 單純化되고 現實的이어야 하며, 既存能力에 대한 活用性이 增大되어야 하고, 技術開發이 進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意識下에서 改革의 첫 단계는 소련이 아니라 東獨에서 일어났다. 그 理由는 東獨이 CMEA國家 중에서 經濟적으로 가장 發展된 國家였고, 嚴格한 스탈린體制는 그 곳에서 두통거리만 만들어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改革은 특히 緊急했으며 또한 Leptin 교수가 말하듯이 하나의 實驗的 基盤으로서 一種의 모델의 역할을 했다.<sup>2)</sup>

동독에 이어 소련은 1965년에 改革을 실시했고, 1966년에서 1968년에는 체코가, 1965년 불가리아, 1967년 루마니아, 1968년에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改革을 뒤따랐다.

東·南東部 유럽國家의 改革은 그 時期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있다. 東獨에서의 改革은 原則적으로 상당한 分權化를

---

2. Gert Leptin, Das "Neue ökonomische System" Mitteldeutschlands,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Reihe II, No. 39 (1966).

지향했고, 그것은 일종의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애초부터 長期的인 目的으로 했던 헝가리의 改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改革의 概念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認識되었으나 대개의 경우 몇 년이 지난 뒤에는 부분적 혹은 전반적으로 改革은 단절되었다. 이러한 事態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東獨에서도 일어났고 바르샤바 條約軍의 침입 후에는 체코에서도 일어났다. 소련도 勞動者와 企業經營에 대해서 困難을 겪은 뒤로 改革方案을 부분적으로 取消했다. 그러나, 헝가리만은 改革을 持續했다.

이러한 進展의 결과 비록 동일하지는 않았어도 매우 劃一的이었던 소련 영향권하의 東·南東部 유럽國家의 經濟體制는 分化되기에 이르렀다. 소위 말하는 主要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特性”<sup>3)</sup>은 維持되었지만 그 강조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었다. 예컨대 헝가리는 中央이 필요한 방향으로 發展을 誘導할 수 있는 手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中央計劃은 단지 體制에 대한 服從을 나타낼 뿐이었다. 반면 소련의 中央計劃은 아직도 변창하고 있다. 어떤 의미로는 모든 改革의 目標은 동일했다. 즉, 그것은 資產을 관리하고, 計劃過程을 단순화시키며, 中央計劃指數의 數를 줄이고, 工業生産 效率性を 增大시키며, 經濟를 彈力性있게 만드는 것이다. 어쨌든 거기까지의 Liberman의 생각은 權威的이었던 것이다.

改革은 “新經濟體制” 또는 “新經濟 메카니즘”이라는 宣言만으로 끝나는 一發의 運動이 아니라 하나의 持續的인 課業이다.<sup>4)</sup>

---

3. Werner Gumpel, *Sozialistische Wirtschaftssysteme*, Munchen, 1983, p. 20 참조.

특히 헝가리에서는 1968년 이래 새로운 요소들이 상당수 導入되기 시작했다. 또한, 그보다는 미약한 정도지만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심지어는 東獨과 소련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폴란드에서는 많은 改善이 이루어졌는데 分權化方案 뒤에는 再中央集權化 方案 (recentralizing measure)이 따랐고 市場經濟體制와 어느 정도 유사한 特徵은 새로운 中央機關과 行政府가 설치됨으로써 대체돼 버렸다.

改革의 速度와 그 重大性은 두 가지 要素로 決定된다. 첫째는 國家의 現在의 經濟狀況 (business condition)이며 둘째는, 政治的 構造 (political framework)이다. 改革措置는 대체로 한 國家가 經濟的 危機의 打擊을 받은 후에 決定되어 追求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3~65년은 그러한 예의 전형적인 기간이었는데 그 당시부터 대부분의 CMEA 國家들이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위의 期間과 그 후의 改革은 經濟狀況을 顯著하게 改善시켰다. 그러나, 1970年代에 와서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만이 비교적 持續的인 성장을 이룩했을 뿐, 기타의 國家들은 國民所得 (NI)과 國民總生産 (GNP)의 성장이 다시 줄어들었다. 그리고, 1967-80년의 5년간은 상황이 더욱 惡化되었다. 1960-70년에 불가리아의 연간 經濟成長率은 9.1%로 늘었음에 비해 1971-80년에는 6.7%였고, 루마니아는 8.7%, 헝가리가 4.7%였다. 이 數字들은 國民總生産 (GNP)과 그와 비슷하게 變化한 순원료생산 (net material product)이다. 소련에서는 같은 期

- 
4. 다음과 비교. Werner Gumpel, Die Entwicklung der Wirtschaftssysteme, *Südosteuropa-Mitteilungen*, Vol. 22, No. 314 (1982), p. 21ff.

間에 成長率이 7.2%에서 6.3%로 감소했다.<sup>5)</sup> 이러한 둔화는 1980년대 초에도 계속됐다.

새로운 一連의 改革은 1970년대 말에, 특히 1980, 1981년에 시작됐으며, 그 전에는 工業과 農業에 있어서 몇 가지 새로운 요소가 점차적으로 導入됐다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새로운 改革은 制度的인 問題(institutional questions)만 다뤘다는 것이 특이하다. 유일한 예외는 헝가리이며, 대개 根本的인 問題는 다루지 않았다.

改革이 그렇게 制限되었던 理由는 限定된 政治的 展望 때문이었다.<sup>6)</sup> 소련은 더 急進的인 改革이 가져올 바라지 않는 政治的 結果를 念慮하며, 1957년에 있었던 것과 같은 몇 개의 부분적 市場으로 國家가 分裂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소련 공산주의의 사고방식은 中央集權主義의 범주에 틀어박혀 있으며 그들은 낡은 러시아의 傳統을 追求하고 있다.

다른 社會主義國家에서의 改革은 政治的, 經濟的으로 장악하고 있는 소련의 承認 없이는 불가능하다. 社會主義 計劃經濟로부터 과도하게 離脫한 措

---

5. 통계는 *Statistical Yearbook of the CMEA*, Moscow, Various Editions 참조.

6. 다음의 둘을 비교. R. Amann, "Die Politischen Hindernisse für Wirtschaftsreformen in der UdSSR," Hans-Joachim Veen (Ed.), *Wohin entwickelt sich die Sowjetunion? Zur an Benpolitischen Relevanz innerpolitischer Entscheidungen*, Melle, 1984, p. 134f. Kathrin Sitzler, "Interessenpluralismus und Einparteiensystem im ungarischen Reformmodell. In: Roland Schönfeld (Ed.), *Südosteuropa in Weltpolitik und Weltwirtschaft der achtziger Jahre*, München, 1984, p. 15f.

置를 취할 경우, 그것은 社會主義體制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소련의 침입을 유발시킬 수 있다. 改革의 여지는 따라서 한정돼 있다. 많은 社會主義國家들은 이러한 改革의 여지를 서로 제각기의 慎重성과 成功의 가능성 여부를 놓고서 활용하는 한편, 소련의 의도를 따르는 급진적인 대내외 정책으로 다른 代案들을 막아내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소련도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주요 수출품의 價格上昇으로 인해 큰 利得을 봄으로써 하나의 위기에 봉착했다. 소련의 經濟는 社會主義 經濟의 效率性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社會主義國家와 마찬가지로 困難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改革의 實驗에 대해서 좀더 開放的으로 되었다.

## II. 中央集權體制的 利益과 有利性

스탈린에 의해 고안되고 제 2차 세계대전 후 東·南東部 유럽국가에 전파됐던 中央集權的 經濟體制<sup>7)</sup>는 전체주의 政治體制的 異面에만 불과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發展概念으로도 보아야 한다.<sup>8)</sup> 中央集權的 方法으로 소비를 줄이고 投資率을 增大시킨다는 가능성 즉, 强制貯蓄으로 産業化를 강요한다는 中央集權모델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後進國家

---

7.. Karl C. Thalheim, *Grandzüge des Sowjetischen Wirtschaftsystems*, Köln, 1962 참조.

8. Werner Gumpel, "Etatismus oder Sozialismus? Eine Untersuchung über Prinzipien und Effizienz der Entwicklungspolitik in der Türkei und in Sowjet-Mittelasien," Werner Gumpel, Dietmar Keese (Ed.), *Probleme des Industrialismus in Ostund West*, München-Wien, 1973, p. 45f 참조.

에 특히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中央의 命令은 地域的, 構造的 發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공산당의 아이디어에 따라 그것이 再調整될 수도 있다. 2次大戰 후에는 소련뿐만 아니라 東·南東部 유럽國家들이 직면했던 基本的 問題들이 中央集權體制에 의해 해결될 수 있었다. 그것은 資本의 不足과 실업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력 때문이었다.

사회주의의 發展戰略은 확대산업화 ( extensive industrialization ) 概念에 크게 영향받았다. 中央集權的 經濟體制는 그것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확대산업화 개념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진다.

첫째, 勞動集約產業 ( labor intensive industry )의 발전과 노동에 의한 자본의 대체.

둘째, 代替資本資產 ( replacement capital assets )의 무시와 자본투자의 증가를 위한 平價切下의 부분적 이용.

셋째,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한 資源의 廣範圍한 사용, 즉, 극단적인 強制貯蓄政策에 의한 資本形成과 自然資源과 原材料, 燃料의 허비적인 사용.

네째, 企業의 目標과 利益에 앞선 전체의 우선권 重視 등이다.<sup>9)</sup>

1970년대까지 나타난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현저한 成長率은(그 出發點에서는 매우 낮았지만) 확대산업화 方法이 옳다는 것을 立證시켜 주었다. 經濟構造의 변화는 매우 빨리 일어났다. 과거의 農業國家

---

9. Werner Gumpel, "Extensives Wirtschaften als Entwicklungsstrategie. Das Industrialisierungskonzept der sozialistischen Staaten." Knut Borchardt, Franz Holzheu (Ed.), *Theorie und Praxis der Internationalen Wirtschaftsbeziehungen*, Stuttgart-New York, 1980, p. 106.

는 社會生産財에 있어서 工業生産이 安定되게 증가하는 農工業國家로 변모했다. 工業産出은 크게 증가됐다. 그러나, 거의 모든 産業消費財에 대한 超過需要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었다. “社會主義의 繁榮期”에 있어서도 需要는 늘 供給을 초과하여 항상 缺乏現象이 나타났다.

그러나 産業化의 概念은 치명적인 歪曲現象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어느 정도 水準의 발전이 이루어진 후에 침체현상을 일으켰고 또한 많은 磨擦의 원인이 되었다. 經濟構造가 변형되고 중공업 부문으로 不均衡化되었으며 정제된 기계공학의 기반에 기초한 經濟發展戰略은 결국에는 자멸적인 것이었다.<sup>10)</sup> 확대산업화는 새로운 産業을 탄생시켰지만 반면 현대화되지 못했던 既存의 能力은 退化하는 代價를 치러야 했다. 어떤 장비가 특별히 수명이 길었을 경우 그것은 하나의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勞動生産性은 重要視되지 않았고, 生産의 物量的인 면이 강조되었으며 質的인 면은 무시되었다.

産業의 不均衡된 發展은 農業에서의 退步도 동반했다. 식량공급에 있어서 병목현상( bottleneck )이 그 결과로 나타났고, 서비스업이 무시되고 未開發된 상태로 放置됐으며, 運送과 住宅에서도 그런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이런 부문에서는 資本財가 부분적으로 고갈됐다. 또한 運送의 下部構造와 産業發展 사이의 격차는 점차 벌어져서 달갑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歪曲現象은 충분히 市場性있는 生産品이 제조될 수 없음으로 인

---

10. Fereuz Janossy, Contradictions in Hungarian economic structure, *Acta Oeconomica*, Vol. 4, No. 4 (1969), p. 351f. Istvan Huszar, What Thirty Years Tell, *Acta Oeconomica*, Vol. 14, No. 1 (1975), p. 5.



해 世界市場으로부터의 독립을 격화시켰다. 치밀한 中央計劃이란 個個人的 行動에 대한 심한 制限을 의미했으며, 치밀성은 計劃의 美德이자 必須的인 것으로 看做됐다. 즉, 그것은 個人單位的 作業에 이르기까지 可能的 한 最 단기간으로 細分化하려 했던 것이다. “統制와 制裁가 結合된 命令만이 效果的인 수단으로 간주된다. 效果的 計劃의 概念이란 命令과 強制的 原理와 同一時된다.”<sup>11)</sup>

經濟決定의 점차적 集中, 市場의 段階的 除去와 實際的 單位로의 資源의 직접적 分配 등은 하나의 經濟法則으로, 그리고 “社會主義 計劃의 進歩” 를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아무도 中央集權化의 限界點 즉, 그것이 가진 不利益과 과연 그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問題視하지 않았다.<sup>12)</sup> 이것은 소련과 기타 社會主義 國家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들 國家들은 그 發展度, 體制의 構造, 그리고 다른 性質의 面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소련식 체제의 수립은 심각한 損傷을 가져왔다. 그것은 企業計劃의 彈力성을 감소시키고 生産을 最小化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企業心도 除去해 버렸다. 또한 計劃局은 지극히 費用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 問題가 된 것은 計劃樹立家들의 실수였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아직도 議題로 놓여져 있다. 그 외에 불합리한 가격을 中央集權的으로 형성하는 것과 그로부터 오는 分配의 問題는 經濟에 있어서 또하나의 負擔이었다.

---

11. Czeslaw Bobrowski, *Formation du Systeme Sovietique de Planification*, Paris, 1956, p. 83.

12. Wlodzimierz Brus, *Funktionsprobleme der Sozialistischen Wirtschaft*, Frankfurt, 1971, p. 131.

G.F. Feiwel 은 불가리아에서의 이 政策施行의 結果를 다음과 같이 특징 짓고 있다. “試圖된 産業化政策은 성공할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不均等과 混亂을 가져와서 어떤 分野에서는 더이상의 擴張을 막았고, 低特惠分野 ( underprivileged area )로부터 철회되어야 할 자원이 오히려 投入되게 되었으며, 經濟過程上의 多様な 부문에서 不均等한 擴張率이 나타났고 ( 負의 限界生産性を 포함하여 ), 높은 우선순위의 지나치게 많은 分野에서 資源의 浪費를 가져오게 했다.”<sup>13)</sup>

따라서 당시의 問題들은 다음 세대에서 막대한 費用을 들임으로써 그 해결이 일어졌다. 확대된 經營管理에서 集約的인 형태로의 전환은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觀察된다. ( 社會主義 國家間的 발전은 서로 다른 형태를 띠었다 ) 그러나, 資本-產出比率 ( capital-output ratio )의 증대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렵게 됐다. 中央集權主義와 擴大産業化가 東·南東部 유럽 社會主義國家에 너무도 큰 損傷을 입힘으로써 그 利益을 내세워도 정당화되지 못하고 있다. 社會主義國家는 嚴格한 檢閲로 인해 이러한 損傷의 정도를 明確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의 코르바초프의 연설은 이런 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1985年 6月 11日 소련공산당 中央委員會의 연설에서 소련의 産業化政策이 經濟後退를 가져왔고 소련경제의 모든 부문에 長期的인 損失을 입혔다고 했다.<sup>14)</sup>

따라서 中央計劃體制와 함께 推進된 産業化路線 모두가 점점 더 經濟發展의

---

13. George R. Feiwel, *Industrialization in Post-war Bulgaria*, *Osteuropa Wirtschaft*, Vol. 23, No. 1 (1978), p. 5.

14. *Ekonomicheskaja gazeta*, No. 24, (1985) 비교.

障碍가 되고 있다. 彈力性的 增大가 必須不可缺한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權限을 중심부에서 하급관리로 分權化하고, 嚴格한 指數制度( indicator system )를 緩和시킴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

한 國家의 經濟메카니즘의 변화는 특이한 일이 아니다. 어떤 經濟體制도 완벽한 완성품은 아닌 것이다. 發展의 基本條件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의 계속적인 適應을 필요로 하는 社會思想도 마찬가지이다. 經濟體制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하나의 모델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社會主義體制도 마찬가지이다. CMEA 국가들의 體制變化는 과거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기에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더니 갑자기 “더 많은 市場(more market)”과 “物質誘引”에 관한 이야기가 떠돌았다. “市場”이라는 말이 “自由業( free enterprise )”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다.<sup>15)</sup>

“利潤”이라는 概念이 強調됐을 때 그것은 社會主義 原則을 망각하는 것을 意味하지는 않았다. 社會主義에 있어서는 生産資源으로 私有財産을 만들어내는 데 使用될 수 없으므로 利潤이란 資本主義에서의 利潤과는 다른 意味였다. 따라서 改革이 資本主義와 民主主義 體制의 回復을 意味한다는 것은 분명히 넌센스다. 그런 일은 헝가리를 포함하여 어느 社會主義 國家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

15. Ota Sik, *Plan und Markt im Sozialismus*, Wien, 1965 특히 pp. 97, 157 참조. Bela Csikos-Nagy, *Das Marktproblem-Kernfrage der sozialistischen Wirtschaft*, Sonderdruck aus dem *Anzeiger der phil.-hist. Klasse der o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Vol. 17 (1980) 도 참조.

그럼에도 經濟改革은 약간의 政治的인 效果도 가져왔다. 그것은 단지 헝가리에 있어서만 약간의 自由化를 일으켰다. 즉, 지난번 選舉에서 有權者들은 새로운 政黨이 許容된 건 아니었지만 같은 名單에서 다른 候補者를 選擇할 機會를 가졌었다. 海外旅行에 관한 規則도 自由化 됐다. 헝가리에서는 체포될 念慮없이 비교적 自由롭게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經濟에 관한 著術活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發展은 改革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同時的으로 일어났고 따라서 서로 관련되는 것으로 看做되어야 할 것이다.

經濟體制의 分化和 소련식 모델에서의 부분적인 離脫은 外交政策에 있어서 소련으로부터 獨立하려는 增大된 노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루마니아에서 명백히 나타났는데 民族主義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政治的 獨立의 추구에 대해서 經濟的인 障礙가 있다. 그것은 특히 연료와 원재료 공급에 있어서 東·南東部 유럽國家는 소련에 종속되어 있다. 이러한 物品을 소련으로부터 輸入하는 것은 兌換지폐 ( convertible currency )로 支拂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바람직하며, 소련은 그들에게 壓力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소위 말하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아직도 實效性이 있다. 이는 소련이 기타 國家의 獨立의 추구를 共產主義體制와 소련의 패권 ( hegemony )이 안전하게 保障되는 한에 있어서만 관용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련은 1953年의 東獨, 1956年의 헝가리, 1968年의 체코, 그리고 1980年의 폴란드에서와 같이 직접·간접적으로 介入할 것이다. 經濟改革은 可能하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제한된 정도에서만 政治的 改革을 가져올 뿐이다.

## 要 約

社會主義國家의 經濟는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라고 特徵지을 수 있는데 1960年代에 들어서 産業化가 이루어지고, 經濟成長의 進展으로 經濟構造가 複雜해짐에 따라서 彈力性이 부족한 社會主義 經濟體制로는 그러한 변화를 감당해 낼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소련을 위시한 東部 및 南東部 유럽의 社會主義國家는 經濟體制에 대한 改革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社會主義의 計劃經濟體制에서 自由主義的인 市場經濟體制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경직된 社會主義 經濟體制에 “物質誘引” 制度의 導入이나 “指數制度”의 緩和를 가져오는 등의 技術的인 변화를 채택했을 뿐이다. 體制自體에 대한 問題와 같은 根本的인 것에 대해 改革을 해보려는 試圖은 소련의 影響權下에 있는 社會主義國家 중에서는 소련이 그것을 바라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그들이 추구한 經濟改革은 社會主義 經濟體制라는 범주 내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社會主義國家들이 遂行한 經濟改革의 결과 몇 가지 變化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고집하는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와 擴大産業化 등에서 빚어지는 “歪曲現象”이라는 부정적인 면 외에도, 헝가리를 대표로 하여 기타 社會主義國家에서 自由化 運動이 일어나고 있고, 民族主義가 강해짐에 따라 소련의 影響力으로부터 벗어나려는 政治的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즉, 經濟改革은 약간의 政治的 效果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經濟的인 면에서 소련에 종속되어 있고,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아직도 實效性이 있는 이상, 東·南東部 社會主義國家의 經濟改革은 매우 制限된 程度의 政治的 改革을 가져올 것이다.

## 第 2 章 社會主義經濟體制的 分化

Bruno Schönfelder

(뮌헨大東南유럽 經濟 및 社會研究所 研究員)

### I. 머리말

굼펠 (Gumpel) 教授는 그의 論文에서 1960 年代 중반 이후로 유럽의 여러 CMEA\* 國家들에서 經濟體制的 점증하는 다양성 - 여기서는 經濟體制的 分化(differentiation)라고 칭한다. - 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東歐圈內的 루마니아 저술가들은 과거에는 CMEA 國家들이 소비에트 모델을 모방하였지만 현재에는 그들의 고유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헝가리의 改革에 대해 論議하는 헝가리의 著述家들도, 덜 강력하긴 하지만 더욱 정당하게 그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와 다른 見解는, '1970 年代 末期와 1980 年代 初期에는 유럽의 대부분의 CMEA 國家들의 經濟體制가 더욱 유사해졌다고 蘇聯의 著述家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sup>1)</sup> 불가리아의 著述家인 크리스토 키로프(Chri-

---

\* 역자주 ;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가 약어로서 소련 동유럽공산국가의 경제협력기구를 가리킴.

1) Ju. Knjazev, O.B. Bakoveckij: Sblizhenie struktur chozjajstvennych mekhanizmov stran SEV. *Planovoe Chozjajstvo* 1982: 6, p. 110-116 (The Rapprochement of the Structure of the Economic Mechanisms of the CMEA - Countries)

sto Kirov)는 蘇聯, 東獨,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의 經濟改革에 관한 廣  
範圍한 比較研究를 통해 그와 비슷한 見解를 밝혔다.<sup>2)</sup> 그는 이들 國家  
에서 進行되고 있는 改革의 根本的인 特徵들은, 세부적인 면의 약간의 차  
이를 불구하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CPSU 第26次 黨大會에서는  
유럽의 CMEA 國家들의 經濟體系가 더욱 유사해져야 한다는 目標가 명백  
히 제시되었으며 이는 社會主義 經濟의 統合을 促進할 것이라고 여러 기  
회를 통해 주장되어 왔던 것이다.

이 論文은 어떤 측면에서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分化가 발생하였고, 그  
다양성이 어느정도이며 그러한 다양성에 어떤 한계가 지워져 있는가에 대  
해 論議할 것이다. 우선 “經濟體制”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明確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세기 이래 定議에 관한 끝없는 論爭에 參與하는 것은  
獨逸 科學者의 고질적 습관이 되어왔고 내 自身이 獨逸人이지만 나는 그  
런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 왜냐하면 “經濟體制”가 所有權과 中央計劃  
(Central Planning)의 존재여부로서 特徵지워지는 것이라고 매우 협소한 定義  
를 내린다면 그것은 無意味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接近方式에 따른다면 모든 CMEA 國家에서는 生産手段의 주요 몫이 社會  
黨에 있고 대부분 國家所有이며 中央計劃이 널리 행하여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한 觀點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經濟體制만큼 그렇게 유사한 體

---

2) C. Kirov: *Funkcioniranje na ikonomicheskiya mehaniz'm V SSSR, GDR, UNR in CSSR*, Sofija 1984 (The Working of the Economic Mechanism in the USSR, GDR, Hungary and Czechoslovakia)

제가 없을 것이다. 그 차이점을 認識하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극단에 빠지지 않고 “經濟體制”를 多次元的인 현상으로 理解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行政上의 細部事項 내지 經濟政策上의 차이조차도 體制上의 차이로 간주하는 셈이 된다.

이 論文에서는 사람들이 經濟體制의 側面이라 언급하고 싶어할 만한 몇 가지 차원이 論議될 것이다. 2. 1.편에서는 흔히 소비에트型 體制의 特徵으로 記述되어 온 것, 즉 가장 중요한 計劃裝置로서 中央集權的 物資均衡化 및 配分(Material Balancing and Allocation)에 대해 論議될 것이다.

2. 2.에서는 실제로 產出物을 生産하는 組織의 形態와 영역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2. 3.은 이윤동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해, 그리고

2. 4.에서는 누가 投資案을 決定할 權限이 있는가. 2. 5.에서는 價格이 어떻게 決定되는가. 2. 6.에서는 財政體系에 대해, 2. 7.에서는 社會主義

經濟內에서 協同組合(Cooperative)이 遂行하여야 하는 역할에 관해, 그리고

2. 8.에서는 私企業의 殘滓가 무엇이며 “二次經濟”란 무엇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에 관해 論議된다.

“二次經濟”란 헝가리의 文獻에서 설명된 바에 의하면 社會主義 部門밖의 모든 經濟活動이라 定義된다. 이러한 리스트에는 분명히 經濟體制의 차원이라 언급하고 싶어할만한 여러 측면이 빠져 있다. 여기 적힌 측면(經濟體制의 次元)에 대한 集中的인 論議는 이 論文의 範圍를 벗어난다. 課題는 改革의 性格과 結果가 두가지 유형의 체계로 분류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축소될 수 있다. 그중의 하나는 “流線型的 集權的 分割體系”(Streamlined Centralized System with Decomposition), 다른 하나는 “規制



市場”(regulated market) 體系라고 종종 불리어 왔다.<sup>3)</sup> “流線型的 集權的 分割體系”의 아이디어란 - 이것은 1930年代에 蘇聯에서 이미 實行된 流線化(streamlining)와 再組織化(Reorganization)를 위한 여러가지 努力과는 구별된다. - 經濟(主要產業)는 制限된 數의 大規模 下位體系로 적절히 分割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下位體系는 그 內的 自律성이 增大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中央計劃擔當者(Central Planners)의 作業負擔은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計劃擔當者는 전체로서 이들 下位體系的 成果와 그것 사이의 관계를 더욱 效果的으로 통제할 수 있는 位置에 서게 된다. 國家 企業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의 결합을 통해 創出된 大規模 生産機構의 權限을 委任함으로써 中央計劃과 統制에 있어 더 큰 效率성을 바라는 것은 그러한 統攝이 매우 숨씨있게 이루어진다면 전적으로 공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 中央計劃擔當者가 經濟를 바람직한 方向으로 運行하기 위하여 調整하고 統制하여야 할 지표의 수가 감소된다. 그러한 조직적 최적조건에 실제 接近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것을 적어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는 未解決의 問題이다.

規制市場體系란 市場메카니즘이 政府介入에 의해 약간 影響을 받는 그런 體系뿐만 아니라 市場過程이 內在的 動態성과 創造性的의 많은 부분을 소멸시킨 여러가지 강력한 방식의 규제를 의미한다. 그러한 體系는 주요한 配分決定이 中央으로부터의 命令에 따라 이루어지는 體系와는 엄밀히 구분

---

3) P. Wiedemann: Economic Reform in Bulgaria: Coping with the "kj Problem". *Eastern European Economics* Fall 1981 p. 90-107

되어야 한다. 規制市場의 方式을 支持하는 사람들(헝가리인이 그 선두에 있다)은 中央의 目標를 실제 달성하는 것은 전통적인 명령체계(Command System)하에서 보다는 이러한 방식에 의해 더 실현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경향을 1970年代 그리고 最近에는 더욱 그밖의 다른 나라에서 살펴 볼 수 있었지만 일관성있게 후자의 방식을 따라 왔던 國家는 헝가리 뿐이다. 이밖의 모든 CMEA 國家들은 지금까지 다소간의 結果를 가져왔던 첫번째 방식의 관점에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分野에서 蘇聯의 중요성은 의심받아 왔지만 蘇聯은 첫번째 유형의 주요한 대표로서 간주될 것이며 蘇聯과 헝가리 體制가 주로 比較될 것이다.<sup>4)</sup>

## II. 集權的 物資均衡化 및 配分 (Centralized Material Balancing and Allocation)

소비에트 유형의 經濟가 樹立된 이래 中央 均衡化(Central Balancing)와 物資配分(Allocation of Materials)은 가장 중요한 計劃裝置가 되어왔다. 그것은 여러 中央機關(Central Agencies)과 省(Ministries),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中央計劃委員會(Central Planning Commission)에 의해 다루어진다. 이러한 中央均衡(Central Balances)은 管理的 위계서열상의 여러 層을 따라 企業에 이르기까지 投入과 產出에 대한 生産 및 分

---

4) G.E. Schroeder: The Soviet Economic on a Treadmill of "Reforms". In: *The Soviet Economy in a Time of Change*, Vol. 1, Washington DC 1979, p. 315-318 참조할 것.

配計劃으로 그것을 分類함으로써 시행된다. 1968年 이래 일관성있게 지속하여 온 헝가리의 改革에 있어서 가장 현저하고 중요한 特徵은 이러한 集權的 均衡化와 配分이 거의 完全히 廢止되고 오늘날에도 아직 그것에 종속된 유일한 실질적인 物資群은 연료뿐이라는 점이다. 이 改革을 올바른 시각에서 보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미 1930年代에 中央計劃이 단지 大規模 配給(huge rationing)을 創出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포기되었고 集權的 配分體系(System of Centralized Allocation)를 더욱 신축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要素가 連續적으로 그 속에 包含되었다는 점이다.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의 하나는 集權的 分配計劃의 틀속에서 세부사항은 契約에 의해 規制되어야 하며 이러한 契約은 대개 供給側 내지 需要側에 있는 企業과 하나의 産業部門의 管理를 擔當한 主要 行政機關(Chief Administration)에 소속된 소위 主要 供給 擔當 行政機關(Chief Supply Administration) 사이에 締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計劃은 이미 1930年代에 약간의 불안을 야기하였다. 왜냐하면 運營中인 供給擔當 行政機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개의 行政機關이 同一한 製品의 供給에 매우 자주 干涉하였고 때로는 去來가 計劃된 分配라기 보다는 매매(trade)와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다.<sup>5)</sup>

蘇聯과 그밖의 다른 대부분의 CMEA 國家에서 1950年代 말기에 시도했던 中央計劃指標(Central Planning Indicator)의 減少는 製品分類와 供給關係에 대한 여러가지 問題가 企業管理에 맡겨지게 된다는 점에서 契約에

---

5) A. Baykov: *The Development of the Soviet Economic System*  
Cambridge 1970, p. 299.

대한 準備를 分權化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아이 베렌드(I. Berend, 헝가리인)는 이러한 改革에의 努力이 매우 부분적인 成功을 거두었다고 보고하였다. 特定企業에 대한 供給命令(orders to supply certain firms)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企業들은 그 企業計劃에 필요한 原資材를 確保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다음과 같이 된다고 베렌드는 말한다.

“새로운 狀況속에서 企業은 순수한 自己防禦(self-defence)를 위해 改革에 저항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언저나 더 彈力的인 體制에 큰 關心을 가진 海外貿易會社조차 이제는 상세한 輸出計劃에 完全히 알리고 강력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企業들은 生産企業으로부터 적절히 供給이 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計劃에서의 命令의 縮小는 일시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明白한 命令이 再導入되었다.”<sup>6)</sup>

최근에 전개된 改革은 “直接的 連結”(direct links)과 같은 措置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供給機關과의 契約대신에 生産擔當 企業간의 直接的인 契約, 計劃이 樹立되어 있는 동안의 企業사이의 豫約(precontracts), 그리고 特定한 供給者에 所屬된 企業이 그 企業(供給擔當)으로부터의 추가적인 引渡를 拒否할 수 있는 權限導入이 그러한 措置들이다. 이러한 權限이 原材料와 供給品의 대부분이 不足한 狀況에서는 그다지 強力하진 못하지만 그런대로 價値가 없는 것은 아니다. “直接的 連結”과 “豫約”은 무엇을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사고 팔 것인지의 問題가 전적으로 企業의

---

6) I.T. Bere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Recent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East European Quarterly* March 1968, p. 87

決定事項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連結은, 産業組織이 中央으로부터 接受하고 企業體에 分類되고, 상당정도 投入과 산출을 決定하는 統制指標(Control indicators)의 틀 속에서 確立된다. 더우기 直接的 連結이 좀더 長期的이고 實質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면 産業組織은, 적어도 어떤 選擇의 여지가 있을 경우 命令을 樹立하기로 되어있는 측에게서 그것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또하나 중요한 것은 締結된 契約을 包含하여 企業과 産業組織의 計劃은 그것이 有效하게 되기 위해선 中央의 承認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蘇聯의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生産手段은 소위 生産契約, 즉 特定資材의 특정량을 명시된 企業 내지 團體에 인도하라는 명백한 命令에 기초한 契約에 의해 市場去來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이러한 지시는 아주 많은 경우 헝가리의 經濟學者가 일컫는 “그 受領人에 의해 記載되는 命令”(Commands written by their recipients)인 것이다.<sup>7)</sup>

최근의 改革以後 불가리아의 경우 事情은 약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한 통찰력있는 불가리아의 著述家は 事態를 다음과 같이 記述한다. “經濟組織이 生産하는 商品의 全體的인 分類가 아니라 國家的 生産과 國家計劃의 均衡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만이 集權的 政府計劃 指示(Centralized government plan instructions)를 통해 마련된다.” 오늘날에 經濟組織과 企業들은 스스로 필요한 物資의 많은 부분을 契約에 기초하여 獲得하고 있다. 현재 狀況에서 經濟的 契約은 計劃의 整列(drawing-up)에 積極적인 影響을 미친다. “이것은 統制指標와 그에 기초한 契約사이의 相互關

---

7) I. Vajda, 여기서는 다음 저작에 따라서 인용됨. A. Nove:  
*The Soviet Economic System*, London 1980, p. 95

係에 反映되어 있다.” 8) 불가리아에서는 소위 중요한 製品의 제한된 리스트에 한해서 契約이 計劃, 즉 義務的인 契約(obligatory contracts)인 것이다. 다른 製品에 대해서는 産業聯合(industrial associations)이 原則上 더 많은 自由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企業自體가 더 많은 自由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企業은 그것이 소속한 組織으로부터 꽤 상세한 指示를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聯合과 組織의 숫자는 적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중 두군데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引渡品에 대한 契約에 관해 交渉하는 경우 보통은 雙方的인 獨點(bilateral monopoly)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契約에 대한 合意에 到達할 수 없다면 그때는 中央機關을 다시 불러들일 可能性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헝가리의 狀況과 뚜렷이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남아있다. 헝가리의 경우 企業計劃은 原則上으로 中央計劃의 分類結果는 아니다. (特定製品의 生産에 관한 強制的 指標(Compulsory indicator)는 原則적으로 廢止되었으며 生産契約, 즉 명세화된 商品의 引渡에 대한 義務的 契約은 대부분 廢止되었다.

이러한 묘사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해명될 필요가 있다. 1) 企業의 프로필을 決定하는 部(ministry)에서 指定하는 특정한 틀 내에서만 企業은 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2) 部는 보통 特定の 明細화된 品目生産에 대한 命命을 내리지는 않지만 企業이 生産을 中斷하는 것을 禁止시키는 경우에 있어, 특히 그러한 決定이 헝가리의 市場不足을 야기하고 추가

---

8) Ch. Goleminov: *Provovye aspecty novogo ekonomicheskogo mehanizma v NRB*, Moskva 1984, p. 146, p. 156 (Legal Aspects of the New Economic Mechanism in Bulgaria)

적인 輸入을 不可避하게 한다면 그에 대해서 상당한 權限을 가진다.

3) 企業計劃은 企業管理者에 의해 決定되는데, 그는 部에 의해 指名되고  
해고되며 그의 月給은 部の 才量에 달려있다. 勞動者의 賃金과는 달리  
그의 月給은 우선적으로 企業의 利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部の 滿  
足, 그리고 部の 官吏가 현재의 經濟的 狀況에 대한 그들의 見解에 비추  
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方式으로 그가 일을 遂行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決定된다. 4) 主要 投資支出이 必要할 때는 언제나, 中央機關이 큰 決定  
權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企業은 스스로 生産라인을 擴張하는데 있어서  
매우 制限된 可能性을 지닌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論議될 것이다  
5) 여러가지 生産手段의 不足現象이 持續적으로 存在한다. 그에 따른 持  
續적인 超過需要는 어느정도의 非公式的 配給節次를 不可避하게 만든다.<sup>9)</sup>  
그런데 헝가리와 蘇聯의 集權的 計劃經濟 類型間的 차이는 다시 살펴보게  
된다면 처음 볼 때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言及될 만한 價値가  
있다.

### III. 産業構造

東歐와 西歐의 文獻上에는 모든 유럽의 CMEA 國家에서 비록 同時的  
은 아닐지라도 企業合併의 물결이 일어났다고 빈번히 強調되어 있다. 합  
병된 企業의 權限 일부, 그리고 이전의 산업부(industrial ministries)내의  
長官의 權限 일부를 인수받은 다양한 유형의 産業協會가 만들어졌다.

---

9) 그러한 절차에 관한 증거는 다음 책에 들어있다.

D. Granick: *Enterprise Guidance in Eastern Europe*,  
Princeton 1975, p. 288-294.

蘇聯, 헝가리, 그리고 불가리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동유럽 國家에서는 共產主義가 政權을 잡기 이전에 이미 産業은 比較的 高度의 集中으로 특 징 지워지고 있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집중은 國有化 期間 동안에 小企業을 中央計劃經濟의 틀내에서 管理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增加되었다. 소위 두가지 水準의 計劃體系(two-level planning system)를 向한 그이상의 集中과 前進은 이후의 改革에의 努力을 위한 “指針”(guideline)이 되었다.

합병의 물결은, 헝가리의 경우 1960年代 전반부에 일어났다. 헝가리의 統計에는 國家産業企業의 숫자에 관한 다음 수치가 나타나 있다. 1960... 1368 : 1970...812 : 1975... 779 : 1980... 699.<sup>10)</sup> 불가리아의 경우 합병의 물결과 대규모 産業組織의 창출은 1965 년도에 시작되었으며 國家産業이 35 개의 “國家經濟聯合”(State economic associations)<sup>11)</sup>으로 組織化된 1970 年과 1974 年 사이에 集中이 절정에 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4년도에는 약간의 脫集中(deconcentration)을 야기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再組織化(reorganization)가 시작되었다.

蘇聯에서도 1970 年代에 상당한 規模의 합병 물결이 진행되었다. 東獨에서는 1940 年代 末期에 이미 이른바 國有化 企業聯合(VVB)이 만들어졌으며 1970 年代에 소위 “콤비나트”(Combines)로 대부분 대체되었다. 이러한 많

---

10) Z. Raducziner: *Die ungarische Wirtschaftsordnung heute*. Bern 1982, p. 89 (The Hungarian Economic System today)을 참조할 것.

11) durzhaven ski stopanski obedineniya, Source: M. Kaser: *The Industrial Enterprise in Bulgaria*. In: *The Industrial Enterprise in Eastern Europe*, New York 1981, p. 85.



은 VVB (각각을 “콤비나트” 내지 콤바인즈라고 함)는 100 개를 다소 넘었다. Güther Mittag 에 따르면 1980 년에 中央에서 管理되는 産業과 建設業 雇傭者의 91 %를 責任지는 部에 직접 종속된 産業 및 建設콤비나트가 129 개였다고 한다.<sup>12)</sup> 이러한 數値로부터 판단해 볼 때 東獨에서의 集中過程을 식별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지만 제각기 콤비나트로 된 聯合(association)이 1952 年에서 1958 年 사이보다는 그 종속된 企業에 대해 주목할만치 더 많은 권한을 얻게 되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sup>13)</sup>

이러한 論議로부터 讀者는 적어도 한가지 측면에서는 여러 CMEA 國家의 發展上의 유사성을 強調하는 著者들이 옳다고 추론할 것이며 企業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에 의한 特러스트의 창출이 이미 1920 年代의 蘇聯의 신 經濟정책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정말로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할 것이다. 蘇聯의 經濟史를 한층 더 쫓아가보면 이러한 特러스트는 1929 年 이후에 대부분의 權限을 剝奪당하였고 대부분의 權限은 당시 “新生國家”(State of birth)내의 産業部 體系로 넘어가서 1930 年代 말엽에 完結되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일층 최근의 事態를 1929 年 이후에 발생한 과정의 어떤 복귀라고 해석하고 싶어지게 된다.

---

12) In: *Einheit* 1979: 9-10, p. 938

13) G. Leptin: Bilanz der Wirtschaftsreformen in der DDR. In: *Die Wirtschaftsordnungen Osteuropas im Wandel*. Freiburg 1972, p. 76 (Results of the Economic Reforms in the GDR. In: The Economic Systems of Eastern Europe in Transformation); K. Thalheim: *Die Wirtschaft der Sowjetzone in Krise und Umbau*, Berlin 1964, p. 73-86 (The Economy of the Soviet Zone in Crisis and Reconstruction)

면밀한 調査에 의하면 맨 먼저 헝가리에 관련해 CMEA 國家들간의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中央管理經濟(centrally administered economy)의 입장에서 볼때 大規模 産業聯合은 그것이 물자 균형화 및 配分의 問題 대부분을 다룰 수 있다는 편리함을 지닌다. 그러나 약간의 市場에 카니즘 要素를 導入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헝가리인들이 1970年代에 짐차 認識하게 된 매우 심각한 獨占問題를 야기하게 된다. 蘇聯이나 東獨에서는 독점적 構造를 創出하는 것이 아직도 장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社會主義의 獨占問題는 發展된 資本主義 國家의 경우보다 한층 더 심각한데 그것은 비단 集中程度가 더 높기 때문만이 아니라 市場內로의 새로운 競爭者의 進入과 輸入品の 競爭과 같은 獨占權力에 대한 견제가 대체로 없기 때문인 것이다. 약간의 競爭을 可能하게 하는 産業構造의 創出 必要性은 이미 1968年에 헝가리에서 強調되었으며 1980年度 初에 다시 한층 더 強力히 強調되었다. 수많은 特刺스트의 해체를 통해 여러가지 實제적인 措置가 그러한 方向으로 취해져 왔다. 헝가리의 법에 의하면 特刺스트란 그 構成員에 대해 상당한 權限을 가진 擘 짜여진 淸류의 企業結合이다. 企業間의 더 느슨한 形態의 協同이 얼마간은 선호되었다. 몇몇 國家企業들이 分離되었으며 1980年度 이래 國家企業數의 減少는 분명히 역전되었다.<sup>14)</sup> 독점적 구조에 反對하는 다른 措置들은 協同組合(Cooperative)과 얼마간은 私企業의 진작을 통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깊이 論議될 것이다.

---

14) Statistical Yearbook 1983. Budapest 1985, p. 100.

#### IV. 利潤의 役割

社會主義 企業이 利潤을 남기기 위해 運營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原則적으로 1920年代의 “신경제정책”에서 이미 자리잡게 되었지만 利潤을 남기기 위해 企業이 運營될 경우 利潤의 80% 이상은 國家財政으로 넘어가야 했다. 1930年代에 “管理者 基金”(Director's Fund)이란 名稱을 지닌 基金이 造成되었고 이후에는 “企業基金”이라고 다시 명명되었다. 이것은 1960年代말까지 대부분의 蘇聯企業에서 持續되었다. 利潤의 일부분은 그러한 基金으로 流入되어야 하며 여러가지 다른 計劃指標의 達成에 따라 보너스가 從業員에게 支拂되어야 한다. 이후의 調査를 통해 밝혀졌듯이 이러한 方式으로 支拂된 金額은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이러한 基金에 의해 유인받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대부분의 從業員들은 그러한 基金의 存在조차 몰랐던 것이다.<sup>15)</sup>

1960年代의 改革論爭을 통해 몇몇 대담한 改革家들은 利潤이 社會主義 企業의 成功을 判斷하는 主要基準이 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실제적으로 거기에까지 이르게 된 社會主義 國家는 없지만 利潤에 부여된 중요성에는 중대한 차이가 存在한다.

1967年의 蘇聯의 價格改革의 目標中の 하나는 대부분의 企業이 利潤을 남기기 위해 運營될 수 있도록 費用에 따라 價格을 調節하는 것이었다. 그 이전에는 특정의 產業部門은 計劃된 損失을 본채 經營되었다. 賣出稅

---

15) L. Pekarskij: Pooshchritel'nye fondy preprijatij i pribyl. *Planovoe Chozjajstvo* 1963: 10, p. 10 (The Incentive Funds of the Enterprise and Profit)

率 (rates of turnover tax)은 일반적으로 減少되었으며 産業價格에 있어서 計劃된 利潤의 比重은 증가되었다. 1965 年の 改革에 의해 그 이전의 管理者 基金보다 현저히 많은 새로운 유인기금 (incentive funds)이 造成되었고 이것은 原則적으로 利潤으로부터 資金이 조달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基金에 流入되는 利潤의 比重에 대한 규정과 그것이 결정되는 방식은 빈번히 변경되어 왔다. 利潤中에 이것과 그밖의 다른 공제를 제하고 남는 나머지는 대부분 國家豫算에 다시 流入된다.

현재의 규정은 지표의 리스트를 제시하여 놓고 있는데 그것의 達成程度에 따라 유인기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된다. 수익성 (profitability)은 이러한 指標들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部에서는 이러한 리스트 중에서 둘 내지 그 이상의 지표를 選擇할 수 있는데 이들을 그 部에 종속되는 企業은 基金을 決定하기 위해 이용하여야 한다. 11 차 5 개년 計劃에서는 대부분의 部들이 수익성을 選擇하지 않았다.<sup>16)</sup>

헝가리의 경우는 事情이 좀 다르다. 대부분의 産業部門에서의 현재의 規定에 따르면 約 9%, 즉 從業員 賃金の 적지않은 부분이 成功指標 (success indicator)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것은 賃金, 減價償却費 (amortization)와 利潤의 總合으로서 算出된다. 이러한 支拂金額은 그밖의 다른 計劃指標의 達成에 따라 決定되지 않는다. 이것들이 支出된 후에 남는 利潤額은 여러가지 税金, 그중에서도 특히 企業所得稅가 賦課된다. 이러한 税金을 支拂하고 나면 約 60% 가량 줄어들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企業에서 使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부분이 從業員에

---

16) *Ekonomicheskaya gazeta* 1980: 28, p. 11

대한 추가적인 보너스로支給되는데 使用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리고 急格한 누진율에 의해 税金이 賦課된다. (1985 年度까지 從業員들은 실질적인 共同決定(Codetermination)의 權限을 가지지 못했다)

從業員들은 個人的으로 利潤에 關心을 가지고 있지만 企業의 計劃을 실제로 決定하는 管理者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체제내에 생기게 된 갈등에 대해 다시 주목해 보자. 管理者의 俸給과 해고는 우선적으로 利潤이 아니라 中央機關 - 제일 먼저 産業部 - 의 만족여하에 따라 결정된다.<sup>17)</sup>

관찰된 바에 의하면 經營意思決定이 거의 利潤指向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投資의 收益率(rate of return)이나 그 資金回收期間 (payoff period) 중의 어느것으로도 投資收益性에 대해 진지한 檢討를 거치지 않고 하는 많은 投資意思決定의 경우에 특히 적용된다. 投資意思決定은 아직도 꽤 자주 순수한 양적인 擴張을 指向하고 있다.<sup>18)</sup> 또한 會計上의 利益은 아주 빈번히 補助金에 의해 생기며 그 補助金を 申請할 機會가 많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改革된 社會主義 體制內에서조차 利潤에 대한 미온적 態度가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았음에 틀림없다. 현재에 우세한 價格體系와 市場構造 下에서 利潤이란 企業成果에 대한 매우 信賴할 수 없는 측정기준에 불과한 것이다.

---

17) 1985 년도의 관리자 임명에 있어서 노동자의 공동결정의 도입으로 인해 그들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입수 가능한 자료에 의거해서 평가될 수 없다.

18) P.G. Hare: *The Investment System in Hungary*. In: *Hungary, A Decade of Economic Reform*, London 1981 을 참조할 것.

## V. 集權的 및 分權的 投資意思 決定

1950 年度の 東獨의 規定에 따르면 3,000 마르크 이상의 投資에 대해서는 國家計劃委員會의 分명한 承認을 必要로 하였기 때문에 企業의 管理者는 中央으로부터의 指示없이 한사람 이상의 타자수도 거의 얻을 수 없었다.<sup>19)</sup> 이는 그로테스크에 가까운 정도의 集中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당시와 比較해 볼때 모든 유럽의 CMEA 國家에서 中央機關의 特別한 承認없이 投資를 할 수 있는 可能性은 상당히 擴張되어 왔다.

1965 年の 蘇聯의 改革을 위한 努力의 一部는 企業의 生産發展基金 (Production Development Fund) 을 樹立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 앞서 있었던 新기술 導入을 위한 企業基金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기대되었다. 특히 새 基金은 1964 年の 總 12 億 루벨에 비해 1967 년도에는 約 40 億 루벨에 달했었음에 틀림없다.<sup>20)</sup> 企業에 配定된 義務的 計劃指標는 소위 集權的 投資, 즉 中央計劃에 의해 資本投資에 할당된 基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確實하다. 이른바 分權的 投資의 범주가 導入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國家는 계속해서 資本投資……의 領域에서 통일된 政策을 실행

---

19) S. Mampel: *Die Sach- und Personenversicherung in der SBZ*, Bonn 1957 (Property and Personal Insurance in the Soviet Zone) 그가 언급한 규정은 화재 등이 일어난 후에 보험으로 받은 배상금의 사용에 관계됨.

20) A.N. Kosygin: *On Improving Industrial Management, Perfecting Planning and Enhancing Incentives in Industrial Production*. In: *Reform of Soviet Economic Management* Vol. II. New York 1966 p.22

할 것이다.”라는 점이 強調되었다.<sup>21)</sup> 이후에 전개된 바에서 나타나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産業聯合이 이 基金의 使用에 대해 상당히 큰 發言權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産業部에서도 계속 干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얼마만큼의 減價償却(amortization) 부분이 이러한 基金에 流入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이 그밖의 다른 企業으로 移轉되는가는 실제로 部の 裁量권에 따라 매우 크게 左右되었다.<sup>22)</sup>

1979 年の 規定은 集權的 投資와 그밖의 投資를 더이상 區分조차 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生産設備과 物件을 가동하는 것은 그러한 設備가 어떻게 資金調達되는가에 관계없이 義務的인 計劃指標인 것이다.<sup>23)</sup> 따라서 전반적으로 蘇聯의 경우 아직 작은 投資를 除外하고는 모든 投資에 대한 意思決定은 아직도 아주 高度로 集權化되어 있다.

헝가리의 경우 事情은 다르게 보인다. 國家豫算에 歸續되는 40%의 減價償却費(amortization), 多樣한 利潤稅, 그리고 그밖의 몇몇 控除金을

---

21) Ibidem, p. 19

22) *Spravochnik finansista proizvodstvennogo ob'edinenija*, Moskva 1979 p. 47f. (Handbook of the Financial Worker of the Industrial Association)

23) Postanovlenie CK KPSS ot 12 ijulija 1979 goda, reprinted e.g. in *Sbornik normativnykh aktov po material'no-technicheskomu snabzheniju*, Vol. 1, Moskva 1980 (Regula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PSU of the 12th July 1979... Collection of Regulations Concerning Material-Technical Supply). 최근의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분권적 투자가 다음 5차계획에서 어느정도 부활되리라고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러나 그 규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支拂하고 企業의 수중에 남은 基金의 投資는, 輸入(Import)과 外部에서  
의 資金이 필요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企業의 決定事項인 것이다. 이렇게  
남아있는 基金은 아주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投資에서 참으로 分권적인  
이 부분은 모든 投資支出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企業自體의 基金  
中 主要部分은 주로 外部的 源천에서 資金調達되는 事業에 대한 寄與로  
使用된다. 이러한 外部的 源천은 제일 먼저 헝가리 國立銀行의 信用貸付  
와 國家補助金이다. 헝가리의 金融構造는 아직도 1920年代 말기부터 전통적  
인 蘇聯의 패턴을 꽤 많이 따르고 있다. 돈과 신용의 독점적인 供給者  
로서 하나의 큰 單一銀行(monobank)이 存在하며 그밖의 다른 모든 銀行  
은 이 銀行의 特別部署에 불과하다. 따라서 信用貸付의 申請에 대해서는  
보통 中央機關이 반드시 關聯되어야 한다.

이러한 現象은 더욱 심화되었다. 왜냐하면 1966年 改革의 애당초의  
의도와는 反對로 信用貸付는 競爭的이 아니고 商業的 金融業의 스타일도  
아닌 方式으로 許可되기 때문이다. 信用貸付를 許可하는데 利用될 수 있  
는 基金은 특정한 產業部門과 計劃에 기초한 課業에 事前 割當된다.  
企業이 信用貸付를 申請할 경우 헝가리 國立銀行은 특정한 신용대부의 범  
주가 남아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며, 產業部가 그 事業을 承認했는지 알아  
내기 위해 그곳과 아마도 接觸하게 될 것이다.<sup>24)</sup>

---

24) 헝가리의 文獻에서는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충  
분히”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개탄하고 있다.

G. Zedtwitz-Arnim: Die Kreditpolitik als Instrument der  
Wirtschaftslenkung, Unpublished Ph.D. Thesis München  
1984, p. 150 (Credit Policy as an Instrument for Managing  
the Economy)



실제로 헝가리의 企業이 補助金을 받을만한 종류의 投資에 관계하길 좋아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앞서 言及한 대로 補助金을 얻을 수 있는 可能性은 많은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産業部의 承認은 어쨌든 필요하다. 이후의 계산(calculation)에 의해 잘못이 있었다는 것으로 判定되면 그 責任은 管理者와 그 事業을 承認했던 여러 中央機關이 나누어 가지게 된다. 헝가리에 있어서 대부분의 投資는 아직도 改革家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질상 더욱 集權的 方式으로 決定된다고 要約해서 말할 수 있다.

## Ⅵ. 價格體系

처음 보기에는, 價格決定에 대한 헝가리의 接近方式과 蘇聯의 接近方式 사이에는 실제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蘇聯에서는 아직까지 傳統的인 形態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國家價格委員會(The state Committee for Price)와 그 하위부문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산업부에서 生産者 및 다른 조직이 제공한 情報와 計算에 기초하여 價格을 決定하고 있다. 價格은 一般物價 變更(general price reform)으로 修正되는데 이는 1930年代부터 매 15年마다 한번씩 일어난다. 1967年부터는 부분적 物價修正 이전보다 더 빈번히 있었으나 公式的 集權化의 정도는 아직도 놀라운 정도로 높다.<sup>25)</sup>

25) 모스크바의 가격위원회(Price Committee)가 중공업 제품 가격의 85퍼센트, 산업 소비재 가격의 65퍼센트, 그리고 식료품가격의 70퍼센트를 결정한다고 소련의 소식통들이 보고하다. 물론 이러한 가격들은 기업이 제출하고 조합과 部 등에서 처리된 제안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T. Gevdokimova: *Organizacija upravljenja planovym Cenobrazovanjem*. Moskva 1983, p. 26 (The Organization of the Management of Planned Pricing)

헝가리에서는 三層的 (three tier)인 價格體系가 세워져 있다. 첫번째 商品集團은 物資 및 價格機關 (Material and Price Agency)에 의해 價格이 決定되고, 두번째 商品集團은 어느한도 내에서 價格이 자유롭게 決定되며, 세번째 商品集團은 自由價格으로서 市場에서 價格이 決定된다. 1980년에는 소매점 판매의 52 퍼센트가 自由價格 商品이었다. 企業들 간의 供給은 거의가 自由價格 商品이라고 報告되어 있다. 自由價格은 언제라도 修正될 수 있지만, 그 실행은 物資 및 價格機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거부권에 의해 석 달 동안 價格上昇을 늦출 수 있다. 經濟體制가 集權的 物資配分이 없이 運用되려면 變動價格은 명백한 선결조건인 것이다.

다시 생각해 보면, 헝가리와 蘇聯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아주 명백하지는 않다. 몇몇 蘇聯의 著述家들은 價格委員會의 과도한 일 부담 때문에 生産者의 原價計算을 調査하는 것이 순전히 형식적인 것이 되는 수가 종종 있다고 強調한다.<sup>26)</sup>

다른 한편으로 헝가리에서 실행되는 三層的 體系가 不安定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壓力的 狀況에서는 自減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특정 범위내에서 自由로운 價格은 그 範圍內의 最上限線까지 오르게 되고 本質적으로 固定되어진다. 自由價格이 오르면 生産者들은 資源을 再調整해서 自由價格 製品을 生産하게 되고, 다른 製品들은 市場에서 사라지게 된다. 헝가리의 경우 이러한 自然스런 結果가 나타나지 않도록 防止되어 왔는데 이는 部分的으로 固定價格商品에 대한 大量의 補助金을 支給함으로써, 그리

---

26) *O prognozirovani razvitija cen i cenoobrazovanija.*

Moskva 1976, p. 125 (About Forecasting the Development of Prices and Pricing)

고 부분적으로는 自由價格에 대한 申請節次를 소위 정당치 못한 價格上昇과 정당치 못한 利潤에 대한 금지조치와 결합시킴으로써 그렇게 해왔다. 어느정도까지는 이러한 통제가 自由價格 調整에 대한 希望을 무너뜨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970年代에 상당한 補助金 增加와 1979年 이래 매우 括目할만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상당한 自由가 許容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 반면에 통제가 없었다면 價格은 더욱 상승했었을 것이며, 통제는 市場에서의 만성적인 超過需要의 狀況을 造成해 왔고, 市場 메카니즘에 대한 障礙要因으로 작성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Ⅶ. 財政體系

어느 CMEA 國家에서도 스탈린 時代로부터 이어 받은 財政體系의 기본적 組織構造를 修正하지 않았다. 豫算收益의 원천에는 括目할만한 變化가 있었다. 스탈린 體制下에서는 單一의 가장 중요한 輸入은 賣出稅 (turnover tax)였다. 賣出稅가 아직껏 주종을 이루는 루마니아의 경우를 제외하면 國家企業의 利潤에 대한 공제와 과세는 改革의 過程을 통해 더욱 중요한 收益源이 되어왔던 것이다.<sup>27)</sup>

賣出稅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특히 헝가리에서 豫見되었다. 유럽의 모든 CMEA 國家에서는 1960年代에 들어서서 가장 중요한 利潤控除 (deductions from profits)로서 生産資産支出金 (Payment for Production Assets)이라는 特別한 資本費用이 導入되었다. 이것의 稅率은 대체로 높았다.

---

27) Annuarul Statistic al republicii socialiste Romania 1984, p. 272

그것은 減價價却을 考慮하지 않고 總資本價値에 부과되었다. 이런 賦課制度는 1980年 헝가리에서 廢止되었다.

改革의 주된 目的 중의 하나는 銀行信用에 의한 資本投資에 따른 資金調達을 配當된 豫算으로부터 割當된 浬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中央豫算에서의 기부금은 헝가리에서조차 여전히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 왔다.

國家가 地方當局의 發展基金으로 기부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1983年 헝가리에서 이 配當額을 銀行信用의 200億 포린트(Forint)에 비해 180億 포린트에 달했다.<sup>28)</sup>

資金調達의 樣相은 多樣하게 나타난다. 루마니아에서는 豫算으로부터의 傳統的인 資金調達이 아직까지 支配的이지만, 불가리아에서는 1960년대 말기 이후로 銀行信用에 의한 재원확보가 豫算으로부터의 재원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sup>29)</sup> 이 예는 銀行信用의 중요성이 반드시 意思決定의 分權化와 병행해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 VIII. 社會主義的 대안으로서의 協同組合 (Cooperatives)

모든 CMEA 國家에서는, 맨먼저 農業의 경우 적지만 아직까지 生産資產의 상당한 부분이 協同組合이라 불리는 組織의 수중에 들어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集産化(Collectivization)가 추진된 이후로 이러한 組織들은 名稱만 協同組合으로 되었다. 그 組織은 國家企業들 만큼이나 自律

---

28) Statistical Yearbook 1983, p. 89

29) Statisticheski godishnik na narodna republika B'lgarija 1972.g.p. 348 and 1983 p. 450 소련에서는 적절한 통계를 찾을 수 없다.

성이 적었으며, 管理者는 대부분 國家組織에서 任命되는 외부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主義 政治, 經濟學에서는 이것을 열등하고 이류적인 社會主義的 組織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그것을 差別待遇하기 위한 핑계로 利用되었다. 1950年代 後半期까지 農業部門의 協同組合은 農業機械와 집기의 所有가 許容되지 않았으므로 國家의 機械와 트랙터 기지 (Tractor Station)에서 임대해야만 했다. 1958年 이후 이러한 機械와 트랙터 기지는 루마니아만 제외하고 모든 유럽의 CMEA 國家에서 해체되었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를 의미했다.

協同組合의 改革은 두 가지 形態로 구별된다. 첫번째 形態는 協同組合 農場에 대한 差別을 廢止하는 것을 包含한다. - 즉 이것은 다소나마 國家企業들처럼 대우받기 시작한다. 이것은 루마니아를 除外한 모든 유럽의 CMEA 國家에서 실현되었다. 루마니아에서는 協同農場의 構成員들은 아직까지 가장 곤궁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畝를 차지한 다음 나머지 것을 받게 되는 주변적인 상속자의 位置에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밖의 CMEA 國家의 경우, 集團農場 構成員들에게 導入된 最低保證所得 (guaranteed minimum income)이 產業 勞動者의 賃金보다 아직껏 상당히 낮은 狀態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루마니아를 제외하고 모든 國家에서 產業의 경우와 유사하게 합병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CMEA 國家들에서의 協同農場 사이의 조금씩 다른 結果를 야기했으며, 그들의 현재 法規는 더이상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1935年의 소비에트 콜호즈 법규 (Soviet Kolchoz Statute)를 단순히 약간씩만 수정하여 번역한 것은 아니

다.<sup>30)</sup>

두번째 유형의 改革을 擬似協同組合(Pseudo-cooperatives)에서 진정한 協同組合(real cooperatives)으로의 變化를 包含하며, 오직 헝가리의 경우에서만 어느정도까지 실현되어 왔다. 두드러진 特徵은 진정한 協同組合은 그 구성원의 利益을 圖謀하는 것이다. 즉, 그 구성원들은 상당한 정도의 共同意思決定權(co-determination)을 가지며, 協同組合에서 參與하기를 바라는 유형의 活動을 選擇할 수 있다. 그 명백한 善行條件은 헝가리에서 실시되어온 義務的 計劃指標의 廢止인 반면에, 그밖의 모든 CMEA 國家에서는 (불가리아를 包含하여) 農場은 아직도 많은 指標를 부여받는다. 헝가리의 改革은 다른 事業部門보다 協同組合 部門(맨먼저 農業)에서 매우 意味있고 成功的이었던 것 같이 보인다.

協同組合 農場과 그 構成員이 私有農地 사이에 形成된 勞動 分業으로부터 後者에게 큰 利得이 있는데 - 이러한 協同組合은 그 構成員의 利益을 圖謀한다고 推論해 볼 수 있다. 그들은 계속 機械 서비스와 다른 生産手段을 供給받는다. 이것은 蘇聯의 실제와 恰當하게 대비되는데, 蘇聯의 경우에는 아직껏 私有農地活動을 의구심을 가지고 보며, 그들의 慾求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蘇聯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헝가리의 協同組合은 特定 生産手段을 提供받는 다섯 또는 그 이상의 構成員으로 된 特別集團을 형성할 可能性을 가진 內部組織을 決定할 수 있는 實質的인 自由를 가지는데 그 구성원들의 給料은 그 特別集團의 財務的 成功 여하에 따라 決

---

30) K.E. Wädekin: *Sozialistische Agrarpolitik in Osteuropa*, Vol. 1, Berlin 1974, p. 127 (Socialist Agricultural Policy in Eastern Europe)

定된다.<sup>31)</sup>

協同組合, 특히 農業協同組合의 活動은 農業生産의 領域을 상당히 넘어서  
까지 擴張되어 있다. 1979 年에는 全體 産業產出物의 6.5 퍼센트가 協同  
組合 産業에 의해 生産되었고 建築物의 8.2 퍼센트가 이들에 의해 建設  
되었다.<sup>32)</sup> 이것은 農業部門의 協同組合이 그들의 生産活動을 選擇할 얼마  
만큼의 自由를 지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그 活動이 그들  
의 본디 義務와 關聯되어 있는 한 維持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  
각한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sup>33)</sup> 요약하자면, 이러한 自由와 다양하게 종종  
이용될 수 있는 農業, 生産手段이 바로 그 특성으로 인해 協同組合은 대  
부분의 國家産業 : 企業들보다 더욱 신축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수많은 生産者들에 의해 조건지워진 競爭的 市場構造와 함께 헝가리  
農業의 成功을 적어도 부분적이거나 설명해 준다.

헝가리는 擬似 協同組合에서 진정한 協同組合으로의 轉換을 진전시킨 것  
이지 결코 完成한 것이 아니다. 그 구성원들의 共同意思決定權은 아직도  
매우 제한된 것으로 보이며 協同組合의 管理形態도 權位主義的이라고들 한  
다. 또한 대부분의 協同組合 産業이 國家 企業이 廢棄한 진부한 設備로  
써 運用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可能性의 限界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34)</sup>

---

31) Raducziner op.cit. p. 118-9. 를 참조할 것.

32) E. Chizmadia, M. Sekej: *Razvitie sel'skogo hozjajstva v Vengrii* Moskva 1984, p. 135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Hungary)

33) Ibidem, p. 180.

34) Ibidem, p. 182.

최근의 興味로운 것은 소위 “小規模協同組合”이라는 制度의 發展인데 이는 既存의 大規模 協同組合과는 매우 다르고 원래의 協同組合 理念의 원형과 密接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小規模 協同組合은 原則에 있어서 農業을 除外하고서는 매우 다양한 活動에 증사할 수 있다. 그들이 실제 로 가지게 될 중요성을 앞으로 두고 보아야 알 것이다.<sup>35)</sup>

나의 見解로는, 지금 살펴볼 蘇聯과 헝가리의 接近方式 사이의 차이는 더 중요한 것에 해당된다고 본다.

#### IX. 私企業의 殘滓와 “二次經濟”

예를 들어 協同組合의 구성원이나 自營農民이 아닌 小規模의 匠人 같 이 主要 職業이 小規模 私有企業家인 사람들의 숫자는 헝가리를 包含한 모든 CMEA 國家에서 최근까지 감소되어 왔다. 폴란드에서의 私有農業이 라는 유일한 例外를 제외하면 이는 중요한 것이 못된다. 모든 CMEA 國家의 경우 社會主義 組織 內에서 職業을 갖는 것에 더하여 副業으로서 의 私有企業이 널리 퍼져 있고 중요하지만 이러한 活動에 대한 態도와 관용에는 國家마다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다.

集團農場 構成員들의 私有農地에 대한 態度에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論議된 바 있다. 헝가리에서 産業 勤勞者들과 非農業家들이 所有하거나 임대한 小農地에서의 小規模 農業企業의 數는 集團農場 構成員들의 農地의

---

35) T. Laky 에 의하면 “성과는 매우 소소했다.”고 한다.

In: Small Enterprises in Hungary-Myth and Reality. *Acta Oeconomica* 1984: 1-2 p.42



數를 超過한다. 家族 構成員들이 庭園에서 일여는 것까지 考慮한다면, 헝가리 인구의 절반정도가 私有農業에 從事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農地는 蘇聯에도 있는데 그에 대한 태도가 다른 점이 特記할만 하다. 蘇聯에서는 그러한 小規模 農地로 供給을 확보하고 生産物을 販賣하는 것이 法으로 禁止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不足현상이 나타남에 비해서, 헝가리는 小規模 私有農地를 增大시키기 위한 組織이 構成되어 있다.

헝가리의 住宅部門에서는 私有財産 및 어느정도의 私有企業(적어도 所有者가 建築에 參與하는 한)이 중요하다. 지난 20年동안 세워진 모든 아파트의 約 2/3 정도가 國家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資金이 調達되었다.<sup>36)</sup> 이것들은 거의 家庭住宅이다. 화이트 칼라 勞動者들은 國家所有의 아파트에 居住하는 반면, 대부분의 블루칼라 勞動者와 농부들은 自己所有의 아파트나 住宅에서 居住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아마 화이트 칼라 勞動者들이 그들의 住宅建設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蘇聯의 경우 私有의 아파트가 역시 있기는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소수에 불과하다.

여러 유형의 副業, 의사의 私的인 營業, 私的인 教育 등을 包含한 그밖의 形態의 私的 經濟活動 등에 대한 세밀한 分析은 이 글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러한 活動은 그 자체가 非合法的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供給品을 確保하거나 製品을 市場去來하는 것과 같은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게 된다. 그러한 活動은 법을 위반하거나 社會主義 資產을 그들의 用途로 변경하지 않고서는 成功的으로 遂行되어질 수

---

36) Raducziner op.cit. p. 32.

없다.

私的經濟活動을 어렵게 하는 法的 規制가 매우 엄중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어떻게 法的 規制가 施行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데의 生産性과 危險負擔 그리고 國家의 福祉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많은 需要가 存在하기 때문에 헝가리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많은 活動을 法的으로 추구할 수 있는 可能性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실행하는 데에는 심한 障礙가 남아있다.

## X. 맺음말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몇 가지 側面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럽 CMEA 國家에서의 해결방법의 범위가 상이하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國家들은 1950년대 초에 그랬던 것처럼 蘇聯의 청사진을 더 이상 機械的으로 모방하지는 않지만 改革에는 명백한 한계가 存在한다.

1930年代 蘇聯에서 만들어지고 당시 동유럽에 진파된 集權的 計劃經濟의 基本的 組織構造는 아직까지 크게 변경되지 않은채로 남아있다. 3개 産業部의 통합과 그 人員을 절반으로 減縮시킨 이 方面에서의 헝가리의 가장 중대한 措置조차도 약간의 修正 이상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産業部와 單一銀行을 包含한 그밖의 다른 中央機關의 基本的 構造가 와해되지 않는한 이러한 機關들이 經濟的 곤경에 부딪혔을 때 그 이전의 機能을 回復하고 이전처럼 命숨을 내리기 시작할 可能性과 傾向이 실제로 存在한다. 대부분의 CMEA 國家들에서의 改革의 失敗와 1970年代를 통해 볼 수 있었던 헝가리의 新 經濟 메카니즘(New Economic Mechanism)조차 탈기능화

를 向한 措置에 의해 이러한 것은 입증되어 왔다.<sup>37)</sup> 그러므로 이런 구조가 와해되지 않는한 소비에트 유형의 經濟가 결코 過去의 問題는 아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오래 전에 취해졌던 그런 措置가 어느 CMEA 國家에서도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았다.<sup>38)</sup>

CMEA 國家들 사이의 體系的 다양성이 社會主義的 經濟統合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에 관련되는 한, 그 반대편에 대한 논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통합에 가장 심각한 障礙物은 海外貿易官僚組織의 유연성 부족인 것이다. 상이한 CMEA 國家의 企業들이 國境을 넘어서 直接的인 연계를 樹立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것은 모든 중요한 分權化 改革의 자연스런 構成要素가 될 것이며 통합을 크게 促進할 것이다. 다양성이 증대함에 따라 法規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海外貿易官吏들이 더 열심히 努力해야 한다는 反對論議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항상 西歐의 관리들이 쉽게 克服할 수 있는 어려움인 것이다.

---

37) P.G. Hare, H.K. Radice, N. Swain: Introduction. In: Hungary: A Decade ..... 를 참조할 것.

38) 헝가리의 경우, 다수의 상업은행을 설립하고 헝가리 국립은행으로부터 권한의 상당한 부분을 박탈하려는 계획이 있다. 이는 실제 金融 구조의 수정이었지만, 기업에게 더 큰 자율성을 의미하는지는 매우 의문스럽게 보인다. 새로운 상업은행은 산업부에 의해 설립될 것이고 산업부에 특정한 부문으로 전문화될 것이다.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신용 대부의 독점적 공급자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은행설립이 부에 의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어떤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두고보아야 할 것이다.

Modifikation des Bankensystems in Ungarn, *Handelsblatt* 21/22, 6, 1985 (Modification of the Banking System in Hungary) 를 참조할 것.



## 第5部 東 西 貿 易

第1章 東西貿易의 두가지 法律的 基準

第2章 CMEA國家들의 對西歐貿易:EC를  
中心으로 한 그의 發展

第3章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經濟關係: EC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 第 1 章 東西貿易의 두가지 法律的 基準

( Friedrich-Christian Schroeder )  
레제스버그大學 經濟學 教授

### I. 序 論

소위 사회주의국가와의 무역의 꾸준한 增加는 많은 法律的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東部유럽의 경제적 통합은 法律上的 문제들의 단일화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와의 무역에 있어서는 설명되어야 할 국가간의 특수한 문제가 있다.

後者와 관련하여 나는 여러분이 특별한 흥미를 느낄 두 社會主義國家와 獨逸聯邦共和國사이의 무역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첫번째는 西獨에서 內獨貿易이라고 불리는 東獨과의 무역인데 이것은 韓國과 비교할 수 있는 分斷國의 문제처럼 보인다. 두번째는 당신들에게 강대하고 상업적으로 매력적인 이웃인 中國과의 무역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東西貿易의 法律的 문제는 두가지 다른 法的 기준 위에서 發展되어 온 것 같다: 東西貿易은 무역실행의 조건을 요약한 國際公法下的 協定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은 經濟問題에 관한 계약에 의해 私法下에 해결되고 있다. 이 구분은 서방체계에 고유한 국가와 경제의 분리원칙에 따라 만들어져 있다. 1) 그러나 社會主義國家에서도 法學은 國際公法과 國際私法을 구분한다. 2) 國際관계에서 발생하는 法律問題는 國際公法의 범주에 속하는 한편, 國際水準의 個別 國民과 組織사이에서 발생하는 法律問題는 國際私法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진다. 두 당사국의 이러한 법률구분은 國際公法에

---

1) cf. Beck, p. 85.

2) cf. e.g. Malinin

관한 소련의 전문가인 우센코(Usenko)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의 경제 관계의 근본적인 法律形態는 國際慣例이다. 외국무역 조직체사이의 경제 관계의 근본적인 法律形態는 外國貿易協定이다.”<sup>3)</sup>

自由市場經濟에 적응되어 있는 서방국가들에 있어서 私的 企業과 事業은 外國貿易관계의 담당자이고 주체이다. 副次的인 중요성만 있는 정부기업은 제쳐둔다. 國家는 단지 전체적 구성만 형성하며 따라서 國民經濟의 이익은 外國貿易 및 去來의 범주 속에서 보호되어 질 수 있다.<sup>4)</sup> 經濟와 公共政策에 관련하여 최초의 상이한 위치는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예방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sup>5)</sup> 公法下의 特別한 규칙이 國營貿易國家(state-trading countries)와의 통상에 있어서 필요하다. 게다가 그러한 체제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상이 오늘날까지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다.<sup>6)</sup>

## II. 公 法

### 1. 東邦블록國家와 貿易에 관련된 輸出規制

#### a. 戰略的 輸出禁止

소위 전략적 수출금지서 방축이 國營貿易國家(state-trading countries)에 자체적으로 부과한 가장 중요한 輸出에 대한 제한 조치이다.

우선 그것의 法律的 基礎는 1949年 미국에서 입안된 “輸出調整法”

---

3) Usenko, p. 109.

4) Pfeffer, p. 47.

5) Pfeffer, bc.cit.

6) Beck, p. 86.



( External Control Act )이었다. 이 法에 의해 대부분의 軍需物資가 포함되는 목록이 작성되었으며 소련과 그 동맹국에로의 수출이 금지되었다. 7) 1950年6月25日 韓國戰爭의 발발에 뒤이어 이 法の 포함범위인 “戰略的 重要性이 있는 물자”는 거의 모든 제조품과 원료로 확대되었으며 따라서 輸出禁止는 마침내 전반적인 輸出禁止令과 동일해졌다. 8) 동시에 전반적인 수출금지令은 中華人民共和國에도 적용되었으며 이것은 1972년까지 持續되었다. 東部유럽에 대한 輸出禁止는 훨씬 더 持續되었다. 9) 美國은 그들의 同盟國들에게 특히 유럽의 同盟國들에게 戰略的 輸出禁止를 공동부담하기 위해 마샬 플랜에 부가된 조항으로써 強要하였다. 美國 大統領은 1951년부터 이른바 戰爭法( Battle Act )에 의해 特別目錄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 물자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국가와, 중공, 북한, 쿠바에 수출하는 國家로부터 즉시 모든 經濟的, 金融的, 軍事的 지원을 철회해야만 하게 되어 있다. 10) 그러나 中華人民共和國에 대한 輸出禁止는 대폭 완화되었다. )

東邦블럭에 대한 輸出이 금지되는 따라서 輸出禁止目錄에 포함되는 물자는 소위 자문그룹( CG )과 부속된 대공산권 수출통제 위원회(COCOM)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적 위원회로서 1949年11月 美國에 의해 설립된 자문그룹은 소련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에게 공동 조정된 서방의 상업적 통제를 설정할 것을 의도하였다. 11) 아이슬랜드를 제외한 모든 NATO 회

7) *Lambers*, p. 26 and following pages.

8) *Beck*, p. 89.

9) *Beck*, bc.cit.

10) Counc. the relevant documents, see *Lambers* loc. cit., p. 9 and following pages.

11) *Pfeffer*, p. 49 and the following page.

원국과 프랑스, 일본이 여기에 참가하고 있다.

1952년부터 1957년까지 中華人民共和國과 北韓에 대해 輸出禁止를 관리하는 중국위원회(CHINCOM)가 존재하였다. 1957년에 그 위원회는 해체되었고 일반적인 COCOM의 통제가 그 위원회의 통제 능력을 대체하였다. 12)

CG는 일반적으로 輸出이 금지되어 있는 물자의 國際的 目錄과 주의감은 감독을 받는 상품을 포함하는 또 다른 目錄을 작성하고 있다. 게다가 CG는 COCOM을 통해 목록과 재수출 절차를 조절하고 면세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國際的 協定은 상응하는 法律制定으로 전환된다. 獨逸聯邦共和國에 있어서는 다음의 절차가 적용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모든 輸出禁止商品은 輸出制限을 받게 된다. 國營貿易國家에 대한 輸出禁止를 감독하기 위해, 非國營貿易國家(non-state-trading countries)에 대해서는 輸出이 당연한(軍事裝備 輸出調節에 관한 法律에 의해 긴장이 감도는 지역에 대한 武器輸出制限과 같은 특별한 제한은 제외됨) 輸出禁止商品의 輸出에는 승인을 필요로 한다. 관련이 있는 규정은 對外貿易法(External Trade Act)이다. 이법에 의한 승인은 정부가 조직한 관계 당국(즉 land authorities for the economy)이 하게 된다. 그러나 28항 제3절에 의하면 貿易 및 産業의 聯邦事務局과 聯邦運輸省이 특별한 규정이 주어진다면 허가 발행을 담당할 수 있다.

對外貿易法은 國營貿易國家로 輸出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물자에 대한 상품목록이 부록에 첨가되어 있다. 관련된 부록은 다음과 같다.:

---

12) Pfeffer, p. 51.

군사무기 탄약, 군사장비는 목록A이고 원자력 에너지는 목록B이고 다른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상품은 목록C 이다.

이러한 規定은 第三國을 통하여 東邦블록국가로 수출금지품목이 흘러 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게끔 되어 있는 標準化된 國際再輸出과 通過貿易 관리에 의해 수행되어 질 수 있다. 관련되는 法律은 對外貿易法과 부록의 商品目錄이다.

b. 獨逸聯邦共和國과 東獨 사이의 特別協定

對外貿易法과 輸出禁止規定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동독사이의 貿易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獨逸聯邦共和國의 법률적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은 對外貿易도 아니고 단순한 對內貿易도 아니며, <sup>13)</sup> 독일분단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sup>14)</sup> 이러한 관계 때문에 특별협정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들은 실행 가능한 법령을 포함하는 지역간의 貿易協定이며, 1951年 7月 9日부터 시행되는 지역간의 감독법령이다. 이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들의 법적 근거는 戰後 期間에서 비롯되는 연합국정부가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모든 지역간의 무역은 승인을 받게끔 명하였다. <sup>15)</sup> ; 그러나 이 규정은 자본과 재화 및 용역의 수출이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對外貿易法의 1항에 반대된다. 內獨貿易에 있어서 문제시 되는 상품이 東獨

---

13) Cf. the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Vol. 18, p. 353 following pages (354)

14) *Ehlermann/Kupper*, p. 147.

15) See art 1 of the Military Government Law No. 54 of Sept. 19th, 1949.

였다. 그러나 이 기간중 대일수출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그에 따라 對日貿易赤字는 1978年의 76.5 백만달러로부터 200.9 백만달러로 크게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北韓의 對日貿易 수지악화는 對日債務不履行問題를 다시 초래함으로써 1983年 日本은 北韓의 對日 負債償還을 3年6個月 延長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表 10〉, 〈表 11〉은 北韓의 對日貿易의 전반적인 상품구조를 나타내 주고 있다. 北韓의 對日貿易 輸出은 1983年의 경우 126.15 百萬달러이며 이 중 비금속, 동물성 생산품, 광산물 및 채소가 각각 28.2%, 25.2%, 14.2% 그리고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이 수출총액의 81.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北韓의 對日輸入은 1983年 327.8 백만달러로서 이 중 약 50%가 기계류이며 화학제품과 프라스틱 제품이 수입총액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1985년에 와서는 北韓의 對日貿易面에 또다른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즉, 〈表 10〉 및 〈表 11〉에서 알수 있는 바와같이 1985年의 前半期中 北韓의 對日輸入은 前年同期에 비해 5%가 감소된 반면 對日輸出은 29.4%나 크게 증가하여 輸入・輸出間의 격차가 15.4 百萬달러로 좁아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北韓의 對日貿易均衡의 극적인 향상은 金과 銀같은 귀금속의 輸出이 상당히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北韓의 귀금속의 대일수출은 前年同期에 비해 59%나 증가되었고, 특히 金の 對日輸出은 70%나 증가되었다.<sup>12)</sup>

이와같은 새로운 종류의 운동이 금년후반기에도 계속될 것인지는 분명하

---

12) Japan-North Korea Trade Association, *Japan-North Korea Trade* (Weekly), August 10, 1985, p.7.

지 않다. 그러나 北韓은 西方先進國들중에 가장 큰 貿易對象國으로서 日本과의 貿易을 계속 유지하는데 최우선권을 줄 것은 분명하다.

〈表 10〉 北韓의 對日 輸出

(單位: million US\$ and %)

	1980		1983		1985(1-6)		
	value	ratio	value	ratio	value	ratio	rate of increase
animal products	26.05	14.5	32.22	25.5	13.68	14.5	3.7
vegetable products	8.32	4.6	16.47	13.1	4.99	5.3	9.0
food and beverage	5.60	3.1	7.05	5.6	2.29	2.4	(-) 68.1
mineral products	41.24	22.8	18.12	14.4	8.82	9.3	6.9
chemical products	0.39	0.002	4.13	3.3	0.60	0.6	(-) 64.0
textile yarn, fabrics and their products	13.36	7.4	9.83	7.8	3.14	3.3	(-) 35.1
precious metal (gold and silver)	0.96	0.5	0.02		30.25	32.0	59 fold
non-ferrous metal and its products	84.56	46.8	35.61	28.2	29.98	31.7	(-) 6.6
others	0.81	0.004	1.67	1.3	0.75	0.9	51.2
total	180.05	100.0	126.15	100.0	94.50	100.0	29.4

資料: *Ministry of Finance of Japan* (1980 and 1983) and *Japan-North Korea Trade Association* (1985).

증 되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국가는 資産의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만성적인 外換의 부족(外國資本流入의 금지에 의해 악화된 문제임) 19) 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長期的으로 對外貿易金融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창조하며, 이것은 서방국가의 은행에 의하여 채워질 수가 없다. 게다가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輸出은 정치적 위험을 포함한다. 20) 이러한 輸出信用을 증진시킬 주요 수단은 獨逸聯邦政府가 信用保險을 부여하는 것이다. 政府는 Hermes 신용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보증을 해주고 있다.

### 3. 東邦貿易에 관련된 輸入制限

西邦의 태도에 의하면, 經濟的 및 政治的 必要性에 의하여 國營貿易國家의 財貨에 대한 輸入制限이 필요로 한다. 獨逸聯邦共和國은 輸入財貨의 점을 제한하기 위해 많은 지시를 내렸다. 한편으로 이러한 規制는 흥정가격으로 國營貿易國家로 부터 輸入에 의해 市場의 供給過剩을 방지하기 위해 생겼으며, 21)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制限들은 獨逸聯邦共和國의 自由體制와 양립할 수 없는 外國經濟體制가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제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피하게끔 되어있다. 22)

또한 양적인 輸入制限은 社會主義國家에 대항하는 서방의 정치적 도구로써, 輸入쿼터를 부여하는 댓가로 정치적 양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증되었다.

---

19) *Pfeffer, loc. cit.*

20) *Pfeffer, loc. cit.*

21) cf. the official explanation of Section 6 Extional Trade Enactment in document No. 2837/1961 of the Bundestag.

22) Section 2, §6 of the External Trade Enactment.

#### 4. 國際公法下的 條約

동방과 서방의 경제적 협력에 관한 國際公法下的 協定の 고전적 형태는 양측의 條約이다. 영국과 그당시 RSFSR이라고 불리던 혁명 러시아 사이의 商業條約은 1921年 3月 3日로 거슬러 올라 간다. 쌍방조약은 대부분 商業條約(또한 *friendship*, 상업과 항해 조약이라고 불림) 貿易條約, 協力協定, 支拂協定, 信用協定과 去來規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쌍방조약은 양측 권리(예로서 이종과세협정협약과 투자보호에 관한 협약)의 특수 문제에 대한 조약처럼 보인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社會主義國家사이의 유일한 포괄적인 商業協定은 정부사이에 批准된 형태인 1958年 4月 4日부터 발효된 獨逸-蘇聯간의 商業 및 航海 條約이 있었다.<sup>23)</sup>

#### 5. 貿易協定

貿易協定은 商業條約 만큼의 많은 일반적 規定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계약 당사자 사이의 財貨의 교환, 交換量의 조정, 政府間 貿易의 構成과 調整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60년대의 後半과 70년대의 前半에 聯邦共和國은 많은 社會主義國家와의 貿易協定에 서명을 했다.<sup>24)</sup> 주요 論指는 特別目錄에 종류와 수량이 상술된 어떤 財貨의 輸入과 輸出을 승인하는 相互協定에 관한 것이었다. 이 협정은 特別支拂規約으로 끝난다.

1974年 12月 31日에 獨逸聯邦共和國과 國營貿易國家사이의 모든 쌍방 무역 협정은 소멸되었다. 1973年 1月 1日 이후로 유럽공동체(EC)는

---

23) Federal Law Gazette 1959, 11, p. 222.

24) See Beck, p. 188 and following pages.

CMEA國家들과 모든 장래의 貿易協定 체결에 가장 적임이었다. <sup>25)</sup> 貿易協定の 부족으로 現狀態에서 발생하는 결함은 유럽경제 공동체의 3286 / 80 규칙에 의해 채워 진다. 이 규칙의 틀 내에서 非自由化 財貨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작성할 수 있다. 비록 모든 쌍방 貿易協定은 형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移轉에 관한 規制는 다른 동등한 규제조치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體制間 貿易을 위한 주요 지침으로써 실질점으로 가능할 수 있다.

1974年 11月 11日 유럽 공동체 위원회는, 國營貿易國家와의 미래 무역협정의 기초로써 사용되어 질 수 있는 협정 체제를 통과시켰다. 國營貿易國家에게는 이 문제에 관해 협상에 응하게끔 제의되어 졌다. 그 제의에 긍정적으로 응한 첫번째 사회주의국가인 1975年 5월에 中華人民共和國이었다. 1975年 9月 중순에 중국의 외교사절이 유럽 공동체에 파견되었다. 1978年 4月 3日에 쌍방 貿易協定이 유럽 경제 공동체와 中華人民共和國(이런 종류의 협정에 서명한 최초의 그리고 지금까지 유일한 國營貿易國家이다) 사이에 체결되었다. 그것은 1978年 6月 1日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sup>26)</sup> 최근에 중국의 수상 鄧小平이 중국의 人民日報에 貿易協定에 대한 그의 평가를 나타내었다. 그는 유럽공동체의 輸出은 中國의 全輸入의 12%에 달했는데 반해 유럽 수입에 중국의 몫은 0.4%에 불과하다고 비평하였다. 鄧小平에 의하면 中華人民共和國도 中國의 몫이 공정한 수준으로 증가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sup>27)</sup>

25) Art. 113 of the Treaty of Rome .

26) Official journal No.L 123 of May 11th, 1978.

27) Information Nr. 1445 of the German Press agency (dpa) from May 7th, 1985.



## 6. 獨逸聯邦共和國과 東獨 관계에 있어서 特徵

연방공화국과 동독 사이의 관계는 특별한 규칙이 필요하다. 獨逸聯邦共和國은 1957年 3月 27日 EEC條約<sup>28)</sup>에 東獨의 영토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EEC條約의 113조항은 두 獨逸사이의 商業條約에 적용되지 않는다.<sup>29)</sup> 그들의 經濟的 交流는 1951年 9月 20日의 베를린協定에 여전히 기초를 두고있다.<sup>30)</sup> 協定當事者들은 西獨과 東獨의 外國 무역부를 대신한, 베를린에 所在하는 지역간 무역신임국(TSI)이다. TSI는 聯邦經濟省의 산하에 있고 오늘날까지 內獨貿易의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sup>31)</sup> 1951년에 경제발전의 豫상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들은 中립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동의했다. ; 서베를린을 포함하는 연방공화국은 독일마크(DM)통화지역이라 부르고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마르크 통화 지역으로 불리워진다. 추가된 의정서에도 불구하고, 비록 동독의 용어는 동독마크통화지역으로 바뀌었지만 이러한 용어는 오늘날 까지 유지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의 법률적 성격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주로 財貨의

---

28) *Ehlermann/Kupper*, p. 210.

29) 1965年 4月 8日에 유럽원자에너지공동체(EAC)와 유럽석탄강철공동체(ECSC)를 가진 EEC가 유럽공동체(EC)로 합병함에 따라 EEC란 용어는 공식적으로 없어졌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예를들면 EEC 조약처럼 여전히 사용된다.

30) Published in the Federal Gazette No. 186 from Sep. 20th, 1951.

31) Cf. the answer by state secretary Schlei in the Bundestag in Sep. 1974; report of the Bundestag from Sep. 19th, 1974, p. 7731.

交換을 결정하는 것은 실질 商業協定도 아니고 순수한 貿易協定도 아니다. 베를린 協定은 독일 대 독일의 관계처럼 독특하다. 그것은 租稅와 關稅의 면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은 상호간의 최혜국 약관보다 훨씬 호혜로운 것이다. 거래의 規定이 協定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인도되거나 획득되는 財貨의 모든 支拂은 연방은행 - 각각의 중앙은행의 尙書 계정에 기록되어야 한다. 32)

동독과 독일연방공화국의 당사자 사이의 직접 지불은 승인되지 않는다. 동독은 연방공화국에 의해 특정한 액수만큼 尙書계정에서 借越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Swing이라고 함). Swing은 베를린 協定의 VIII항에 부가적인 의정서에 의해 주기적으로 새롭게 결정된다. 1985年 7月 5日에 獨逸聯邦共和國과 東獨은 1986年부터 1990년까지는 Swing을 850 청산단위 (=DM)으로 고정하는데 동의했다. 33)

## 7. 協力協定

데탕트 政策의 과정에 있어서 이미 언급한 형태와 다른 새로운 종류에 협정 (長期協力協定)이, 70年代이후로 政府間 水準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성을 얻고 있다. 그것은 체재의 차이에 의해 전통적인 東西貿易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임이 판명되었다. 外換의 계속적인 不足과 비교적 融通성이 없는 정부가 조정하는 경제체재는 ( 동방무역의 약점인데 ), 동서협력의 배경하에 유지될 수 있다. 게다가 協力을 통하여 전통적인 外國貿易보다 東西經濟交流에 주어진 가능성의 보다 나은 발

---

32) Enclosure No. 8 to art X1 of the Berlin Agreement.

33) Information of the dpa from Jul. 5th, 1985.

전을 성취할 수 있다. 東西經濟交流의 필요는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 훈련과 사후 서어비스가 요구되는 완벽한 산업설비의 건설과 같은 계획으로 점점더 이동해 가는 것이 위 사실에 대한 이유이다. 34) 古典的 貿易協定과 비교하여 協力協定은 총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經濟協力에 더 넓은 영역을 제공한다.

70년대 초반 이후로 獨逸聯邦共和國은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東獨을 제외한 모든 國營貿易國家와 政府 水準의 協力協定을 시작하였다. 35)

수년 후에 中華人民共和國은 가장 協力할 의향이 있는 社會主義 國營貿易國家로 나타났다. 1978年 10月 9日에 과학과 기술 협력에 관한 協定이 체결되었으며 36) 1979年 6月 19日에 지질 과학과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協定에 서명하였다. 37) 이 協定은 공동 에너지 연구 38)와 광석 생산에 관한 공동조사 계획 39)의 실현에 관한 부가적인 합의와 항공, 항해, 원자 에너지등에 관한 표준 협정에 의해 완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여름에 중국의 수상 조 자양이 본을 방문했을

---

34) Beck, p. 275.

35) 예를들면 1973년 5월 19일 경제, 산업과 기술협력의 발전에 대해 소련과의 협정에 서명했다. (Federal Law Gazette 1973, 11, p. 1041 and following pages)

36) Federal Law Gazette, 1978, 11, p. 1526 and following pages.

37) Federal Law Gazette, 1979, 11, p. 977 and following pages.

38) Federal Law Gazette, 1980, 11, p. 61 and following pages.

39) Federal Law Gazette, 1980, 11, p. 65 and following pages.

때, 양측의 경제에 의해 긴급하게 필요했던 이중과세협정이 서명되었으며 獨逸聯邦共和國에서는 현재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문제에 관한 협력에 관련하여 유럽 공동체 회원국과 국영무역국가 사이에 쌍방협력협정은 貿易協定에만 적용되어 질 수 있는 로마條約의 113항(E E C조약)이라는 유럽 공동체의 규제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40)

### Ⅲ. 國際私法

#### 1. 去來當事者

協約과 法律制定에 의해 私企業이 外國과 貿易 및 經濟協力을 할 수 있는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外國貿易을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 무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국가의 손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외국 무역은 특별히 정부의 對外貿易省에 의해 관리되어 진다. 41) 외국 무역의 주요 담당자와 서방기업들에 대한 거래 당사자는 외국무역을 하는 국영회사이다. (현재에 東獨에는 32개 對外貿易國營企業이 존재하며, 이 기업들이 적정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된 할당량에 따른 輸出入量을 담당한다. 42) )

對外貿易企業은 그들 자체의 이름으로 계약에 서명을 하고, 국가와 통합된 관련이 있는 기업 관계로써 서명하지 않는다. 對外貿易去來에 있어서 그들의 자산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정부의 부채에는 책임이 없다. 43)

---

40) Joerges/Kuhne, Vol. 11, Stat.-Trading Countries, p. 111.

41) Cf. Beck, p. 58.

42) Lieser-Triebsaigg, p. 22.

43) Beck, p. 59

國營對外貿易企業은 자국내의 판매조직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국내의 생산기업과 함께 輸出商品의 획득, 특히 국내 판매시 輸入商品의 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 받는다. 44) 이것은 다소 곤란한 메카니즘이므로, 여러 해 동안 폴란드, 헝가리와 루마니아에서는 對外貿易면허를 가진 소수의 생산기업이 인정되었다. 45) 中華人民共和國은 좀더 훌륭한 해결책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 비록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의 독점은 지금까지, 불변이지만, 외국 무역에 대한 권한은 점점더 분권화 되고 있다. 이전에는 단지 10 개의 國營對外貿易企業이 전 중국을 통해 인정되었으나 요즘은 國家政府뿐만 아니라 북경에 위치한 정부부서와 관계당국도 外國貿易을 허가할 수 있다. 46)

東西協力協定에 있어서 외국 무역을 담당하는 국영회사가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로 기능한다. 47) 中華人民共和國에서는 서방기업과 거의 40 만개의 산업체와의 직접 계약이 인정되어 진다. 48)

## 2. 東西契約當事者에게 적용되는 法

外國貿易과 協同事業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가 하는 의문을 야기한다. 근본적으로 國營貿易國家와의 貿易協定은 國際私法下的 다른 協定과 똑 같은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 만약 特別協定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률조

44) Beck p.40, Pfeffer p.21.

45) cf. art. 7 of the Rumanian External Trade Act. Section 4 of the Hungarian External trade Act. Ofer of the Council of Minste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Poland from Dec. 7th, 1968.

46) Trade journal No. 189 from Sep. 30th, 1983.

47) Beck, p. 419.

48) Jaschek, p. 2.

문간의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sup>49)</sup>

예를 들면 : 1976年부터 발효된 국제경제 협정에 관한 東獨法律의 제 1 절에 의하면 이 法律은 계약 당사자가 東獨法律의 유효성에 동의할 때 적용되어 진다. 그러나 어떠한 동의도 없을때 또한 관련된 법률 대립에 관한 규정이 東獨의 法律에 따르도록 결정될때 역시 적용된다.

그러나 어떤 協定과 契約의 自由는 國營貿易國家의 立法의 고유한 狹意의 공공정책 조항에 의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소련 법률에 의하면 만약 소련 경제체제와 국가 계획에 위배된다면 그계약은 이미 무효이다.<sup>50)</sup> 종종 東西의 商業的 去來와 책임은 제 3 국의 法律이 적용될 수 있다. 즉 獨逸聯邦共和國의 합법적 실체와 소련의 對外貿易企業 사이의 계약은 스웨덴과 스위스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sup>51)</sup> 거래는 당사자가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결정할 권한은 協力協定에 나타나 있으며 근본적으로 거래 당사자는 자유로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法을 선택할 수 있다.<sup>52)</sup> 그러나 일반적 법률의 선택함은 中華人民共和國의 사업 상대에 의해서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sup>53)</sup> 반면에 중국의 법은 계약 당사자에 강제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은 어떤 법률절차에 일임되지 않는다. 즉 어떤 법률적 절차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중국이나 어떤

---

49) Cf. *Beck*, p. 221

50) See *Beck*, p. 221 for statutory interpretation of art. 30 of the Soviet principles on Civil law.

51) *Beck*, p. 222.

52) *Beck*, loc. cit.

53) See trade journal from Oct. 21st and 22nd, 1983, *Jaschek*, p. 19.

다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쟁이 생길 경우에 당사자들은 어떤 법률절차가 적용되든 간에 중재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중재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시오)<sup>54)</sup>

3. 서방과 경제 교류의 전제 조건으로써 中華人民共和國의 법률 규정 협력 계획 (예를 들면 1982年 6月 8日 상하이 트랙터 및 자동차 회사에서 폴크스바겐 회사에 의한 600대의 폴크스바겐 산타나의 시험적 조립 생산에 관한 중국-독일의 계약)은 國營貿易國家들 내부에서 성립되므로 우선 필요한 법적규정에 통과해야 한다.

1979年 이전에는 서방 기업과 中華人民共和國 사이에 협력의 법률적 근거는 다소 불확실 했다. 그러나 鄧小平이 “사대 근대화”를 시작한 후로 이 불확실성은, 서방의 자본소유와 경영참가를 하는 합작투자를 인정하는 1979年 7月 1日 부터 발효되는 “합작투자에 관한법규”에 의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외국기업의 투자 행위는 1982年 12月 새 중국 헌법에서 구체화 되었다. 헌법의 제18항은 中華人民共和國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외국의 기업이나 여타 경제기구 혹은 개인이 중국에 투자하거나 다른 형태로 중국의 기업이나 경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의 합작기업과 중국에서의 외국의 소유권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과 여타 경제기구는 中華人民共和國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中華人民共和國의 法律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것은 여타 社會主義國家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러나 현실로 나타났듯이 中華人民共和國은 무역과 투자 상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행위의 개념에 그 원인을 두었다. 즉 서방의 견해에 따른 면허와 특허가 지적

---

54) *Jaschek, loc. cit.*

재산이라는 것을 중국측 상대가 믿는 것은 다소 어려웠다. 中華人民共和國은, 기술지식을 중국측 상대에 양도하는 것이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즉 經濟協力을 통해 수입되는 中華人民共和國으로의 기술이전은 서방측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험이 포함됐다. 왜냐하면 계약상의 보증을 넘은 특허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의 많은 기업은 기술협력과 합작기업의 설립에 관한 중국측의 다수의 제의를 받아 들이는데 주저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술이 거대한 중국시장에서 어떤 규제도 없이 모방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은 1984年 5月 12日 중국의 특허와 실용 신안법에 관한 법에 의해 거의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런 법률제정은,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련 특허법의 원리를 따른 것은 아니다. 소련 특허법은 모든 社會主義企業들이 대가없이 특허를 사용하는 소위 발명가의 면허 체계 (inventor's certificate system) 위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의 特許法은 서방의 특허법을 유사하게 따르고 있다. 특히 중국의 특허법은 특허와 발명가의 면허를 구분하지 않으며, 自國과 外國 發明家에게 배타적으로 특허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분야의 법률적 불확실성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어지고 있다. 中華人民共和國은 1985年 3月 19日부터 유효한 산업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paris co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북서로 부터 특허와 등록상표의 보호를 규정함 - 에 가입하였다. 特許權에 관한 중국의 새 법은 1985年 4月 1日에 실시되었다.



#### 4. 外國貿易中裁

계약의 상호 책임에 관한 獨逸聯邦共和國측의 경제 상대와 社會主義國家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서독 법정의 판결이 -서독법정에 재판권이 있던 없던 - 國營貿易國家에 의해 인정되거나 실행되어 지지 않는다. 55) 예를 들면 폴란드인민공화국에서는, 판결의 상호 인정과 실행에 관한 계약은 폴란드와 그 판결이 통과된 국가 사이에 서명된다는 것이 외국 판결의 인정과 실행의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이 재판권을 가진 폴란드 법정은 외국 판결이 집행됨을 선포한다. 이 때에 부정할 어떤 이유 (예를 들면 공공 정책의 조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獨逸聯邦共和國과 폴란드 사이에는 그러한 條約은 아직 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송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폴란드 법정에서 일어나야하므로 독일 재판권을 규정하는 것은 추천되어 질 수 없다. 독일연방공화국과 폴란드인민공화국 사이에서 나타난 이러한 법률적 지위는 다른 國營貿易國家와의 관계에서 동일하다. 56)

國營貿易國家의 법률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분쟁이 일어날 경우 자유로이 CMEA 국가들이 관련된 법정이나 중재재판소 혹은 그들이 원하면 외국 법정이나 중재 법정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중재 재판권에 동의하거나, 소송을 CMEA 국가의 중재 법정이나 외국상업회의소의 제도적 중재 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57)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 때문에 중재에 관한 구절은 경제문제의 모든 계약에 부가되어 있다. 국가법

---

55) Waehler, in: Lange-Prollius, p. 172 and following pages.

56) Waehler, loc. cit., p. 178.

57) Pfeffer, p. 41.

정의 재판권을 배제하고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내는 이유는, 중재소송절차의 잇점 때문이다. 첫째, 선정된 중재자가 행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빨라 비용이 적게 든다. 중재는 최종적, 결론적 판결이라는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단계의 항소를 거치는 국가 법정에서의 법률소송과 비교하여 중재의 다른 잇점이다. 중재구절을 체제간 계약에 포함시키는 다른 중요한 이유는, 당사자의 사업관계에 마찰을 감소시키고<sup>58)</sup> 중재 소송절차에 있어서 가능한 형식을 피하며, 외국에 있어서 중재의 실행을 편리하게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재구절은 중재 재판소의 권한을 결정한다.<sup>59)</sup> 상임 중재법정은 社會主義國家에서는 무역회의소나 상업회의소에 설치되어 있다.<sup>60)</sup>

중재재판소와 적용될 법률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사자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sup>61)</sup> 中華人民共和國은 북경에 있는 외국무역 중재협정(F-ETAC)이 재판권을 관할하는 협의를 지지하나 국제적으로 용인된 중재(예를 들면 쥐리히 상업회의소나 파리의 국제상업회의소)에 기꺼이 동의하기도 한다. 소련과 서독기업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때는 스톡홀름에 있는

---

58) 예를들면 만약에 중국과 독일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중국측은 국가 법정으로 가지 않고 항상 우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단지 最惡의 경우에만 중재 재판소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은 뿌리 깊은 중국인의 화합성격에 기인한다.

59) *Back*, p. 239.

60) *Pfeffer*, p. 41 following pages, *Waehler*, in: *Pfaffer*, p. 432, e.g. the Soviet Union.

61) Cf. art. 126 of the Principles of Cival Law of the Soviet Union and the Soviet States.

중재 재판소에서 재판하는데 종종 합의하였었다.<sup>62)</sup>

獨逸聯邦共和國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社會主義國家들은 외국 중재재판정의 認定과 施行에 관한 UN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sup>63)</sup> 중재판정은 양측에서 실행될 수 있다. 오늘날 까지 중재판정을 시행하는데 언급할 가치 있는 문제는, 서독의 무역상대인 사회주의 국가에게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주로 이런 종류의 문제를 가진 체제간의 무역에 있어서의 호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는 상호간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다.

---

62) Beck, p. 247.

63) Cf. Pfaff, p. 37 and following pages.

## Literature

*Beck* Dieter, Das Recht der Ost-West-Wirtschaftsbeziehungen -  
Handel und Kooperation, 1. Aufl. 1984, Baden-Baden.

*Ehlermann* Clause-Dietor/*Kupper* Siegfried/*Lambrecht* Horst/*Ollig*  
Gerhard, Handelspartner DDR - Innerdeutsche Wirtschafts-  
beziehungen, Schriftenreihe Europäische Wirtschaft, Bd.  
76, Baden-Baden, 1975.

*Jaschek* Stephan, Die Kooperations - und Investitionsbedingungen  
Organisation und Arbeitsweise. Abhandlungen zum Ostrecht,  
Bd. 15, Koln, 1978.

*Malinin* S.A., Die friedliche Nutzung der Atomenergie.  
Volkerrechtliche Fragen, Moskau, 1971.

*Pfaff* Dieter, Die Außenhanddsschiedsgerichtsbarkeit der sozialist-  
ischen Landern im Handel m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ter Berücksichtigung des Internationalen  
Privatrechts, Heidelberg 1973. in der Volksrepublik China,  
Schriftenreihe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 und Recht  
der Volksrepublik China, August 1984.

*Juerges* Harald/*Kuhne* Rudolf, Außenwirtschaft und Interzonenver-  
kehr, Loseblattsammlung in 6 Banden.

*Lambers* H.J., Das Ost-Embargo-Dokumentensammlung, Frankfurt  
a.M., 1956.

- Lieser-Triebnigg* Erika, Das Recht des Außenhandels in der DDR.
- Pfeffer* Joachim, Der rechtliche Rahmen des Wirtschaftsverkehrs mit den RGW-Ländern. Studien zum internationalen Wirtschafts - und Atomenergierecht, Bd. 60, 1978.
- Usenko* E.T., Sozialistische internationale Arbeitsteilung und ihre rechtliche Regelung, Berlin (Ost), 1966.
- Waehler* Jan-Peter, in: Horst Lange-Prollius, Praxis des Ost-West-Handels. Die Wirtschaftsbeziehungen 1977-1990, Dusseldorf/Wien, 1977.
- Waehler* Jan-Peter, in: Pfaff, S.O.

## 第 2 章 CMEA 國家들의 對西歐 貿易

### - EC를 中心으로 한 그의 發展 -

Peter Knirsch  
(백림自由大 經濟學 教授)

#### I. 論爭의 性격을 띤 東西貿易

지난 몇년 동안에 東西經濟關係<sup>1)</sup>의 대단히 論爭的인 성격이 다시 뚜렷해졌다. 즉, 1970 年代末에 시작된 東西間의 政治的 關係의 惡化와 함께 全世界의 經濟的 침체로 말미암아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相互間의 貿易과 金融關係가 특히 脆弱點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明確히 보여 준 것이다.

東西間의 經濟關係가 항상 論爭의 주제가 되어 왔고, 문제로 가득차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체제간의 關係이기 때문인데, 이들 체제간의 차이가 더욱 깊은 政治的 對立의 基礎를 형성하고 있으며, 초강대국인 蘇聯과 美國間의 關係가 특히 그러하다.

이 論文은 兩 체제의 東西貿易에 關한 態度를 分析하려고 한다. 우리가 앞으로 考察하겠지만, 그러한 態度들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 자주 變化되어

- 
1. In this paper the seven European members of the CMEA (the Soviet Union plus the six "smaller socialist countries" Bulgaria,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Poland, Romania, Czechoslovakia, and Hungary) are considered to be the "East," while the "West" is viewed as the developed industrial nations who cooperate in the OECD,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the larger West European countries, Canada, and Japan.

왔고, 또한 과거에는 이러한 國際經濟關係部門에 있어서의 實際的인 發展은, 東歐에서는 政策立案者들과 經濟官吏들에게 그리고 서구에 있어서는 政治 지도자는 勿論 企業家들에게 달려 있었다. 따라서 이 研究의 目的은 東西 經濟關係의 現在狀態를 說明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西歐의 貿易을 考察해 볼 때, 지난 수십년동안의 유럽공동체 (EC)의 統合 過程은 特殊한 條件들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들은 마지막 部分에서 考察되어질 것이다.

## II. 東歐와 동남유럽국가들의 대서구무역에 대한 態度

### 1. 依存에 대한 역사적인 두려움

東歐 共產主義 國家들의 西歐産業國家들과의 經濟關係에 대한 態度는 아마도 역사적 觀點에 의해서만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兩次 世界大戰 期間동안 유일한 社會主義 國家<sup>2)</sup>였던 蘇聯은 敵對的이라고 여겨지는 資本主義 國家들에 의해 포위되었었다. 蘇聯은 그 낮은 經濟發展水準때문에 이 期間동안 西歐와의 經濟關係가 절대적으로 必要했다. 한편 同時에 10月 革命以後 1917年부터 1921年 동안의 西歐의 經濟封鎖와 일반적인 經濟的 적대심을 경험한 蘇聯은 西歐와의 무역에 經濟的으로 예속될지도 모른다는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 
2. The concepts "socialist" and "socialism" are employed here in accordance with their customary usage in the CMEA area, without judging them and without differentiating among the the developmental phases of this social system.

공식적으로는 對外貿易과 外換에 대한 國家의 獨占이 그러한 예측을 막는 適當한 保護措置라고 認定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러한 主張은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對外貿易關係에 대한 政府規制의 確實히 廣範圍한 能力은 絶대로 輸入의 긴급한 必要나 이와 關係된 依存을 除去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2次世界大戰以後 蘇聯의 체제는 1949年の 中國은 勿論이고 蘇聯과 國경선을 같이하는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등 中央・南東유럽의 작은 國家들로 퍼져갔다. 世界經濟에 있어서의 소련의 位置에 對한 근본적인 變化의 結果로서 이제 더이상 소련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되는 나머지 世界에 의롭게 對항하지 않고 같은 체제를 가진 國家들을 한 편으로 가지게 된 것은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의 結果이며, 어느정도 믿을 만한 同盟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1948年에 유고슬라비아, 1961年에 中共, 알바니아와의 關係가 깨지고, 한편 1962年の 몽고, 1972年の 쿠바, 그리고 1978年の 베트남등 세 비유럽 發展途上國들이 追加 一적어도 CMEA의 회원으로서 一 되는 등 時間의 흐름에 따라 國家群의 구성이 다소 變化하기는 했지만 이 國家들의 모임은 오늘날에도 아직 存在하며, 그들 相互間的 그리고 西歐工業國家들과의 경제적 關係는 소위 一般的으로 알려진 東西經濟關係라는 것을 構成하고 있다.

스탈린은 이러한 東西經濟關係의 發展을 “統合된 世界市場의 崩壞” 로 特徵지웠다. “두 개의 對立하는 陣營이 存在하는 것에 對한 經濟的 結果는, 통합되고 包括的인 世界市場이 무너지고 그 結果로 두 개의 비슷한



市場이 생겨난 것이다.”<sup>3)</sup>

유럽이 두 개의 적대적인 신영으로 나뉜 것은 蘇聯의 대서구 經濟的 依存에 대한 念慮를 緩和시켰을 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不安은 全體 社會主義 진영의 對西歐 經濟關係에 影響을 주었다. 西歐와의 貿易에 對한 소련의 傳統的인 회의주의는 1947-1949년 이래 유럽이 分割되는 동안에 커졌고, 韓國戰爭동안 처음에 美國에 의해, 그리고는 서구에 의해 使用된 封鎖라는 手段에 의해서 더욱 커졌다. 美國의 마샬 플랜의 援助를 相殺하기 위해서 1949年 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가 東部·南東유럽의 社會主義國家들의 經濟的 共同體로서 設立되었다.

이에 덧붙여서, 對外貿易을 最小化하는 것이 包含된 蘇聯形 産業化 모델이 작은 동유럽 국가들에 의해 大規模적으로 採擇되었는데, 이는 蘇聯의 壓力에 의해서 또는 그다지 합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자신들의 理由에 의해서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戰爭以前 蘇聯의 特徵이었던 자금자족의 행태를 모든 會員國들이 취하도록 하는 努力이 행해졌다.<sup>4)</sup>

- 
3. Joseph W. Stalin, *Ökonomische Probleme des Sozialismus in der UdSSR*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 German translation, Berlin 1953, p. 31 (appeared in the series "Kleine Bücherei des Marxismus-Leninismus").
  4. In *Theory and Practice of CMEA Cooperation* (Budapest: 1972), pp. 40-45 Sándor Ausch discusses the application of the autarchic model of industrialization to the smaller CMEA countries at the beginning of the 1950s and the negative effects this economic policy - which was totally unsuitable under the prevailing conditions - had on economic efficiency.

한편, 먼저 蘇聯에서 發展되었고, 그리고 모든 CMEA 會員國들이 1947 年 이후 採擇한 자금자족적 傾向은 西歐가 經濟적으로 우월하다는 시각에서 對西歐貿易은 政治적인 危險성을 包畵한 경제적 증속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서 생긴 것은 분명하다. 이에 덧붙여서 問題는 CMEA 國家들에서 시작된 中央計劃적인 體制에서는 對外貿易 특히 對西歐貿易을 國家經濟計劃에 편입시키기가 困難하다는 點이었다.<sup>5)</sup> 게다가, 모든 CMEA 國家에서 일반적인 현상인 商品의 不足現象은 수입을 可能케하기 위한 輸出을 항상 기분나쁜 복종으로 여기게 하는 狀況을 만들어 냈다. 왜냐하면 國內市場에서는 이러한 商品에 대한 要求가 매우 甚했기 때문이다.<sup>6)</sup>

- 
5. In the Western literature these institutional obstacles are frequently considered to be the main reason for autarchic tendencies in the CMEA countries. Cf. for example, Robert W. Campbell, *Soviet Economic Power. Its Organization, Growth, and Challenge*, 2nd ed. (Boston: 1966), p. 99f.
  6. For a more detailed discussion of this subject, see Peter Knirsch, "Politic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East-West Economic Relations," *Acta Oeconomica*, Vol. 31, No. 1-2 (Budapest 1983), pp. 117-119. Peter J.D. Wiles, *Communist International Economics* (Oxford: 1968), pp. 419-453 provides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the problem of autarchy in the CMEA states. See also the informative presentation by Leon M. Herman, "The Promise of Economic Self-Sufficiency under Soviet Socialism," in *The Development of the Soviet Economy - Plan and Performance*, ed. Vladimir G. Tremel (New York, Washington, London: 1968), pp. 213-248.

1950年代末부터 蘇聯과 東歐國家들에서 非CMEA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점점 두텁이 強調하는 論評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산업국가들과의 경제관계는 그 重要性을 더해간다고 볼 수 있다.<sup>7)</sup>

## 2. 對西歐貿易 開放

대서구무역에 대한 이러한 소련의 態度變化는 東歐國家들에서도 同時에 일어났고, 이는 나중에 그들의 對外貿易에 대한 必要가 더욱 급박해짐에 따라 더욱 明白해졌다. 1960年代 중반까지 각 社會主義 국가의 자급자족이나, 자급자족적인 국가들의 모임으로서의 CMEA에 대한 생각은 마침내 拋棄되었다.<sup>8)</sup> 반면에 대외무역관계는 이제 성장요인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즉 국제적 분업의 이점은 社會主義國家의 경제에도 적용되며, 그들이 바라는 경제발전을 돕는다고 생각되었다.<sup>9)</sup>

---

7. Cf. Peter Knirsch, "Ost-West-Wirtschaftsbeziehungen zwischen Kooperation and Konfrontation" (East-West Economic Relations Between Cooperation and Confrontation), *Europäische Rundschau*, Vol. 12, No. 4 (Vienna 1984), p. 86f.

8. For example, see authors' collective GDR-USSR, ed., *Internationale Wirtschaftsbeziehunge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East Berlin: 1980), licensed edition Frankfurt/Main 1981, pp. 318-336.

9. "Today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productive forces of a country is *decisively* dependent on integrating it properly into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his

현재 CMEA 국가들은 經濟協力에 관한 問題들에 대한 그들의 발언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의 성장하는 경제적, 과학적 그리고 技術的 潛在力에 뒷받침되어 그들(CMEA 국가들)은 그들의 유대와 協力を 強化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국제경제협력에 있어서 그들의 發展과 參與를 妨害하는 어떤 시도는 勿論 모든 壓力과 차별수단에 저항하기 위해 必要한 모든 것을 수중에 넣을 수 있다.”<sup>10)</sup> 그以後 CMEA 국가들은 이러한 協力を 더욱 發展시키기 위한 그들의 뜻을 밝혔다. 즉 “장래에 그들은 또한 發展된 資本主義國家들과, 그리고 世界の 모든 國家들과의 상호 호혜적인 과학·기술·경제·貿易關係를 發展시키려 할 것이다.”<sup>11)</sup>

---

(9.계속) objective necessity applies in particular to small and medium-sized countries..." (underline by P.K.). No author, *Ökonomisches Lexikon A-K* (Economic Encyclopedia A-K), (East Berlin: 1967), p. 168.

10. Declaration by the member countries of 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entitled "Die Erhaltung des Friedens und die internationale ökonomische Zusammenarbeit" (Preserving Peace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German version in: *Wirtschaftsberatung des RGW auf höchster Ebene vom 12.-14. Juni 1984 in Moskau* (Economic Consultations of the CMEA at the Highest Level from 12-14 June 1984 in Moscow), (East Berlin: 1984), p. 6f.
11. "Erklärung über die Hauptrichtungen der weiteren Entwicklung und Vertiefung der ökonomischen und wissenschaftlich-technischen Zusammenarbeit der Mitgliedstaaten des RGW" (Declaration Concerning the Main Directions of Further

이러한 CMEA 국가들의 一般的인 貿易 특히 對西歐 貿易에 對한 態度 變化의 理由는 매우 複雜하다. CMEA 국가들중 작은 나라들의 경제적 狀況이 특히 큰 的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分明하다. 즉 이전에 蘇聯에서 시행되었던 自給自족적인 行태를 그들에게 適用시키려 했던 시도는 그들 國家들에게 심각한 經濟的 損失을 가져왔는데, 이는 그들의 부적절한 資源공급과 작고 비싼 生産施設을 가진 그들의 制限된 國內市場에 기인하였다. 즉 작은 CMEA 國家들은 外國貿易에 대단히 의존적이었다. CMEA 地域內에 “社會主義 世界市場(Socialist World Market)”을 만드려는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러 경우에 있어서 비슷한 구조가 發達되어 있고, 그들이 유사한 모델에 따라서 發展되었으며, 計劃에 있어서 비슷한 問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國家들의 技術的인 그리고 質的인 生産基準이 不滿足스러운 것이다. 특히 모든 CMEA 국가들에서 그들의 經濟체제 때문에 發生하는 技術的 進歩실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發達된 서구 公業국가로부터 技術을 輸入함으로써 그러한 問題를 緩和하거나 解決하려는 努力을 強化하도록 유도하였다.

경제적 困難이 確實視 됨에 따라, 특히 처음에 經濟的으로 매우 급속히 성장하다가 그 성장이 둔화될 때에, 이러한 變化는 더욱 必要해졌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심각한 슬럼프(이미 폴란드와 헝가리는 1950年代 中반, 체코슬로바키아는 1960年代 初, 그리고 폴란드에서 1970年代 초반과 끝)에 뒤이어 모든 CMEA 국가들에서 經濟成長이 下落하기 시작했고, 1960年代

---

(11.계속) Development and Intensification of Economic and Scientific-Technical Cooperation of the CMEA Member Countries), in *Wirtschaftsberatung des RGW*, *ibid.*, p. 27.

초반에 시작된 이 흐름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표 1, 2 參照)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의 둔화는 國家의 政治的 지도자들이 대단한 壓力을 받게 되고, 행동을 취해야만 함을 의미하였다. 특히 1960年代에 經濟體制에 있어서의 改革이나 적어도 部分的인 改善의 물결에 따라서 對外貿易關係의 發展은(對西歐關係가 상대적으로 重要했음) 經濟狀況을 改善시키고, 經濟成長을 가속화하는 努力에 있어서 重要的 要素로 생각되었다.

社會主義 經濟思想에 있어서의 變化는 또한 CMEA 국가들이 서구와의 貿易增進을 開始하기 容易하도록 만들었다. 國際分業의 潛在的인 利益이 점점 強調되었고 對外貿易問題를 다루는 글들을 대서구 경제관계에 대해서 더욱 肯定的인 立場을 취하기 시작했다.<sup>12)</sup>

### 3. 대서구무역에 있어서 政治的 工作的 擴大된 範圍

이 論議에 있어서 우리는 소련과 작은 CMEA 국가들의 對西歐貿易에 대한 態度變化의 理由로서 經濟的 要因에 매우 큰 重要性을 부여하고

---

12. For example, cf. A.M. Voinov, V.Ja. Iochin, L.A. Rodina, *Ekonomičeskie otnošenija meždu socialističeskimi i rasvitymi kapitalističeskimi stranami* (Moscow: 1975), p. 13. N.P. Smelev, "Vozmožnosti i perspektivy obščeevropskogo ekonomičeskogo sotrudničestva," in *Adademiija Nauk SSSR, Institut ekonomiki mirovoj socialističeskoj sistemy; Problemy ekonomičeskogo sotrudničestva meždu vostokom i zapadom evropy* (Moscow: Sovetskij komitet za evropejskuju bezopasnost', 1973), p. 7f.

있는데, 同時에 이 變化를 같은 方向으로 장려했던 政治的 影響力을 간과하지 않는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단 소련의 지도력이 그의 서쪽 국경에 있는 國家들에 지배권을 確立하였으므로 대서구 경제관계의 結果로 정치적으로 종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이제 경감된 것이 아마도 確實할 것이다. 제 2차 대전을 승리로 끝냈었고, 그의 직접적인 勢力權의 대단한 확장, 전후 경제 재건의 성공적인 努力, 또한 美國과의 軍事力 均衡의 성취, 그리고 서구 植民帝國의 沒落으로 帝國主義에 對한 社會主義理論이 確固해졌으며, 또한 월남전의 성과등 모든 이러한 發展들은 蘇聯의 자신감을 강화시켰고, 대서구 經濟關係에 종속될지 모른다는 蘇聯의 두려움을 減少시켰다.

이에 덧붙여서 「냉전」의 긴장된 기간 후에 이제 蘇聯의 政策은 外交分野에 있어서 긴장을 緩和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同盟體制의 安定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점점 뚜렷해지는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어쨌든, 1950年代末 蘇聯側은 그들의 「平和共存」概念에 맞춰 동서관계를 개선하려고 努力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로서는 소련측이 경제관계의 개선을 정치적 관계개선의 중요한 기초로 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sup>13)</sup>

다음과 같은 주장의 論理를 論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즉 아마도 소련의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대서구 무역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했다가, 나중에 이러한 貿易이 政治的 關係改善에 주는 影響力에 너무 많은 기대를

---

13. Authors' collective GDR-USSR, *Internationale Wirtschaftsbeziehungen*, op. cit., p. 354.

걸었다는 論理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서 서구의 工業國家와의 貿易 또는 가까운 協力을 必要로 하는 經濟關係에 參與하려는 더욱 큰 의도가 蘇聯과 東歐國家에게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1980년 이후의 東西間 經濟關係의 상당한 퇴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存在한다. 하지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주로 정치적 원인에 의해서 자금자축하려는 경향이 아직 많은 경제계획가들의 사고에서 忘却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傾向은 1984년 6월 CMEA 정상회담의 코뮈니케에서도 반영되고 있다.<sup>14)</sup> 여기에는 “우리는 우리만으로도 充分히 強力하다.”라는 도전적인 威脅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동서경제관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經濟的 主張들이 現在 明確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Ⅲ. 동구와의 貿易에 대한 서구의 시각

#### 1. 政治的 理由로 인한 東歐貿易의 거절

동서경제관계에 대한 동구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시간에 따른 變化로써 特徵지워질 수 있다. 즉 처음에는 이러한 關係에 대한 制限이 매우 많았으며 등한시 하였는데, 이제는 참여하려는 의도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정의 部分的으로는 政治體系의 차이의 결과로서 다르기 때문에 이는 공산국가와의 경제관계에 대한 西歐工業國家의 態度에 影響을 준다. 즉 西歐에서는 그러한 關

---

14. Cf. Declaration by the member countries of the CMEA...,  
op. cit., p. 6f.



係에 대한 꽤 強力한 반대와 또 強力한 지지자들이 동시에 存在한다. 동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두 主張이 이러한 討論에 역할을 담당한다.

西歐가 東歐와의 貿易을 反對하는 根本에 놓여 있는 西歐의 信念은 정치적 本質에 관한 것이다. 즉 蘇聯스타일의 社會主義(특히 第2次世界大戰以前까지의 蘇聯과, 그 이후 CMEA 국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를 서구의 政治·經濟體制를 破壞하는데에 目標를 둔 體制로 보는 것이다. 소련의 宣傳과 이데올로기적인 글들은 이것이 즉각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자주, 그리고 明白히 공언해왔다. 동서경제관계에 대한 서구의 반대는 이러한 소련의 이데올로기 선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2차대전 후의 소련영향력의 유럽팽창, 세력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 그리고 유럽이외 지역인 개발도상국등에 영향력을 넓히려는 소련의 시도 등은 모두 蘇聯의 팽창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確認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東西貿易 반대자들에 따르면, 자기유지를 위해서는 그 經濟關係가 이적대적이고 팽창적인 체제를 強化시켜 주는 데 貢獻하는 한 이러한 경제관계는 中斷되거나 制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共產國家와의 經濟關係에 대한 그렇게 커다란, 或은 完全한 반대는 동서경제관계에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각은 아직도 매우 강한 간접적 影響力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서구가 공산주의 국가의 政治的 意圖를 믿지 못하는 데서 뚜렷이 나타난다.

## 2. 政治적으로 制限된 貿易

한편으로 東歐와의 貿易反對와 경제적 보이코트는, 기본적으로 자유

무역 원칙으로 特徵지워지는 많은 保護主義的 예외는 있지만, 西歐의 經濟政策의 基本的인 主義를 反對하는 것이다. 그러나 東歐와의 貿易을 거부하는 것은 또한 매우 견고한 경제적 利益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즉 서구工業國家들은 커다란 蘇聯市場과 貿易하기를 명확히 원하는 것이며, 그들은 그러한 貿易의 實際 可能性을 때때로 과대평가함으로써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經濟關係에 대한 西歐의 論議에서 하나의 方向은 두 체제간의 적대감은 제거될 수 없으나, 그래도 체제간의 經濟關係는 可能하며 정치적으로도 유용하다는 가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러한 경제적 관계가 절대로 동구만을 일방적으로 상회시키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 것이며, 서구의 經濟力도 높여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이 問題가 討議될 때에는 確實한 형태로 대답될 수 없는 問題, 즉 이러한 經濟關係에서 어느 편이 더 많은 利益을 얻느냐 하는 問題에 어쩔 수 없이 이르게 되기도 한다.<sup>15)</sup>

이러한 貿易에서 어느 편이 더 利益을 얻는가에 관한 討議와는 關係없이, 東歐와의 經濟關係를 主張하는 사람들은 서구가 상당히 經濟的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그 우위는 全體的인

---

15. Cf. Knirsch, "Politic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p. cit., pp. 113-116.

경제적 潛在力<sup>16)</sup>을 보아서나, 生産의 技術水準과 商品의 質과 市場性을 考慮한 것이다. 이러한 西歐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두개의 서로 다른 태도가 發展되었다. 그 하나는 基本的으로 東歐와의 貿易에 직접적인 利益을 가지고 있는 企業들의 견해로서, 西歐의 經濟的 우월성이 체제간의 적대감을 상쇄하는 데 적합하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적절하다면, 東歐의 팽창주의적 傾向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동서간 貿易의 제한된 양 때문에 그 貿易의 結果로 蘇聯의 潛在力이 強化될 可能性은 政治的으로 거의 重要性을 띠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동서경제관계는 다른 海外貿易關係와 本質的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1950年代 後半부터 現在까지 美國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구공업국가들에서 지배적이었다.

과거에, 특히 美國에서, 더욱 유력하게 된 견해는 역시 서구의 經濟的 우월성은 論爭의 여지가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체제간의 적대감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특히 소련의 팽창주의적 의도가 아직도 계속 存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로

---

16. As difficult as it is to make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ross national products, it can be assumed that Soviet GNP amounts to between 50% and 60% of United States GNP. On the whole the European CMEA countries have gross national products equal to about 20-25% of GNP in the more important OECD nations. Cf. *World Development Report 1981* (New York: The World Bank, 1981), p. 131f.;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1* (Washington: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1980), p. 10f.

부터 도출되는 結論은 西歐가 蘇聯이나 CMEA 국가들과 經濟關係를 갖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가 政治的 고려에 의해 유도되어야 하며, 可能的 限 政治的 目的을 追求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침에 따르면 특히 戰略的으로 重要的인 商品은 CMEA 국가들에게 인도되어서는 안된다고 느껴진다. 共產國家들과의 海外貿易을 신중히 制限하는 政策의 大部分은 1949年以來 COCOM(Coordinating Committee on East-West Trade Policy)에 의해 수행되어 왔는데,<sup>17)</sup> 이는 日本은 물론이고, 아이슬랜드를 제외한 모든 NATO 국가들을 포함하는 기구인 것이다. 비록 COCOM 은 그 목록에 올라있는 商品의 輸出을 許容할 수는 있지만, 그 비밀 목록은 분명한 무기상품과 함께, 潛在的으로 군사적인 중요성을 가진 민간상품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

현재 「輸出禁止政策」이 동구에서 論議될 때에는 美國의 곡물금수와 같은 특정한 국가들의 輸出規制와 함께 무엇보다도 COCOM의 활동이 언급된다. 한국전쟁 당시 더욱 광범위했던 COCOM의 목록은 1950年代와 1960年代에 걸쳐서 줄어들었다. 1980年부터 특히 美國은 그의 작은 同盟國들의 저항이 가끔 있지만, COCOM의 目錄을 다시 늘리거나 相當히 적은 예외를 承認하거나 또는 전혀 승인하지 않으려고 努力해 왔다. 갈등은 技術商品의 戰略的 重要性을 둘러싸고 전개되는데, 이는 技術 專門家들에 의해 아주 判이하게 評價되고 있으며, 이미 不確實해진

---

17. It was founded in November of 1979. For details, see Gunnar Adler-Karlsson, *Western Economic Warfare 1947-1967. A Case Study in Foreign Economic Policy* (Uppsala: 1968).

범주는 各 國家들의 輸出利益의 強度變化에 의해 더욱 複雜해지고 있다.<sup>18)</sup> 이러한 貿易政策의 代表者들은 CMEA 국가들, 특히 蘇聯의 經濟的 發展은 西方의 現代技術의 輸入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나아가고 있다. 輸入의 기회를 制限하는 것은 蘇聯으로 하여금 西方側에게 적대적이라고 인정되는 政治的 行爲이나 一般的인 行爲를 재고하도록, 예를 들어서 宗敎人이나 소수민족인들의 出國을 許容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에서인 것이다.

上記와 같은 西歐의 東歐에 대한 輸出을 겨냥한 금수조치와 함께 동구로부터의 輸入의 量的 制限과 최혜국대우의 거부등 貿易에 있어서의 다른 政治적 동기를 지닌 제한들은 동구로 하여금 그의 商品을 輸出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드려는 의도이다.

몇몇 西方國家들이 CMEA 국가들에 對해서 金融裁制를 가하는 것은 같은 의도를 지닌 것으로서, 즉 동구에 대한 Credits for deliveries가 삭감되고, Credit terms (利率, 상환기간, 銀行의 재보험기회등)은 더욱 불리해지는 것이다. 外交政策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이런 手段들이 使用될 때, 경

---

18. Cf. Jürgen Nötzold, *Die Bedeutung des Technologietransfers in der wirtschaftlichen Ost-West-Kooperation* (The Significance of Technology Transfer in East-West Economic Cooperation) (Ebenhausen: 1974) (SWP-S223). *Technology and East-West Trade* (Washington: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fice of Technology Transfer, 1979). George D. Holliday, "Transfer of Technology from West to East: A Survey of Sectoral Case Studies," *East-West Technology Transfer* (Paris: OECD, 1984), especially, pp. 66-69.

제정책이 西方國家들의 銀行의 行爲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그 效率性은 制限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동구무역에 있어서 政治的 動機를 가진 제한조치들은 무엇보다도 蘇聯의 위협에 대항하는 정책의 도구로 奉仕하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蘇聯의 아프가니스탄침공以後의 美國의 제재조치들은 일종의 「罰」로 보아졌고, 이러한 壓力을 適用함으로써 소련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努力이 행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이러한 성격의 制限이 동서경제관계에 놓여졌을 때에 소련의 행위가 影響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적극적인 政策으로서의 貿易

現 주제에 관한 論議에서 또 다른 접근은 동서경제관계를 정책도구로서 아주 다른 方式으로 사용할 것을 제의한다. 즉 西歐는 東歐가 더 적극적인 政治的 行動으로 反應하고, 그 팽창주의적인 의도를 拋棄하리라는 希望에서 蘇聯과 CMEA 국가들의 特別한 貿易利益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 때때로 提案되어 왔다. 全體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제재조치의 부과를 主張하는 思考方針보다는 훨씬 드물다. 그러한 접근은 東歐에 平和에 對한 갈망이 있다는 確實한 信念을 必要로 하고, 또한 조심스럽게 행해지지 않으면 이것은 뇌물과 거의 비슷한 것이므로 東歐의 政策立案者들의 自存心을 쉽게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 접근은 그 제한된 중요성에도 不拘하고 언급할 價値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 東獨과 西獨間의 關係에서 보듯이 많은 個人들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또한 西베를린으로의 통행문제와 같은 광범위한 政治的 重要性을 가진 심각한 問題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것

처럼 그러한 경제도구의 적극적인 適用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분명히 確實한 價値를 지니고 있다.

#### IV. 東西經濟關係의 現狀態

우리가 東西經濟關係의 역사를 考察하는 것은 더 넓은 맥락에서 현재 상태를 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이다. 兩側에서 보여지는, 체제간 經濟關係에 대한 幅넓게 變化하는 태도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關係는 發展過程에서 그다지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인도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상 時間의 흐름에 따라 동시간 貿易量은 심하게 變動되어 왔다. 이것은 우리의 論議를 제한시킬 範圍인 최근 몇년간에도 適用된다.

1966年 以後期間을 볼 때에(표 3 參照) 1970年과 1975年 사이에 西歐로부터의 급격한 수입신장은 인상적이다. 이 기간동안의 동서무역의 고도로 동적인 成長은 상당한 部分, 西歐의 信用貸付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東歐는 輸出보다 더 많은 量을 輸入하는 것이 可能하였다. 1975年 以後 東西經濟關係의 動的인 發展은 分明히 주춤했다. 그리고 輸出과 輸入傾向 양쪽에서 역전현상이 있었다. 즉 비록 1980年 貿易均衡은 모든 CMEA 국가에서 마이너스이지만(표 4 참조), 西歐로부터의 總輸入이 단지 62% 성장한 반면 輸出은 140%가 성장했다. 그러나 全體적으로 1970년대 後半期동안, 그 이전의 上昇勢에 뒤이어 東西經濟關係에 있어서 根本的인 變化가 일어났다. 즉, 西方으로부터의 借款導入은 輸入의 서서한 增大와 輸出增大努力的 強化를 必要하도록 만들었다.(表 5 參照)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CMEA 국가들은 西方으로부터의 많은 양의 輸入에 빨리 익숙해 졌고, 特히 폴란드에서는 이전에 플랜

트와 자본재들을 수입했는데, 이를 계속 稼動시키기 위해서 서구로부터 예 비부분품, 특수한 타입의 供給品, 보조적인 投資등의 輸入을 계속해야만 할 정도였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中央計劃經濟라 할지라도 輸入의 增加를 삭 감하기는 쉽지 않았다. 輸出面에서는 世界經濟狀況은 달러를 쓰는 국가에 商品을 팔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덧붙여서 CMEA 국가들은 그들의 체 제와 발전이라는 연결된 수출문제를 자신의 統制下에 놓는데에 失敗했다. 국가의 대외무역체제는 世界市場의 수요의 變化에 너무 느리고 靚료적으로 反應하기가 일쑤였고, 輸出商品의 공급은 世界市場의 技術水準, 質, 디자인, 포장 그리고 正確한 인도등의 要求에 맞추지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이는 특히 完成된 工業製品의 輸出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작은 CMEA 국가들에게 점점 重要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소련은 같은 기간동 안 비교적 유리한 대서구 輸出條件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는 소련의 수출 이 주로 에너지와 1차산업 製品이었고, 세계시장에서 原油價格이 큰 幅으 로 인상된 데 기인하는 것이었다.<sup>19)</sup>

1981년에서 1983년까지 東西貿易은 정말로 침체시기에 다다랐다. 대부분의 CMEA 국가들에서 이러한 貿易의 完全한 衰退가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

---

19. During the first six months of 1984, 48% of the goods exported to the West by the smaller CMEA countries (6) were finished industrial goods, 10% of which were capital goods and 19% consumer goods. In the case of Soviet exports to the West, fuels accounted for 78% and finished goods for only 8% (including 6% semifinished goods 1% capital goods).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84-1985* (Geneva: ECE, 1985), p. 5.71.



분의 경우 수출의 경우보다는 對西歐 輸入의 경우에서 明白했다. 그리하여 貿易赤字의 均衡을 맞추기 위한 뚜렷한 감소가 초래되었다. 東獨,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蘇聯등 몇몇 경우에, 1982년부터 對西歐貿易에서 赤字를 記錄할 수 있었다.(표 4 참조)

全體的으로 1979年以後의 東西貿易關係는 뚜렷한 침체로 特徵지워질 수 있다. 1971年과 1975年 사이의 빠른 팽창에 뒤이어 1976년부터는 年度別 成長率은 世界貿易의 實質成長率보다 낮아졌고, 1979年以後에는 東西貿易은 정말로 減少했다.(표 3 참조)

이러한 狀況은 1983년부터 상당히 나아지기 시작하였다. 즉 한편으로 개선된 세계경제상황은 東歐가 西歐로 수출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동구의 외채문제는 특히 라틴 아메리카등 다른 國家들의 거대한 外債規模를 볼 때 더이상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았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의 동구의 貿易赤字의 급속한 감소가 肯定的인 발전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이는 특히 그러했다. 서구의 대동구 수출을 포함한 東西貿易의 점진적인 회복은 예상되는 것 같다.<sup>20)</sup>

## V. 東西貿易의 重要性

東西經濟關係에 관련된 양측의 政治的 罣려와 기대는 이러한 關係가 국가경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가정으로 이끌지도 모른다. 그러나

---

20. For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current situation, see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84-85*, *ibid.*, pp. 5.65-5.93.

순수한 계량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OECD 국가들에 있어서(東獨과 西獨의 무역은 제외) 1983년에 CMEA국가들과의 관계는 단지 총수출의 3.1%, 그리고 총수입의 3.2%였다. 그리고 같은 해 CMEA 국가들에 대한 서구의 수출은 서구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의 平均 0.44%였다. 美國의 경우 1983년 GDP의 0.09%였고, 日本은 0.31%, 프랑스는 0.65%, 이탈리아는 0.77%, 서독(동독과의 關係除外)은 1.17%, 오스트리아는 2.77%였다. 핀란드의 경우는 예외로서, GDP의 7.29%였다.<sup>21)</sup> 이러한 貿易量은 OECD 국가들에게 있어서 동구와의 貿易은 단지 아주 낮은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개인이나 특정한 회사의 이용에 있어서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CMEA 국가들에게 있어서 세계무역에서의 통합이 훨씬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全體 海外貿易에 있어서 서구의 比重이 상당히 높다. 즉, 서구로부터의 수입은 총수입의 14 - 32%를 차지하고, 輸出은 總輸出의 10-30%를 차지한다.(표 5 참조)

위에서 본 동서경제관계의 政治的 의미 부여는 이러한 계량적 지표에 주어지는 상대적 중요성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우선 서구가 동구와의 貿易에 依存하는 것 보다는 東歐가 훨씬 西歐에 依存하는 것은 明白하다.

---

21. Figures based on OECD statistics according to Jan Stanovsky, "Ost-West Handel 1984/85: OECD Importe aus dem Osten belebt" (East-West Trade 1984/85: OECD Imports from the East Increased), (Vienna: 1985), p. 39 and p. 46. The Vienna Institute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Forschungsberichte*, No. 104.

筆者는 계속 기회있을 때마다 상호의존의 문제를 論議하였으므로,<sup>22)</sup> 여기에서는 간략히 언급하겠다.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서구의 대동구 수출에 대한 의존은 論議하지 않겠다.(유럽에 있어서는 時間의 흐름에 따라 철과 강철 그리고 機械製作産業이 많은 변동에 영향을 받았고, 한편, 美國에서는 穀物이 그러했다.) 또한 소련으로부터의 에너지수입에 있을 수 있는 依存도 論議하지 않겠다.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外國貿易이나 국민생산의 몫은 너무 적고,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西歐의 수출업자들이 각 국가에서 강

---

22. Cf. Peter Knirsch, "Interdependence in East-West Economic Relations," in: *From Marshall Plan to global Interdependence. New Challenges for the Industrialized nations* (Paris: OECD, 1978), pp. 135-167; Peter Knirsch, "The Significance of Economic Interdependence Arising from East-West Relations," in: *Partners in East-West Economic Relations. The Determinants of Choice*, ed. Zbigniew M. Fallenbuchl and Carl H. McMillan (New York: 1980), pp. 51-75; Peter Knirsch, "Economic and Political Interdependence Between, East and West Reconsidered," *East-West Economic Interaction: Possibilities, Problems, Politics, and Prospects*, ed. Bo Huldt and Atis Lejins (Stockholm: 1981), The 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Conference Papers 1, 1981, pp. 55-78; Peter Knirsch, *Grenzen der Ost-West Interdependenzen: Politische Aspekte der Wirtschaftsbeziehungen (Limits to East-West Interdependence: Political Aspects of Economic Relations)*, *Außenwirtschaft, Schweizerische Zeitschrift für Internationale Beziehungen*, Vol. 37, No. 1 (Diessenhofen 1982), pp. 31-44.

한 政治的 영향력을 휘두른다면, 특정한 경우의 동서관계에 政治的 영향만을 줄 수 있다.

양측에 있어서 보다 큰 政治的 結果는 CMEA 국가들에 있어서 서구로부터의 輸入이 얼마나 經濟的으로 중요한가 하는 問題이다. 이 문제에 결정적인 回答을 제시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여기에서 이뤄지는 考察이 一般的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CMEA 국가들에게 있어서, 국내적인 부족과 달러를 쓰는 국가에의 수출이 아직 각각의 國民經濟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짐으로 여겨지는 狀況이라는 각도에서, 西歐와의 貿易關係의 진정한 하나의 목표는 서구로부터의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世界市場에서 競爭的인 수출생산과 더욱 유동적인 貿易體制가 CMEA 국가들을 위해서 國際勞動分業의 利益을 상당히 增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全體的으로 대서구 수출상품구조에 대한 不滿이 매우 높으며, 특히 소련에 있어서는 에너지라는 한가지 商品이 대서구수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편 完成된 工業製品은 수출에 있어서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문제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輸出構造는 蘇聯의 産業의 약점에 있어서 그리 有望한 지표는 아니며, 또 한편 外國貿易에 있어서 政治的으로 큰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 즉 이것은 蘇聯이 世界市場의 매우 작은 部分에서 發展에 依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서구 貿易은 소련보다는 작은 CMEA 국가들의 경제에 더욱 중요하다라는 일반적인 考察을 가능케 한다. 특히 西歐에 있어서, 美國은 西歐工業國家들보다 대동구무역에 制限된 關心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동서경제관계의 발전에 政治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政治體制의 갈등

에 있어서 진정한 적수로 맞서고 있는 두 초강대국이 東西貿易에 대해 단지 상대적으로 제한된 關心을 가지고 있고, 한편 양측의 작은 同盟國들은 이러한 貿易을 유지하거나 擴張하는데에 더욱 큰 경제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關心때문에 지난 기간동안 東西貿易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使用이 역시 美國과 서구同盟國들 사이에 論爭의 주제가 되어 왔다. 작은 CMEA 국가들 역시 -勿論 方法은 다르지만- 동서경제관계를 유지시키거나, 또는 이 분야에서의 정치적 조작에서 가능한 한 많은 여유를 가지려고 소련에 影響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VI. 東西貿易에 있어서 EC의 位置

### 1. CMEA 국가들의 해외무역에 있어서 EC의 重要性

이제까지 우리는 東西貿易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반적인 정치적·경제적 조건들을 서술하였다. EC (European Community)는 1957년 3월 25일 로마조약에 의해서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로서 設立되었고 1985년 현재 10 국가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sup>23)</sup> CMEA 국가들에게 있어서

---

23. Cf. *Die beiden Staaten in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The Two (German) Stat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onn: Friedrich-Ebert-Stiftung, 1984), p. 12F. The six founding members Belgium,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rance, Italy, Luxemburg, and the Netherlands were joined by Great Britain, the Republic of Ireland and Denmark in 1972 and by Greece in 1981. Spain and Portugal will be joining the EC in they very near future.

EC는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들 수입의 40-70%, 그리고 수출의 50-70%가 EC 시장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표 6 a, 6 b 參照) 따라서 全體的으로 EC는 CMEA 국가들의 단연코 가장 중요한 貿易相對이다.

이러한 CMEA 국가들과 EC 地域사이의 비교적 強力한 무역유대에는 몇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다. 東歐國家들과의 關係에서, EC 국가들의 지리적 位置의 重要性은 명백하다. 西獨보다 동구와의 무역에서 더 강력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핀란드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다면, EC 지역은 地理的으로 東歐國家들과 가장 가깝고, 東獨과 체코슬로바키아 두 國家와 같은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 西方世界로 代表된다. 비록 近代의인 수송체계의 발달로 이러한 상황에 關係된 수송비의 利益이 점점 덜 重要해지고, 또 많은 商品에 있어서 수송비는 다른 요인에 비해 대수롭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地理的인 근접성은 確實히 무역상대국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접성이 交易相對國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서, 각자에게 두드러진 환경과 特徵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로 이끈다는 사실이다. 비록 2차대전후의 유럽의 分割이 이러한 많은 接觸들을 끝나게 하였지만, 지난 25년동안 이것들은 동구와의 貿易發展을 위해서 상당히 重要하였다.

서구의 동구에 대한 무역발전에 있어서 지리적인 狀況에 역사적인 影響이 密接히 關聯되어 있다. 西歐의 國家들, 특히 전통적으로 동쪽과 남동유럽 국가들을 2次大戰까지 매우 강한 經濟的 關係속에 유지시켰던 獨逸帝國은 현재 EC의 동구에 대한 무역의 潛在力에 아직도 肯定的인 영향을 주고 있다. 양차 대전기간동안 變動이 있었지만, 例를 들어 獨逸

제국은 현재 CMEA의 會員國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의 가장 중요한 交易相對國이었고,<sup>24)</sup> 어느 기간동안 獨逸은 또한 蘇聯의 가장 重要的 무역상대였다.<sup>25)</sup> 오늘날 그동안 일어난 모든 구조적 변화와 모든 政治的·經濟的 체제의 변동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관계는 아직도 西歐의 東歐와의 무역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西歐商品에 대한 높은(아마도 과장된)인식은 서구의 企業相對者들의 信賴性에 대한 尊重은 물론 그들의 技術水準때문이지만, 이는 양차세계대전 기간의 경험과 연결된다.(일부 사람들이 느낄지도 모르는 “good old days”)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만 빼고, 동구국가들의 초기 工業化 단계는 서구 특히 獨逸의 工業商品輸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獨逸의 技術은 어느 정도까지는 英國의 技術이 19세기에 中部와 서부유럽의 工業化에 이바지한 것처럼의 비슷한 역할을 했다.

지리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條件들이 EC 국가들이 CMEA 국가들의 자연스런 交易相對가 되도록 만들었다. 덧붙여서 西歐는 經濟的으로 더 發展해 있었고, 넓은 幅의 질 좋은 商品을 供給할 수 있었다. 一般的인 東西貿易의 경우에서처럼 동서간의 政治的 적대감 또한 이 경제관계를 방해했다. 이러한 어떤 시기에 있어서의 유보를 제외하고는, E.C地域은 CMEA 국가들의 외부경제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

24. Cf. Nicolas Spulber, *The Economies of Communist Eastern Europe* (New York, London: 1957), p. 8f.

25. Cf. Alexander Bajkov, *Soviet Foreign Trade* (Princeton, N.J.: 1946).

## 2. 東歐貿易에 있어서 EC 국가들의 利益

東歐國家들과의 貿易에 關係서는 많은 EC 會員國들의 態度에 根本的인 차이는 없다. 위에서 서술한 동서경제관계의 특수한 측면들은 모든 EC 국가들에게 똑같이 影響을 주고 있다.<sup>26)</sup>

EC의 각 會員들마다에 따라 대동구무역의 重要性이 변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주목한 바와 같이, 西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또는 덴마크에 있어서 약간의 중요성밖에 갖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西獨이 동구와의 무역을 심화시키는 데 가장 큰 관심이 있으며, 위에서 言及한 네 국가들은 다른 EC 국가들보다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다. 時間의 흐름에 따라 EC 국가들의 동서무역에의 參與 또한 변화하였다. 1970년대에 가서야 西獨은 東歐와의 貿易에 앞장섰다. 이보다 먼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그들의 전체 대외무역의 작은 부분이기는 했지만, 동구와의 많은 交易量을 가졌던 EC 국가들이었다.

---

26. Karen C. Taylor says the following about this subject in "Import Protection and East-West Trade: A Survey of Industrialized Country Practices," in *East European Economies Post-Helsinki* (Washington: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1977), p. 1161: "...with respect to East-West trade there is no great divergence of national interests, at the present time,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unity." This article provides a good summary of EC policy toward trade with the East at the time.



東西貿易에 있어서의 獨逸의 相對的인 位置의 上昇(이는 역사적 視角에서 2 차대전 이전의 위치를 다시 찾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은 確實히 東歐와의 貿易에 關心을 가진 다른 EC 회원국들을 기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CMEA 국가들과의 個別的인 貿易利益을 생각할 때 EC 會員國들 사이의 基本的인 調和를 威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특히 信用政策 등 輸出增大 手段은 물론 輸入自由化에 대한 態도의 차이는 東歐市場에서의 EC 會員國들의 競爭의 結果로 일어났다. 게다가 EC 국가들과 CMEA 국가들간의 貿易이 쌍무적으로 均衡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利益 또한 상이하였다. 現在 이것은 이전의 경우보다는 나아졌고, 서구에서 상상하기 보다는 훨씬 덜하다. 27) 적어도 국가利益에서 信用을 引渡로 묶음으로써 貿易의 흐름에 影響을 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東西貿易에서 EC 회원국들에 의해서 대표되는 多樣한 利益을 볼 때, 獨逸內部的 貿易을 다스리는 特別한 規制도 役割을 하지만, 이것

---

27. To the extent that success in the area of foreign trade can be measured by the balance of foreign trade, it can be noted that on the whole since 1980 the EC countries have had a negative balance of trade vis-a-vis the European CMEA countries, whil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been able to achieve a fairly high surplus in their trade with the same group of countries. Thus it can be seen that competition in this area has moved out of the European Community to some extent. Stankovsky provides the respective figures for 1980-1984 in "Ost-West Handel 1984/85," op. cit., p. 22.

은 다른 論文이 다루고 있으므로 우리의 論議對象이 아니다.

### 3. 東歐의 EC 국가와의 貿易에 있어서 特別한 制度的 觀點

제 3 세계 국가들과의 貿易뿐 아니라 동서무역에 있어서 EC 內의 經濟的 統合은 對外貿易政策에 있어서 國家의 權위를 공동체조직으로 이관시켰다. 이러한 移轉이 일어나자 이전에 언급된 東歐 CMEA 국가들과의 貿易關係에 있어서의 특수한 상황들이 다른 제 3 세계 國家들과의 약간 다르게 取扱되는 결과를 낳았다.

1974 年末까지 EC 會員國들의 CMEA 국가들과의 貿易關係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와 같이 쌍무적인 貿易協定에 의해서 統制되었다. 1975 年부터 E.C 가 貿易政策의 責任을 지게 되었다.<sup>28)</sup> EC 와 CMEA 의 個別國家間

---

28. Originally the joint trade policy was to take effect starting January 1, 1970. Because of the special trade situation vis-a-vis the state-trading countries of Eastern Europe, a Council decision on December 16, 1969 permitted until the end of 1972 the conclusion of bilateral trade agreements with state-trading countries with a maximum duration of up to the end of 1974. Claus-Dieter Ehlermann provides a detailed survey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in "Entwicklung und Stand der Hdndelspolitik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gegenüber den osteuropäischen Mitgliedstaaten des RGW" (Development and Status of the European Community's Trade Policy toward the East European Members of the CMEA) in Axel Lebahn's *Sozialistische Wirtschaft-sintegration und Ost-West-Handel im sowjetischen und internationalen Recht* (Berlin: 1976), Schriften zum

에 새로운 協定을 상의하자는 EC 의 提案은 東歐에 의해 거절되었다. 이는 현재 EC 또는 EC 의 각 會員國과 CMEA 국가들간의 경제관계를 管理할 協定이 없으며, 과거 10年동안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공백은 이전의 쌍무적 협정을 계속 유효하도록 하거나, 또한 자율적인 共同體의 行動으로 메꿔지고 있다.<sup>29)</sup>

비록 CMEA 국가들이 EC 의 存在를 부정하는 그들의 立場을 포기했고, 1972년 이래 하나의 기구로서 CMEA 와 EC 간의 직접적인 關係를 제도적 수준에서 確立하려는 努力을 점점 強化하고는 있지만, 현재 그들의 각 기관의 상이한 立場때문에 두 지역간의 貿易協定이 가까운 장래에 협의될 것 같지는 않다. 한편, 협정의 테두리의 타결은 가능해 보이고, 이

---

(28.계속) Öffentlichen Recht, Vol. 305, pp. 27-49. See also on this subject and in reference to my later comments: Europäisches Parlament, *Sitzungsdokumente 1974-1975*, Europäische Gemeinschaften, Dokument 425/74 (Klepsch report) as well as *Sitzungsdokumente 1982-1983*, Dokument 1-531/82 (Irmer report).

29. Compare *Der deutsche Osthandel zu Beginn des Jahres 1978* (German Trade with the East at the Beginning of 1978) (Bonn: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1978), p. 11f. as well as Europäisches Parlament, *Sitzungsdokumente 1978-1979*, Europäische Gemeinschaft, Dokument 89/78 (Schmidt report)

협정은 두 경제블럭간의 貿易政策의 一般的인 지침을 포함시킬 것이다.<sup>30)</sup> 貿易政策의 權限移轉은 EC會員國들에게 있어서 基本的으로 의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輸入自由化, 輸入쿼터설정, 關稅設定, 公式的인 輸出·輸入統制, 바람직하지 못한 貿易行爲(輸入할 때는 덤핑, 보너스, 장려금등, 輸出한 때는 特惠關稅대우, 장려금, 政府의 融資支援등)를 막기 위한 수단의 標準化등을 포함한다.<sup>31)</sup>

이러한 대략적인 열거로서 위에 언급된 權限들이 共同體機關에 의해 完全히 장악되어 있다는 結論에 도달할 수는 없다. 부분적으로 특히 수출 增大의 경우 EC의 權限은 EC當局이 한 國家가 이러한 行동을 할 경

---

30. During the past few years literature about the EC-CMEA relationship has increased rapidly. See in the more recent literature: Fritz Franzmeyer, "Zum Stand der wirtschaftspolitischen Beziehungen zwischen RGW und EG" (Concerning the Status of Politico-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CMEA and the EC), *Europa-Archiv*, Vol. 32, No. 1 (Bonn 1977), pp. 9-17. Carl A. Ehrhardt, "EWG und RGW kommen sich nur langsam naher" (EEC and CMEA Only Gradually Coming Closer Together), *Außenpolitik*, Vol. 28, No. 2 (Hamburg 1977), p. 161 and p. 176. Axel Lebahn, "RGW und EG - Faktoren des Ost-West Handels" (CMEA and EC Factors in East-West Trade), *Außenpolitik*, Vol. 29, No. 2 (Hamburg 1978), pp. 123-144.

31. Taylor offers a carefully documented summary in op. cit., op. 1150-1161. The Irmer report (*Sitzungsdokumente 1982-1983*, op. cit.) is a more recent discussion which is also very informative.

우 고려하겠다는 요구에 制限된다. 따라서 實際로 EC 국가들의 CMEA 국가들에 대한 貿易政策은 共同體가 취하는 수단과 나아가서는 EC의 각 個別國家가 취하는 자율적인 수단에 의해 統制된다. EC 회원국들의 정책간의 完全한 調和는 성취되지 못했다. 특히 政府融資를 통한 輸出增進의 경우와, 輸入量의 規制이다

동서경제관계에 있어서 論議의 한가지 주제는 EC 회원국들이 아직도 CMEA 국가들과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쌍무협력 협정을 통제할 수 있는 공동체의 기관의 권한이다.<sup>32)</sup> 이 협정들은 또한 공업협력의 정부지원의 규정을 포함한다. 만일 이 概念이 嚴格히 解釋된다면, 工業協力은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明確히 區分될 것이다.<sup>33)</sup> 즉 이 地域에서 도달한 조화는 貿易協定이 아니며, 따라서 共同體의 權限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 협력의 概念은 매우 廣範圍하게 해석되어 왔고, EC 당국에 의해 實際의인 貿易行爲를 「協力」으로 分類함으로써 생긴 불편한 規制措置등을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행해졌다. 한편으로 어떤 쌍무적 협력협정은 합작생산된 상품에 대해 관세와 쿼터에 特惠를 주는 法規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共同體의 貿易統制 權限의 명백한 위반인 것이다. 공동체의 기관은 협력협정에 관해 더 많은 統制力을 가지려 노력한다. 결국에는, 기관은 確實히 工業協力分野에 있어서 共同體의 더 包

---

32. The Irmer report (ibid., pp. 47-49) includes a list of these agreements in Appendix II.

33. Cf. Peter Knirsch, "Experiences with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East and West,"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 XIV, No. 1 (Seoul 1985), pp. 15-17.

括的인 權限을 얻으려할 것이다. 제한된 정도의 工業協力을 볼 때 (1980년대 초에 CMEA와 EC 국가들 사이에 協力業務의 結果로 最大 10%의 貿易을 추정할 수 있다.<sup>34)</sup>). 이 문제의 중요성은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1974년부터 공동체가 협력협정이 完結될 때에는 통지를 받고 협의한다(1974年 7月 22日 - 74/393 EEC)는 요구는 유효해 왔다. 공동체의 當局의 주의깊게 작성된 설명들에 기초하여 얼마나 자주 이 문제에 관한 重要한 利害關係의 충돌이 일어나는가를 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협의과정을 어느 정도 바꾸려는 노력이 시도된 것은 明白하다.

현재 EC가 CMEA 국가들과의 대외貿易에 있어서 그 自律性을 擴大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영역들은 무역규제가 높아질 CMEA 지역으로부터의 공동수입목록, EC의 농산물수출을 증진시키는 수단이 포함된 공동의 수출정책, 효율적인 합동신용정책, 東歐의 국가주도무역의 덤핑行爲에 대항하는 더 能率的인 접근, 獨逸內部貿易을 制限하는 共同統制體系, 또한, 배상처리를 위한 행위규범등이다.<sup>35)</sup> 비록 EC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가변적인 重要性을 갖는 問題들에 關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은 쉬운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 4. EC와 CMEA 간의 관계에 對한 考察

EC와 CMEA 간의 공식적인 관계의 기술은 우리 주제에 단지 制限된 타당성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가 東西貿易에 얼마나

---

34. Thus the Irmer report (*Sitzungsdokumente 1982-1983*, op. cit., p. 14).

35. These points are listed in this order in *ibid.*, p. 39.

많은 影響力을 行事하는지는 確實히 未決의 問題이기 때문이다. 현재 論議의 目的은 이러한 關係의 基本的인 측면을 간단히 특징지우려는 데에 있다. 오랜 동안 EEC의 탄생과 關係된 經濟的, 政治的 統合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동구국가들에 의해 날카롭게 거부당했고, 쓴 비판을 받았다.<sup>36)</sup> 브레즈네프가 1972年 유럽에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언할 때까지 15년이 걸렸다. 그리고 1973年에 시작되어 두 경제 공동체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接觸이 이룩되었다. 1970年代를 통해서 몇가지 貿易과 基本협정의 초안들이 상호간에 제시되었으나, 채택된 것은 없었다. 1980年에 EC는 고위레벨의 接觸을 단절했으나 특별한 주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토론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에 양측은 그들 입장에서 아직 협정에 도달하려면 멀었다. EC는 CMEA가 EC와는 달리 貿易政策을 결정할 直接的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CMEA 기관들은 초국가적 권위가 전혀 없다.) CMEA와의 貿易協定을 맺을 것을 거부한다. EC는 그 대신에 각 CMEA 국가들과 쌍무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까지 루마니아만이 1982년에 EC와의 무역협정에 조인했다. 이 협정은 工業製品의 貿易을 包含하고 있으며, 이러한 EC 국가내로의 輸入에 대한 루마니아의 쿼터를 늘렸다.<sup>37)</sup> 지난 몇 년 동안 헝가리도 EC위원회와 함께 같은 주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지금까지 체결된 협정은 없다. 비공식적인 헝가리의 소식통에 의하면 EC

---

36. Ibid., Appendix I, pp. 41-46 provides a detailed chronology of the individual steps taken between the EC and the CMEA.

37. Ibid., p. 15f.

가 헝가리의 요구에 맞춰 무역회담을 할 뜻을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CMEA는 EC와 CMEA의 각 국가들간의 쌍무적인 貿易協定을 許容하는 協定の 骨格을 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提案은 EC의 貿易主權의 적어도 한 부분을 포기하고, EC의 統合努力에 있어서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EC로서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1985年 봄 현재 CMEA의 새로운 각서가 이러한 협상에 약간의 움직임 을 다시 가져왔고, 많은 저널리스트들은 이것을 고르바초프하의 蘇聯政府의 새로운 政治過程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sup>38)</sup> 그러나 이제까지 CMEA와 EC의 論爭의 根本點을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우호적 接近이 일어나 리라는 確信있는 징조는 없다.<sup>39)</sup>

---

38. For example, cf. Hermann Bohne, "Comecon und EG kommen sich näher" (Comecon and the EC Are Coming Closer to Each Other), *Tagesspiegel*. (West Berlin: June 15, 1985), p. 3.

39. I wish to thank Mary Hess of the Osteuropa-Institut, Berlin for her translation of this paper and Dr. Jochen Bethkenhagen of the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Berlin for providing me with Table 6.



**Table 1 : Longer-term Economic Development of the Smaller CMEA States  
(1966-1985)  
( Average change in % per year)**

**3 a Produced National Income**

	1966-70	1971-75	1976-80	Plan 1981-85
Bulgaria	8.7	7.8	6.1	3.7
CSSR	6.9	5.5	3.7	2.0 - 2.6
GDR	5.2	5.4	3.9	5.1 - 5.4
Poland	6.0	9.8	1.7	0.0 - 0.5
Romania	7.7	11.3	7.2	6.7 - 7.4
Hungary	6.8	6.2	3.2	2.7 - 3.4
Total CMEA(6)	6.5	7.8	3.9	3.3 - 3.8

**3 b Gross Industrial Product**

Bulgaria	10.9	9.1	6.0	5.1
CSSR	6.7	6.7	4.6	2.7 - 3.4
GDR	6.6	6.5	4.9	5.0
Poland	8.4	10.5	4.6	-
Romania	11.9	12.9	9.6	7.6
Hungary	6.1	6.4	3.4	3.5 - 4.1

**3c Gross Agricultural Product**

Bulgaria	3.5	3.0	0.8	3.4
CSSR	4.9	2.7	1.8	1.4 - 1.9
G D R	1.5	2.9	4.0	-
Poland	1.8	3.6	-1.8	-
Romania	1.9	6.5	4.0	4.5
Hungary	2.8	4.7	2.3	2.3 - 2.8

**3d Gross Investment in Fixed Assets**

Bulgaria	12.5	8.6	4.5	0.9
CSSR	7.3	8.0	3.4	0.0
GDR	9.9	4.1	3.8	0.6
Poland	8.1	18.4	-2.3	-
Romania	11.2	11.5	8.5	5.2
Hungary	11.7	7.1	1.9	0.0

Sources: Statistical yearbooks of the CMEA and the individual CMEA countries, national economic plans and plan fulfilment reports of the CMEA countries as compiled in the DIW's Wochenbericht, No. 25 (Berlin: 1981) (including comments on the method of calculation), P. 282. In addition, see Klaus Bolz, ed.,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n den sozialistischen Ländern Osteuropas zur Jahreswende 1984/1985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ocialist Countries of Eastern Europe at the Turn of the Year 1984/1985) (Hamburg: 1985) as well as previous volumes.

**Table 2 :**  
Net material product  
(Annual percentage change)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Bulgaria	7.1	6.9	7.7	8.1	7.6	8.8	6.5	6.3	5.6	6.6	5.7	5.0	4.2	3.0	4.6
Czechoslovakia	5.7	5.5	5.7	5.2	5.9	6.2	4.2	4.2	4.1	3.1	2.9	-0.1	0.2	2.3	3.0
German Dem.Rep.	5.6	4.4	5.7	5.6	6.5	4.9	3.5	5.1	3.7	4.0	4.4	4.8	2.6	4.4	5.5
Hungary	4.9	5.9	6.2	7.0	5.9	5.1	3.0	7.1	4.0	1.2	-0.9	2.5	2.6	0.3	2.8-3.0
Poland	5.2	8.1	10.6	10.8	10.5	9.0	6.9	5.0	3.0	-2.3	-6.0	-12.0	-5.5	6.0	5.0
Romania	6.8	13.5	10.0	10.7	12.4	9.8	11.3	8.7	7.4	6.2	2.9	2.2	2.7	3.7	7.7
Eastern Europe	5.7	7.3	8.1	8.3	8.6	7.6	6.1	5.7	4.3	2.0	0.1	-1.9	0.1	3.9	5.1
Soviet Union	9.0	5.6	3.9	8.9	5.4	4.5	5.9	4.5	5.1	2.2	3.9	3.3	3.9	4.2	3.0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8.0	6.1	5.1	8.7	6.5	5.4	5.9	4.9	4.9	2.1	2.7	1.7	2.8	4.1	3.6

sources: National statistics and ECE secretariat estimates.

From: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84-85(Geneva:1984), Appendix Table C1.

Table 3: The Dynamics of East-West Trade Between 1965 and 1982

Average Annual Changes (%)	1965-71	1971-73	1973-76	1976-79	1979-82
<u>Nominal OECD Exports</u>					
to CMEA countries	11.9	43.3	25.0	11.9	- 2.3
USSR	11.6	49.7	33.4	11.8	5.7
CMEA (6)	23.1	39.3	18.3	12.0	- 11.8
World	11.9	27.3	16.5	18.5	3.2
<u>Real OECD Exports</u>					
to CMEA countries	10.3	24.0	10.3	0.6	- 1.7
USSR	8.5	25.6	14.1	1.5	6.6
CMEA (6)	11.5	17.0	7.2	-0.4	- 11.2
World	9.1	10.7	4.3	5.6	1.5
<u>Nominal OECD Imports</u>					
from CMEA countries	11.8	31.1	20.7	19.7	2.9
USSR	12.2	32.1	26.3	22.6	8.4
CMEA(6)	11.6	30.3	15.7	16.4	- 4.8
World	11.5	28.0	18.0	18.8	2.2
<u>Real OECD Imports</u>					
from CMEA countries	9.0	12.7	2.6	3.3	- 2.6
USSR	8.6	16.3	1.9	2.5	- 2.3
CMEA (6)	9.7	7.2	3.7	4.6	- 3.2
World	9.1	10.1	4.3	5.9	1.5

source: Friedrich Levciĭ, Die Wirtschaftsbeziehungen zwischen Ost und West in den siebziger und achtziger Jahren (Economic Relations Between East and West During the 1970s and 1980s), Vienna 1983, p.16f.

**Table 4: Data on the Trade balance of the CMEA Countries  
Vis-à-vis the OECD Nations**

CMEA Countries	1970	1971 to 1975 <sup>1)</sup>	1976 to 1980 <sup>1)</sup>	1980	1981	1982	1983 <sup>4)</sup>
Balance in billions of U.S.\$ <sup>2)</sup>							
Bulgaria	-0.1	- 1.4	- 1.0	+0.1	-0.6	-0.5	- 0.6
CSSR	-0.1	- 1.4	- 3.4	- 0.5	-0.3	-0.1	+0.1
GDR <sup>3)</sup>	-0.3	- 3.6	- 7.9	- 1.8	-0.5	+0.8	+0.5
Poland	+0.1	- 7.0	-10.2	- 0.7	-0.5	+0.6	+1.0
Romania	-0.2	- 1.3	- 1.1	+0.3	+0.5	+1.4	+2.1
Hungary	-0.1	- 1.7	- 3.8	- 0.7	-1.0	-0.6	- 0.0
CMEA (6)	-0.7	-16.4	-27.5	- 3.3	-2.4	+1.6	+3.1
USSR	-0.4	- 7.1	-10.7	- 0.5	-0.9	+0.0	+1.3
CMEA (7)	-1.1	-23.5	-38.2	- 2.8	-3.3	+1.6	+4.4
Exports as % of Imports							
Bulgaria	81.3	58.3	83.1	105.0	71.4	72.3	69.2
CSSR	85.3	81.5	77.0	87.3	90.8	95.5	103.2
GDR <sup>3)</sup>	77.4	71.0	67.3	71.8	91.5	114.2	107.4
Poland	108.4	61.5	69.0	89.4	89.7	119.2	133.0
Romania	76.9	84.3	91.6	101.4	113.8	173.6	240.9
Hungary	88.9	72.8	74.0	81.8	71.6	82.8	99.1
CMEA (6)	86.5	70.7	74.6	86.8	89.5	108.3	116.4
USSR	85.9	79.8	87.6	102.2	96.3	100.1	185.2
CMEA (7)	86.3	74.2	80.4	94.2	93.1	103.5	109.9
<p>Deviations in the sums are due to rounding off the numbers  1) Cumulative values. 2) For the respective prices and exchange rates;  export surplus: +, import surplus:-. 3) Vis-à-vis so-called capitalist  industrial countries (group designation). 4) Provisional.</p> <p><u>sources:</u> Statistical yearbooks and foreign trade yearbooks of the CMEA  countries.</p>							

Table 5: Development of the CMEA Countries' Trade With the West<sup>1)</sup>

CMEA Countries	Export <sup>2)</sup>					Import <sup>5)</sup>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Billion TRbl <sup>3)</sup>											
Bulgaria	0.26	0.35	1.15	1.10	1.02	0.92	0.32	0.96	1.10	1.54	1.41	1.33
CSSR	0.70	1.17	2.21	2.18	2.14	2.24	0.82	1.57	2.53	2.40	2.24	2.17
GDR <sup>4)</sup>	0.90	1.69	2.95	3.87	4.66	5.24	1.17	2.45	4.11	4.23	4.08	4.88
Poland	0.91	2.42	4.04	2.96	2.67	2.86	0.84	4.63	4.51	3.30	2.24	2.15
Romania	0.54	1.39	2.82	2.88	2.43	2.65	0.70	1.68	2.78	2.53	1.40	1.10
Hungary	0.59	0.95	1.99	1.85	1.93	2.13	0.67	1.41	2.43	2.64	2.33	2.15
CMEA (6)	3.90	7.97	15.16	14.88	14.85	16.04	4.52	12.70	17.46	16.64	13.71	13.78
USSR	2.21	6.17	16.19	17.57	19.00	19.76	2.57	9.75	15.83	18.24	18.98	18.79
CMEA (7)	6.11	14.14	31.35	32.45	33.85	35.80	7.09	22.45	33.29	34.88	32.69	32.57
	Chang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											
Bulgaria	+10.1	+3.0	+23.7	-4.3	-7.3	-10.3	+38.0	+40.7	+25.3	+40.0	-8.4	-6.1
CSSR	+9.4	-6.0	+23.5	-1.4	-1.5	+4.3	+26.0	+2.0	+10.0	-5.2	-6.2	-3.3
GDR <sup>4)</sup>	+7.8	-5.3	+26.6	+31.2	+20.4	+11.6	+32.1	-0.4	+10.5	+2.9	-3.6	+19.6
Poland	+19.2	+9.0	+14.5	-26.6	-10.0	+7.3	+4.2	+17.2	-1.0	-26.8	-32.1	-4.0
Romania	+20.2	-8.8	+13.5	+2.1	-15.4	-9.2	+5.1	-13.1	+5.3	-8.9	-45.0	-21.3
Hungary	+22.5	-8.8	+15.3	-4.6	+1.6	+10.5	+42.2	+3.5	+11.5	+8.8	-11.8	-7.7
CMEA (6)	+20.8	-0.5	+18.5	-1.8	-1.5	+5.8	+19.0	+7.5	+7.2	-4.3	-17.7	+0.4
USSR	+4.7	-2.4	+26.5	+8.5	+8.2	+4.0	+11.5	+57.4	+18.5	+15.2	-4.1	-1.0
CMEA (7)	+14.4	-1.6	+22.5	+5.5	+5.1	+4.9	+16.2	+24.7	+12.3	+4.8	-6.3	-0.3

C M E A Countries	Export <sup>2)</sup>					Import <sup>2)</sup>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Share Represented by Trade With the West ( total exports or imports=100%)											
Bulgaria	14.2	10.1	16.8	14.5	12.1	10.0	19.1	23.8	17.2	20.2	16.6	14.5
CSSR	20.6	20.0	22.0	19.9	18.0	17.7	24.8	24.7	24.8	22.2	19.0	16.9
GDR <sup>4)</sup>	22.1	22.6	24.1	27.4	29.1	29.0	26.9	29.2	30.5	29.5	27.3	29.9
Poland	28.5	31.5	34.6	29.6	24.0	23.5	25.9	49.5	34.4	28.2	21.1	18.5
Romania	32.3	35.0	36.9	31.7	29.5	30.4	39.6	42.2	31.4	28.2	19.9	16.2
Hungary	27.0	22.3	25.0	21.2	20.0	18.3	26.9	28.4	29.3	29.2	24.7	21.4
CMEA (6)	24.0	24.3	26.9	24.5	23.1	22.1	27.2	34.2	29.0	26.6	22.0	20.7
USSR	19.1	25.7	32.6	30.8	30.1	29.1	24.3	36.6	35.6	34.7	33.7	31.5
CMEA (7)	22.0	24.9	29.6	27.6	26.5	25.5	26.1	35.2	31.8	30.3	27.5	25.8

The 1983 data are preliminary.

1) OECD countries. 2) Values: fob; Hungary imports: cif. General trade. Country of purchase and country of sale; USSR and Hungary (from 1975) : country of origin and country of destination. 3) The transferable ruble is the foreign currency unit of the CMEA countries. Its calculated Value was: 1.11 U.S. dollars in 1970. 1.39 U.S. dollars in 1975, 1.53 U.S. dollars in 1980, 1.39 U.S. dollars in 1981 in 1981. 1.38 U.S. dollars in 1982 and 1.35 U.S. dollars in 1983. 4) So-called capitalist industrial countries (group designation).

sources: Foreign trade statistics of the CMEA countries; DIW calculations.

Table 6: Share of Foreign Trade With the West<sup>1)</sup> for Selected CMEA Countries(in %)

	1970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sup>2)</sup>
<b>EXPORT</b>											
<b>Bulgaria</b>											
EC (10)	73.9	65.9	62.8	57.0	61.7	59.3	67.0	68.9	67.9	60.8	.
FRG	18.3	17.0	17.9	15.5	16.5	11.4	15.3	16.0	15.1	14.8	.
USA	0.8	5.1	2.6	3.7	2.3	2.1	4.7	2.5	2.9	1.7	.
<b>CSSR</b>											
EC(10)	65.5	65.7	64.2	62.4	62.7	62.9	62.2	61.6	58.2	60.0	57.3
FRG	26.8	27.6	28.7	28.1	28.9	29.2	30.3	30.5	29.3	30.4	29.2
USA	3.0	2.0	2.3	2.0	2.6	2.0	2.2	2.2	1.9	2.1	2.6
<b>GDR</b>											
EC (10)	71.6	73.2	74.7	74.8	74.7	72.5	70.5	62.3	56.7	58.0	.
FRG	44.5	37.7	36.1	42.6	40.5	38.8	37.3	31.1	29.2	27.6	.
USA	0.9	0.5	0.6	0.5	1.5	1.1	1.1	2.1	1.0	0.8	.
<b>Poland</b>											
EC (10)	63.3	61.2	59.6	60.6	64.1	66.0	64.2	64.0	65.5	67.9	64.2
FRG	20.2	17.5	20.9	20.6	23.3	24.2	24.9	28.0	26.0	26.1	25.4
USA	9.2	7.2	8.1	9.7	10.5	8.3	7.2	8.4	6.0	5.1	6.2
<b>Romania</b>											
EC (10)	77.1	65.2	64.9	62.9	62.8	64.8	68.3	62.1	63.3	66.3	.
FRG	28.1	23.6	24.0	23.6	23.7	24.3	23.1	20.2	24.0	17.3	.
USA	2.2	5.2	8.6	12.6	13.9	12.8	9.9	13.7	9.8	11.3	.
<b>Hungary</b>											
EC(10)	61.3	59.4	57.7	62.1	63.1	65.2	58.6	56.8	51.6	47.2	47.0
FRG	22.2	24.5	26.0	30.0	28.1	28.7	27.9	29.1	24.1	22.5	21.6
USA	1.4	2.6	3.2	3.1	3.8	4.0	3.7	5.1	5.2	6.1	7.7
<b>USSR</b>											
EC (10)	56.5	56.1	61.7	61.2	61.8	62.5	67.1	67.6	70.1	69.5	71.2
FRG	10.5	15.0	14.8	15.1	17.0	17.3	19.1	20.7	21.4	20.6	21.1
USA	2.6	2.2	2.5	3.1	2.9	2.7	0.9	1.0	0.8	1.7	1.4
<b>CMEA</b>											
EC (10)	64.0	61.0	63.2	62.7	63.7	64.2	66.4	65.2	66.0	65.3	65.0
FRG	22.1	21.1	21.1	21.5	22.8	22.3	23.1	23.6	23.3	22.3	.
USA	3.1	3.3	4.2	4.5	5.2	4.3	3.0	3.3	2.3	2.8	.

	1970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sup>2)</sup>
<b>IMPORT</b>											
<b>Bulgaria</b>											
EC (10)	67.6	70.6	67.6	69.7	64.2	67.6	66.6	59.1	59.6	59.4	.
FRG	14.0	33.0	30.9	29.2	29.9	27.6	27.8	24.3	26.8	27.6	.
USA	1.9	1.9	3.7	2.3	1.9	3.9	4.6	10.4	6.5	3.8	.
<b>CSSR</b>											
EC (10)	60.3	59.1	56.3	57.7	57.5	54.6	54.1	52.2	51.2	53.8	55.0
FRG	22.9	26.1	22.9	25.1	25.7	26.5	22.3	23.0	24.9	27.5	26.4
USA	3.0	6.1	10.5	5.7	4.6	9.2	8.2	5.0	5.0	3.4	1.9
<b>GDR</b>											
EC (10)	62.4	53.4	51.2	51.3	55.3	51.4	48.5	53.8	51.4	49.8	.
FRG	39.4	30.5	26.3	30.7	32.9	25.5	25.4	27.2	32.2	29.9	.
USA	3.1	9.2	14.9	5.9	7.2	7.1	9.1	4.9	5.0	3.1	.
<b>Poland</b>											
EC (10)	65.8	57.2	54.8	56.3	55.6	54.8	56.4	56.3	60.8	60.3	61.4
FRG	15.8	16.5	17.8	17.0	17.1	17.6	19.7	20.1	23.4	24.4	25.2
USA	6.2	9.5	12.2	8.8	11.0	11.6	11.7	16.8	4.2	5.0	5.5
<b>Romania</b>											
EC (10)	71.1	60.9	57.1	53.3	54.7	56.8	53.1	53.9	58.7	55.2	.
FRG	20.6	26.4	18.3	20.6	20.8	24.6	20.4	17.7	21.0	20.1	.
USA	7.7	5.1	12.4	11.1	13.6	16.7	23.5	24.2	13.2	14.2	.



	1970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sup>2)</sup>
Hungary											
EC (10)	61.2	59.8	59.3	60.1	60.4	59.8	57.1	58.2	58.2	58.0	56.6
FRG	19.6	26.5	26.2	29.0	31.2	31.7	29.8	29.6	30.6	29.9	30.8
USA	5.4	6.9	5.4	6.0	5.4	4.9	6.8	6.2	5.9	7.7	7.0
USSR											
EC (10)	51.8	45.9	41.5	46.6	46.4	44.1	46.7	41.2	38.7	45.6	42.4
FRG	13.2	20.0	17.7	20.2	19.0	17.1	18.9	14.8	15.3	17.9	17.2
USA	4.0	15.0	18.0	11.8	14.2	18.6	8.5	9.1	10.9	8.4	14.4
CMEA (7)											
EC (10)	59.7	52.9	49.9	52.0	52.3	50.6	50.7	47.9	45.8	49.4	47.0
FRG	20.2	22.2	20.2	22.1	22.2	21.1	21.3	19.1	20.5	22.0	.
USA	4.2	10.9	14.1	9.3	11.0	13.7	10.0	10.0	8.8	1.0	.

1) in transferable

2) preliminary figures

Sources: Statistical yearbooks foreign trade yearbooks for the respective countries, statistics appearing in monthly issues. Based on data provided by the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in West Berlin.

### 第 3 章 獨逸聯邦共和國과

#### 獨逸民主共和國間의 經濟關係

##### - EC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

##### I. 序 論

Gert Leptin  
(백림自由大 經濟學教授)

經濟問題는 모든 국가간의 關係에 중요한 役割을 차지한다. 이 사실은 獨逸聯邦共和國에 관한 한 특별히 그러하다. 經濟的 잠재력 이외의 다른 政治적 도구를 갖지 못한 獨逸聯邦共和國은 外交 政策의 領域에서 주로 경제적 잠재력을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接近은, 世界貿易에서 미국 다음으로, 그리고 日本보다 앞서는 주요 參與國으로 자리잡고서, 大規模의 고도로 發達된 産業을 소유한 國家의 면모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연방공화국의 多樣한 政府들이 그들의 經濟的 可能性을 慎重하고도 抑制的으로 사용한 사실은 최근의 逸獨 歷史를 고려해 보면 이해가 쉽다. 國外에서, 聯邦共和國의 外交 政策에서의 위치에 대한 잘못된 解釋은 正確히 말해 이러한 점에 있다. 즉 獨逸聯邦共和國(이후부터 獨·聯·共 또는 FRG)은 종종 經濟的 거인과 政治的 난장이의 混合物로 묘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잘 이해된 政治的 利益 때문에 비록 政治的 난장이처럼 행동하려고 시도하지만, 또한 西獨政府에 의해 최우선권이 주어진 구체적 政策의 領域에다가, 經濟的 우세에 기초하여 주어진 政治的 가능성을 집중하기 위해 이러한 方式으로만 행동한다손치더라도 경제적 거인이 국제 關係에서 政治的 난장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은 失敗로 끝나고 만다. 이 점에서, 즉 獨·聯·共이 그것의 經濟的 重要性和 去來 關係가 있는

세계의 다른 地域에 더 큰 責任을 갖는다는 外國의 계속된 主張은 獨逸聯邦共和國의 政治的 우선권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유럽의 經濟的, 政治的 統一을 促進하여 적어도 間接的으로는 세계에서 더 큰 政治的 影響력을 獲得하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第2次 世界大戰 以後, 強大國에 의해 이루어진 獨逸의 분열을 가능한 한 참고 견디게 하기 위해서 獨逸民主共和國(以後부터 獨·民·共 또는 GDR로 略함)의 국민들과 集約的인 關係를 維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西獨의 外交政策의 두가지 초점은 獨·聯·共과 各개의 交易國間의 특별한 經濟關係의 발달을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6개국 유럽經濟共同體의 創設을 낳은 合意가 있으며(西獨, 프랑스, 이태리,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1958년 1월1일 또 한편으로는, 2次世界大戰의 종결 이후부터 형성되어 처음엔 獨逸의 소련 점령지역과 그리고 지금은 獨逸聯邦共和國의 經濟關係의 발달에 影響을 미친 수많은 규칙들이 있다. 두가지 경우에 있어, 선호체제의 제도화가 수반되었는데: 各개의 交易國은 西獨의 다른 貿易 상대國과 비교하여 獨·聯·共과의 무역 혜택이 주어졌다. 달리 말하자면, 세계의 나머지 地域은 선호적 처리가 허용된 유럽공동체( EC)와 獨·民·共(GDR)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아 왔다. 물론 이것은 獨·聯·共에 의해 선호적으로 대우를 받는 무역 상대國과 同等하게 處理되지 못하는 비 선호 貿易 상대國과의 問題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다음의 分析은 선호적 그리고 비선호적 무역 상대國간의 關係에서 發生하는 問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호적 상대國 사이에서 존재하는 關係에서 일어나는 問題에 초점을 둔다: 獨·聯·共의 GDR과의 특별한 經濟關係가 유럽공동체의 무역상대國에 미치는 影響, 또

한 유럽공동체에서의 西獨의 統合이 GDR 그리고 東·西獨間의 經濟關係에 갖는 涵蓄성은 과연 무엇인가? GDR을 向한 西獨의 經濟關係의 상대적 重要性을 簡略히 살펴본 후에 우리는 FRG-GDR-EC의 삼각 관계를 정치적 次元, 法的 規制, 경제적 결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의 실제적 經驗에 관련하여 分析할 것이다.

## II. 獨·聯·共과 獨·民·共間의 經濟 關係

獨·聯·共과 獨·民·共간의 경제 관계는 항상 정치적 그리고 經濟的 요인에 의해 결정되거나, 影響을 받아왔다. 이러한 背景에서, 影響을 주는 요인의 상대적 影響力은 그것이 느껴지는 수준에 따라 區分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즉 가장 결정적인 影響力은 기초적인 政治的 要因에 의해 행사되는 것으로써, 환언하면, 유럽에서의 東·西關係의 기본적인 정치적 구조와 西獨 政府가 순응해야 하는 정치적 活動의 憲法的으로 設定된 한계들이다. 전체적으로는 獨逸과 직면한 4개의 이전 2次大戰同盟國의 지속적인 權利와 責任들 그리고 특별히는 베를린의 위치를 고려한 그들의 복잡한 관계들이 獨·聯·共과 獨·民·共간의 經濟 關係가 점령법(軍事政府法 No. 53 1946년 6월 1일, 改正 1949년 9월 19일) 아래 고안된 法令에 의해 아직 지배받고 있는 根本 理由이다. 처음에는 원칙상, 지역간의 經濟的 關係를 禁止한 이러한 規例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商業 去來도 이러한 禁止로부터의 특별한 또는 일반적인 허락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西方 同盟國이나 西獨政府 共히 이러한 狀況을 變更하는데 관심이 없으므로 이러한 法的 根據의 變化는 아마 없을 것이다. 同一한 事實이 獨逸 憲法에도 適用된다. 獨·聯·共의 基本法에 따르면 GDR과의 交易

은 무역 (foreign trade)이 아니며 따라서 特別한 法令에 종속되는 것이다. 실지 政府 政策의 水準에서는, 政治的 그리고 經濟的 要因은 共히 役割을 차지하며 상호간에 影響力을 行使한다. 어느 정도는 政府의 政治的 目的은 경제적 測定値에 의해 施行되며, 다른 경우에는 現在 또는 長期的인 經濟問題가 성취의 한계를 규정 짓는다. 비록 대체로 이것은 새로운 協力 提議案을 위한 接近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미시경제적 水準에서 경제적 利益과 目標은 우세하다. 이러한 背景에서 정치적 요인은 오히려 방해물로 보통 可能하는데, 그러나 때때로 가치있는 商業交易을 위한 出發點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獨·聯·共과 獨·民·共 간의 經濟關係의 重要性 評定은 각개의 分析 水準에 달려 있다 : 企業 水準에서는 GDR 과의 交易은 압도적인 重要性을 가지며, GDR 과의 商業 去來에서 特別한 經歷을 쌓은 소규모 企業에는 더욱 계속적인 生存에 관련하여 결정적이기 까지 하다. 거시경제적 觀點에서는, 이러한 관계들은 적어도 獨·聯·共에 관한 限 조금의 重要性 밖에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獨·民·共과의 경제 관계 가장 重要한 局面인 獨逸內의 交易量이 1970 년과 1983 년 사이에 3 배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獨逸내<sup>1)</sup>의 交易을 包含한 全體的인 西獨 貿易의 發達에 뒤떨어진다. 1950 년도엔 3.6 %였던, 西獨貿易量중 GDR 과의 交易 比重은 이어서 1970 년에는 1.8 %로 떨어지고 1983 년엔 1.7 % 그리고 1984 년도엔 1.5 %로 하락하였다. 同一한 기간中 獨·聯·共과 그의 EC

---

註 1) 여기서 獨逸內의 交易을 Intra-German Trade의 번역으로, 東獨과 西獨間의 交易을 말한다. 이후 가끔 獨逸間의 交易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同一한 의미이다.

교역국간의 교역은 완전히 相異한 發展을 겪었다. 1970 년과 1983 년 간에 그 비중은 42.1 %에서 48.6 %로 올랐다. 따라서 獨逸內의 交易과, EC 交易國과의 獨·聯·共의 貿易은 量的으로 相當히 차이가 난다. 이러한 現象을 GDR (獨逸民主共和國)의 觀點에서 볼 때에도 獨逸間의 交易의 重要性에 대해서는 유사한 評價가 내려진다. 獨·聯·共に 비해 GDR의 總 貿易量은 훨씬 적기 때문에, 貿易量에서 獨逸內의 交易의 몫은 獨·聯·共의 경우보다 5배나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1970 년과 1983 년 사이에 10.2 %에서 8.5 %로의 하락이 있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GDR의 사회주의 國家와의 交易量은 65.4 %에 달하였다.(이중 蘇聯과는 38.1 %), 西方 産業國家와의 貿易量은 21 %를 차지하였다. (獨逸內의 交易은 包含치 않음)

獨逸內의 交易의 商品構造의 分析은 交易 商品이 얼마나 많이, 分析的 目的을 위해 直接 또는 分散되었는가에 따라 短期的으로는 여러 가지의 變遷이 관찰되지만, 長期的으로는 安定勢를 보여왔다. 逸·聯·共은 주로 資本財 일종의 化學材 그리고 一次 農業産物(油類 찌꺼기)등을 供給한 것이 特色이다. 이와는 對照적으로 消費財는 그다지 重要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供給量中 차지하는 比重은 10 %를 넘겨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資本財가 12 % 내지 13 %를 超過하지 못한 반면 GDR에 의해 供給되는 消費財는 20 %내지 30 %의 量을 차지하였다. 非鐵金屬 뿐 아니라, 쇠와 鐵의 交換에 添加하여 가솔린과 다른 油類製品과 교환으로 原油의 交易(지난 수년간 계속적으로 그 重要性이 增加하고 있고 1985년 7월까지 擴張된)은 個別商品의 重要性에서 단기적인 變遷의 일부이다. 이러한 交易의 도움으로 獨逸內의 交易에서 供給과 인도간의 不均衡은 상당한 정도로 均衡을 이루어 왔다. 獨逸 內의 交易이 政治的 影響圈에 노출되고, 또한 비단 이 경

우 만이 아니라, 交易의 商品 構造에 명백히 影響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특이 마지막의 例가 된다.

정확히 이러한 政治的 影響力이 獨逸내의 交易과 獨逸내의 經濟關係라는 보다 넓은 概念間의 差異를 밝히는 것을 必要케 하는 요인이다. 1951년 9월 20일의 DM-West<sup>2)</sup>의 통화 지역과 DM-East의 통화지역간의 交易에 관한 베를린協定에 규정된 獨逸간의 交易에 添加하여 獨·聯·共이 特別한 目的으로 그리고 GDR로부터 일정한 用役을 교환받는 조건으로 재무적 義務를 져야 하는 特別협정이 상당수 있다. 베를린 交通에서, 通過料金の 一時拂 支給, GDR의 西獨 訪問客들에 의한 道路使用料의 일시불 지급, 인본적인 測定(humanitarian measures)을 위한 支給, 그리고 베를린 至向의 接近經路의 확장과 갱신을 위한 相當한 支拂(고속도로 건설) : 西獨으로부터의 訪問客이 支拂해야 하는 旅券料 그리고 친구 또는 친척등에게 支拂되는 강제적 최소한의 교환 총액과 現金 贈物과 더불어 이러한 支拂은 지난 수년간의 매년 최소한 2.5 萬億 DM로 測定 可能한, GDR을 상대한 DM 收益을 가져왔다. 대체로 이러한 擴張된 獨逸內의 經濟關係의 政治·經濟的 構造는 獨·聯·共이 經濟的 用役을 제공하고 또는 나아가 完全히 GDR로 改造可能한 現金으로 獨·聯·共이 支拂해야 된다는 즉, 교환적으로 베를린과의 출입을 위한 接近의 條件을 向上시키거나 용이케 하여 GDR로의 訪問客 수나 조금 낮은 정도로는 GDR로부터 獨逸聯邦共和國으로의 訪問客 數의 增加을 돕는 措置를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獨逸의 분열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國民들에게 미치는 否定的 影響은 경감될 수 있고 獨逸의 兩 地域에서의 國民들 間의 接觸은 고무적일 수 있는 것이다.

註 2) 西獨의 貨幣(Deutsche Mark)의 約字

### III. 유럽 共同體와 연관한 獨逸內의 經濟關係의 政治的 問題

獨逸에서의 2次世界大戰 以後 勝戰 強大國 사이의 關係에서 發展된 狀況으로 인하여, 그리고 獨·聯·共의 根本的인 憲法 原則에 따라 GDR 과의 經濟的인 關係는 特別한 性格을 띤다. : 단어의 일상적인 의미상 그것은 貿易이 아니라, 특별한 종류의 交易이다(sui generis). 유사한 性格이 유럽 공동체 國家와의 經濟 關係에도 適用된다. 그것들은 정상적인 무역이 아니다. 상당한 정도로 法令에 대한 責任이 國家的 전위로부터 비롯하여 초국가적인 기구에 전이되었다. 관습적인 義務와 다른 國家的 規制가 除去되었다. -간단히 말하여 로마 條約의 意圖- 共同의 市場 領域을 創造하여 所屬 國家 間의 相互 貿易 關係를 內부의 交易 關係로 전환시키려는 - 거의 完全히 實現되어왔다. 重要的 政治的 問題가 GDR 과 유럽 공동체 國家와의 두가지 特別한 過程의 平行적 發達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現象은 獨·聯·共 뿐만 아니라 獨·民·共 그리고 EC내의 聯邦 共和國 交易 相對國 또한 機構로서의 유럽공동체에도 適用된다.

獨·聯·共에게는 그의 全體的인 전후 政策에 내재하는 根本的인 모순이 獨逸내 交易과 EC와의 關係에서 드러났다. 즉, 西方과의 結속과 동시에 獨逸의 再統一의 계속적인 요구에 대한 決定이다. 서방국가 공동체로의 統合과 決定은 3가지의 同等하게 重要的 構成要素를 갖는다. 그것은 1. 憲法的인 自由, 議會 民主主義, 基本的인 政治的 價値에의 決定, 2. 서방 안전 同盟에의 決定 3. 市場經濟로 組織된 서방 유럽 經濟의 統合에의 決定이다.

法的 그리고 組織的 水準에서는 이러한 決定의 結果들은 基本法에 의해



獨·聯·共을 위해 設定된 自由와 民主主義의 基本的인 體系와 NATO와 EC에서의 西獨의 所屬意識에서 드러난다. 이 세가지 사실 모두는, 共產主義式 일당 체제를 갖는 GDR에서의 상황, 바르샤바條約 安全 同盟의 GDR의 소속 그리고 유럽상호경제원조회의(CMEA)에서의 中央 計劃 經濟의 統合에 맞선다. 이러한 狀況에서 GDR과의 특별한 關係의 성공적인 發展은 비록 그것이 獨逸의 兩 部分에 거주하는 國民들에게 미치는 分열의 影響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된 정도로 獨逸의 再統一을 促進시키지 못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손 치더라도, 위대한 성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獨逸 內의 經濟 關係와 EC間의 關係가 GDR에게는 특별한 政治的인 問題를 가져온 때문에 可能하였다.

GDR을 향해 제기되는 政治的 問題들은 雙務的인 關係에서뿐 아니라 유럽공동체에 직면한 어떤 한계 내에서 그리고, 政治的으로 기인한 특별한 위치를 감수하는 댓가로서 구성된 유럽공동체와의 연관된 政治的 內容의 側面에서 獨·聯·共에 의해 제기된 경제적 特惠間의 關係에서 發見될 수 있다. 이러한 事實은 GDR이 獨·聯·共과 정상적인 貿易을 施行한다는 것과 獨·聯·共이 자신의 선택대로 이러한 貿易을 組織하는 관할 내에 GDR이 전적으로 놓여져 있다는 GDR의 주장에 의해 變更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GDR이 FRG와의 1972년의 기본 조약에서, GDR을 다시 한번 明白히 타당한 協定의 계속성을 확인하고, 따라서 1951년의 地域間의 交易 동의안에 특별히 확증한 바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東·西 交易에서 GDR과 경쟁하는 CMEA 國家들은 GDR이 경쟁에서 향유하는 특혜를 뼈저리게 인식하며, 그들에게는 이 사실이 獨·聯·共과 直面한 GDR의 특별한 政治的 位置에 위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의 FRG의 貿易相對國은 GDR에 대해 經濟的 뿐만 아니라 政治的 問題를 또한 갖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EC國家들이 獨逸 쪽에서 누구와 結合되고 있으며, 그들의 統合된 相對國이 누구인가 하는 問題로 이어진다. 결국, GDR에 적어도 部分的으로 열려 있는 經濟的 경계를 갖는 FRG는 다른 EC 상대국 즉, 제3國家들과의 關係에서 明確히 정의된 경계를 갖는 FR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FRG가 GDR을, 신문에서 자주 읽혀지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EC멤버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FR의 利益이 되는 GDR과의 關係를 發展시키는데 있어서 그들의 經濟的인 따라서, 政治的인 機會를 相對的으로 制限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유럽의 統一 過程의 基本的인 原則 中の 하나를 대표하는 이러한 法令은 EC의 創設 멤버들에 의해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實質的으로 후기의 EC 확장 中 새로운 멤버의 모든 加入과 함께 再確認되어 왔다. 이러한 용인이 멤버십 條件의 本質的인 要素가 되는 事實에도 不拘하고 이것은 모든 加盟國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는 根本的인 共同體 原則의 表現이므로 모든 參與國들이 그것을 받아들여가야 훨씬 쉬워졌다: 즉 이 共同體는 각 加盟國의 根本的인 國家 利益의 尊重에 基礎한다는 原則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새로운 加盟國의 許諾을 위한 協商을 힘든 과정으로 만들지만, 반면에 계속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EC의 계속적인 生存을 위해 필요한 前提條件이다. FRG에게는, EC에 의해 야기되고 수락된 根本的인 國家利益은 곧 GDR의 特別한 位置이다.

그러나 根本的인 國家 利益 조차도 不變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政治的 狀況의 진화에 종속된다. 1972年의 基本條約의 署名 以後 특히, EC에 직

면한 GDR의 특별한 위치가 그의 유용성을 넘어 생존하지 않았는가의 여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條約의 공식이 사실상 獨逸內의 關係의 특별한 性格을 확인하는 주장에 대답하기란 可하였다. 또한 未來를 위해 決定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남은 것은 西獨 政府가 이러한 關係에 부여하는 重要性이다. 國家利益은 國家的 틀 내에서만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獨·聯·共이 GDR의 특별한 位置를 계속 주장하는限 EC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것도 바꿀 수도 바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 IV. 法的 規定 條件

一般的으로 政治的 優先權의 國際的 認定은 國際法 아래의 公式을 통해 이루어진다. 獨·聯·共과 대면한 GDR의 특별한 위치가 政令법(軍事政府法 No 53)과 獨逸 憲法(獨·聯·共의 基本法) 그리고 約定(베를린 協定, 1951)에 의해 고정된 이후로, 이러한 前提條件들은 유럽조약이 締結될 때 수용되어야만 되었다. 이것은 상당한 수의 사적 경제 행위 主體들의 行動을 制約한 규정을 가진 條約者들에게는 특히 重要했으며, 獨占的인 國家 行動(state behaviour)이 관여된 경우는 덜 중요하였다. 이 경우의 可能性들은 獨逸 내의 交易에 관한 特別 法令의 유럽條約의 문안에 統습시키는 것으로부터 附加的 조서의 결론, 계약 當局에 의한 意圖의 一般的인 공인의 명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獨逸 內의 關係의 特別히 問題的인 性格을 단순히 무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다. 사실상 대단히 多樣的 解決 方案이 여러 유럽 條約에서 發見 可能하였다. 유럽 石炭鐵鋼共同體 (E CSC)의 協定 채택을 위해 獨逸側 提案이, “ECSC條約을 위한 變遷 條項의 協定”의 文案에 包含된 反面에 EEC 條約에서 宣布된 解決案은 附

加的 條約案의 公式이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유럽原子에너지의 領域에서 獨·聯·共과 獨·民·共間의 協助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共同體를 형성한, 유럽石炭鐵鋼 共同體와 유럽 共同體 그리고 유럽원자에너지 共同體의 融合 以來로 公式的인 次元에서는 獨逸內의 經濟關係의 문제는 더 이상 均一하게 規制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에 더하여, 締結된 規例들은 형식면에서 뿐 아니라 文案의 比較가 보여주듯이 內容面에서도 다르다. 따라서 유럽石炭鐵鋼 共同條約을 위한 變遷의 規定條件의 22項은: “獨逸聯邦共和國과 占領地域의 蘇聯 領域間의 石炭鐵鋼 交易은 聯邦共和國에 關여하는 한도 내에서 高位層과의 同意 아래 聯邦政府에 의해 規制될 것이다” 라고 써어 있다. 對照的으로 1957年 3月25日의 EEC條約에 관한 부가적 조서는, 1. 獨·聯·共의 基本法에 종속된 獨逸 領域과 基本法이 適用되지 않는 獨逸 領域 間의 交易은 獨逸의 內部 交易의 一部이므로 獨逸에서의 이 條約의 適用은 최근에 이 交易에 許諾된 處理에서의 어떤 變化도 要求하지 않는다. 2. 各 加盟國은 다른 加盟國과 委員會에서 獨·聯·共의 基本法이 適用되지 않는 獨逸 領域內의 交易에 관한 어떤 同意案과 實施 規定條件 等を 알려야 한다. 各 加盟國은 그러한 동의안의 실시가 共同 市場의 原則과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됨을 확실히 하여야 하고, 他 加盟國의 經濟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적절한 措處를 特別히 취해야 한다. 3. 各 加盟國은 獨·聯·共의 基本法이 適用되지 않는 獨逸領域과 다른 加盟國間의 交易으로 인해 그 나라에 發生하는 애매한 어려움을 防止할 措處를 취할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法令의 本質的인 차이는 ECSC 에게는 協助는 原則이 사용된 반면, EEC 에게는 自律의 原則이 채택된 점이다: 獨單的으로 有能한

聯邦政府에 의한 決定은 따라서 石炭과 鐵鋼의 交易에 관한 限, ECSC의 高位層의 繼承者로서 유럽共同體委員會의 承認에 종속되며, 反面 다른 모든 領域에서는 FRG 政府가 自律的으로 決定할 수 있고, 그 決定을 EC委員會에 통보만 해 주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확증적인 곤란(상해)의 境遇에는 그들 自信을 保護할 自律的인 行爲를 취할 그들의 權利 뿐 아니라 共同市場의 原則과 交易 相對國의 경제적 利益을 考慮하는 규정과 結合되었다.

여기서 嚴格한 용어상의 차이가 지적 되어야 한다: ECSC 條約의 22項에서는 使用된 名稱이 여전히 “소비에트 占領地域(비록 GDR이 벌써 設立되었으나) 이었지만, 수년뒤의 EEC 동의안의 부가 條項에는 좀더 完속한 文구가 선택되었는데: “...獨·聯·共의 基本法이 適用되지 않는 獨逸領域”이었다. 이러한 變化는 獨逸이 繼續 分斷狀態에 있고 “事實上 이러한 狀況을 견디어오고 있기 때문에, 獨·聯·共 뿐만 아니라 西方 同盟國들에 의해 취해진 法的 위치의 존중이 더욱 더 重要해 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비롯된 國際 동의안의 형성에 대한 어려움은 繼續的으로 增加하며 1971年의 베를린 동의안의 協商과 그 마지막 文案 作成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모든 기대를 어기고 ECSC 條約과 EEC 동의안에 대한 부가적 條項에서 構成된 것과 같은 EC와 GDR의 關係를 支配하는 서로 다른 規制의 實質的인 적용에서, 獨逸共和國과 ECSC 條約에서 規定된 委員會間的 동의에 대한 필요로부터는 아무 問題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獨逸 內的 交易을 지배하는 特別 法令에 대해서는 수많은 공격이 있었는데, 特히 나중에 EC委員會의 멤버가 된 네델란드의 대리자에 의한 공격이 各별하였

다. 論點은 獨逸 內의 交易이 經濟 活動의 多樣한 領域을 방해하며, 특히 基本 條約의 締結 以後로 이 條約이 附加的 條項의 동의의 基礎를 修正 했다는 것이다. 獨·聯·共은 그의 政治的 背景에서 이미 言及된 問題의 이러한 형성에 대한 反應으로 國際法에 基礎하여, 附加 條項의 동의안 基 礎의 實在은 獨逸의 繼續的인 分斷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西獨 政府의 行 爲의 自由에 대한 規制에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點에서 ECSC의 22項은 條約에 명시된 變遷 期間에 獨立的으로 特別法令이 영 원한 制度임을 明白히 宣言하는대로, 有用하다. 이 規定은 유추에 의하여 附加 條項의 規定에도 適用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떠한 反對되는 論爭 도 EC를 형성하는 共同體의 融合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共同體 內의 상이한 모순적인 法的 구성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 V. 經濟的 結果

유럽共同體와 直面한 獨逸內의 經濟關係의 特別한 位置는, 獨·聯·共과 의 關係에서 GDR이 共同體 밖의 소위 “第3의 國家”로 여겨지지 않 을 것이라는 것을 本質的으로 의미하는 것으로서, 直接的으로 관련된 當事 國으로서의 FRG와 GDR에게 뿐만 아니라, 유럽共同體와 상호경제원조협약의 회(CMEA)의 各 相對國에게 그 位置가 상대적 競爭 關係에 미치는 影 響으로 인해, 상당한 經濟的 重要性을 갖는다.

獨逸聯邦共和國의 憲法에 따르면 가장 直接的으로 重要的 經濟的 側面은 GDR이 “내국”으로 간주된다는 점과 이러한 位置가 EC 法令으로 擴張 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 結果, 聯邦共和國은 GDR이 外國이 아니고 따라서 西獨의 관습적 國境 바깥의 領域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獨·民·共에

의해 供給되는 物品을 輸入物로 간주하는 것이 許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GDR로부터의 商品에 대해 獨逸人에게, 또는 EC동의안에 따르면 초국가적 EC 關稅에 따라 稅金을 徵收하는 것이 可能하지 않다. 이것에 添加하여, EC내의 農產品 交易에 보통 적용되고, 보장된 EC價格의 水準까지 EC내로 輸入되는 農產品에 賦課되는 附加稅를 구성하는, 調整된 賦課徵稅는 GDR로부터의 生産品에는 適用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DR로부터 配達되는 商品은 EC의 輸入配當法令에 종속되지 않는다. EC뿐만 아니라 GDR과의 交易에 수반되는, 企業과 國家에 대한 選好的 法令의 效果는 確實하다. 聯邦共和國에서의 마아케팅 條件은 예를 들면 폴란드나 헝가리에 位置한 企業에 비해 GDR의 企業에 훨씬 有利하다. 그들은 相當한 惠澤을 받는 國家의 단순한 導入的인 水準을 넘어 競爭에서 惠澤을 즐긴다. 同時에 이것은 西獨 企業이 GDR의 企業으로부터 商品을 購入하는 것을 훨씬 용이하게 하며 이것과 관련하여 GDR과의 交易이 청산 동의에 基礎하므로 西獨의 企業이 GDR에서, 그들의 商品을 販賣하는 市場機會를 向上시킨다. 따라서 의도된대로 거시경제적 結果는 獨逸 內의 交易에서 販賣를 增加시켰다.

이러한 狀況은 參與國에게 여러가지 方式으로 影響을 끼쳤다: GDR은 獨逸 內의 交易에 수반되는 그의 國家 企業을 통해 相當한 經濟的 利益을 누려 왔다. 獨逸이 내린 政策과 관련된 理由 때문에 西獨 政府는 이 交易의 擴張에 관심을 가져왔다: 한편으론, 이것은 獨逸 內의 接觸과 影響力의 行使 機會를 助長했으며, 反面에 또 한편으론, 量的으로 增加함에 따라 獨逸 內의 交易이 政治的 도구로 使用되기가 쉬워지며, 따라서 GDR에 게 점점 더 重要해지게 되었다. GDR의 東유럽 交易 相對國에게는 이러한

교역상 利點이 앞에서 言及된대로 相當한 정도로 西獨 市場에서 그들 企業의 競爭力을 방해하므로 大部分의 國家들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에 대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措置는 거의 없다. 反面, 그들이 GDR의 特別한 位置에 公開的으로 반대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雙務的인 經濟關係에서 獨·聯·共에 의한 否定的인 反應에 準備해야 한다.

獨·聯·共의 EC 相對國들은, 特別 法令이 GDR과 EC間의 經濟的 關係를 獨·聯·共으로 연결시키는 影響이 있어, EC內의 다른 企業에게 權利를 안겨 주기 때문에 否定的인 效果를 겪게 된다. 事實상, 궁극적으로 獨·聯·共을 經유하여 다른 EC 國家에 GDR 商品을 再輸出해서 創造되어야 하는 그러한 不利點이 정상적인 交易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 못하다는 것을 證明할 수가 없다. 反面에, 지난 10年 내지 20年의 經濟的 潮流는, 獨逸 내의 交易이 GDR과, 産業化된 西方 國家들間의 直接的인 商品交換보다 더욱 느리게 發展한 事實을 보여준다: GDR과 西方과의 交易에서, 獨逸間의 交易이 차지하는 몫은 1960年의 48%에서 1970年의 41.7%로 1983年의 28.8%로 떨어졌다.

特別 法令은 組織으로서의 EC에 대해 양면적인 效果를 가져왔다. 한편 으로 그것은 外交關係를 규정하는 共同體의 權위를 제한시킨다. 장래, 그 共同體가 GDR과 동결지을 交易 동의안은 따라서, 구체적으로 獨·聯·共을 除外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當事國에 의해 거듭 要求된 EC와 CMEA間의 개략적인 동의안 조차, 獨逸內의 交易이 兩側 當事者에 의해 干渉받지 않는 상태로 남는 方式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에트 聯邦이 CMEA의 가장 重要하고 가장 影響力 있는 構成 멤버이므로 國際關係에서 特別한 獨逸間의 關係의 존속을 확인하기 위해 準備하는 것은 거



의 期待할 수 없다. 다음으로, EC에 미치는 2次的인 財務的 效果가 또한 있다: GDR에 의해 供給되는 物品이 關稅 免除를 받으며, 農產品은 EC調整 징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EC 自體의 收益을 減少시킨다. 反面에, GDR로부터 農産物의 供給은 EC 相對國이 相應하는 物品을 販賣할 機會를 減少시키고, EC가 EC멤버國의 販賣不可能한 農産品의 購入과 저장에서 負擔해야 하는 費用을 增加시키게 된다. 그러나 EC의 共同 農産物 資金을 所有함으로써, GDR로부터 輸入되고 第3의 國家(유고슬라비아)에 獨占的으로 輸出되는 農産品(고기)에 補助金を 늘려가려는 시도는 유럽의 法廷에 의해 禁止되었는데, 그 理由는 共同의 農産物 資金의 마련에 參與하는 國家들만이 EC의 農産物 市場 法令의 法的 惠澤을 즐기도록 資格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獨·聯·共으로부터의 獨逸製品과 GDR로부터의 獨逸製品間에는 明白한 區分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 VI. 實際的 經驗

지금까지 보았듯이 獨逸間의 交易과 유럽共同體間의 關係에 對한 特別 法令은, 廣範圍한 政治的, 經濟的 結果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法令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獨·聯·共의 모든 政府가 이러한 交易이 그것의 EC 交易相對國에게 可能的 적게 影響을 미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持續的인 努力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理由 때문에, 政治的인 利己心에 의해 동기부여된 鬭爭의 主體인 유럽議會의 일개 구성국의 體系的인 鬭爭을 除外하고는, 이러한 交易에 대한 유의할 정도의 불평은 없었다.

獨逸間의 交易에 대한 特別法令에 반대하는 공격의 基礎는 法令 그

自體나 의도된 經濟的 效果에서 發見되기보다는 차라리 特別히 EC의 複雜한 마아케팅 法令과 연관하여 이러한 交易을 남용할 多樣的 可能性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境遇에 公共의 관심은 法令에 의해 支配받지 않는 法的 남용(比較: 유고슬라비아로의 肉類 再輸出)에 초점이 모아지기 보다는 EC法令을 숙여 넘기려는 수많은 시도에 오히려 더 모아졌다. 사기 行위를 통해 利益을 얻으려는 시도의 3가지 범주가 重要的 役割을 했는데, 수출장려보조금 사기, 産業製品에 對한 關稅의 회피, 農산품에 對한 關稅의 回避와 關聯된 속임수적인 쿼타制, 이 세가지 境遇 모두 수많은 실례에 의해 說明 可能하지만, 各 범주에서 한 가지 例에 對한 간략한 묘사가 다음에 전개된다.

1968년과 69년간에 GDR은 獨·聯·共에 55,000 ton의 食糖을 供給하였다. 同一한 期間中 GDR은 180,000 ton의 食糖을 쿠바로부터 輸入하였다. 經濟的인 觀點에서 獨·聯·共에 供給된 食糖이 대중에 의해 推定된 대로 Cuba로부터 輸入된 食糖과 同一한지의 興否 또는 Cuba 食糖이 GDR 食糖에 의해 대체되었는지의 興否를 아는 것은 重要하지 않다. GDR을 經유한 Cuba로부터의 이러한 間接的인 輸入의 結果는 EC價格 支持 體制下의 關稅와 조정 正세가 節約되었고, 可能的인 輸入쿼타制가 속임을 당한 것이다. (EC에서의 食糖過剩生産 때문에 주어진) EC에서의 이러한 交易 業務에 對한 비판에 반박하여, GDR은 FRG에 對한 食糖 供給을 中斷하지 않았다: 단지 Cuba로부터의 食糖 輸入을 통계적으로 計算하는 것을 中斷하였을 뿐이다. GDR통계에 의하면, 가장 重要的인 輸出品-食糖을 제외한 수 많은 商品이 다음의 海 期間에 Cuba로부터 輸入되었다. 輸出獎勵國家 助補金과 關聯한, 시도된 속임의 다수 예(아마도, perhaps)는 1970년의

“Hamburger Milch-Felt und Eier-Kontor”라 불리는 會社에 의한 17,200 ton의 버터의 輸出이었다. 버터가 Lebanon의 베이루트에 輸出되도록 되었는데, 이러한 配達을 위해 輸出業者에게 28million의 EC獨逸 마르크에 相當하는 輸出 獎勵金이 支給되었다. 버터를 積재한 선박이 國際 海洋에 到達하는 즉시, GDR의 Rostock으로 方向을 바꾸었다. 그러나 農産物에 관한 獎勵金은 EC條約의 附加 條項에 따르면, 獨·聯·共과 關聯해서는 第3의 國家가 아닌 GDR에 供給되는 物品에 대해서 支給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補助金의 自發的인 再支給은 討議되지 않았다. 이러한 去來의 明細가 公開되기 前에, 補助金의 再支給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具體的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GDR에 의해 提供된 28 million 獨逸 마르크 보증금의 어음 發行을 위한 努力도 行해지지 않았다. 반면 全體 事業이 모두 취소되어 버렸다. 버터는 함부르크로 되돌려 配達되었고 얼마후 다시 폴란드로 輸出되었다.

獨逸 내의 교역을 利用하여 EC에 대한 輸入 關稅의 支拂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1979年에 표면화되었다. 極東으로 부터의 Greige 의류, 값싼 織物, 그리고 셔츠등이 獨·聯·共으로 직접 배달되지 않고, 對유엔 GDR로 輸送되었다가, 다음엔 거기로부터 GDR製品으로 공포된 후, 獨·聯·共으로 輸送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言及했듯이, 獨·聯·共으로 供給되는 GDR製品들은 EC 輸入 關稅에 適用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기 行각이 발각된 이후 일어난 裁判에서, 責任진 西獨의 市民들에게 1年에서 4年 間의 懲役이 宣告되었다. 法庭에 의하면, GDR의 政府管理가 獨逸 間의 交易의 原則을 어긴 이러한 行動에 關聯된 사실에 추호의 疑問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EC와 關聯한 獨逸間의 交易의 特別한 위치의 이러한 濫用은 지나치게 評價되어서는 안된다. 사실상, 이것은 獨逸 間의 交易의 特別한 위치의 濫用이라기 보다 유럽 共同體 內의 지나친 國家間 規制의 濫用이며, 어떠한 事件에서도 政府의 補助金과 關聯된 사기의 實際的 또는 시도된 경우도 EC의 市場 法令과 전체 補助金 體系와 關聯된 사기의 보다 廣範圍한 경우보다 數와 質的 面에서 덜 重要한 것이다.

그러나 獨逸聯邦共和國의 政府는 그러한 위반을 대단히 심각하게 다룬다. 政府는 獨逸間의 交易에 대한 特別 法令의 政治的 法的 問題의 性格을 認識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론 이러한 法令이 가장 重要한 政治的 우선권에 속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부가적인 批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고 온갖 努力을 다한다.

## VII. 要 約

獨·聯·共과 獨·民·共間의 經濟關係, 그리고 그것과 유럽 共同體와의 關係에 대한 지금까지 分析의 核心적인 結果만을 要約하면 다음의 要點들이 指摘될 것이다.

1. 비록 獨逸內의 交易과 獨逸內의 다른 形態의 經濟 關係가 양적으로 增加한다 하더라도 獨·聯·共과 獨·民·共의 全體 貿易量에 준한 그것의 상대적 重要性은 특히 EC와 CMEA에서의 統合的 交易國과의 交易과 比較하여 갈수록 減少되는 趨勢이다.

2. 獨逸聯邦共和國에게는 獨逸 內의 交易과 EC 間의 關係는 전후의 獨逸政策의 重要 問題에 의해 취해진 經濟的 形態를 代表한다. 서방에

서의 그것이 統合과 獨逸의 統一性의 概念에의 집착사이의 힘겨운 모순, 또는 적어도 分裂의 強化를 막으려는 努力의 持續, 또는 獨逸 내의 國民에 대한, 分裂 意識의 부정적인 效果의 경감.

3. 東歐와 西歐에서의 두 개의 獨逸國家의 交易 상대국에게는, 現在의 獨逸間의 經濟 關係의 特別 法令이 부정적인 經濟的 效果를 制限했을 뿐 아니라 유럽의 中央部에서 미해결된 政治的 問題를 繼續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남는다.

4. 獨逸 間의 交易의 特別한 위치의 法的 形態는 長期的으로는 實際的이고 持續적인 것으로 判明되었다. 政治적인 觀點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獨逸 내의 交易의 特別한 위치를 증식시키고자 하는 要求가 전혀 없다.

5. 經濟的 觀點에서, 獨逸 間의 交易의 特別한 위치는, 의도된 獨逸의 두 地域間의 經濟的 關係를 容易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交易 相對國에게 대해서는 不利益을 낳지 않았다.

6. EC 政府 補助金의 全 領域에 適用되지만, 特別 法令의 공공연한 濫用이 있었다. 이러한 濫用은 利害possible한 經濟的 그리고 政治的 이유 때문에 獨·聯·共에서 심각히 기소될 정도였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단히 廣範圍하게 퍼진 것은 아니다.

7. 獨逸 내의 交易의 法令과 그것은 유럽 共同體와의 關係는 暫定的인 法令으로 紹介된 過程들이 豫想치않은 安定성과 持續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豫示한 다른 경우이다.



## 第6部 東西經濟協力

第1章 두가지 合作投資法：北韓과 中共의 事例

第2章 社會主義國家와 非社會主義國家間的 國際  
分業 및 國際經濟協力の 最近추세와 條件





# 第1章 두가지 合作投資法

## 北韓와 中共의 事例

尹 錫 範  
(延世大 經濟學教授)

### I. 序 論

所有權과 意思決定이 둘 다 集中화된 命令經濟(Command economy)는 必要한 모든 情報가 中心과 주변사이에 소통되는 效果的 채널이 存在할 때에 파레토 최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理論上 主張되고 있다. 中心이란 中央計劃局(central planning bureau)을 意味하며 周邊은 社會主義 經濟活動에 個別的인 經濟主體로서 參與하는 모든 社會主義 企業과 家計를 뜻한다. 그러나 意思決定을 내리는 中心과 經濟主體사이에 그러한 效果的 채널이 없다는 事實에 주로 기인해서 命令經濟가 실제로 파레토 最適狀態에 도달하기는 事實上 不可能하다. 거의 例外없이 社會主義 集權의 計劃經濟는 經濟發展과 現代化에 努力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難關을 겪어 왔으며 이는 總국적으로 經濟가 效果的인 資源配分을 實現하고 그에 따라 完全利用成長(full-capacity growth)을 達成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여 왔다.

社會主義 國家가 經濟 成長과 發展過程에서 經驗과 부딪친 몇가지 重要한 問題는 簡略히 열거될 수 있다.

첫째, 中央에서 周邊으로의 一方的 指示類型의 정보흐름(unilateral directivetype information flow)이 널리 行하여 왔으며 雙方的 情報 피드백체계(both-way information feed back system)가 確立된 적이

거의 없었다. 때때로 周邊은 意思決定者로 부터의 一方的 指示를, 그들이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특유한 狀況에 關係없이 充實히 그리고 新성불가침적으로 따라야 하는 命令으로서 받아 들었다. 이러한 現狀은 不可避하게, 意思決定者에 의해 代表되는 國家 선호(state preference) 보다 국민적 선호(national preference)가 經濟的 管理에 덜 반영되는 狀況으로 展開되었다. “大躍進 運動”, “文化革命”, 그리고 “千里馬 運動” 기간 동안의 中國과 北韓의 經濟的 성과는 다소간 그 傾向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意思決定者의 計劃이 보통 가지는 야심적인 性格때문에 計劃的 資本蓄積은 大部分 重工業 部門에서 며말게 되었고 그 결과 소비재 産業 部門은 注目을 덜 받게 되었다. 部門間的 不均等과 연관된 不平均의 問題(problem of disproportion)는 특히 1970年 말기에 있어 中國과 北韓의 經濟發展過程에 격심한 害를 끼쳤다. 不平均은 비단 重工業과 輕工業사이의 問題일 뿐만 아니라 都市와 農村部門間에도 매우 심각한 問題이며 窮極적으로 두 部門間的 交易條件을 惡化시키고 製品의 市場價格을 固定價格에서 離脫시키며 全體 市場메카니즘을 歪曲시킨다.

셋째, 計劃 目標數值를 實現하기 위한 유인의 不足과 強制的 동기부여로 計劃圖表(planned scheme)下에서 보통 生産되는 製品의 品質은 나쁘고 그 製品은 많은 경우 市場性있는 용도에는 부적합하다는 結果가 나타나게 되었다. 企業들이 完全한 協同속에서 運用되고, 勞働者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參加하는 效果的인 生産業系를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經濟 建設”(economic set-up)이 이루어

저지 지 않았던 것이다.

네째, 北韓과 中國을 包含하여 社會主義 經濟는 이른바 “大大的 成長”(extensive growth)의 한계에 직면하여 왔다. 一般的으로 立證되고 있듯이 초기의 經濟發展 단계에서는 物理的 成長이 단순히 勞動과 資本의 投入만으로도 이루어진다. 大部分의 社會主義 經濟는 그 社會主義 經濟體制가 출범될 당시 比較的 經濟發展 초기단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急速하고 大大的인 成長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社會主義 經濟가 어느 水準의 經濟成長에 도달하였을 때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困難한 問題가 생겼는데, 成長의 둔화(slowness of growth), 뒤떨어진 技術進步, 그리고 投資機會의 부족 등이 몇 가지의 困難한 主要 問題들이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발전 유형으로 인해 이들 社會主義 經濟는 不可避하게 外國資本과 技術의 導入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그들의 첫번째 시도는 社會主義 經濟間의 經濟的 協力이었다. 그러나 이들 經濟가 아주 처음부터 서로 交換할 技術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事實에 주로 기인해서, 그들사이의 經濟協力이 狀況을 根本적으로 改善할 수는 없었다. COMECON의 機能이 事實上 그런 점에서는 無能하다는 事實을 통해서 分明히 立證된다.

다섯째, 成長의 둔화는 또한 輸出所得에 영향을 미쳤고 잇달아 收支가 赤字를 맞는 狀況을 초래하였다. 收支의 赤字가 점차 커짐에 따라 外債량은 누적되지 않을 수 없었고 經濟는 債務不履行(default)과 신용성(credibility)의 側面에서 견디기 어려운 壓力의 부담을 지게되었다. 이러한 段階에서 外國에서 借款을 더 들여오는 형태로 外國資本을 導入

하기란 事實上 不可能할 것이며 經濟는 合作投資方式(joint ventureship)과 같은 다른 형태의 外國資本投資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1970年 중반의 北韓經濟와 文化革命 以後 期間의 中國經濟가 놓인 狀況은, 비록 그 두 經濟가 서로 여러가지 差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經濟狀態를 나타낸 것이다.

이 論文은 이러한 배경에서 무엇보다 北韓과 中共에서 最近 시행된 두 가지 合作投資法의 內容을 分析하고자 하며 둘째로는 그 두경우의 差異點과 類似點을 比較, 대조하려고 한다. 제한된 範圍內에서 이 글은 또한 그 法이 두 經濟에서 成功的으로 시행될 경우 그 法의 可能的 效果를 理論的으로 調査하고자 한다.

## II. 두가지 合作投資法

다른 社會主義 國家와 같이 北韓政權은 經濟的 自己政體性(economic self-identity)을 確立하고 經濟가 海外貿易依存에 덜 종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海外貿易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強力한 傾向을 維持하여 왔었다. 이러한 經濟的 자립원칙은 자기 정체성을 가진 社會主義 經濟의 建設을 強調한 그들의 憲法에 명백히 반영되어 있다. 中國 역시 傳統的으로 現在의 社會主義 政權樹立 이전에도 同一한 傾向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의 文化的 社會的 유산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지정학적 條件은 아주 다르다. 中國은 亞細亞 大陸의 中間部分을 점하고 있는 광활한 領土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經濟的 자급자족의 達成을 可能하게 할 수 있는 넓은 基盤을 가진 반면 北韓의 경우에는 그에 該當되지 않는다.

北韓과 中國은 1970 年度까지는 事實上 成功的으로 최소수준의 外國貿易을 維持하여 왔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두차례의 석유위기와 그 결과로 나타난 國際的 基盤을 가진 金屬鑛石市場의 침체로 인해서 經濟는 持續的인 收支의 적자추세를 맞기 始作하였으며, 이로인해 결국 外國貿易을 擴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6 個年 計劃의 초반기에 이른바 “外貨 빌기 事業”에 대한 유별난 強調는 北韓經濟가 심각한 外貨不足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6 個年 計劃의 後半期の 外貨不足은 北韓에 있어 그 狀況이 극에 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sup>

1958 ~ 1960 年 期間의 “大躍進 運動”에 의해 發生하였고, 1976 年에 끝난 “文化革命”으로 더욱 惡化된 大規模的인 經濟的 不平均의 出現으로 말미암아 中國經濟는 그 損傷된 經濟가 自立的으로 發展하도록 복구될 수 있는 方法을 찾는데 努力을 기울여야 했다.<sup>2)</sup>

北韓과 中共의 두가지 合作投資法은 과거 역사전개과정의 산물이며 두 經濟의 역사의 전개과정이 同一하지는 않지만 둘 다 經濟的 必要性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北韓의 경우에는 收支의 赤字를 改善하고 서방의 技術을 導入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外貨를 必要로 하고있다. 北韓은 信用의

- 
1. Suk Bum Yoon, "A Schematic Interpretation of Macroeconomic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ector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Unpublished Discussion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No. 841015, 1984.
  2. Lin Wei and Arnold Chao (ed.), *China's Economic Reform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2, Chapter 2.

惡化와 이미 累積된 外債로 인해 合作投資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中國은 大대의인 成長에 지워진 한계를 극복하고 借款보다는 合作投資의 형태로 經濟를 더욱 復興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企業體를 세우고 西方技術을 導入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外貨를 必要로 하였던 것이다.

연대순으로는 中國의 法이 北韓에 비해 훨씬 앞서서 制定되었는데 전자의 경우는 1977年의 5次 全國人民代議員會議 두번째 회기에서 法이 制定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1984年의 全國人民會議에서 制定되었다. 공식적으로 確認된 바는 없지만 北韓에서의 法制定이 中國의 強力한 影響을 받았다는 여러가지 징후<sup>3)</sup>가 있어 왔다. 그리고 밑에서 說明하겠지만 두 法의 구조와 內容은 현저히 유사하다. 中國의 法이 15個의 項目으로 구성된 반면 北韓의 法은 26個의 項目으로 되어있다.

이 두가지 法을 詳細히 分析하여 보자. 合作投資法의 基本目的은 처음 몇가지 條項에 表現되어 있는데, 양쪽의 경우 모두 동등한 經濟協力과 技術向上을 강조하고 있다. 北韓의 경우에 그 法의 基本原理는 첫번째의 다섯條項에 나타나있는데, 特別條項(5條項)은 日本의 韓國人 거주자에 의한 外國資本投資의 진작, 그리고 投資를 원하는 部門의 구체적 열거(3條項)를 다루고 있다. 中國의 경우에는 첫번째의 세조항은 어떤 特別한 規定없이 法의 基本原理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外國資本 投資를 원하는 部門에 대해서는 3條項같은 合作投資法에 관한 規定에 나와있다.

合作投資에 의해 樹立되어야 하는 조직기구(Organization Scheme)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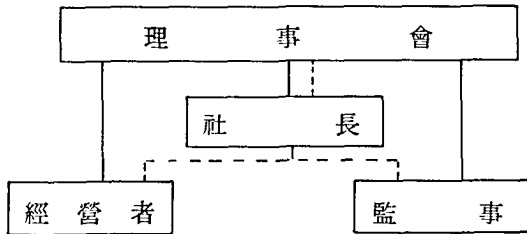
---

3. 김정일과 北韓의 고위 관리들은 中國의 經濟改革 이후 中國의 경제성과를 觀察하기 위하여 최근 中國에 몇 번 다녀왔는데 특히 외국자본이 집중적으로 도입된 지역에 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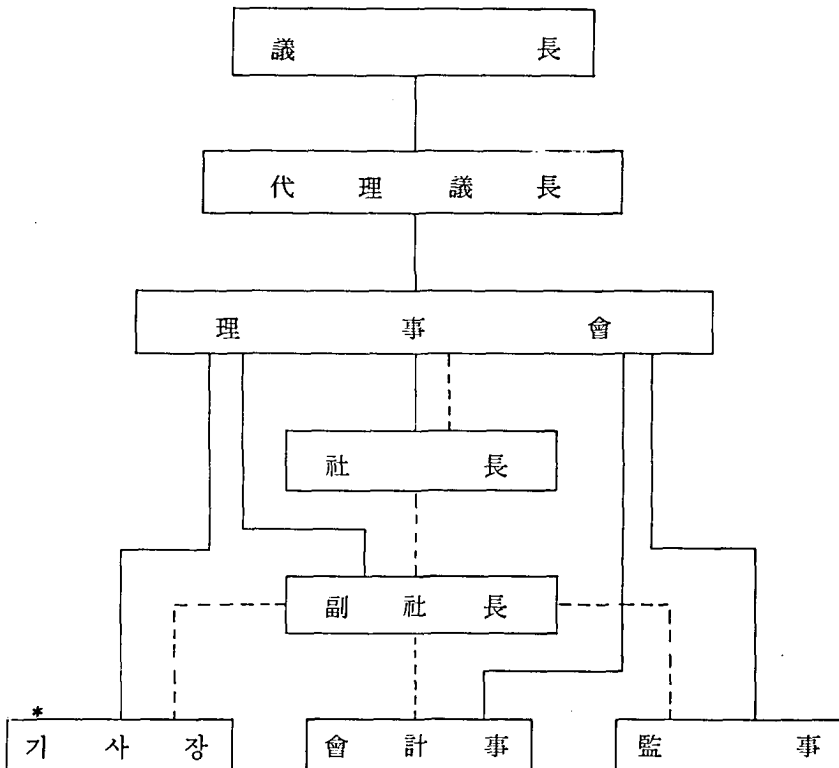
企業의 경영진은 北韓의 法에는 6條項에서 17條項까지, 그리고 中共의 法에는 4條項에서 6條項, 8條項에서 9條項까지에 걸쳐 表示되어 있다. 두 法은 本質的으로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同一한 組織을 規定하고 있다.

그림 1 : 組 織 圖 表

<北 韓>



<中 國>



양쪽의 法은 西方世界에서 보통 볼 수 있는 中共企業의 전형적인 組織에 따르고 있다. 알다시피 中共企業의 경우에는 株式會社로 되어있지만 政府나 그밖의 다른 博株會社(holding company)가 公共企業의 株式을 獨占적으로 所有하고 있기 때문에 株主會議는 理事會로 대체된다. 양자의 경우 理事會는 株主會議의 역할을 맡고있다.

企業의 運營 역시 두 法에 비슷하게 記述되어 있는데 처음의 몇년 동안은 關稅免除, 處分 가능한 利潤과 外國人 賃金所得으로부터의 自由로운 外貨送金, 所得稅 免除 등을 認定하고 있다. 자국노동자의 雇傭은 中共의 경우 다른 法의 規定에, 北韓의 경우에는 雙務契約(bilateral Contract)에 의거하고 있다. 두 法은 모두 企業이 使用하는 土地에 대해 地대를 支拂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지대”라는 말대신에 “使用費(using cost)<sup>4)</sup>가 文字上 이용되고 있다.

中國法의 7條項과 北韓法의 18條項에서 22條項까지는 각자에게 分배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規定하고 있다. 두가지 法은 모두 비상시를 위해, 그리고 技術發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금의 設立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基金을 위한 기부금이 공제된 후에 利潤 分配가 가능한 따름이다. 利潤은 資本出資比率에 따라 企業의 經營活動에서 생기는 純處分 가능한 利潤에서 分配된다.

두 法律의 나머지 條項들, 卽 中國 法律의 10條에서 14條까지(11條는

---

4. 北韓의 경우, 공식적인 영문번역은 (地租割, land rate)이라고 원문에서는 사용한다. *Foreign Trad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 1984, No. 243, Pyongyang, pp.30-31을 참조할 것.



除外)와 北韓 法律의 23條에서 26條까지는 契約의 延長과 滿了에 關聯된 節次를 나타낸다. 연장은 契約의 첫 期間이 종결된 後 必要할 때 訂해될 수 있다. 그러나 企業의 業務活動과 關聯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비록 契約期間이 滿了되기 前이라도 契約이 終結될 수 있다. 企業의 問題解決(resolution)로 부터 일어나는 갈등을 양자간의 동의와 必要가 있으면 第3者의 仲裁에 委任될 수 있다. 게다가 한쪽 편은 상대 편이 자본배당(capital share)을 양도받을 권리를 가진다.

以上에서 알아본 法律의 概要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中 國	北 韓
基本原理	1 - 3組	1 - 5組
組織과 企業活動	4-6, 8-9, 11	6 - 17
分 配	7	18 - 22
延長과 問題解決	10, 12 - 14	23 - 26
其 他	15	-

說明한 것 처럼 두 法律은 몇 가지點들만 除外하고는 서로가 매우 類似하다. 中國의 法律은 外國 側이 인수할 최소의 몫(minimum share), 外國에서의 支社設立, 再投資 利潤에 대한 免稅 등을 명백히 다루고 있으나 北韓의 法律에서는 이 점이 言及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言及된 것 처럼 北韓의 法律은 特別히 在日僑胞의 投資를 고무하는 條項을 지니고 있다.

이 두 法律이 類似한 주된 原因은 經濟改革에서의 窮極的이며 구체적인 成功과 조인트 벤처 형태의 外國 資本投資를 통한(특히 外貨所得에서의) 發展을 지켜본 後 中國의 형태를 모방하여 모형을 만들었다는 事實에 기인한다. 비록 立法府가 經濟體制에서의 變化를 반드시 암시할 必要가 없다는 것을 北韓當局이 단호히 부인했다는 사실이 報道되었다고 하더라도<sup>5)</sup> 經濟가 “위장된” 장면 뒤에 움직이는 必然的인 經濟力을 完全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事實로 보인다. 1960年代末 부터 더욱 벌어진 南北韓 間의 經濟發展의 지체된 管理와 점차 經濟를 잡아가는 中國의 우호적인 설득으로 北韓 政府는 막다른 골목에 끌려가게 되어 적어도 최소한의 變化를 겪어야만하게 되었다. 가장 확실한 方法 中の 하나는 中國의 형태로 따르는 것이었다.

### Ⅲ. 經濟에 관한 法律의 實現可能的한 效果(feasible effect)

全體的 經濟狀況에서 거시경제적 실체들의 두 가지 괴리는 投資-貯蓄 사이의 괴리나 國際收支赤字가 貿易外 國際收支 剩餘金이나 資本 유입(capital inflow)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經濟가 單純한 輸出促進獎勵 또는 輸入代替로서 國際收支赤字를 회복할 可能性이 없는 狀況에 直面했을 때에는 서서비스 輸出과 같은 貿易外 剩餘金이나 外債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經濟가 外債를 유치할 수 없거나 서서비스를 輸出할 能力이 없을 때에는 我國의 合作投資에만 依存하

---

5. 조선일보, 1985년 5월 40일자는 윤기복의 신문회견 내용을 보도 체제내의 어떤 경제변화로 부인했다.

여야 한다.

合作投資 형태에서는, 外國資本을 導入함으로써 한 國家는 단기적으로는 投資에 의해 赤字를 보충하여 國際收支 赤字問題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長期的으로는 合作投資 事業으로 부터 獲得한 生産品을 販賣함으로써 外貨輸入을 支出할 수도 있다. 合作投資 형태에서 資本의 流入은 그 經濟가 비축했거나 벌어들인 外貨를 支拂하지 않고서도 投資된 量 만큼의 商品을 輸入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國際收支를 정의하는 方法으로 부터 그것은 명백해진다. 海外資本이 한번 投資되면, 合作投資 事業의 生産品은 輸出된 것이며 어느 정도의 소화기간이 지난 後에는 그 나라 經濟에 공헌할 것이다. 적어도 合作投資 事業에서의 生産品은 必要한 外國商品 輸入에 使用되었을 外換과 같은 量으로 國內에서 使用되었을 것이다. 合作投資 형태로 繼續 外國資本을 유치하고 활용함에 따라 自國에서는 소위 “經驗을 통한 學習”(learning by doing)과 “채용”(adoptation) 과정을 통해서 技術的 進보를 또는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開發途上國家 經濟에서는 論理的으로 불매 海外 合作投資의 주된 잇점인 것이다. 이는 또한 상대편 先進國家 經濟에도 역시 잇점이 된다. 自國 經濟의 소위 “흡수”能力(“absorptive” capacity)에 따라 合作投資 事業의 投資限界 效率이 보통 世界經濟에서의 一般的인 平均率 보다 더 높다.

그러나 自立, 社會主義의 經濟的 自立政策(socialist autarky), 주체사상 등은 合作投資 형태의 外國資本投資로 부터 얻을 수 있는 理論的 장점을 매우 흐리게 만들었다. 一般的으로, 先進國에 의한 後進國에서의 外國資本投資를 傳統的으로 社會主義 文獻에서는 사악한 천재 資本主義者에 의

해 꾸며지고 計劃된 “帝國主義的” 經濟侵略(“imperialistic economic aggressions”)으로 취급했다. 外國資本投資에 대한 社會主義 國家의 基本的 태도는 傳統的인 立場에서 많이 變하지 않았다 그 후에 中國과 北韓은 外國投資 相對國 選擇에 매우 注重을 기하고 있다. 實質적으로 中國은 西方國家에 대해 門戶를 開放했다고 하더라도 北韓은 門戶開放에 있어서 中國의 형태를 完全히 따르는데는 아직도 守持하고 있다. 北韓에서의 外國直接投資의 實質的 效果의 展望을 예견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왜냐하면 전해진 바에 의하면 단 하나의 事業만이 현재 平壤에서 進行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히 管理한다면 그 事業은 外貨所得에서 北韓經濟에 裨益 없이 公損을 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外國資本投資와 關聯을 맺는데는 많은 結점이 存在한다. 무엇보다도 우선 外國資本과 經營이 導入됨에 따라 現란한 西歐의 生活方式이 완고한 北韓의 生活에 輸入될 것이며 가볍고 편리한 消費財에 대한 需要가 생겨날 것이 거의 確실할 것이다. 이것은 長期的으로 볼 때 결국 限界消費性向을 加速化할 것이며 따라서 國內貯蓄을 저해할 것이다. 그러나 外國投資의 초기에 얼마간의 事業이 繼續됨에 따라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最近 中國에서 實施되고 있는 것처럼 合作投資 事業이 特定地域 內에서만 制限된다면 그 影響이 훨씬 減할 것이다.

두번째, 外國資本의 導入과 合作投資 企業의 運用을 不可避하게 自國의 經濟와 여러 種類의 事業去來를 始作할 것이고 既存의 社會主義 體制에

새로운 市場力으로 派透할 것이다. 이는 아마 社會主義 分配體系를 교란하는데 效果의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社會主義 經濟에서 合作投資의 導入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西歐化는 繼續될 것이다. 이런 現象은 政府가 本來의 그 體制를 維持하는데 해로울 것이다.

그러나 國家의 福祉라는 점에서는 이것이 결점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두가지 점은 中國의 經濟改革과 外國資本投資가 있는 以後 이미 經驗된 것이다. 비록 外國投資의 영향 하에서 적어도 社會主義 社會構造가 어느 정도 침식되었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그 體制의 完全한 瓦解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세번째, 合作投資를 設立함으로 인해서 個人的 所得分布(size-income distribution)에서의 實質的인 저하는 피할수 없을 것이다. 自國의 經濟가 그나라에서 外換留保(foreign exchange retainment)를 極大化하기 위하여 可能한 限 높은 賃金率을 要求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다. 外國 合作投資의 國內 勤勞者의 賃金率과 現地企業의 國內 勤勞者의 賃金率 사이의 격차는 클 것이며, 이는 必須的으로 不均等한 所得分配를 낳게될 것이다. 만약 政府가 상이한 이들 두 勤勞者 集團의 賃金率을 均等化하려고 하게되면, 卽 合作投資 勤勞者를 賃金의 一部分을 다른 集團에게로 强制的으로 옮겨주게 되면, 유인이 減弱하게되고 적절한 經營이 거의 不可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中國을 방문한 사람들이 자주 목격한 것 처럼 일찌기 中國 企業에 의해 經驗되었던 것이다. 유인의 부족에 기인한 타성과 나태함은 經濟改革의 效果를 窮極的으로 減弱하게 하는 逆方向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번째, 어떤 형태의 外國投資라도 부적절하게 管理된다면 결국 經濟가 技術的 物質的 증속성이라는 見地에서 그러저럭 外國經濟에 증속받게되는 그런 方向으로 自國의 經濟를 變化시킬 것이다. 이것은 自國의 經濟를 世界의 사업추이와 연결시킬 것이며, 社會主義 政府의 特殊한 特性과 함께 누려져왔던 자급자족은 아마 長期的으로 볼 때 희생될 것이다. 지난 20年 동안 大部分의 東歐 社會主義 國家들이 經驗한 事例은 이러한 狀況을 說明해 준다.

#### IV. 간결한 모형설정의 예해

위에서 記述한 狀況을 구조등식이라는 經濟的 모형틀로써 간결하게 表示될 수 있다. 北韓과 中共의 형태의 社會主義 經濟를 수리적 모델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特徵을 지닌다.: 첫째, 政府는 本質적으로 生産經濟에 의해 特徵지워지는데, 여기서 生産은 시장지향경제 보다 총수요에 의해 영향을 덜 받는다. 그 經濟 內에서의 生産決定은 根本적으로 計劃當局(planning authority), 총체적 供給의 市場力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經濟의 사적소비는 國民所得 水準과 農業生産에 의해 決定된다. 北韓과 中共의 經濟는 市場運營의 見地에서 다른 社會主義 經濟와 比較해 볼 때 다소간 落後되어 있고, 이런 유형의 經濟에서의 消費는 거의 農業 食糧 生産物의 配分과 所得의 一般水準에 基盤을 둔다. 셋째, 投資水準이나 새로운 資本形成은 外貨利用可能性의 제약 하에서 國家 生産目標(national product target)를 달성하기 위하여 計劃當局에 의해서만 計劃되고 實現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社會主義 經濟에서는 實際적인 사적 投資가 存在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모든 投資는 政

府에 의해 보유한 것과 達成해야 할 것에 기초해서 實行된다. 네째, 이러한 經濟內에서 海外貿易은 投資計劃을 達成하고 “剩餘物”로서 가진 것은 무엇이나 處分하기 위하여 戰略的으로 이루어진다.<sup>6)</sup> 이러한 特性에 기초하여 北韓과 中共式 經濟의 단순한 거시경제적 모델이 다음과 같이 세워진다.

$$(1) Y = Y(L, K, F)$$

$$(2) C = C(Y, A)$$

$$(3) I = I(Y, F, B)$$

$$(4) X = X(V, F)$$

$$(5) M = M(I, F)$$

$$(6) B = X - M$$

$$(7) V = Y - C - G - I$$

여기서 Y는 國民所得, L은 勞動投資, K는 資本(capital stock), F는 外國資本, C는 사적소비, A는 農業生産, I는 投資, B는 國際收支, X는 輸出, V는 輸出가능한 剩餘物, M은 輸入, 그리고 G는 政府消費를 各各 나타낸다. 쉽게 알 수 있듯이 Y, C, I, X, M, B 그리고 V는 내생 변수(endogenous variables)이고 L, K, F, G 그리고 A는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이다. 위의 등식을 벡터형태로 동시에 나타내 보자.

$$(8) Y = F(F, X)$$

---

6. 이 점에 관해서는 S.B. Yoon의 앞 책을 참조할 것.

여기서  $Y' = (Y, C, I, X, M, B, V)$  그리고  $X' = (L, K, F, G, A)$ 이다. 등식 (1)에서 (7)까지 또는 등식 (8)을 전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얻을 수 있다.

$$(9) \quad dY = \frac{\partial F}{\partial Y} dY + \frac{\partial F}{\partial X} dX$$

여기서  $\frac{\partial F}{\partial Y}$ 와  $\frac{\partial F}{\partial X}$ 는 모두 정수이다.

등식 (9)에 의하여 등식 (10)과 같은 유도형 등식(reduced form equation)을 얻을 수 있다.

$$(10) \quad dY = \left( I - \frac{\partial F}{\partial Y} \right)^{-1} \frac{\partial F}{\partial X} dX \quad M dX$$

여기서  $M$ 은 충격승수행렬(impact multiplier matrix)을 나타내며 자세한 것은 附錄에서 제시된다. 여러 내생변수에 外國資本流入의 영향은  $M$ 의 關聯된 各各의 要素를 통하여 미치게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國民生産의 총체적 水準에 대한 外國資本의 영향은 外國資本의 生産性에만 依存하여 매우 단순하며 이것은 다시 經營技術, 구체화된 技術 등에 의해 決定된다. 두번째, 쉽게 파악할 수 있듯이, 限界消費性向이 外國資本의 生産性에 의해 늘어나는 만큼이나 사적 消費는 外國資本의 流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限界消費性向이 外國資本의 流入 그 自體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深刻하게 指摘되어야 한다. 세번째, 投資의 實現이 外國資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直接的인 效果, 또 하나는 國民所得의 增加를 통한 것, 다른 하나는 國際收支의 變化를 통한 것 등의 대략 세 가지 經路가 있기 때문에 投資에 대한 外國資本의 충격이



다각적인 것이다. 이것은 승수(multiplier)로 廣範圍하게 說明될 수 있다.:

$$(11) \frac{\partial I}{\partial F} = \left\{ \left[ (1 - MPC) \frac{\partial I}{\partial B} \frac{\partial X}{\partial V} + \frac{\partial I}{\partial Y} \right] - \frac{\partial B}{\partial h} \frac{\partial I}{\partial B} + \frac{\partial I}{\partial h} \right\} / \left[ \left( \frac{\partial M}{\partial V} + \frac{\partial M}{\partial I} \right) \frac{\partial I}{\partial B} + 1 \right]$$

여기서 분자의 첫번째 要素는 生産性 向上을 통한 영향을, 두번째 要素는 國際收支의 變化를 통한 영향을, 마지막 要素는 直接的인 效果를 各 各 가리킨다. 그 결과로 이러한 社會主義 經濟의 새로운 환경에서 外國資本의 不適應(maladjustment)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원인이 있게 된다. 네번째, 輸出과 輸入에 대한 충격은 國際收支에 대한 충격을 分析 함으로써 요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서의 충격은 역시 다각적인 것이다. 즉, 대략 세 가지 經路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外國資本은 國際收支에 영향을 주게 된다. 아래의 수식은 세 가지 經路의 영향을 요약한 것이다.

$$(12) \frac{\partial B}{\partial h} = \left[ \left( \frac{\partial X}{\partial h} - \frac{\partial M}{\partial h} \right) + \frac{\partial X}{\partial V} \frac{\partial Y}{\partial h} \left( 1 - \frac{\partial C}{\partial Y} \right) - \left( \frac{\partial X}{\partial V} + \frac{\partial M}{\partial I} \right) \times \left( \frac{\partial I}{\partial h} + \frac{\partial I}{\partial Y} \frac{Y}{\partial h} \right) \right] / \left[ \left( \frac{\partial M}{\partial V} + \frac{\partial M}{\partial I} \right) \frac{\partial I}{\partial I} + 1 \right]$$

분자에서 첫번째 要素는 國際收支에 대한 外國資本의 直接的인 效果를 보여주는 반면에 나머지 두 要素들은 國民生産의 支出體系를 통한 間接적인 效果를 가리킨다. 外國資本이 國際收支와 國內資本形成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經濟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間接적인 經路가 많이 存在한다는

것을 등식 (11)과 (12)가 보여주기 때문에, 外國合作資本 導入의 成功을 外國資本 그 自體의 效率的인 이용과 함께 國家經濟의 管理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社會主義 經濟에서 外國資本은 市場 메카니즘에 의지하기 보다는 전적으로 小數의 意思決定者들의 손에 맡겨진다는 의미에서, 外國合作資本의 管理는 시장지향적 經濟에서 보다 社會主義 經濟에서 特別히 더 重要하다. 外國合作資本이 매우 中央集權的으로 管理되는 라틴 아메리카의 事例들은 合作經營(Joint management venture)에 휘말려 失敗한 발견적이며 표본적인 모델로 使用될 수 있다.

## V. 要約 및 結論

비록 北韓과 中國이 合作經營의 實行에 그 特性和 規模가 各各 다르다 할지라도 모험사업의 기초를 提供하는 두 法律의 基本的인 구조는 서로 매우 類似하다. 이것은 아마 北韓이 法律을 制定할 때 中國의 影響이 지배적이었을 것이 틀림없다는 점이 주된 이유이다. 인민공사(People's Commune)와 文化革命 期間 동안 中國의 國家經濟 管理의 施行錯誤 과정은 北韓에게 Counter-example로서 그리고 中國에서는 차후로 經濟改革의 자세를 취하게 했었다. 이것은 실제로 經濟管理의 낡은 方法에서 國內要素들을 제거하였고 새로운 雰圍氣와 體系를 세움으로써 새로운 方法을 채택하도록 北韓을 부추겼다. 北韓에서의 절박한 外換의 必要性和 1970年代 초 부터 金日成에 의해 外換 가득 事業의 重要性에 대한 빈번한 強調에 따라 北韓은 이데올로기적으로 外國 合作投資 資本의 유치를 包含한 새로운 경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조치의 成敗를 豫測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그것은 결국 北韓의 經

濟가 合作投資의 實行과 外國의 投資를 그 計劃에 기꺼이 參與시키고자 하는 태도에 따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方法에 달려 있다. 外國 合作投資의 運營을 包含한 中國의 改革은 비록 다소간의 알력과 未效率이 있었을지라도 부분적으로는 成功的이었다고 여겨진다. 1985年 9월에 열린 第4回 中國 共產黨 中央委員會 總會는 重要 職責에서 개혁저항 系列을 축출하여 인사조직을 成功的으로 再構成할 수 있었다는 事實은 이와 關聯하여 中國의 持續的의 의지를 뒷받침해 준다.

中國 當局이 外國 合作投資의 實行에 要求되는 經驗들을 얻기 위하여 韓國의 소위 “보세가공생산”(Bond-processing manufacturing) 또는 “輸出自由地域”(Free Export Zone) 體系에 關하여 중점적으로 研究를 했으며 北韓은 거기에 關聯하여 이율배반적으로 中國의 經驗을 통한 이러한 體系를 모방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주목된다. 北韓의 計劃에 關한 한 그것이 實行이 일상적인 水準에 미치기에는 요원하며, 아마 이것은 주로 北韓 當局이 外國資本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완고한 태도를 얼마나 빨리 제거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中國의 運用이 비록 작은 장애물이 예견될지라도 결국 産業化와 그 國家의 經濟成長에 공헌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附錄 (Appendix)

등식(9)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dY = \frac{\partial F}{\partial Y} dY + \frac{\partial F}{\partial X} dX$$

$$= AdY + BdX$$

여기서

$$dY = \begin{bmatrix} dY \\ dC \\ dI \\ dX \\ dM \\ dB \\ dV \end{bmatrix}$$

$$dX = \begin{bmatrix} dL \\ dK \\ dF \\ dG \\ dA \end{bmatrix}$$

이다. 그리고 A와 B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A = \begin{bmatrix} 1 & 0 & 0 & 0 & 0 & 0 & 0 \\ -\frac{\partial C}{\partial Y} & 1 & 0 & 0 & 0 & 0 & 0 \\ -\frac{\partial I}{\partial Y} & 0 & 1 & 0 & 0 & -\frac{\partial I}{\partial B} & 0 \\ 0 & 0 & 0 & 1 & 0 & 0 & -\frac{\partial X}{\partial V} \\ 0 & 0 & -\frac{\partial M}{\partial I} & 0 & 1 & 0 & 0 \\ 0 & 0 & 0 & -1 & 1 & 1 & 0 \\ -1 & 1 & 1 & 0 & 0 & 0 & 1 \end{bmatrix}$$

$$B = \begin{bmatrix} \frac{\partial Y}{\partial L} & \frac{\partial Y}{\partial K} & \frac{\partial Y}{\partial h} & 0 & 0 \\ 0 & 0 & 0 & 0 & \frac{\partial C}{\partial A} \\ 0 & 0 & \frac{\partial I}{\partial h} & 0 & 0 \\ 0 & 0 & \frac{\partial X}{\partial h} & 0 & 0 \\ 0 & 0 & \frac{\partial M}{\partial h}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end{bmatrix}$$

A와 B의 要素들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의하기로 하자.

$$a = -\frac{\partial C}{\partial Y}, \quad b = -\frac{\partial I}{\partial Y}, \quad c = -\frac{\partial I}{\partial B}, \quad d = -\frac{\partial X}{\partial V}$$

$$e = -\frac{\partial M}{\partial I}, \quad f = \frac{\partial Y}{\partial L}, \quad g = \frac{\partial Y}{\partial K}, \quad i = \frac{\partial Y}{\partial h}$$

$$J = \frac{\partial C}{\partial A}, \quad k = \frac{\partial I}{\partial h}, \quad l = \frac{\partial X}{\partial h}, \quad m = \frac{\partial M}{\partial h}$$

A의 행렬식은 H라고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A| &= cd + ce + l \\ &= c(d+e) + l = H \end{aligned}$$

$$A^{-1} = \begin{bmatrix} 1 & 0 & 0 & 0 & 0 & 0 & 0 & 0 \\ -a & 1 & 0 & 0 & 0 & 0 & 0 & 0 \\ \frac{acd+dc-b}{H} & \frac{-cd}{H} & \frac{1}{H} & \frac{-c}{H} & \frac{c}{H} & \frac{-c}{H} & \frac{cd}{H} & \frac{cd}{H} \\ \frac{-d(bt+ct+ace+1)}{H} & \frac{d(ce+1)}{H} & \frac{d}{H} & \frac{ce+1}{H} & \frac{cd}{H} & \frac{-cd}{H} & \frac{-d(ce+1)}{H} & \frac{-d(ce+1)}{H} \\ \frac{-e(acd+cd-b)}{H} & \frac{cde}{H} & \frac{-e}{H} & \frac{ce}{H} & \frac{cd+1}{H} & \frac{ce}{H} & \frac{-cde}{H} & \frac{-cde}{H} \\ \frac{-(bd+betd)+ad}{H} & \frac{d}{H} & \frac{d+e}{H} & \frac{1}{H} & \frac{-1}{H} & \frac{1}{H} & \frac{-d}{H} & \frac{-d}{H} \\ \frac{bt+ct+ace+1}{H} & \frac{-(ce+1)}{H} & \frac{-1}{H} & \frac{c}{H} & \frac{-c}{H} & \frac{c}{H} & \frac{ce+1}{H} & \frac{ce+1}{H} \end{bmatrix}$$

$$A^{-1} \cdot B = M =$$

f	i	0	0
-af	-ai	0	j
$\frac{(acd+cd-b)f}{H}$	$\frac{(acd+cd-b)i+k-cl+cm}{H}$	$\frac{-cd}{H}$	$\frac{-cdj}{H}$
$\frac{-d(b+ace+ace+l)f}{H}$	$\frac{-d(b+ace+ace+l)i+dk+(ce+l)l+cdm}{H}$	$\frac{d(ce+l)}{H}$	$\frac{d(ce+l)j}{H}$
$\frac{-e(acd+cd-b)f}{H}$	$\frac{-e(acd+cd-b)i+tek+cel+(cd+l)m}{H}$	$\frac{cde}{H}$	$\frac{cdej}{H}$
$\frac{-(bd+beta+ad)f}{H}$	$\frac{-(bd+beta+ad)i+(d+te)k+l-m}{H}$	$\frac{d}{H}$	$\frac{dj}{H}$
$\frac{(b+ace+ace+l)f}{H}$	$\frac{(b+ace+ace+l)i-k+l-cm}{H}$	$\frac{-(ce+l)}{H}$	$\frac{-(ce+l)j}{H}$
g			
-ag			
$\frac{(acd+cd-b)g}{H}$	$\frac{(acd+cd-b)i+k-cl+cm}{H}$	$\frac{-cd}{H}$	$\frac{-cdj}{H}$
$\frac{-d(b+ace+ace+l)g}{H}$	$\frac{-d(b+ace+ace+l)i+dk+(ce+l)l+cdm}{H}$	$\frac{d(ce+l)}{H}$	$\frac{d(ce+l)j}{H}$
$\frac{-e(acd+cd-b)g}{H}$	$\frac{-e(acd+cd-b)i+tek+cel+(cd+l)m}{H}$	$\frac{cde}{H}$	$\frac{cdej}{H}$
$\frac{-(bd+beta+ad)g}{H}$	$\frac{-(bd+beta+ad)i+(d+te)k+l-m}{H}$	$\frac{d}{H}$	$\frac{dj}{H}$
$\frac{(b+ace+ace+l)g}{H}$	$\frac{(b+ace+ace+l)i-k+l-cm}{H}$	$\frac{-(ce+l)}{H}$	$\frac{-(ce+l)j}{H}$



## 第 2 章 社會主義國家와 非社會主義國家間的 國際分業 및 國際經濟協力の 最近 趨勢와 條件

Jenő Hátori

(헝가리 과학원 世界經濟研究所 研究員)

### 1. 序 論

世界 經濟 發展에 있어서 成長 패턴과 國際機構 體系의 廣範한 變化의 조짐은, 이미 1960年代 후반과 1970年代 초반에 분명해졌다.

10年전에 시작된 새로운 長期 發展 段階와 함께 20여년간 世界 經濟를 주도했던 成長 趨勢와 均衡 關係, 構造的 特徵들은 정지해 버렸다.

世界 經濟의 外部的 條件은 全世界的인 規模로 變化되었으며, 發展의 外生的 要素의 重要性이 실제로 모든 國民 經濟에서 커졌다.

變化하는 世界 經濟 環境은 또한 東西 經濟 關係에 있어서의 變化도 동시에 초래하였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70年代 초반은 東西 接觸의 全盛期(2개의 최강국 사이의 계속적이고 성공적인 協商, 독일 연방 공화국과 東유럽 諸國間的 條約들, 東西間 貿易 增大, 보다 밀접한 文化, 스포츠 및 기타 관계 등)였다. 그리고 그후 東西 關係의 進展은 보통 상태가 되었다가 최악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전성기 후에는 얼어붙은 關係가, 相互 主導 후엔 다방면의 방해가 놀라울만큼 빠른 속도로 연이어 일어났다. 물론 進歩의 經濟的 條件은 10년이나 15년 전, 심지어는 5, 6년 전과도 상당히 다르다. 量的 經濟 成長의 傳統的인 側面(成長率, 雇傭率, 産業 實績, 貿易 增加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質的이고 構造的인 變化가 보다 廣範한 重要性을 갖게 된 것처럼 보인다. “外部 要素”처럼, 東西貿易과 經濟的 協力에 영향을 주는 것이 틀림없는 최근의 變化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內需 및 海外 需要가 모두 거의 모든 무역 국가에서 보다 높은 質을 만족시키는 제품과 서어비스, 技術的인 革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原材料와 動力源, 半製品, 消費財 그리고 農產品에 對한 需要는 훨씬 變化를 적게 보이고 있다.

1980年代에는 主要 成長 要素와 대부분 企業의 成敗를 左右하는 要因은 合理化와 技術 進步이다. ; 물론 그 둘은 獨立的인 요소이다. 따라서 國民 經濟와 個別 企業의 發展 戰略은 둘다 단순한 產出物의 增加가 아니라 投入物(材料의 使用, 動力과 勞動, 기타 單位當 들어가는 모든 것)의 減少에 基礎한다. 또한 投資와 發展을 위한 活動은 훨씬 더 蓄積과 知識, 소위 危險 資本의 使用에 集中된다.

收入과 利益의 全世界的 再分配는 80年代를 통해 資本 所有主와 尖端 技術을 所有한 사람들 측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移動은 또한 價格趨勢와 貿易 條件의 變化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 결과 各國의 經濟 政策은 그 나라의 國民 經濟와 個別 企業들이 利潤을 많이 낼 수 있는 部門의 占有率을 늘리고, 그와 동시에 利潤이 없거나 負의 利潤을 내는 部門을 없애는 能力을 強化해야 한다는 問題에 直面하게 되었다. 보다 利潤이 많은 活動을 수행하는 企業이나 部門은 東유럽과 開發途上國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國民 經濟에서 보다 높은 水準의 意思 決定 可能性과 보다 큰 伸縮性을 가진 “조치의 여지(room for manoeuvring)”를 갖게 된다. 資本 및 技術의 主要 輸入國들은 資本과 技術의 흐름(첫째로는 流入)을 國內의으로나 海外 經濟 關係 모두에서 보다 쉽게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國家는 原價를 절감시킬 수 있는 機會가 많은 企業이나 部門에 優先權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國民 經濟와 企業의 소위 反應 時間(reaction time), 즉 意思 決定과 生産 및 配達,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國際的・國內的 適應의 速度는 輸出의 必然性, 國際 輸出 競爭, 情報와 원격지간 의사 소통 기술의 빠른 擴大로 인해 全世界的으로 보다 가치있는 것이 되었다. 다른 한편, 制度的, 經濟的으로 보다 嚴格하거나 經濟的 反應 時間이 보다 느린 國民 經濟는 이러한 分野에서의 성장에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地域 全體(西유럽과 東유럽 全體를 말한다)가 앞서 얘기한 世界 經濟에서의 適應 過程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지체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의 비교적 빠른 經濟成長이라고 하는 肯定的 조짐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은 技術進步나 構造的 適應, 利益 水準, 合理的인 經濟 政策을 위한 一般 環境의 改善 等に 있어서 非유럽 地域, 특히 태평양 연안의 競爭國이나 協力國보다 成果가 낮다.

보다 크기가 작은 동유럽의 CMEA 국가의 경우, 對外收支 緊張의 一時的 解消나 80年代 초반 일부 國家에서 보인 상대적인(실제로 매우 상대적인) 經濟成長의 擴大는 보다 높은 水準의 效率性이나 보다 빠른 構造的 適應, 或은 보다 빠른 技術 進步 때문이 아니라, 制限的인 經濟 政策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輸入 代替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世界 經濟에 있어서 小國들이 經濟的 位置의 中長期 改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生存 可能的 解決策은 아닌 것이다.

## II. 東西 經濟 關係의 最近 추세

대체로 1970年代, 특히 70年代 후반 이후의 世界 經濟 및 政治는 OECD 지역과 東유럽 CMEA 國家 사이의 經濟 關係 擴大와 成長에 중

지 않은 影響을 미쳤다. 비록 매년 變化하고 雙務的인 토대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추세로서, 70年代 초반 그렇게도 特徵적이었던 擴大는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70年代 후반에 CMEA로부터 OECD로의 輸出은 年 6%씩 增加한 반면, 輸入의 增加率은 7%였다.

1980년과 83년 사이에 輸出量의 成長은 사실상 全無하였으며 輸入은 2.2% 增加했다. 價値面에서 보면 81년과 84년 사이에 CMEA 國家의 輸入은 年平均 2.4%씩 떨어졌으며, 반면에 輸出은 3.4%씩 增加하였다. 1984년에 世界 全體 貿易은 向上되고 있었다; OECD 國家의 貿易 價値는 完全히 8% 增加하였으나, 반면 東西貿易은 전혀 增加를 보이지 않았다. 80년대 초에 두 지역간 貿易 擴大는 世界 平均에 비해 상당히 느리게 進行되었다. 70年代 초반에 東西 經濟 關係는 世界 貿易의 3%를 차지하고 있었다. 80年代 초반에는 그것이 떨어져서, 82년과 83년에는 각각 2.4%와 2.2%로 되었다. 물론 이러한 比率은 全體 世界 經濟의 發展에 큰 影響을 주는 것은 아니며(결코 그랬던 적은 없다), 世界 貿易에 조차 별 影響을 주지 못한다. 반면에 比率이 적다는 바로 그 이유때문에 外部(世界 經濟) 變化와 變動에 보다 민감하게 反應하는 것이다. 東西獨間 貿易을 포함하여 OECD 수출에서 CMEA 지역이 차지하는 比率은 77년과 84년 사이에 5%에서 4%로 떨어졌으며 반면 같은 期間 동안의 輸入에 있어서의 비중은 각각 3.6%와 3.5%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東西 貿易의 전반적인 重要性이 작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蘇聯이 西方 世界의 輸出에서 차지하고 있는 比率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며, 輸入에서의 比率은 增加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소위 獨逸 內 貿易이 있으므로 東獨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東유럽의 小國들이 西

유럽 市場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잃어 왔다. 77년과 84년 사이에 OECD 國家의 輸出에서 CMEA 國家가 차지하는 비율은 2.8%에서 1.8%로 떨어졌다.

최근에 CMEA 國家의 輸出 地位가 惡化되고 있는 것은 우선 예전에 西유럽의 保護主義者들이 취한 措置로 인해 農產物 輸出에 대한 制限 範圍가 擴大되고 있는 것과 工產品 輸出의 상당 부분이 西유럽 구조 政策이 “敏感한 輸入品(sensitive imports)”으로 취급하고 있는 範疇에 속하고 따라서 西유럽에서 실제적인 製品이나 部門의 “危機”라는 次元에서 妨害받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OECD 國家의 經濟·産業 및 輸入 政策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産業 및 기타 部門들의 危機 現象을 除去하거나 최소한 弱化시키는 것에 集中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形態의 部門 保護主義가 대부분의 OECD 國家에서는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유럽 共同體(EC) 수준에 있어서까지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70년대 중반 이래로 世界 貿易 協商과 機構에 있어서 사실상 심각한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되어 온 自由化 추세와는 다소 獨立的으로 일어났으며, 實際的인 國際 貿易 政策과도 獨立的인 것이다. 市場 障壁의 범위는 무척 넓다. ; 關稅, 非關稅 障壁, 行政 措置, 輸入 競爭 制限, 自發적인 雙務 輸出 制限 協定 등. 이러한 것들은 불행하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産業) 部門 및 下部 部門에 집중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發展하게 된 결과, 좋지 못한 價値 趨勢와 CMEA 輸出 水準의 減少 및 變動은 무엇보다도 構造的인 特徵과 CMEA 수출품인 동시에 OECD의 輸入品인 商品의 지속적인 예외적인 敏感性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好況과 景氣 後退라는

주기적인 上昇과 下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東西 貿易 關係에 있어서 놀라운 점은 그 製品 패턴이 産業化된 國家 사이의 貿易 構造에서 볼 수 있는 特徵을 갖는 것이 아니라 先·後進國 사이에서 볼 수 있는 特徵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CMEA 國家의 經濟 開發 水準에 비해, 그들의 對OECD 輸出에서 工產品이 차지하는 비율은 國際的인 比較를 할 때 조차도 낮으며, 앞으로 큰 變化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CMEA의 小國으로 부터 OECD 국가로의 工產品 輸出이 70년대 초반이후 54%에서 38%로 增加하긴 했지만, 東西貿易에 있어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蘇聯의 對OECD 輸出은 같은 기간 동안 26%에서 12%로 떨어졌다. 蘇聯의 對西方 輸出에 있어서 에너지源의 비율은 70年代 初에 年 43%였으나 70年代 後半에는 59%가 되었고, 최근(80年代 中반)에는 마침내 80%에 가까워졌다. 더욱이 CMEA 地域으로부터 西유럽으로 輸出되는 公産품의 1/4 가량은 冶金 製品이며, 化學 및 輕工業 製品의 比率는 각각 25% 정도이다. 이것은 CMEA 수출의 2/3 이상이 소위 材料 集約的(material intensive) 製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貿易은 주기적인 變動뿐 아니라, 世界 經濟에 있어서의 새로운 輸出國(대부분 개발도상국)의 競爭에도 민감한 것이다.

1970年代 초반부터 80年代 中반(1983年)까지 東유럽 國家들은 오직 纖維 및 衣類, 鐵鋼, 플라스틱, 造船, 肥料에 있어서만 市場 位置를 改善했으며 반면에 電氣 및 事業用 機械, 裝置와 工其의 輸出은 모두 같은 기간 동안 그 토대를 잃고 말았다.

OECD 지역으로 부터의 輸入에서 機械 및 設備가 차지하는 비율은

70年代 동안 33%에 달하였으며, 그후 81년과 83년 사이에 東유럽에서는 年平均 28%로, 그리고 蘇聯 輸入에 있어서는 年平均 27% 이하로 떨어졌다. (이들 제품들은 일반 經濟와 構造 및 技術의 進歩 뿐만 아니라 國際 競爭力에도 決定的인 影響을 미친다.) 蘇聯의 西유럽으로 부터의 輸入 중 化學 製品은 70년에 年 9% 정도였으나, CMEA의 小國에 있어서는 國內 産業能力的 大規模 擴大에도 불구하고 14%에서 18%까지 올라 갔다. 西方 世界로부터 原材料와 에너지源의 輸入은 70年代에 9% 수준에서 變化하지 않았으나, 반면에 재료 集約的 工產品의 輸入은 70年代에는 26%였고, 80년에서 82년 사이에는 年平均 21%였다. 이 比率은 둘 다 東유럽 經濟에 局限한 것이며, 따라서 蘇聯에 의한 輸入은 除外한 것이다. 1983년에 蘇聯의 食糧 輸入은 20%가 되었고(70年代 초에는 15%였다), 반면 東유럽 小國들의 食糧 輸入은 11%에서 15%로 올랐다.

歷史的, 地理的 觀點에서, 東西 經濟關係는, 일부는 유럽에서의 CMEA 국가의 地理的 狀況에 의해, 또 일부는 그들의 傳統적인, 歷史的으로 發展되어온 全유럽의 分業에의 참여(포섭; inclusion)에 의해 決定된다.

따라서 全體 東西 貿易에 있어서 西유럽이 차지하는 比率은 70년에는 90%에 가까웠으며, 1983년에도 여전히 84% 정도였다. 北아메리카(캐나다와 미국)의 비율은 6%에서 8%로 올랐으며(1984년에는 훨씬 더 높아 10%에 가까웠다.), 日本의 비율은 7.5% 정도를 유지했다. 따라서 西유럽의 優勢는 지난 15年間 유지되어 왔으며, 특히 東유럽의 輸入에 있어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輸出에 관한 한 최근의(83년과 84년) OECD 국가의 비율은 25% 정도였다.

유럽 共同體 會員國과의 貿易은, 그들 各國의 經濟 政策과, 各 國民 經濟를 管理하고 統制하는 메카니즘이라는 觀點에서 매우 중요하다. CMEA 국가의 輸入에서 유럽 共同體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年의 45%에서 1983년에는 65% 이상까지 올랐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共同體의 擴大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다른 要素와 理由도 있다.

80年代 초의 西方 世界와의 貿易에 있어서, 西유럽 經濟 統合의 支配的인 役割은 CMEA에 대해서는(그중에서도 특히 小國에 대해서는) 훨씬 더 현저하고 압도적인 것이다. 그리고 共同體 자체와 그 會員國에 대한 關係의 性質은 둘다 옛날보다 훨씬 더 모든 形態의 東西 經濟 關係에 있어서 決定的인 要素가 되었다.

西獨과 美國의 상대적인 貿易·經濟的 重要性은 두나라가 모두 世界 貿易 強國이기 때문에 70年代의 데탕트 기간동안 상당히 늘어났다. 보통 이들 나라의 大企業들은 “새로 생겨난” 東西間 協力 活動으로 인해 發生한 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能力과 보다 좋은 制度的, 組織的, 背景을 갖추고 있었으며, 技術 擴散 能力이나 CMEA 국가에서의 長期的인 投資 計劃에 참여할 수 있는 潛在力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全體 西歐 輸出에서 美國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록 美國 政府의 輸出 禁止 政策이 실시된 첫해인 1980년에는 다시 10%까지 떨어지긴 했으나, 1970年의 6%에서 79년에는 15%까지 늘어났다. 西獨의 비율은 70年, 79年, 80年에 각각 21%, 23%, 25%였다.

80年代에 美國의 비율은 떨어져서 83년에는 9%가 되었으며, 西獨은 22%가 된 반면, 日本의 東유럽 地域에 대한 輸出은 12%까지 뛰었다.

주도적인 OECD 供給者의 役割 擴大가 制限되게 되었는데, 이는 부분



적으로는 79年 이후 國際政治 霧衛氣가 惡化된 때문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國民 經濟의 어느 部門을 再構成하려는 目的으로, 과거에 西歐의 技術과 金融 參與에 대한 강한 需要를 創出했었던 CMEA 국가에서의 大規模 投資가 줄어들고 중지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CMEA 輸入의 40% 이상이 3個 貿易 強國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으며, 그것은 東西 經濟 關係의 政治的 敏感性을 增大시키는 要素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貿易 相對國을 選擇하는데 있어 政治的 要素를 고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하며, 보다 政治的으로 西歐에 중요한 地域에 있는 나라와의 東西 關係를 촉진시킬 目的으로 여러가지 努力과 政治的, 財政的, 知的, 심지어는 社會的 投入物까지도 調整하게 되기 때문이다.

東西 經濟 關係에 있어서 多國의 企業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또한 위에서 言及한 세 貿易 強國이 支配的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이들 多國籍 企業은 그들의 全世界 市場 戰略에 기초하여 주로 蘇聯과의 協力 關係를 樹立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는 蘇聯의 市場 規模가 크다는 것과 “蘇聯 市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얻어지는 國際的 名聲이 完全히 다른 社會的, 經濟的 體制와 背景을 가진 企業 사이의 協力이라는 것의 性質에서 생길 수 있는 “사소한” 問題를 보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大企業들의 지배적인 役割과 全世界的 戰略은 또한 대부분의 CMEA 국가와 큰 OECD 국가간의 產業 協力이, CMEA로부터의 工產品 輸出에 관한 한, 보다 집약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80年代 初에 CMEA 對西方 輸出의 20%는 西獨에 대한 것이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5%, 日本에 대해서는 4%였다. 동시에 작은 東유럽 國家로부터의 工產品 輸出 중 약 25%

는 西獨에 대한 것이었으며(獨逸內 貿易은 제외하고), 11%는 美國에 대한 것이었다. 개별 CMEA 국가의 對西獨 工產品 輸出 比率은 다음과 같다: 헝가리 40%, 폴란드 30%, 불가리아 27%, 루마니아 25%. 반면에 美國은 루마니아 對西方 輸出의 25%, 폴란드 對西方 輸出의 14%, 헝가리 對西方 輸出의 7%였다. 마찬가지로 西歐의 東歐圈으로부터의 輸入도 몇몇 큰 나라에의 集重과 더 높지는 않더라도 同等한 水準의 政治的 敏感性이라는 特徵을 가진다. ; 모든 CMEA 對西方 輸出에서 蘇聯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에 37%에 불과했으나, 1980年代 중반까지는 60% 까지 뛰어 올랐다. 결국 CMEA 國家들의 輸入은 1980年代 初까지 對西方 輸出보다는 확실히 빠르게 擴大되었다. 그러나 점점 增加하는 負債에 의해 야기된 不均衡의 緊張 增加는 대부분의 東유럽 國家로 하여금 심한 輸入 規制를 導入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國際收支 狀況에 대한 輸入 規制의 效果는 1982年 이후 어떤 경우에는 國際적으로 유례가 없을만큼 改善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東西間 貿易 收支는 美貨로 310億의 CMEA 赤字를 超來하였으나, 1980년과 81년에는 27億弗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黑子로의 轉換은 1982년에 이루어졌다. 東유럽 國家들은 10億弗의 貿易 黑子を 본 것이다. 2년 동안 黑子は 23億弗이 되었으며, 마침내 84년에는 80億弗에 육박하게 되었다.

물론 貿易도 포함하여 最近 東西 關係의 趨勢는 輸出 및 輸入 構造들 모두에 관한 國家 및 部門 사이의 特徵的인 分化이며, 東西 兩側이 모두 相對國의 經濟的, 政治的 利益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西方 世界에서는 貿易 強國과 보다 작고 中立的인 國家 사이에서 國家 利益과 社會·經濟的 準備의 “措置의 餘地”라는 틈이 확대되었다. 다른 측면에선,

蘇聯의 貿易 및 金融上的 位置가 다른 작은 東유럽의 國民 經濟와는 점점 더 달라지고 있다. 國際貿易 條件에 있어서 最近의 趨勢는 蘇聯의 對外 貿易 위치에 極히 좋은 影響을 미쳤다. ; 75년과 83년 사이에 蘇聯의 貿易 條件은 東西 經濟 關係와 貿易에 관한 한 47%씩이나 좋아졌다. 蘇聯이 대부분의 西方 國家에게 몹시 매력적인 貿易 相對國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분적으로는 蘇聯의 엄청난 購買力 때문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蘇聯 輸出의 戰略的 重要性 때문이다. 또한 蘇聯은 적어도 短期的으로는 어떤 種類의 外部的인 經濟 壓力에 대해서도 쉽게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 그러나 東西 貿易과 經濟的, 社會的, 政治的 主導權의 근간이 되는 작은 東유럽 國家들의 경우 狀況은 상당히 다르게 된다; 그들의 相對的 位置는 1970年代 中반 이후 계속적으로 침식되고 惡化되었는데, 이것은 좋지 못하고 持續的인 價格 變動, 점점 늘어나는 負債, 그리고 外部 經濟 與件에 피해 받기 쉽다는 점과 輸出 成長이 느리다는 것에 그 原因이 있다.

東西 金融 協力の 趨勢는 80年代 初 이후 劇的으로 變化하여 왔으며, 전반적인 物量도 상당히 위축되었다. 70年代 말에 西歐 銀行으로부터 東유럽 CMEA 국가로의 年間 純金融 資源의 흐름은 美貨 56億弗에 이르렀으며, 79년부터 81년 사이의 기간 동안 年 流入額은 여전히 30億弗에 가까웠다. 이러한 外部 資金은 부분적으로는 東유럽 國家들이 輸出을 超過하는 輸入에의 資金 調達에 사용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負債 비율을 높이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82년에는 國際 金融市場에 있어서의 累積된 緊張과 몇몇 CMEA 국가들에 있어서의 外換 問題의 惡化, 그리고 몇개 西方 國家와 金融 機關의 貸出 禁止 努力에 힘입어, CMEA 국가가 얻

은 貸付는 더욱 위축되었으며 겨우 7億弗에 불과하였다. 한편 1983年과 84年의 貸付額은 각각 10億弗 가량이었다. CMEA 國家에서의 銀行에 있는 상당량의 西歐 計定도 또한 취소되었다. 따라서 東歐 金融 이전의 틀에 있어서, 海外 資金을 이용할 수는 없었으며, 東유럽 國家로부터의 外換 流出은 1982年에는 美貨로 66億弗 정도였으며, 1983年에는 42億弗 정도였다. 한편 1984年 1月부터 6月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30億弗 가량이었다. 이러한 變化는 또한 80年代 初까지 CMEA 國家들이 한편으로는 貸付 資本이라는 形態로 상당량의 海外 資源을 얻어쓰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輸出入間의 物量과 成長의 큰 차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10年間の 東西 關係가 마침내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東西 經濟 關係에 있어서의 현저한 위축은 兩陣營 모두에 있어서의 經濟 成長의 鈍化, 보다 일반적으로는 經濟的 成果의 弱化和 관련이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國內總生産(GDP)의 年間 成長率은 70年代를 통해 대부분의 産業化된 나라에서 3.3%였으나, 80年에서 83年 사이에는 실제적 成長은 전혀 없었으며, 83年에서 84年 사이에 1%의 成長이 있었을 뿐이다. 東유럽의 小國에서 소위 純材料製品(Net Material Product)은 70年代를 통해 每年 5.9%씩 증가하였으며, (폴란드 生産量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80年과 83年 사이에는 정체되었다. 蘇聯의 成長率도 1980年(5%)과 83年(3%) 사이에 줄어들었다. 82年 후반에 美國에서 시작된 經濟 回復이 어째서 東西 經濟 關係에 보다 강한 肯定的 影響을 미치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은 成長率이나 景氣 週期 變化 理論으로는 說明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 1950年代 以後 世界 經濟를 지배하였던 거의 방해 받지 않는 經濟成長이 1970年代 중반에 이르러

멈춰 버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이 됐다. 지난 10年間の 經濟 變化는 새로운 技術的, 科學的, 產業的인 進步의 시대에의 全世界的 適應 過程이 시작되는 첫 段階로서 취급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特徵 중의 하나는 世界 經濟나 經濟 發展의 類型과 性質에 있어서의 그러한 變化가 적어도 고도로 産業化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成長率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일 것이다. 東西 經濟 協力은 또한 이러한 새로운 世界 經濟 環境에 適應해야만 하는 것이다.

### Ⅲ. 헝가리와 유럽 공동체 (EC)의 連繫

지난 10年間の 世界 經濟의 變化는 헝가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헝가리의 國民 經濟가 外國 貿易과 海外 經濟에 대해 보다 開放的이고 따라서 보다 민감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유럽 共同體를 포함하여 헝가리의 모든 實質的인 貿易 相對國이 變化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적인 石油 危機와 國際 貿易 條件의 變化, 金融的 制約, 構造的인 병목 현상, 그리고 國際 競爭의 深化와 새로운 技術의 挑戰은 유럽 大陸의 兩大 統合體에 影響을 주었다. 물론, 두 統合體의 個別 會員國은 이러한 變化의 影響을 서로 다르게 받았다. 石油와 다른 動力源의 利用 可能性이 서로 다르고, 伸縮性의 水準도 서로 다르며, 金融 支援의 與否도, 構造的 適應過程의 速度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東西유럽의 各 나라는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한 差異는 나라 規模의 差異와 經濟的 潛在力의 差異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유럽 共同體는 國際的인 經濟 變化의 影響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자체가 變化의 原因이기도 했으며, 자신의 利益에 맞추어 世界 貿易의 規則을 정하고, 다시 정할 수

수 있는 엄청난 交渉力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헝가리는 外部의(그리고 대부분 좋지 못한)經濟 條件에 影響을 주는 일 없이, 다소 일방적이고 일방 통행적인 適應 過程을 따라야만 했다. 헝가리와 유럽 共同體가 모두 80年代 初以後 새로운 挑戰에 直面할 수 밖에 없었다.:世界 經濟의 主要 成長 中心이 차츰 南東아시아와 太平洋 地域으로 移動하였으며, 여러 尖端 技術 分野에서는 美國과 日本이 先導 役割을 하게 되었고, 많은 수의 西 유럽 産業이 새로 뛰어난 海外 競爭國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10여년 전에 樹立되어 일정 기간 동안 統合 過程에 肯定的인 役割을 했던 經濟的 考案物들이 곧 새로운 緊張의 源泉이자 出發點이 되었다. 한편, 몇몇 統合 메카니즘의 內生的 發展은 어떤 非統合的 趨勢를 촉진시키지 않고는 克服되기 어려운 모순들을 만들어 내었다.

헝가리는 1970年代 末과 80年代 初에 그 나라의 國民 經濟에 중요한 變化를 導入하였다. 우선 對外 經濟 - 金融 均衡의 回復이 第1의 우선 순위를 갖게 되었다. 海外 資源의 調達이 전혀 불가능하였으므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헝가리의 經濟 構造로 인해, 또 부분적으로는 貿易 條件의 심각한 惡化로 인해 國內 資源의 動員도 힘들었으므로 오직 몇년 전에 시작된 經濟 改革의 새로운 단계만이 生存할 수 있는 解決策을 낼 수 있었다. 물론, 헝가리 經濟의 對西方 環境이 좋지않게 變했을 뿐 아니라 CMEA와 관계된 環境까지도(原材料와 에너지 供給의 制約, 에너지 價値의 上昇, 東歐圈에 대해서조차 輸出 機會가 줄어든 것 등) 나쁘게 變化했다.

최근에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헝가리 全輸入의 약 20%가 여전히 유럽 共同體 會員國으로부터의 輸入이다. 헝가리의 비율은 다른 어

東유럽 國家의 比率 ( 폴란드 ; 17 % , 蘇聯 ; 15 % , 루마니아 ; 14 % , 불가리아 ; 10 % , 체코슬로바키아 ; 9 % ) 보다도 높은 것이다. 한편 , 헝가리의 對유럽 共同體 輸出도 줄어드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 1970 年代 中반에 헝가리는 여전히 全輸出의 약 20 % 를 유럽 共同體에 했으나 , 1984 年에는 16 % 에 불과했으며 , 이것은 폴란드 ( 22 % ) , 루마니아 ( 22 % ) , 또는 蘇聯 ( 20 % ) 보다도 적은 비율이다. 불가리아를 제외하고 유럽 共同體가 輸出 超過를 보이고 있는 것은 헝가리 뿐이다.

헝가리가 다른 CMEA 國家보다 유럽 共同體와의 貿易에 보다 많이 依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對外 金融 均衡을 回復하기 위해 決定的인 措置가 취해졌다고 하는 최근의 경험은 이러한 추세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높은 年間 海外 易易 초과 必要 條件에는 EC와의 貿易에서의 赤字가 수반되었다. 헝가리의 對EC 輸出의 比率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헝가리 經濟의 구조적 병목 현상에 起因한다. 헝가리 輸出의 主要 部分이 유럽 共同體의 制限 措置에 直面해야만 했으며 , 다른 CMEA 國家보다 더 많은 製品들이 심각한 國際 競爭에 부딪히게 되었다. 共同 農業 政策 ( Common Agricultural Policy ) 은 특히 헝가리 輸出에 피해를 주었는데 ,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헝가리는 상당한 農產品 貿易 黑子를 보고 있는 유일한 東유럽 國家였기 때문이다. 헝가리의 對유럽 共同體 輸出 가운데 약 30 % 가 “민감한” 工產品 ( 有機石油化學製品 , 纖維類 , 鐵鋼 , 衣類 ) 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 이보다 높은 비율을 가진 나라는 체코슬로바키아 ( 31 % ) 뿐이며 , 다른 CMEA 國家에서는 훨씬 낮다. ( 루마니아 ; 25 % , 불가리아 ; 24 % , 폴란드 ; 14 % , 소련은 1 % 이하이다 ) 農產品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 對EC 輸出 構造에 관한 한 , 헝가리와 다른 東유럽 國家 사이의 差異는

놀라운 것이다. : 헝가리 對 EC 輸出의 58%가 “민감한” 製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불가리아의 이 비율은 40%이며, 체코슬로바키아는 39%, 루마니아는 32%, 폴란드는 29%이고, 蘇聯은 단지 1%에 불과하다.

經濟 政策과 유럽 共同體의 統合 메카니즘 發展에 있어서의 여러 분야는 헝가리 장래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현재의 共同 農業 政策과 지금까지 그 일시적 해결책으로서 고안된 방법은 일견해서 헝가리의 輸出業者들에게 큰 希望을 주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의 經驗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헝가리의 對유럽 共同體 農產品, 食糧 輸出은 危態로운 지경에 처해 있으며, 그뿐 아니라 유럽 共同體가 보조금을 써가면서 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시작한 다른 지역(非유럽 共同體 西유럽, 北아프리카, 中東, 그리고 蘇聯을 주로하는 CMEA 자체까지)에 대한 헝가리의 수출 가능성 또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헝가리의 수출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민감한” 부문에 있어서의 EC 행동에 관한 유럽 共同體의 産業 政策이다. 이러한 조치는 변경될 수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EC가 그 수와 규모를 줄이리라고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 헝가리의 장래 수출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세번째 要素는 EC의 “地中海” 地域 擴大일 것이다. : 헝가리 무역 위치에 대한 그 즉각적인 影響은 아직까지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몇몇 분야에서는 헝가리 經濟에 대해 추가적인 成長 要素로서 기대될 수 있는 유럽 共同體의 행동이 있다. : 몇가지가 있지만, 새로운 技術을 開發하려는 시도라든가, 유럽 通貨 體系(European Monetary System)의 미래와 무엇보다도 ECU의 役割, 유럽 投資銀行(European Investment Bank)의 EC 이익에 맞는 非會員國에서의 下部 構造 計劃에 대한 資本 調達 活



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헝가리의 현재 狀況은 높은 金融 安全度와 새로운 改革 要素가 점점 더 많은 役割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헝가리의 經濟 政策은 최근에 世界 經濟에 있어서 成長의 地理的 移動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非유럽 地域에서의 새로운 수출 가능성도 이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작은 나라이며, 바다와도 이어져 있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유럽 중심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헝가리의 기본적인 貿易 相對國은 여전히 유럽에 위치한 나라이게 될 것이다.

#### IV. 結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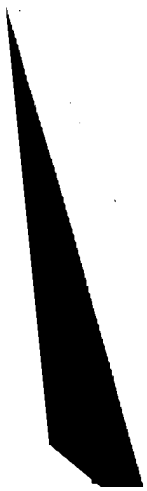
協力の 強度와 質이 모두 惡化되고, 처음에는 食糧 製品에 그 다음에는 대부 資本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技術의 흐름에 집중되었던 經濟的 戰爭이 일어나는 등의 東西 經濟 關係의 最近 趨勢로 인해 많은 東西 問題 專門家들은 東西 關係의 장래에 대해 이러한 關係의 政治的 敏感性을 중시하는 주장과, 그에 기초하여 孤立을 提案하는 見解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東西 經濟 關係의 政治的 敏感性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1980年代 初의 政治的 霧圍氣의 惡化를 수반하는 實際的인 經濟的 事件들은 놀랄만한 政治的, 經濟的 教訓을 주었다. 즉 強大國 사이의 對決이 強化되었다는 것이 經濟問題에 影響을 미친 것은 極히 制限된 範圍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東西 經濟 關係에 있어서의 最近의 變化와 그 未來를 살펴보면, 70年代의 友好的인 協力 趨勢의 機會와 “歷史的인 現在”나 가까운 未來의 어려움을 政治的인 理由나 景氣 週氣로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政治狀況의 惡化가 초래하는 代價는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는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70年代의 量的 成長은 불행하게도 産業과 技術, 그리고 金融의 協力を 포함하는 보다 집약적인 分業의 質的 段階로의 變化를 초래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와 같은 形態의 協력이 政治的인 相互 信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現代의 形態의 經濟 協力の 強化는 둘 사이의 關係의 寬容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政治的 領域으로부터의 肯定的 支援 또한 필요로 하기 때문에, 政治的 相互 信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찌서 東西 經濟 關係의 미래가 실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東西 關係에 있어서 확장의 새로운 단계는 政治的 領域으로부터의 새로운 노력 뿐 아니라, 특히 經濟的 領域으로부터의 노력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의 協력에의 障壁은 世界 經濟 成長과 東西 關係의 條件 體系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까지 持續的인 變化에 의해 야기된 構造的인 性質이다. 따라서 새로운 接觸을 樹立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속하고 포괄적인 상호 적응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相互 適應의 加速化와 調和는 東西 經濟 協力を 活性化하고 合理化한다는 觀點에서 뿐만 아니라, 國際 政治 雰圍氣를 개선하고 世界 經濟에서 유럽이 갖는 重要性의 喪失을 역전시킨다는 觀點에서도 歷史的 重要性을 갖는 과업이다. 東西 經濟 關係에 있어서 좋지 못한 趨勢의 構造的 性質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고 世界 經濟의 最近 變化에 適應하는 開發 戰略을 樹立하고 실시하는 것은 CMEA 국가의 輸出 能力과 世界 經濟에서의 相對的 位置에 肯定的인 影響을 주게 될 것이며, 따라서 東西 協力の 장래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성공은 OECD 국가 經濟政策의 보다

건설적인 “이해 ( receptivity ) ”를 가정하고 또한 필요로 하고 있으며,  
商品, 서어비스, 技術, 그리고 金融 資源의 흐름을 보다 강하게 촉진시켜야  
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건설적인 “이해 ( receptivity ) ”를 가정하고 또한 필요로 하고 있으며, 商品, 서어비스, 技術, 그리고 金融 資源의 흐름을 보다 강하게 촉진시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 著 者 略 歷 ( 本 文 順 )

Jens Hacker

Univ, of Munich (1963, 法學碩士), Univ, of Köln (1973, 法學博士 ),

1981年 Univ, of Köln에서 教授資格 取得

現 : Univ, of Regensburg 教授

著書 및 論文 : “Reunification and Foreign Policy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North Korea in Comparison”(1984)의 多數

金 學 俊

서울大 政治科 (1965, B.A. ; 1969, M.A), Kent State Univ. (1970,

M.A), Univ of Pittsburgh (1972, Ph. D. )

現 : 民正黨 全國區議員

著書 및 論文 : 「韓國政治論」( 서울 : 한길사, 1983 )의 多數

金 達 中

延世大 政外科 (1961, B.A.), 國立臺灣政治大 (1965, M.L), Fletcher

School of Law & Diplomacy, Tufts Univ. (1965-72, M.A., M.A.L.D.,

Ph. D. )

現 : 延世大 政外科 教授

著書 및 論文 : “Korea’s Quest for Reform and Diplomacy in the 1880’s : With Special Reference to Chinese Intervention and Controls” (1972)의 多數

柳 錫 烈

서울대 社會學科(1962, B.A.), 高大 政治科(1966, M.A.), Univ. of  
Missouri - Columbia (1970, M.A. ; 1974, Ph. D.)

現：外交安保研究院 教授

著書 및 論文：“Political Succession in North Korea”(1982)의 多數

李 宗 夏

延世大 經濟科(1953, B.A. ; 1955, M.A.), Washington Univ.  
(1963, D.B.A.)

現；延世大 經營科 教授

著書 및 論文：“On the Possible Measures to Implement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Transactions” (1981)의 多數

朴 振 根

延世大 經濟科(1964, B.A. ; 1966, M.A.), Univ.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1972, Ph. D.)

現：延世大 經濟科 教授

著書 및 論文：「國際經濟學」(서울：博英社, 1975)의 多數



安 秉 俊

延世大 政外科(1962, B.A.), International Christian Univ. (1964, M.A.), Univ. of Hawaii(1966, M.A.), Columbia Univ. (1972, Ph.D.)

現 : 延世大 政外科 教授

著書 및 論文 : Chinese Politics and the Cultural Revolution ;

Dynamics of Policy Process(Seattle and London:Univ of Washington Press, 1976)의 多數

Werner Gumpel

Univ of Nuernberg (1960, 經濟學碩士), Univ. of Hamburg (1963, 經濟學博士), 1970年 Univ. of Munich 教授資格 取得

現 : Univ. of Munich 教授

著書 및 論文 : Socialist Economic System(1983)의 多數

Bruno Schönfelder

Univ. of Munich(1981, 經濟學碩士 ; 1984, 經濟學博士)

現 : 延世大 東南유럽經濟 및 社會研究所 研究 및 授業助教

著書 및 論文 : "Environmental Protection in Socialist Planned Economics"(1985)의 多數

Friedrich-Christian Schroeder

Univ. of Munich(1959, 經濟學碩士), Univ. of Munich(1964, 經濟學博士),

1968年 Univ. of Munich 에서 教授資格 取得

現 : Univ. of Regensburg 教授

著書 및 論文 :

Peter Knirsch

Free Univ. of Berlin ( 經濟學碩士 ; 1959, 經濟學博士 ), 1969年

Free Univ. of Berlin 에서 教授資格 取得

現 : Free Univ. of Berlin 教授

著書 및 論文 : “Structures and Forms of Central Economic Planning”

(1969)의 多數

Gert Leptin

Univ. of Hamburg(1954, 經濟學碩士), Free Univ. of Berlin(1961, 經濟學

博士), 1970年 Free Univ. of Berlin 에서 教授資格 取得

現 : Free Univ. of Berlin 教授

著書 및 論文 :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1985) 의 多數

尹 錫 範

延世大 經濟科 (1959, B.A. ; 1964, M.A.), Univ. of Pennsylvania  
(1971, Ph.D.)

現 : 延世大 經濟科 教授

著書 및 論文 : 「計量經濟學」( 서울 : 法文社, 1978)의 多數

Jenő Hámori

Budapest Univ. (1974, 經濟學碩士 ; 1977, 經濟學博士)

現 : 헝가리 科學院 國際經濟研究所 研究員

著書 및 論文 : “The Problems of Structural Adjustment of National  
Economics to the World Economy”의 多數

